

국립국어원 2023-01-33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963-01

2023년 국어 어원사전 편찬

연구책임자

장 경 준



국립국어원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2023년 국어 어원사전 편찬’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 기간: 2023년 3월 ~ 2023년 11월

2023년 11월 30일

연구책임자: 장경준(고려대학교)

연구 기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장경준(고려대학교)

공동연구원 황선엽, 조남호, 도원영, 김숙정, 김한별, 김현주,
정은영, 정한데로, 허인영

(보조)연구원 최준호, 신현규, 오민석, 강서현, 진윤정, 성우철, 정은진,
곽영영, 이영매, 배은혜, 김예니, 이해영, 박시온, 정성희,
강은진, 강현주, 박성희, 김준수, 정윤희, 이찬식, 김형진,
이광숙, 신용남, 이강혁, 배진솔, 박도리, 하정훈, 이흥구,
장린, 장정민, 강선지, 오필애, 남향림, 이송일, 남유진,
최선지, 한다영, 장준희

<국문 요약>

2023년 국어 어원사전 편찬

본 사업의 목적은 우리말에 대한 역사적 정보와 어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국민을 위해 신뢰도 높은 어원사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의 어원 정보와 역사 정보는 기술이 소략한 편이며, 기존에 출간된 어원사전은 표제어 수가 적고 웹 검색에 용이하지 않아 국민의 관심에 부응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본 연구팀은 어원사전 집필감수팀, 말뭉치팀, 자료구축팀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정보성과 신뢰성을 갖춘 어원사전을 편찬하고자 하였다. 어원사전 집필을 위하여 국어사 학계의 기존 연구 성과와 사전 편찬 경험을 활용하여 국어 어원사전의 표제어 목록과 집필 지침을 마련하였다. 기존 어원사전, 기구축 어휘역사 정보 등을 토대로 4,000 항목의 어원사전 표제어를 선정하였고, 상세 정보를 집필한 뒤 감수를 거쳤다. 상세 정보에는 표제어, 품사, 뜻풀이, 최초 출현형 및 기원적 형태 분석, 표기·형태·의미 변화 과정, 관련 설화, 유입 경로, 민간어원 정보 등의 상세한 설명이 기술되었다. 또한, 한글 창제 이후부터 20세기까지 세기별 출현 용례를 제시하였다.

한편 어원사전 편찬을 위한 기반 자료로서 국어 역사 말뭉치를 정비하고 신규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기존의 국어 역사 말뭉치 중에서 아직 정비되지 않은 300만 어절을 정비하여 활용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였으며, 70만 어절 이상을 새로 구축하였다. 대규모의 인원이 일관된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효율적으로 결과물을 작성, 수합하고 교정하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KOHICO'를 활용하였다.

어원사전 집필을 위한 기반 자료로서, 어원사전과 어원 관련 논문 및 단행본을 망라한 참조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DB 구조, 미시 항목별 수집 정보의 유형과 기록 방식을 지침으로 작성하였으며, 공통의 지침을 바탕으로 '어원사전 표제어 목록 DB'와 '어원 관련 논저 DB'를 구축하였다.

충실하게 마련된 기반과 체계화된 지침에 따라 집필된 어원사전은 우리말 어원 및 역사 정보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것이다. 나아가 우리의 언어문화에 대한 연원을 이해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주요어: 국어 어원사전, 어원, 어휘사, 국어 역사 말뭉치, 참조용 데이터베이스

<Abstract>

Compilation of Korean Etymology Dictionaries - Year 2023

The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provide a reliable etymological dictionary for the citizens who have a keen interest in the historical information and origins of the Korean language. The etymological and historical information in existing dictionaries such as the "Standard Korean Dictionary" and "Urimalsaem" is somewhat limited, and previously published etymological dictionaries have shortcomings in terms of the number of entries and accessibility for web searches, falling short of meeting the public's interest.

To address this, our research team divided roles into an etymological dictionary compilation team, a corpus team, and a data construction team to compile an etymological dictionary with informative and trustworthy content. For the compilation of the etymological dictionary, we utilized the achievements of existing research in Korean linguistics and the experience of dictionary compilation, formulating a list of entries and compilation guidelines. Based on existing etymological dictionaries and constructed vocabulary history information, we selected 4,000 entry words for the etymological dictionary and conducted a thorough review after compiling detailed information. The detailed information includes explanations such as entry word, part of speech, meaning description, the original form and historical form, changes in spelling, form, and meaning, related anecdotes, influx pathway, and information on folk etymology. Additionally, examples of usage from the creation of Hangeul to the 20th century are provided.

As a foundational resource for the etymological dictionary, we organized and built a corpus of Korean historical language, refining 3 million words from existing unprocessed historical language corpora into a usable format and constructing over 700,000 new words. To efficiently produce, gather, and correct results and facilitate communication among a large number of contributors, we utilized the 'KOHICO' platform online.

For the foundational material for etymological dictionary compilation, we established a reference database incorporating etymology dictionaries, related articles, and books. We created guidelines for database structure, types of information collected for microscopic items, and descriptive methods. Based on common guidelines, we constructed the 'Etymological Dictionary Entry List Database' and the 'Etymology-related Literature Database'.

The etymological dictionary compiled in accordance with well-established foundations and systematic guidelines is expected to alleviate the curiosity of the public regarding Korean language etymology and history. Furthermore, it is anticipated to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origins of our language culture and establishing cultural identity.

Keywords: Korean Etymology Dictionary, Etymology, Vocabulary History, Corpus of Korean Historical Language, Reference Database

차 례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의 목적	1
1.2. 사업의 내용	2
1.3. 참여자 현황 및 역할 분담	3
1.4. 작업 추진 경과	7

제2장 집필·감수팀

2.1. 집필·감수팀의 작업 목표	11
2.2. 어원사전 집필 계획	12
2.3. 어원사전 집필진 및 감수진 현황	13
2.4. 집필 항목 선정	14
2.5. 집필 및 감수 절차	16
2.6. 집필 지침	18

제3장 말뭉치팀

3.1. 미정비 역사자료 말뭉치의 목록 확정	61
3.2. 개별 구축 역사 말뭉치의 수집	79
3.3. 말뭉치팀 작업 지침	83
3.4. 말뭉치의 정비와 플랫폼 운영	95

제4장 자료구축팀

4.1. 자료 구축 작업 개요	109
4.2. 어원사전 표제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113
4.3. 어원 논저 데이터베이스 구축	120
4.4. 저작권 협의와 검색기 개발	130

제5장 기대 효과

5.1. 집필·감수팀	137
5.2. 말뭉치팀	138
5.3. 자료구축팀	141

부록

[부록 1] 집필감수팀 - 집필 완료 항목 (4,000개)	145
[부록 2] 집필감수팀 - 집필 대상 표제어 (22,000개)	155
[부록 3] 말뭉치팀 - 국어원에서 제공한 미정비 말뭉치 초기 목록 검토 결과	200
[부록 4] 말뭉치팀 - 2023년 국어 역사자료 말뭉치 정비 작업 지침	205
[부록 5] 자료구축팀 - 사전 표제어 DB 구축 지침/어원 논저 DB 지침	212
[부록 6] 자료구축팀 - 자료 검색기 사용법	220
[부록 7] 자료구축팀 - 한국어 역사 자료 말뭉치 검색기 사용법	226

표 차례

<표 1> 국어원에서 제공한 미정비 말뭉치 초기 목록 검토 결과(일부)	63
<표 2> 기정비 말뭉치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문헌 목록	63
<표 3> 연대 미상의 문헌 목록	65
<표 4> 말뭉치 입력이 불완전한 문헌 목록	65
<표 5> 영인 상태가 좋지 않은 문헌 목록	67
<표 6> 비교적 후대의 문헌 목록	68
<표 7> 미정비 말뭉치 목록에 추가한 문헌 목록	69
<표 8> 미정비 말뭉치 확정 목록	72
<표 9> 2023년에 정비를 완결하지 못한 문헌	75
<표 10> 2023년에 정비하지 않은 가치 등급 ‘중’인 문헌	76
<표 11> 2023년에 정비하지 않은 영인 상태가 좋지 않은 문헌	78
<표 12> 말뭉치 가공 방식 - 분석 항목	83
<표 13> sent type의 분류표지	83
<표 14> title 층위 구분에 따른 sent type 입력	85
<표 15> KOHICO에서 제공하는 기존의 2b 통합 말뭉치와 집필감수용 말뭉치의 비교 ..	97
<표 16> 표제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 사전 목록 및 수집 항목 수	114
<표 17> 안옥규(1989)와 <우리말샘> 표제어형 대조	115
<표 18> 기출간 어원사전 표제어 대조 데이터베이스 일부	116
<표 19> 어원사전 편찬을 위한 참조 데이터베이스 어원 항목 일부	117
<표 20> 어원사전 편찬을 위한 참조 데이터베이스 일부	118
<표 21> 어원사전 표제어 목록 DB 예	119
<표 22> 기출간 어원사전 표제어 대조 데이터베이스 일부	123
<표 23> 어원 관련 논저 데이터베이스 일부(1)	124
<표 24> 어원 관련 논저 데이터베이스 일부(2)	125
<표 25> 어원 논저 DB 일부	126
<표 26> 어원 단행본 DB 일부	128

그림 차례

<그림 1> 집필 및 감수 절차	16
<그림 2> 우리말샘 분과 게시판 운영 현황	17
<그림 3> 경판본 『강태공전』 영인본	67
<그림 4> 우리말샘의 ‘ㄱ’에 대한 예문 정보	96
<그림 5> 설문조사: 말뭉치 관련 작업의 경험 유무	102
<그림 6> KOHICO의 오류 메시지	106
<그림 7> 학술지 인용 색인 검색 및 피인용 횟수 검색 사례	121



제 1 장

사업 개요



1.1. 사업의 목적

이 사업은 우리말에 대한 역사적 정보와 어원에 관심이 많은 국민을 위해 신뢰도 높은 어원사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어 어원사전 편찬 작업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말 어휘에 대한 역사적 정보, 어원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립국어원이 제공하는 규범 사전인 <표준국어대사전>과 국민 참여형 지식 사전인 <우리말샘>은 세계 최고 수준의 모어에 대한 언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우리말의 어원 정보와 역사 정보는 소략하게 기술되어 있어 국민의 궁금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출판계에서는 출간한 어원사전은 표제어 수가 적고 종이사전이어서 웹 검색에 익숙한 이용자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본 사업을 통해 정보성과 신뢰성을 갖춘 어원사전을 편찬하고자 하였다. 국어사학계의 어원 연구 성과와 사전 편찬의 경험을 활용하여 편찬 지침을 마련하고, 다양한 시기와 분야에서 표제어를 선정하며, 어원과 어휘 역사를 충실히 기술할 수 있는 정보 항목을 확정하고 학계 전문가가 집필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향후 어원사전 편찬 사업의 기초로 삼고자 하였다.

어원사전을 편찬하려면 우리말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온 자료를 한데 모아 검색할 수 있도록 가공된 국어사 말뭉치가 충실히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우리말의 형태적, 의미적 변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21세기 세종 계획’과 ‘역사자료 종합 정비’ 사업을 통해 대규모 국어사 말뭉치를 구축하고 정비하였으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또한 효율적인 어원사전 편찬을 위해 기존 사전과 학술 연구 성과를 참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요구되었다.

충실하게 마련된 토대 위에서 체계화된 지침에 따라 집필된 어원사전을 통하여 국민이 만족할 만한 어휘역사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우리의 언어문화에 대한 연원을 이해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본 사업이 기획되었다.

1.2. 사업의 내용

1) 어원사전 집필

본 사업에서는 국어 어원사전의 표제어 목록과 집필 지침을 마련하고, 4,000항목을 집필하였다. 기존 어원사전, 기구축 어휘역사 정보 등을 토대로 어원사전 표제어를 선정(4,000항목)하고, 어원사전 집필 항목에 따른 상세 정보를 집필(표제어, 품사, 뜻풀이, 최초 출현형 및 기원적 형태 분석, 표기·형태·의미 변화 과정, 관련 설화, 유입 경로, 민간어원 정보 등 상세 설명)하였다. 한글 창제 이후부터 20세기까지 세기별 출현 용례를 구축하였다.

2) 어원사전 편찬을 위한 기반 자료로 말뭉치 정비

기구축한 국어사 문헌 자료 말뭉치에서 아직 정비되지 않은 300만 어절을 정비하고, 70만 어절 이상을 신규로 추가 구축하였다.

3) 어원사전 편찬을 위한 기반 자료로 어원 관련 DB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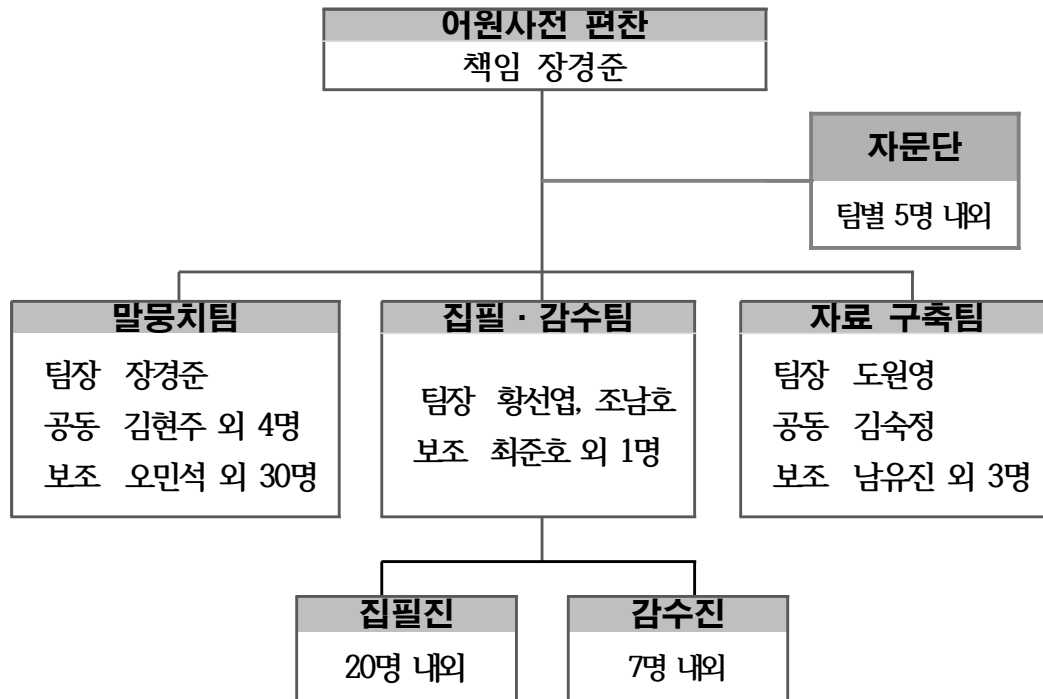
어원사전 집필을 위한 기반 자료로서, 어원을 다룬 사전, 논문과 단행본 등을 참조용 데이터베이스로 만든다. 기존 어원사전 10종, 어원 관련 학술논문, 단행본 등을 망라하였다.

4) 전문가 자문 회의 개최

어원사전을 집필하고 기반 자료를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론적, 실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학술발표회(1회), 국립국어원과의 공동 워크숍(2회), 어원사전 집필·감수, 국어사 말뭉치 구축, 선행 연구 DB 구축의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3회)를 개최*하였다.

* 세부 일정 ‘1.4. 작업 추진 경과’ 참조

1.3. 참여자 현황 및 역할 분담



1) 집필·감수팀

어원 항목을 직접 집필하는 인력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하고, 국어사 전공자 중 20여 명으로 구성하였다. 1차 검수에서 모든 집필자는 검수자로도 활동하며, 연구팀장은 업무 전체를 관할하고 모든 집필 항목에 대해 최종적으로 검토하였다.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팀	팀장(감수진)	집필진
황선엽 조남호	최준호 신현규	1팀	이병기	김한결
				서정호
				안주현
		2팀	이지영	백채원
				선한빛
				정연정
		3팀	서형국	김남경
				김태우
				여은지
		4팀	이동석	문현서
				정연주
				하정수
		5팀	박진호	이성우
				이소흔

		6팀	이상신	이수진
				고경재
				이상훈
				전기량
		7팀	황선엽	김지오
				김천학
				이상금
				하귀녀
		8팀	조남호	이용
				이화숙
				장고은

2) 말뚱치팀

본 사업에서 목표로 하는 원시 말뚱치 300만 어절 정비와 신규 말뚱치 70만 어절 추가 구축은 9개월의 사업 기간에 달성하기 쉽지 않은 규모이므로,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역사자료 말뚱치를 다룰 줄 아는 국어사 전공 대학원생을 31명을 보조연구원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대규모 인원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무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이 높고, 대학원생들과의 소통 능력 및 추진력과 팀워크가 뛰어난 소장 연구자 5명으로 공동연구원을 구성하였다. 일관된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효율적으로 결과물을 작성, 수합하고 교정하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KOHICO'를 활용하였다.

※ 말뚱치팀 구성



책임 연구원	공동 연구원(팀)	보조연구원	소속 대학
장경준	허인영 (플랫폼)	오민석	고려대
	김한별 (1팀)	강서현	고려대
		진윤정	고려대
		성우철	고려대
		정은진	고려대
		곽영영	동국대
		이영매	동국대
	김현주 (2팀)	배은혜	경북대
		김예니	경북대
		이혜영	경북대
		박시온	경북대
		정성희	경북대
		마원걸	서울대
		강은진	전남대
	정은영 (3팀)	강현주	경상대
		박성희	경상대
		김준수	서울시립대
		정윤희	대구가톨릭대
		이찬식	대구가톨릭대
		김형진	대구가톨릭대
	정한도로 (4팀)	이광숙	서울시립대
		신용남	서울대
		이강혁	서울대
		배진솔	서울대
		이송월	한국외대
		김민정	경상국립대
		박도리	성균관대
	허인영 (5팀)	하정훈	서울대
		이흥구	서울대
		장린	서울대
		장정민	제주대
		강선지	제주대
		남향림	경희대
		오피애	제주대

3) 자료 구축팀

공동연구원이 DB 구조 및 미시 항목별 수집 정보의 유형과 기록 방식을 지침으로 작성하고, 지침을 바탕으로 ‘어원사전 표제어 목록 DB’와 ‘어원 관련 논저 DB’를 구축하였다. 공동연구원은 구축 과정에 발생하는 실제적이고 세부적인 문제를 관리하여 작업 지침을 보완하고, 작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다. 주요 어원사전에 대해 저작권 협의를 진행하여 2종의 사전에 대해 저작권자의 어원사전 편찬 작업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자료 검색기 및 말뭉치 검색기 개발 업무를 외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였다.

팀장	공동 연구원	보조연구원	소속 대학
도원영	김숙정	남유진	고려대
		최선지	고려대
		장준희	고려대
		한다영	고려대
		남향림	경희대
		조지연	서강대
* 박진양 (자료 검색기 및 말뭉치 검색기 개발 업무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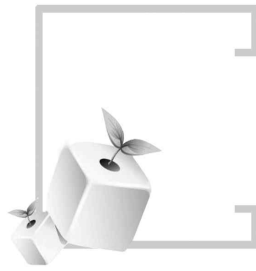
1.4. 작업 추진 경과

※ 진행 계획

작업 \ 기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집필팀]	◀◀◀◀ 집필 항목 선정 →→→→								마무리	
	◀ 집필·감수·검색 시스템 구축 →									
	◀ 집필지침 초안 →		◀◀◀◀◀◀◀◀◀ 집필지침 보완 →→→→→							
	◀ 시험 집필 →		◀◀◀◀◀◀◀◀◀ 집필 →→→→→							
			◀◀◀◀◀◀◀◀◀ 감수 →→→→→							
[말뭉치팀]	◀ 미정비/신규 문헌 검토→								마무리	
	◀ 작업 지침 보완→									
	◀ 연구 보조원 교육→									
	온라인 플랫폼 구축	작업 분량 10%	◀◀◀◀ 작업 분량 40% →→→			◀◀◀◀ 작업 분량 50% →→→				
[DB구축팀]	◀ 표제어DB 구축→								마무리	
		논저 목록 조사	◀◀◀◀ 논저DB 60% →→→			◀◀◀◀ 논저DB 40% →→→				
회의	착수 보고회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	
		탐별 자문회의	1차 공동워크숍		2차 공동워크숍	자문회의 (필요시)	자문회의 (필요시)	학술 발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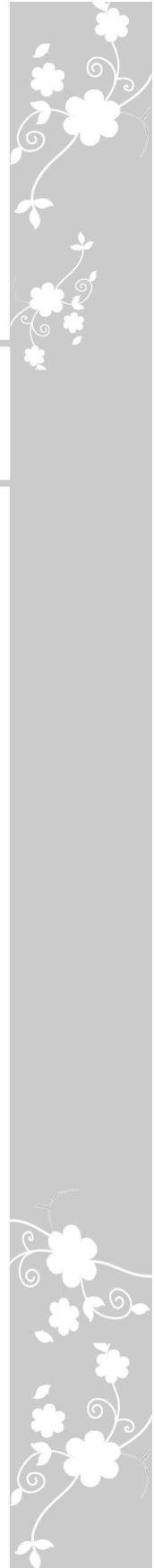
※ 회의 진행 경과

일시	내용	장소	참석자
2023년 3월 24일(금) 오후 3:00	착수보고회	국립국어원	어원사전팀 연구진, 국립국어원
2023년 6월 9일(금) 오후 3:30	제1차 공동워크숍 및 제1차 전문가 자문회의	고려대학교	어원사전팀 연구진, 국립국어원 외 말뭉치팀 자문위원 (문병열, 박지용, 장요한), 자료구축팀 자문위원 (최경봉, 김윤희)
2023년 8월 9일(수) 오후 2:00	중간보고회 및 제2차 공동 워크숍 (전문가 자문회의)	국립국어원	어원사전팀 연구진, 국립국어원 외 집필감수팀 자문위원 (홍운표, 조항범, 이건설, 권인한)
2023년 10월 6일(금) 오후 1:30	학술대회 개최 (한국어 어휘의 삶, 그 탐구와 활용)	농수산물무역진흥센터(aT센터)	발표자, 토론자, 좌장, 사회자, 청중 등 총 120여 명
2023년 10월 25일(수) 오후 1:00	제3차 자문회의	국립국어원	어원사전팀 연구진, 국립국어원 외 개발자 박진양, 자문위원(최준호, 최현규, 이후영, 권혜수)
2023년 11월 23일(목) 오후 4:00	최종보고회	국립국어원	어원사전팀 연구진, 국립국어원 등



제 2 장

집필·감수팀



2023년에 진행된 국립국어원 ‘국어 어원사전 편찬’ 사업은 사업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1) 집필/감수팀, (2) 말뭉치팀, (3) 자료구축팀의 세 개 팀으로 진행되었다. 제2장에서는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진 집필/감수팀의 작업 목표, 계획, 과정, 그리고 그 결과물을 제시하고자 한다.

2.1. 집필·감수팀의 작업 목표

이번 사업에서 집필/감수팀이 목표로 한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았다.

첫째, 기존 어원사전 및 학계의 논의 등을 바탕으로 어원사전 편찬 사업에서 집필할 표제어 목록을 선정한다.

둘째, 어원사전의 정확하고 통일성 있는 집필을 위한 구체적인 집필 지침을 마련한다.

셋째, 표제어 4,000 항목을 집필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집필 계획은 어떠하였으며,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아래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2.3. 어원사전 집필진 및 감수진 현황

올해 어원사전 집필·감수팀에서는 효율적인 작업 진행을 위해, 감수자와 집필자를 팀으로 편제하여 운영하였다. 1차적으로 발생한 문제는 팀 안에서 해결하고,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으면 전체 회의에서 다루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하여 무척 효율적으로 집필 및 감수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팀	팀장(감수진)	집필진
황선엽 조남호	최준호 신현규	1팀	이병기	김한결
				서정호
				안주현
		2팀	이지영	백채원
				선한빛
				정연정
		3팀	서형국	김남경
				김태우
				여은지
		4팀	이동석	문현서
				정연주
				하정수
		5팀	박진호	이성우
				이소흔
				이수진
		6팀	이상신	고경재
				이상훈
				전기량
		7팀	황선엽	김지오
				김천학
				이상금
		8팀	조남호	하귀녀
				이용
				이화숙
				장고은

2.4. 집필 항목 선정

올해 사업에서는 기존 어원사전, 기구축 어휘역사 정보(최대 6,783개) 등을 토대로 표제어 4,000 항목을 선정하였다. 표제어 선정 시에 참고한 기 출간 어원사전은 아래와 같다.

- 김무림(2015), 『한국어 어원사전(개정판)』, 지식과교양.
- 김민수 외(1997), 『우리말 어원사전』, 태학사.
- 김인호(2001), 『조선어어원편람』 상, 하, 박이정.
- 박갑수(2021), 『우리말의 어원과 그 문화: 우리말의 어원사전』, 역락.
- 백문식(2014), 『우리말 어원사전』, 박이정.
- 조항범(2022), 『우리말 어원 사전』, 태학사.
- 안옥규(1989), 『어원사전』,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한국문화사 영인본(2004).
- 염광호(2021), 『우리말 어원 산책』, 역락.
- 서정범 저 박재양 편(2018), 『새국어어원사전』, 보고서.
- 홍윤표(2009), 『살아있는 우리말의 역사』, 태학사.

또한, 표제어 선정을 위해 우리말샘에 수록된 어휘역사 정보 항목을 검토하였다. 우리말샘에서 역사 정보가 제시된 표제어의 수는 4,743개로 우리말샘의 표제어가 110만여 개라는 것을 비추어 볼 때 너무나 빈약한 수준이다. 또한, 기구축된 어휘역사 정보라 하여도 설명이 빈약한 경우나 오류가 많아 대폭 추가·수정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말샘의 어원 정보와 역사 정보를 추출하였다. 우리말샘에서 어원 정보와 역사 정보가 있는 표제어 목록을 추출하였고, 중복 집필 정보(다의어)는 풀이 하나만 남기고 제거하였다. 또한, 역사 정보가 잘못 들어갔거나, 방언에 역사 정보를 기술한 경우는 표제항에서 제거하였으며, 어원 정보에 영어 두자어의 본말 정보가 있는 말들 또한 제외하여, 4,000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올해 집필된 표제항 전체는 이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집필된 항목의 목록의 일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전체 집필 완료 항목 목록은 [부록 1]에 제시함

가, 가게, 가까이, 가까이하다, 가깝다, 가꾸러지다, 가꾸로, 가끔가끔, 가난, 가난하다, 가난히, 가느다랗다, 가는 베, 가늘다, 가늠, 가늠쇠, 가다, 가다듬다, 가닥, 가두다, 가득하다, 가득히, 가라말, 가라사대, 가라앉다, 가라앉히다, 가락, 가락지, 가랑비, 가랑이, 가래, 가래나무, 가래다, 가래떡, 가래침, 가래툰, 가렵다, 가로, 가로막다, 가로서다, 가로지르다, 가로질리다, 가뢰, 가루, 가루약, 가르다, 가르치다, 가리, 가리끼다, 가리다, 가리다, 가리온, 가리질하다, 가리키다, 가마술, 가마우지, 가막조개, 가만, 가만가만히, 가만하다, 가만히, 가말다, 가멸다, 가물, 가물다, 가물치, 가뭄, 가뭇가뭇, 가벼이, 가볍다, 가쁘다, 가뻘, 가슴, 가슴걸이, 가슴앓이, 가시, 가시다, 가시덤불, 가시랭이, 가시밭, 가시아비, 가시어미, 가시연, 가없다, 가없다, 가없이, 가오리, 가운데, 가웃, 가위, 가위놀리다, 가위톱, 가을, 가자, 가자미, 가잠나룻, 가장, 가재, 가져가다, 가져오다, 가죽나무, (...)
--

위에서 제시한 약 4,000개 항목의 집필이 완료되었으며, 모든 집필 항목에 대한 감수도 완료되었다.

다음으로, 올해 집필된 4,000개 항목 외에, 향후 집필이 필요한 표제항도 선정하였다. 이때는 근대어 중심으로 어원 정보 제시가 필요하다고 선별한 단어, 집필자/감수자가 집필하겠다고 요청한 단어, 한중연 사업 결과물인 신어db를 참고하여 표제항을 선정하였다. 또한, 기출간된 어원 논저를 바탕으로 표제항을 선정하였다. 자료팀에서 정리한 어원사전 목록을 확인하였으며, 표준국어대사전 사업 때 작성했던 어원 논저 요약 자료도 살폈다.

그 이후에는 단어의 사용 빈도를 고려하였다. 국어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연구보고서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에서 빈도순으로 10142개(빈도 30회 이상) 항목을 추출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어원 집필 후보 목록을 선정한 후, 아래의 과정으로 이를 정리하였다. 첫째, 동음이의어는 원칙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만 남겼다. 추후 집필자가 선별하여 집필할 예정이다. 둘째,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하면서 후보가 될 수 없는 항목은 제외하였다. 단, '출처'가 "역사정보"이거나 "어원정보"인 경우에는 중복이 되어도 제외하지 않았다. 셋째, 우리말샘 표제어와 비교하여, 일본어에서 온 말, 속담 등이어서 우리말샘에 없는 것은 제외하였다. 잘못된 검색용 어휘는 수정하였으며, 우리말샘에 있고 집필 후보인데 최종적으로 어원 집필 후보로 부적절한 것은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집필 후보가 되지 못할 아래와 같은 표제어들은 일일이 확인하면서 삭제하였다. 1) 전문성이 강한 표제어, 2) 1945년 이전에 쓰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표제어, 3) 우리말샘에 표준어로 오르지 않은 표제어(옛말, 방언, 오표기 등), 4) 접사나 어미인 표제어 등.

그리고 일부 항목들은 아래와 같이 일괄 조정하였다. 1) '-프리다', '-트리다'는 둘 다 있는 경우 '-트리다'만 대상으로 삼았다. 2) '-프리다'만 있는 경우에는 '검색용어휘'를 '-트리다'로 수정하였다. 3) '○디○다' 형용사는 모두 제외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선정된 22,000개 항목은 [부록 2]에 제시한다.

2.5. 집필 및 감수 절차

집필 및 감수는 《우리말샘》 집필기 시스템을 이용하였으며 세부적인 이용 방법을 상기의 집필 지침에 상술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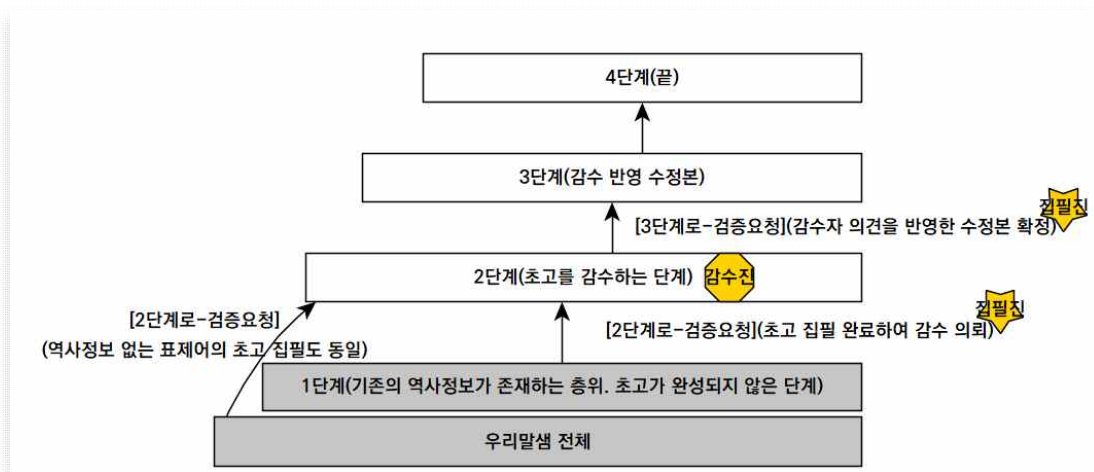
《우리말샘》 집필기의 단계는 다음과 같이 총 4단계로 이루어진다.

- 1단계: 집필진이 해당 항목의 역사 정보를 집필하는 단계.
- 2단계: 집필 원고 내용을 감수진이 1차적으로 감수하는 단계.
- 3단계, 4단계: 공동연구원에 의해 검토가 이루어지고, 원고를 확정되는 단계.

집필 및 감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집필자가 《우리말샘》 집필기에서 집필하여 해당 항목에 대한 감수자의 확인을 요청하는 단계로, 집필기에서 [2단계로 검토 요청]한다.
- ② 감수자는 [2단계로 검토 요청]된 원고를 검토하여 다음의 사항을 결정한다.
 - ②-1. [1단계에서 수정 요청]: 오류, 누락 정보 등의 보완을 집필자에게 요청한다.
→ 집필자는 감수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원고를 수정 후, [3단계로 검토 요청]한다.
 - ②-2. [3단계로 검토 요청]: (부수적인 오류를 감수자가 직접 수정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원고를 3단계로 보내 2, 3차 감수를 요청한다.
- ③ 공동연구원이 각 단계를 분담하여 최종적인 원고를 확정한다.

<그림 1> 집필 및 감수 절차




집필기 보완 요청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1차년도 진행중에 집필기가 개발되어 도입되었고, 집필진 및 감수진 모두 이를 이용하여 집필 및 감수를 진행하였다.
- ◆ 초창기에 집필기 내의 버튼이 직관적이지 않아 일부 수정이 있었으며, 차년도에 앞서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 ◆ 《우리말샘》 집필기 환경에서 집필, 감수, 수정 등 단계가 바뀔 때마다 항목의 [고친 사람], [검증한 사람] 등의 노출 정보가 바뀌는 관계로, 집필자와 감수자가 본인의 담당 항목을 모아서 그 진행 단계를 살피기 어려운 문제 등이 있어 외부의 스프레드시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완하였다.
- ◆ 집필기 오류 사항 등을 연구보조원이 취합하여 수정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관한 응답을 전파하면서 오류를 줄였다.
- ◆ 《우리말샘》 내에 ‘사전 편찬>분과 게시판’을 개설하여 집필기의 기능 개선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그림 2> 우리말샘 분과 게시판 운영 현황



옛한글

Q

[자세히 찾기](#)

어원사전003님

등급 : 분과원

어원사전 ▼

집필기 기능 개선

검색

모두 10건의 게시글이 있습니다. (1/1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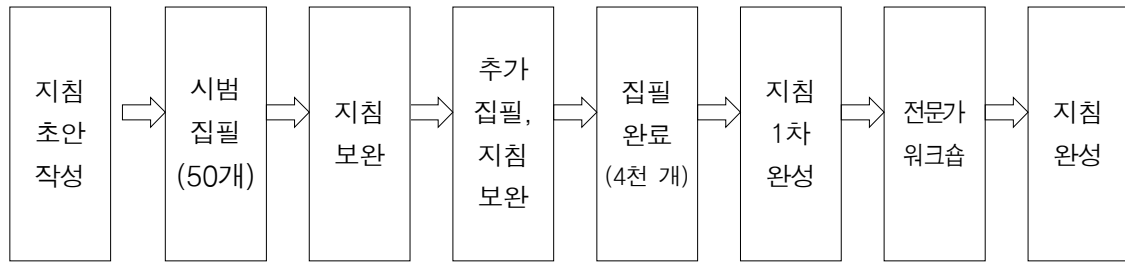
10개씩 보기 ▼

번호	제목	붙임 자료	작성자	작성 일시	조회 수
10	말뭉치 연계 기능		어원사전 004(ety004)	2023-10-25	7
9	지침 보기 기능		어원사전 004(ety004)	2023-10-24	10
8	내려받기 기능		어원사전 004(ety004)	2023-10-24	11
7	인쇄 기능		어원사전 004(ety004)	2023-10-24	6
6	검색 기능		어원사전 004(ety004)	2023-10-24	7
5	상호 쪽지 전달 기능		어원사전 004(ety004)	2023-10-24	5
4	감수 화면 설계		어원사전 004(ety004)	2023-10-24	8
3	내용을 쓰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오류라고 뜨는..		어원사전 004(ety004)	2023-10-24	5
2	집필자들이 집필 목록을 볼 수 있도록 조치		어원사전 004(ety004)	2023-10-24	8
1	형태.표기 변화 제시 방식		어원사전 004(ety004)	2023-10-24	8

글쓰기

2.6. 집필 지침

사전을 편찬할 때, 표제어에 대한 기술이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확한 집필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집필 지침은 처음부터 완성된 지침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기집필된 원고나 집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위의 과정을 거쳐서 집필 지침을 완성하였으며, 완성된 집필 지침은 내년부터 이어질 사업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것이다. 완성된 집필 지침은 아래와 같다.

어원사전 집필지침

<차례>

1. 일반 사항
2. 집필 범위
3. 원고 집필 기준
4. 《우리말샘》 집필기 사용 방법
5. 어원사전의 구조
 - 5.1. 기본 정보
 - 5.2. 변화 정보
 - 5.2.1. 형태·표기 변화
 - 5.2.2. 언어 내적 정보
 - 5.2.3. 언어 외적 정보
 - 5.2.4. 기타 어원 설명
 - 5.2.5. 세기별 용례
 - 5.2.6 이형태/이표기
 - 5.3. 부가 정보
 - 5.3.1. 관련어
 - 5.3.2. 참고 논저
 - 5.4. 기타 정보
 - 5.4.1. 메모 작성
6. 부록: 현상 설명을 위한 표현
 - 6.1. 음운 변화에 관련된 표현
 - 6.2. 형태 등의 변화
 - 6.3. 표기 변화에 관련된 표현
 - 6.4. 기타 표현

1. 일반 사항

- 어원사전 집필은 《우리말샘》 입력 시스템을 사용한다.
- 어원사전 집필에 활용하는 말뭉치는 집필관리자가 제공하는 모든 말뭉치 및 네이버 뉴스라이브리(1950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 특히, 20세기 용례가 없을 경우에는 뉴스라이브리(1950년까지)를 적극 참조하여야 하며, 이때 원문을 확인하여 원문의 표기대로 입력한다. 예컨대, 된소리가 합용병서로 적힌 경우 확인하여 원문대로 적는다.
- 세부 항목 중에서 기술할 것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두지 말고 반드시 '%'를 기입한다. 이는 실수로 기입하지 않은 것인지, 의도적으로 기입하지 않은 것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다.
- 어원사전의 모든 내용은 교양을 갖춘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기술되어야 한다.
- 집필에 사용하는 문법 용어는 학교 문법 용어를 사용한다.
예) '관형사형 어미'를 취하고 '관형형 어미'를 버린다. '관형격 조사'를 취하고 '속격 조사'를 버린다. '서술격 조사'를 취하고 '계사'를 버린다.

2. 집필 범위

- 집필자는 자신에게 배정된 표제어를 집필하여야 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집필 관리자에게 승인을 받아 추가로 집필할 수 있다.
 - ❖ 집필 대상 목록에 없으나 어원 정보를 기술할 필요가 있는 단어를 발견한 경우. 다만, 해당 단어는 《우리말샘》에 등재된 표제어여야 하며, 고어, 방언, 북한어 등이 아니어야 한다.
- 자신에게 배정된 표제어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표제어의 경우
 - ❖ 주표제어와 부표제어('낭패하다'를 집필할 때 '낭패'도 집필)
 - ❖ 집필 표제어로 시작되는 합성어와 파생어 또는 일부 집필 표제어가 포함되는 합성어와 파생어('물약'을 집필할 때, '물'과 '약'도 함께 집필)
- 집필 표제어의 동음이의어(집필 대상이 되는 동음이의어는 원칙적으로 한 집필자가 모두 집필한다.)
- 추가 집필 대상으로 삼는 표제어는 19세기 전반기 이전에 용례가 보이는 단어로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낮밤’은 《우리말샘》에 역사정보가 없으나, 15세기부터 등장하며, 집필 대상이 될 수 있다.

예) ‘밤참’, ‘밤이슬’ 등은 문헌에 나타나나 19세기 후반부터 나타나므로 집필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 개화기 무렵에 등장한 개념, 사물을 가리키는 표제어는 19세기, 20세기(1945년 이전까지)의 용례만 있어도 추가 집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3. 원고 집필 기준

- 《우리말샘》에서 상위 표제항으로 묶여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하나의 어원 정보만을 기술한다. 그러나, 하위 표제항 중 일부의 어원 정보로 별도로 집필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필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추가 기술할 수 있다.

예) ‘그’의 경우

그 [그 ㉠]

- 그 「001」 「대명사」 말하는 이와 듣는 이와 아닌 사람을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 앞에서 이미 이야기하였거나 듣는 이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주로 남자를 가리킬 때 쓴다. **제안**
- 그 「002」 「대명사」 앞에서 이미 이야기하였거나 듣는 이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 그 「003」 「관형사」 듣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듣는 이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
- 그 「004」 「관형사」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
- 그 「005」 「관형사」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밝히고 싶지 아니한 일을 가리킬 때 쓰는 말.

그 「001」부터 「005」는 상위 표제항으로 묶여 있으므로, 하나의 어원 정보만을 기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집필자가 ‘그’에 대해 대명사와 관형사 용법을 구별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필 관리자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 항목을 구별하여 기술할 수 있다.

- 《우리말샘》을 기준으로, 상위 표제항이 달리 설정되어 있는 항목의 어원 정보는 별도로 집필한다. 같은 상위 표제항으로 묶여야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원칙에 따라 별도 기술하고 ‘메모’란에 집필자 의견을 밝힌다.

법석 [법석 ㉠] 법석만 [법생만]

- 법석 「001」 「명사」 소란스럽게 떠드는 모양.

법석(法席) [법석 ㉠] 법석만 [법생만]

- 법석 「002」 「명사」 『불교』 설법, 독경, 강경(講經), 법화(法話) 따위를 행하는 자리.

예) 《우리말샘》에 ‘법석001’과 ‘법석002’는 역사적으로 관련이 있는 단어라서 하나의 상위 표제항으로 묶여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말샘》에 별도의 상위 표제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칙에 따라 따로 집필한다. ‘법석001’의 어원 정보를 기술할 때는 ‘법석002’에서 온 말임을 기술한다.

4. 《우리말샘》 집필기 사용

- 어원사전의 각 항목을 집필할 때는, 《우리말샘》 집필기를 활용한다.

- ‘집필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 개인에게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우리말샘》에 로그인한다.



우리말샘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우리말 사전



- 로그인한 후, ‘어원사전’ 탭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가’와 ‘편집/검증’ 메뉴가 나타난다.



- 기존에 역사 정보가 이미 기술되어 있는 경우, 이를 수정/보완하는 것이기에 ‘편집/검증’ 항목을 클릭하여 진행한다. 만일, 기존에 역사 정보가 기술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 항목을 클릭하여 진행한다.
- (집필기의 자세한 사용법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 예정)

5. 어원사전의 구조

- 어원사전의 미시구조는 아래와 같다. 이는 집필기에서 입력 요구되는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표제어	
1) 기본 정보	어휘, 구분, 품사, 원어, 고유어 여부, 뜻풀이
2) 변화 정보	형태·표기 변화
	언어 내적 정보
	언어 외적 정보
	기타 어원 설명
	세기별 용례
	이형태/이표기
3) 부가 정보	관련어
	참고 논저
4) 기타 정보	메모

■ 5.1. 기본 정보

편집기에서 《우리말샘》의 정보가 자동 이관된다. ‘기본 정보’ 항목은 수정하지 않는다. ‘기본 정보’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메모’란에 의견을 기술한다.

■ 5.2. 변화 정보

■ 5.2.1. 형태·표기 변화

형태·표기 변화

추가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미상	20세기	노출 제외	삭제	▲	▼
뜻뜻하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삭제	▲	▼
씻뜻하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삭제	▲	▼
씻닿하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삭제	▲	▼
씨뜻하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삭제	▲	▼
따뜻하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삭제	▲	▼

- ‘형태·표기 변화’에서는 최초출현형으로부터 현대어에 이르기까지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한 어형만을 제시한다. 단, ‘이형태/이표기’ 항목에서는 문헌에 나타나는 모든 어형을 제시한다.

예) ‘미늘’의 경우, 문헌 자료에 ‘미늘’, ‘미늘’, ‘미늘’, ‘미날’의 네 가지 어형이 나타난다. 그런

데 최초출현형 ‘미닐’과 현대형 ‘미늘’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미닐’과 ‘미늘’로 충분하므로, ‘미닐’과 ‘미날’은 형태·표기 변화에서 제시하지 않는다. 단, ‘이형태/이표기’ 항목에서는 문헌에 나타나는 모든 이형태 및 어형을 다 제시한다.

예) ‘따뜻하다’의 경우, 문헌 자료에는 ‘쫘쫘하다’, ‘쫘쫘하다’, ‘쫘땃하다’, ‘쫘쫘하다’, ‘따뜻하다’ 등의 어형이 나타난다. 그런데 최초출현형 ‘쫘쫘하다’에서 현대형 ‘따뜻하다’로의 변화를 설명할 때 ‘쫘쫘하다’, ‘쫘땃하다’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형태·표기 변화에서 제시하지 않는다. 단, ‘이형태/이표기’ 항목에서는 문헌에 나타나는 모든 이형태 및 어형을 다 제시한다.

● ‘형태·표기 변화’에서, 용언은 기본형(‘-다’)의 형태로 제시한다. (예: ‘깊다’)

- 특수어간교체 또는 현대 국어의 불규칙교체(‘ㅂ’ 불규칙, ‘ㅅ’ 불규칙)를 보이는 어형들도 ‘-다’의 어형으로만 제시하고, 상세한 교체형은 ‘언어 내적 정보’에서 제시한다.

예: ‘심다’의 경우, 15세기 어형을 ‘시므다’로 적는다. (‘심거’와 같은 활용형은 ‘언어 내적 정보’에서 설명한다.)

예: ‘어지럽다’의 경우, 15세기 어형을 ‘어즈럽다’로 적지 않는다. (‘어즈러벼’와 같은 활용형은 ‘언어 내적 정보’에서 설명한다.)

예: ‘웃다’의 경우, 15세기 어형을 ‘웃다’로 적지 않는다. (‘우셔’와 같은 활용형은 ‘언어 내적 정보’에서 설명한다.)

● ‘형태·표기 변화’에서, 체언은 기저형을 밝혀 적는다. (예: ‘갓’, ‘뉘’)

예: ‘앞’의 경우, 15세기 어형을 ‘뉘’로 적는다. (‘뉘’로 적지 않는다.)

- 단, ㅎ말음 체언의 경우 ‘ㅎ’은 따로 적는다.

예: ‘나라’의 경우, 15세기 어형을 ‘나라ㅎ’으로 적는다.

● 출현 세기는 각 어형이 문헌에서 발견되는 세기를 클릭한다. (A를 취하고 B를 버린다.)

A: 바른 예

☐ 15세기
 ☐ 16세기
 ☐ 17세기
 ☐ 18세기
 ☒ 19세기
 ☐ 미상
 ☒ 20세기

쫘쫘하다

☐ 15세기
 ☐ 16세기
 ☐ 17세기
 ☐ 18세기
 ☒ 19세기
 ☐ 미상
 ☐ 20세기

쫘땃하다

B: 잘못된 예

☐ 15세기 ☐ 16세기 ☐ 17세기 ☐ 18세기 ☒ 19세기 ☐ 미상 ☐ 20세기

삐삐하다, 삐삐하다

- 표제어에는 올라와 있으나,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클릭하지 않는다.

예: '방망이꾼'의 경우, 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나 어원사전 집필 말뭉치에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20세기도 클릭하지 않는다.

■ 5.2.2. 언어 내적 정보

- '언어 내적 정보'에서는 최초출현형, 어원, 형태 정보, 형태적/의미적 변천 등을 언어사실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 언어 내적 정보의 기술 순서는 다음과 같다.

최초 출현형에 대한 설명

- 최초 출현형에 대한 어원적 설명(필요할 때)
- 역사적 변화 단계 설명 / 의미 변화에 대한 설명(필요할 때)
- 변화 설명 마무리(필요할 때)

- 최초 출현형에 대한 설명

- 최초 출현형은 (1) 현대 국어와 어형이 동일한 경우, (2) 현대 국어와 어형이 다른 경우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 ❖ (1)-1 최초 출현형과 현대 국어 어형이 동일하고, 다른 이형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A'는 B세기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예) '나'는 15세기부터 '나'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 ❖ (1)-2 최초 출현형과 현대 국어 어형이 동일하고, 다른 이형태가 나타나는 경우: 'A'는 B세기부터 나타난다.

예) '거두다'는 15세기부터 나타난다. (17세기에는 '거도다, 거두우다'의 어형이 보이나 현재에는 여전히 '거두다'가 사용된다.)

- ❖ (2) 최초 출현형과 현대 국어 어형이 다른 경우: 'A'의 옛말인 'B'는 'C'세기부터 나타난다.

예) '매밀'의 옛말인 '모밀'은 16세기부터 나타난다.

- 최초 출현형은 한자 표기와 한글 표기를 구별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1) 한자 표기와 한글 표기가 세기를 달리하여 나타나는 경우, (2) 한자 표기와 한글 표기가 같은 세기에 나타나는 경우를 구별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 ❖ (1) ‘A’는 B세기에서 한자로 표기된 ‘C’로 나타나고 D세기부터 한글로 표기된 ‘E’로 나타난다.

예) ‘별세하다’는 18세기부터 한자로 표기된 ‘別世하다’로 나타나고 19세기부터 한글로 표기된 ‘별세하다’로 나타난다.

- ❖ (2) ‘A’는 B세기에서부터 한글로 표기된 ‘C’나 한자로 표기된 ‘D’가 나타난다.

예) ‘와사등’은 19세기부터 한글로 표기된 ‘와사등, 와스등’이나 한자로 표기된 ‘瓦斯燈’이 나타난다.

- 최초 출현형으로 제시되는 기본형이 문헌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설명을 덧붙인다.

예) ‘ㄱ랏’은 문헌에서 ‘ㄱ랏’으로만 나타나는데 이것은 소리대로 표기된 것이다.

- 최초출현형의 이형태는 불규칙이나 특수어간교체 등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기술한다.

- 1) 용언의 경우

예) 갓갑다: 자음 어미 앞에서는 ‘갓갑-’, 매개모음 어미나 모음 어미 앞에서는 ‘갓갈-’으로 나타난다.

예) 놀다: 자음 어미 앞에서는 ‘놀-’, 매개모음 어미나 모음 어미 앞에서는 ‘놀-’으로 나타난다.

예) 났다: 1460년대 이전에는 자음 어미 앞에서는 ‘났-’, 매개모음 어미나 모음 어미 앞에서는 ‘났-’로 나타난다. 이후에는 자음 어미 앞에서 ‘났-’, 매개모음 어미나 모음 어미 앞에서는 ‘났오-’로 나타난다.

예) 심다: 자음 어미, 매개모음 어미 앞에서는 ‘시므-’, 모음 어미 앞에서는 ‘심-’으로 나타난다.

- 2) 체언의 경우

예) 나모: 자음 조사 앞에서는 ‘나모’, 매개모음 조사나 모음 조사 앞에서는 ‘남’으로 나타난다.

예) 여우: 자음 조사 앞에서는 ‘여쑤’, 매개모음 조사나 모음 조사 앞에서는 ‘엿오’로 나타난다.

예) 숲: 자음 조사 앞에서는 ‘숯’, 매개모음 조사나 모음 조사 앞에서는 ‘쑤’로 나타난다.

예) 망울: 모음 또는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에는 ‘몽울ㅎ’로 그 밖의 자음

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나 단독으로 쓰일 때는 ‘몽울’로 나타난다.

● 최초 출현형에 대한 어원적 설명

- 복합어나 파생어의 경우 형태적 구성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기술한다.

‘A’는 B를 뜻하는/뜻인 ‘C’와 D를 뜻하는/뜻인 ‘E’가 결합한 것이다.

‘A’는 B를 뜻하는/뜻인 ‘C’와 ‘D’가 결합한 ‘E’에 F를 뜻하는/뜻인 ‘G’가 결합한 것이다.

예) ‘물약’은 19세기부터 나타난다. ‘물약’은 ‘물’과 한자어 ‘약(藥)’이 결합한 것이다.

- 단, 관형사형 어미 ‘-은, -을’,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술한다.

예) ‘관솔’은 진이 많음을 뜻하는 형용사 어간 ‘관-’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관’과 소나무를 뜻하는 명사 ‘솔’이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이다.

예) ‘작은아버지’는 ‘작은’과 ‘아버지’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이다. 이때, ‘작은’은 형용사 어간 ‘작-’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한 것이다.

예) ‘눈病’은 ‘눈’과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한 ‘눈’과 한자어 ‘病(病)’이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이다.

- 한자어와 고유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복합어나 파생어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 한글 표기만 문헌에 나타나는 경우: ‘A’는 한자어 ‘B’를 한글로 표기한 ‘C’에 현대어 ‘하다’로 이어지는 ‘-ㅎ-’가 결합한 것이다.

예) ‘광패ㅎ다’는 한자어 ‘狂悖’를 한글로 표기한 ‘광패’와 현대어 ‘하다’로 이어지는 ‘-ㅎ-’가 결합한 것이다. (‘광패하다’)

❖ 한자 표기가 문헌에 먼저 나타나는 경우: ‘A’는 한자어 ‘B’와 현대어 ‘하다’로 이어지는 ‘-ㅎ-’가 결합한 것이다.

예) ‘별세하다’는 18세기에 한자로 표기된 ‘別世ㅎ다’로 나타나고 19세기부터 한글로 표기된 ‘별세ㅎ다’로 나타난다. ‘別世ㅎ다’는 한자어 ‘別世(별세)’와 현대어 ‘하다’로 이어지는 ‘-ㅎ-’가 결합한 것이다. (‘별세하다’)

☞ 한자어는 한자 표기와 한글 표기가 모두 나타날 경우, 함께 기술한다. 설명에서 한자가 처음 제시될 때, “한자(한자음)”의 방식으로 한자음을 밝힌다.

예: ‘別世ㅎ다’는 한자어 ‘別世(별세)’와 현대어 ‘하다’로 이어지는 ‘-ㅎ-’가 결합한 것이다.

- 형태적 구성을 이루는 각 성분을 제시할 때 그 성분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간략한 풀이나 문법 정보를 제시한다. 현대어와 형태가 동일할 경우에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때 《우리말샘》의 풀이를 참고할 수 있다.

- 다만, 현대어와 형태가 동일하고, 표제어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거나, 동음어가 없어서 무슨 의미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예) ‘관솔’은 진이 많음을 뜻하는 형용사 어간 ‘관-’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관’에 소나무를 뜻하는 명사 ‘솔’이 결합한 것이다.(‘관솔’)

예) ‘빠여다-’는 조각이 나게 함을 뜻하는 ‘빠-’에 연결어미 ‘-어’, 보조 용언 ‘다-’가 결합한 것이다.(‘깨어지다’)

예) ‘말째’는 끝을 뜻하는 한자 ‘末(말)’의 한글 표기인 ‘말’과 차례를 뜻하는 접미사 ‘-재’가 결합한 것이다.(‘말째’)

예) ‘막난이’는 바로 지금을 뜻하는 ‘막’과 태어남을 뜻하는 동사 어간 ‘나-’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막난’에 의존 명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망나니’)

예) ‘검디영’은 검다는 뜻인 ‘검-’과 ‘-디영’이 결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디영’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검댕’)

- ❖ 설명에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아래의 예를 참고할 수 있다.

- ~을 뜻하는 ‘A’ / ~라는 뜻인 ‘A’ / 현대어 ‘A’로 이어지는 ‘B’
-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 ‘A’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 현대어 ‘하다’로 이어지는 ‘-ㅎ-’
- 동사/형용사 어간 ‘A’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B’에
- ‘~을’ 뜻하는 접미사/접두사 ‘A’
- 사동 접미사 ‘-이-’/‘-히-’/‘-오-’ / 형용사 파생 접미사 ‘-ㅁ-’ / 부사 파생 접미사 ‘-이’
- 관형격 조사 ‘ㅅ’ / 보조 용언 ‘다-’ / 연결 어미 ‘-아’/ 연결 어미 ‘-어’ / 의존 명사 ‘이’

- 최초 출현 형태가 한자와 결합한 것일 때는 설명 부분에 ‘한자(현대 한자음)’의 형식으로 제시한다.

예) ‘눈病’은 ‘눈’과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한 ‘눈’과 한자어 ‘病(병)’이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이다.(‘눈병’)

- 한자어이지만 문헌에서 한글로 표기된 예만 나타나면 “‘A’는 한자어 ‘B’를 한글로 표기한 것이다.”라고 제시한다.

예) ‘등신’은 한자어 ‘等神(등신)’을 한글로 표기한 것이다.(‘등신’)

- 다른 언어로부터 온 말은 “‘A’는 ○○어로부터 들어온 말이다.”라고만 밝힌다.

예) ‘갈지개’는 몽골어로부터 들어온 말이다.(‘갈지개’)

☞ 다른 언어에서의 용법이나 형태, 의미 변화나 서구어가 일본어를 통해 간접 차용한 경우, 불교 용어의 변화나 의미 등과 같은 자세한 설명은 ‘기타 어원 설명’에서 밝힌다.

● 역사적 변화 단계 설명

- 최초 출현형 이후 현대어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설명한다.
- 용례에 제시된 이표기 및 변화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설명하여야 한다.
- 문헌에 나타난 순서대로 설명을 하되 변화 과정에서 중요하지 않거나 예외적인 표기는 시기를 밝히지 않고 뭉뚱그려 설명할 수 있다.

예) 벗어나다

‘벗어나다’는 15세기부터 ‘버서나다’로 표기되어 나타난다. ‘버서나다’는 몸에서 떼어 낸다는 뜻인 ‘벗-’에 연결 어미 ‘-어’가 결합한 ‘버서’에 밖으로 나온다는 뜻인 ‘나-’가 결합한 것이다. 19세기 에 나타나는 ‘벗서나다’는 ‘버서나다’의 중철 표기이다. 19세기와 20세기에 나타나는 ‘버서나다’는 근대 국어 시기에 ‘ㅅ’ 아래에서 ‘서’와 ‘셔’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되면서 표기가 혼동되어 나타난 것이다. 19세기에 나타나는 ‘버서ㄴ다’와 ‘버셔ㄴ다’는 ‘ㄴ’ 소리가 없어졌지만 ‘ㄴ’과 ‘ㅅ’이 표기에서 섞여 쓰이면서 나타난 표기이다.

예) 꾸짖다

‘꾸짖다’는 15세기부터 ‘구짖다’로 표기되어 나타난다. ‘구짖-’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에는 ‘구짖-’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에는 ‘구짖-’으로 교체되었다. 16세기에 어두의 초성 ‘ㄱ’이 된소리가 되어 ‘꾸짖-, 꾸짖-’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18세기와 19세기에는 ‘ㄱ’의 된소리 표기가 ‘ㅅ’에서 ‘ㅈ’으로 바뀐 ‘꾸짖-, 꾸짖-’이 나타나기도 한다. 15세기에서 종성 ‘ㅈ’이 ‘ㄷ’으로 표기되는 ‘구짖-’도 나타나는데 17세기에서는 여기에서 초성 ‘ㄱ’이 된소리로 바뀐 ‘꾸짖-’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외에도 ‘짖’의 종성 ‘ㅈ’이 ‘ㄷ’으로 나타나는 ‘구짖-, 꾸짖-’과 ‘짖’의 초성 ‘ㅈ’이 ‘ㄷ’으로 나타나는 ‘꾸짖-, 꾸짖-’, ‘꾸’의 ‘ㅅ’이 ‘ㅂ’으로 나타나는 ‘꾸짖-’ 등의 표기도 나타난다.

- 중간에 어형이 교체된 경우에는 그에 맞춰 기술한다.

예) 광저기

‘광저기’는 16세기부터 ‘광장이’로 나타난다. 16세기부터 종성의 ‘ㅇ’이 ‘ㅇ’으로 표기되면서 ‘광장이’도 표기가 변하였을 것이나 17세기에서 ‘광장이’가 확인된다. 19세기까지 ‘광장이’만 나타나다가 20세기에 ‘광저기’가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광장이’가 ‘광저기’로 바뀐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

- 방언에 대한 기술은 역사적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기술하며, 방언의 영향이 분명한 경우에만 ‘방언의 영향’이라고 기술한다.

예) 16세기에는 ‘구령이’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구령이’가 ‘구령이’의 단순한 오기인지 방언형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구령이’)

예) 이 ‘숯’은 근대 국어 시기에 볼 수 있는 ‘솔’의 다른 형태로 현재 몇몇 방언에 남아 있다.
(‘솔’)

예) 16세기에는 ‘갓가브리니’처럼 규칙 변화를 하는 ‘갓갑다’가 일부 발견되기도 하나 방언의 영향으로 보인다.(‘가갑다’)

● 의미 변화에 대한 설명

- 현대어와 의미가 다르거나 옛말에서 현저하게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경우 의미 변화를 기술하고 ‘세기별 용례’에서 용례도 각각 제시한다.

예) 현대 국어 ‘어리다’는 15세기부터 ‘어리다’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어리다’는 15세기 국어와 똑같은 형태가 현재까지 쓰이고 있으나 의미는 변하였다. 즉 15세기에는 “어리석다”의 의미로 쓰인 예만 나타나는데 16세기 이후에는 “나이가 어리다”의 의미로 쓰인 예도 나타난다. 이 두 의미로 쓰인 예는 19세기까지 보인다. 현재의 ‘어리다’는 “어리석다”의 의미로는 쓰이지 않고 “나이가 어리다”의 의미로만 쓰인다. (‘어리다’)

☞ 다의어의 개별 의향(sense)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원칙적으로 기술하지 않는다.

● 변화 설명 마무리

- 현대어와 동일한 표기가 등장한 이후 다른 이표기 및 변화형이 문헌에 나타나지 않으면 “현재까지 이어진다.”라는 설명을 덧붙인다.

예) 제3음절의 ‘ㄴ’이 ‘ㄷ’로 변하고 ‘ㅅ’이 ‘ㅈ’으로 변하여 ‘그저께’가 되어 현재까지 이어진다.

- 현대어와 동일한 표기가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20세기에 ‘A’가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라는 설명을 덧붙인다.

☞ 집필 대상이 되는 단어는 모두 20세기 문헌에서 확인되어 사전에 올라간 것이므로 20세기 문헌에서 예를 발견할 수 없을 때는 이처럼 기술하도록 한 것이다.

예) ‘밤기운’의 옛말인 ‘밤긔운’은 18세기부터 나타난다. ‘밤긔운’은 어둑한 동안을 뜻하는 ‘밤’과 현대 국어 ‘기운’으로 이어지는 ‘긔운’이 결합한 것이다. 20세기에 ‘밤기운’이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밤기운’)

예) 19세기에는 ‘ㄱ’의 된소리 표기가 ‘ㅅ’에서 ‘ㅈ’으로 변하고, ‘ㄴ’이 ‘ㄷ’로 변한 ‘깨묵’이 확인된다. 20세기에 ‘ㅅ’이 들어간 ‘꺄묵’이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꺄묵’)

- 현대와 동일한 표기가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으면서 맞춤법 규정에 의해 표기가 정리된 경우 그에 맞는 설명을 덧붙인다.

- 현대 맞춤법에서 ‘A’(예, ‘저’)는 ‘B’(예, ‘저’)로 적기로 함에 따라 ‘B’로 표기하게 되었다.
- 현대 맞춤법에서 원형을 밝혀 적도록 함에 따라 ‘A’로 표기하게 되었다.
- 현대 맞춤법에서 소리대로 적도록 함에 따라 ‘A’로 표기하게 되었다.
- 현대 맞춤법에서 된소리는 같은 글자를 반복하여 적도록 함에 따라 ‘A’로 표기하게 되었다.
- 현대 맞춤법에서 부사 ‘-이’와 ‘-히’는 구별하여 적도록 함에 따라 ‘A’로 표기하게 되었다.
- 현대 맞춤법에서 한자어는 두음 이외에는 본음대로 적도록 함에 따라 ‘A’로 표기하게 되었다.

☞ 맞춤법은 1912년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부터 1988년 한글 맞춤법까지 몇 차례 정해졌기 때문에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처럼 특정 맞춤법을 언급하려면 맞춤법 규정들을 확인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현대 맞춤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예) 20세기 전반기까지 혼용되어 쓰이던 ‘그전’과 ‘그전’은 현대 맞춤법에서 ‘저’는 ‘저’로 적기로 함에 따라 ‘그전’으로 표기하게 되었다.

예) 현대 맞춤법에서 원형을 밝혀 적도록 함에 따라 ‘한결같이’로 표기하게 되었다.

예) 현대 맞춤법에서 된소리는 같은 글자를 반복하여 적도록 함에 따라 ‘걸러뒀다’로 표기하게 되었다.

예) 현대 맞춤법에서 된소리는 같은 글자를 반복하여 적도록 함에 따라 ‘깜짝’으로 표기하게 되었다.

❖ 다만, 최초의 문헌 예가 맞춤법에 따른 예이고 중간 시기에 표기가 일시적인 혼동을 보인 것이면 설명에 반영하지 않는다.

예) ‘그적’은 15세기에서부터 나타난다. 19세기에 나타나는 ‘그적’은 근대 국어 시기에 처음 ‘ㅈ’이 구개음으로 바뀌어 ‘적’과 ‘적’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되면서 표기가 혼동되어 나타난 것이다. ‘크적’과 ‘크적’은 현대 맞춤법에서 ‘저’는 ‘저’로 적기로 함에 따라 ‘크적’으로 표기하게 되었다.

▪ 20세기 전반기까지 여러 형태가 사용되면 “20세기까지 ‘A’, ‘B’, ‘C’ 등 여러 형태가 쓰였으나 ‘A’로 굳어져 현재까지 이어진다.”라는 설명을 덧붙인다.

예) 20세기까지 ‘믹다’, ‘미다’, ‘무이다’ 등 여러 형태가 쓰였으나 ‘미다’로 굳어져 현재까지 이어진다.

예) 20세기까지 ‘두루막이’, ‘두루마기’, ‘두루매기’, ‘두루막’ 등 여러 형태가 쓰였으나 ‘두루마기’로 굳어져 현재까지 이어진다.

❖ 어느 한 표기로 굳어진 원인이나 시기가 명확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예시) 1936년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에서 표준어로 선택하여 현재까지 이어진다. / 1988년 <표준어 규정>에서 새로 표준어로 인정하여 현재까지 이어진다. / 1957년에 완간된 《큰사전》에서 표준어로 올려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 특수한 사례들의 기술

■ 쌍형 어간(doublet)

- ❖ 현대어에 쌍형 어간의 어느 한쪽만이 남은 경우: 해당 표제항의 역사 정보에서 쌍형을 모두 기술한다.

예) 벗다: 중세 국어에 나타나는 ‘벗다/뵤다’ 둘이 나타나는 양상 기술. ‘벗다’만 나타나게 된 시기 등과 같은 변화 정보도 기술.

- ❖ 쌍형이 나중에 분화해서 《우리말샘》에 둘 다 표제어로 등재된 경우: 같은 의미로 사용된 시기에는 쌍형 모두에서 같이 기술하고 의미 분화된 이후에는 각 표제어에 관한 것만 기술한다.

■ 어형 분화

- ❖ 어원적으로 같은 형태로 다의어였으나 후대에 별개의 단어로 형태가 달리 분화한 경우에는 다의어였음을 밝히고 앞부분에서 같이 기술하고, 형태가 분화된 이후에는 분화된 표제어에 관한 것만 기술한다.

예) ‘가르치다’와 ‘가리키다’

● 내적 정보를 기술할 때 주의할 사항

■ 문헌에 나타난 예로만 설명한다.

예) 물약: 문증되지 않는 어형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는다.

‘물약’은 19세기부터 나타난다. 이 단어는 ‘물’과 한자어 ‘약(藥)’이 결합한 것이다. 18세기와 ‘ㅅ’ 아래의 ‘-’가 ‘-’로 바뀌는 현상(원순모음화)에 따라 ‘물’이 ‘물’로 바뀌었으므로 19세기 이전에 ‘물약’의 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지만 예가 확인되지 않는다.

- ❖ 단, 변화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문헌에 나타나지 않은 예를 설명할 수 있다.

‘관디’는 16세기부터 ‘관디’로 표기되어 나타난다. 16세기 후반에 제2음절 이하의 ‘-’는 ‘-’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이중 모음 ‘-’도 ‘-’로 변하면서 ‘관디’는 ‘*관디’가 되었을 것이나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근대 국어 후기에 이중 모음 ‘-’가 ‘-’로 변화하여 ‘관디’로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관디’)

- 합성어나 파생어의 경우 그 구성 성분 각각의 어원 관련 정보는 기술하지 않고 구성 성분에 대응하는 해당 표제어에서 기술한다.

‘물방아’의 옛말 ‘물방하’는 18세기부터 나타난다. ‘물’과 ‘방아’의 옛말인 ‘방하’가 결합한 형태이다. ‘방아’는 본래 ‘방하’의 형태로 쓰였으나 ‘ㅅ’이 소멸하여 ‘방하’의 형태가 되었고, 이후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ㅎ’이 탈락하여 현재의 ‘물방아’가 되었다. 19세기에 ‘물방아’란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ㅅ’의 소멸에 따른 ‘ㅈ’과 ‘ㅊ’의 표기 혼란에 의한 것이다. ‘물’의 옛말인 ‘물’과 ‘방아’의 옛말인 ‘방하, 방하’ 등이 결합한 어형은 확인되지 않는다.

❖ 구성 성분의 어원 관련 정보를 밝혀야 하나 구성 성분 표제어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자리(‘기타 어원 설명’이나 ‘관련어’)에서 구성 성분의 어원 관련 정보를 밝힐 수 있다.

-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으나 미등재, 방언 등의 이유로 별도로 어원이 집필되지 않는 단어의 어휘 역사 정보는 기술할 수 있다. 다만, 이때는 ‘언어 내적 정보’가 아니라 ‘기타 어원 설명’에서 제시한다.

예) 단추: ‘돌마기’는 현대로 이어지지 않고 어원적으로도 무관하므로 ‘기타 어원 설명’에서 기술

기타 어원 설명	‘단쵸’와 같은 의미인 ‘돌마기(紐子)’<1517 사성통해 :48L>는 16세기부터 보인다.
----------	---

❖ 별개의 표제어로 《우리말샘》에 올라 있는 항목은 해당 표제어에서 어원 정보를 기술하고 ‘관련어’에 해당 표제어를 제시한다.

예) 단오: ‘수릿날’은 별개의 표제어로 있으므로 ‘단오’에서 기술하지 않는다.

‘단오’는 18세기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단오’는 한자어 ‘단오(端午)’의 한글 표기이다.
~~‘단오(端午)’의 고유어인 ‘수릿날’ 역사 15세기부터 나타난다(수릿날 자른 밭 불근 자네 (端午枚赤足者) <救簡6:53a>).~~

예) 방문: ‘지계문’은 별개의 표제어로 있으므로 ‘언어 내적 정보’에서 기술하지 않는다. 19세기 이전 문헌에서 예가 있으므로 별도 집필 대상이 된다.

‘옛날식 가옥에서, 마루와 방 사이의 문이나 부엌의 바깥문’을 뜻하는 ‘지계’ 또는 ‘지계문’도 있었다.
 戶 지계 *又 房門<1748 동문類解 上 35b>
 房門 지계문<1778 방유 2:20a>
 지계^ㄷ 門 半만 열고 밤드도록 기다리니<1876 歌曲源流 40>

- 역사적 변화를 설명할 때 원칙적으로 문헌에서의 인용 예를 제시하면서 설명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예) 16세기에 규칙 변화를 하는 ‘갓잡다’가 일부 발견되기도 하나(어려흔 뵙 나르러는 카 아로 머 {갓가브리니} 또 묵수물 가져 아로물 거들우마 묵혀라라 <1577 몽산 송광사 21노>), 이것은 방언의 영향으로 보인다. → 16세기에는 ‘갓가브리니’처럼 규칙 변화를 하는 ‘갓잡다’가 일부 발견되기도 하나 방언의 영향으로 보인다.

- ❖ 특수한 사례이거나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례에서 다른 예들이 있음을 밝힐 때는 어형 중심으로 간략하게 인용할 수 있다.

예) 17세기에는 ‘먹빌’으로도 나온다. 근대 국어 시기에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y) 앞에서 ‘ㅈ, ㅊ’으로 변하는 구개음화가 일어나면서 ‘먹빋’의 ‘ㅈ’이 ‘ㅌ’에서 변화한 것으로 오해하여 교정을 한 결과 ‘먹빌’과 같은 형태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런 예는 ‘겉(<겻>’, ‘팍(<팍>’ 등에 서도 보인다.(‘먹빋’)

예) ‘기천’의 ‘기’를 “물가”를 의미하는 한자어 ‘개(浦)’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浦 개 보 <1527훈몽자회 상:3ㄱ>’에서 보는 것처럼 16세기 ‘포(浦)’의 훈은 ‘기’가 아니라 ‘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다.(‘개천’)

- 단어의 의미를 설명할 때는 동의어나 다른 말로 풀어서 기술하며 한자로 제시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예) ‘ㄱㄹㅂ’는 ‘ㄱㄹ[霧]+비[雨]’로 구성된 말이기 때문에 → ‘ㄱㄹㅂ’는 안개를 뜻하는 ‘ㄱㄹ’와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구성된 말이기 때문에

- 용례를 제시할 때 용언 중 논항이 변하는 경우는 이를 유의하여 제시하고 ‘설명’에 이와 관련된 설명을 덧붙인다.(‘역사정보’ 지침)

예) 곤ㅎ다

- 설명은 표기 위주로 한다. 음가의 변화는 설명하지 않는다.

→ ‘역사정보’ 지침에서는 “‘ㄱ, ㅋ, ㆁ’ 등과 관련하여 변화를 설명할 때 15세기에는 이중 모음이었으며 근대 국어 시기를 지나면서 표기는 같으나 발음은 다르다는 설명을 붙인다. 이때 추정되는 발음을 [ay]와 같이 한글 옆에 덧붙인다.”라고 되어 있으며 현재 그렇게 기술된 경우가 많다. 이번 작업에서는 표기 위주로 설명하므로 이중 모음이 단모음으로 변했다는 기술은 역사적 변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따로 하지 않는다.

- 가급적 쉬운 표현을 사용한다.

예) 산견된다 → 간혹 보인다.

예) 문증된다 → 문헌에서 확인된다. / 문헌 자료에 나타난다.

예) ‘그스ㅎ다, 그스다’, ‘그스근’ 등과 같이 ‘-ㅎ-’가 수의적으로 탈락하기도 하였다.

→ ‘수의적’으로라는 표현을 빼도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성조(혹은 방점)은 원칙적으로 기술하지 않으나 동음어 구별 등 역사적인 변화와 관련해서 설명할 가치가 있으면 해당 단어의 성조에 대해 기술할 수 있다.

예) ‘밤’은 15세기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진다. 장음으로 발음되는 ‘밤’은 15세기 문헌에서 글자 왼쪽 옆에 두 점을 찍는 ‘상성’으로 표시되었다.

■ 5.2.3. 언어 외적 정보

- 문화사적 정보, 유입경로 등을 기술한다.
- 외래어 혹은 귀화어의 경우 다른 언어에서의 정보를 기술한다.

예) ‘빵’이 포르투갈어 ‘pão’가 일본어를 거쳐 들어온 말임을 기술

예) 16세기에 나타난 ‘갈지개’는 중세 몽골어에서 매의 일종인 누런 매를 가리키는 ‘qarčiyai’에서 온 차용어이다. 원나라의 지배를 받던 고려 시기에는 매와 관련된 몽골어 어휘가 많이 차용되었는데 ‘갈지개’ 또한 그 중의 하나이다.(‘갈지개’)

예) ‘마고즈’는 중국어의 ‘마괘자(馬褂子)’에서 차용된 단어이다. 1778년에 간행된 《방언유석》에 ‘馬褂子’를 ‘마상에 낚는 자른 옷’으로 기록하고 있어 ‘마고즈’의 차용 시기는 18세기 말 이후로 추정된다.(‘마고자’)

☞ (마)에서 다른 언어로부터 온 말임을 언급한 경우에 (바)에서 기술한다. 밑줄 친 부분은 (마)로 옮겨 기술해야 한다.

예) 정약용(丁若鏞)의 《아언각비(雅言覺非)》를 살펴보면 ‘顚頭’ 조(條)에 ‘顚頭誤翻甘土, 華音本甘투’라는 설명이 있는데, 이를 통해 그 한자 어원을 확인할 수 있다. ‘감투’에서 ‘감’은 한자 ‘顚’의 근대 한음(漢音)과 중세 한국 한자음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한자음으로 읽힌 것인지, 한음(漢音)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하지만 ‘토’는 ‘頭’의 근대 한음(漢音)인 */thəu/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감투’)

- 어원과 관련하여 문화사적으로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면 기술할 수 있다.

예) 샤프펜슬이 세상에 나온 시기와 한국에서 등장한 시기와 그에 얽힌 이야기

예) 돈가스가 일본에서 만들어진 음식으로 ‘돈가스’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

예) 한자 표기가 변하거나 다양하게 나타나는 양상 (‘생각’이 고유어인데, ‘生覺’이라고 적는 경우 등)

- ❖ 표제어에 대응하는 다른 언어의 예도 기술할 가치가 있으면 기술할 수 있다.

예) 한편, 중국명 ‘白斂(bái liǎn)’은 뿌리의 속이 흰 덩굴로서 오직 염창(斂瘡)을 치료하는 약이라는 뜻이다.(‘가위톱’)

☞ 삭제한 부분은 어원설에 관한 것이므로 (사)에서 기술. 《우리말샘》에서 ‘白斂’을 제시했으나 ‘白斂’이라고도 나옴. 중국명으로만 볼 것인지에 대한 기술도 포함하면 좋을 듯함.

- 선인들의 기록에서 해당 표제어와 관련된 흥미로운 기록은 기술할 수 있다. 최대한

간결하게 기술한다.

예) 유희의 《물명고》에서는 ‘斑猫(반묘)’에 대해 때에 따라 이름이 바뀐다고 하였다. 7~8월에 콩잎 위에 있으면서 등껍질이 얼룩덜룩한 것을 ‘오색가뢰’라 하고, 봄에 원화(荄花)에 있으면서 푸른색을 띠는 것을 ‘청가뢰’라고 하였다.(‘가뢰’)

예) 『사류박해(事類博解)』에서는 ‘加佐味’(가좌미), ‘鱸魚’(검어), ‘鮓魚’(개어), ‘三魚’(삼어), ‘比目魚’(비목어), ‘鏡子魚’(경자어)라고 했고 -생략- 『이아(爾雅)』에는 “동방(東方)에 비목어(比目魚)가 있으니, 나란히 하지 않으면 가지를 못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세속에서는 접(鰈)을 가자미[加佐魚]라고들 한다고 하여, 접, 비목어, 가자미가 같은 것임을 설명하였다. 17세기 조선의 시인이었던 이응희(李應禧: 1579-1651)는 이러한 동방의 가자미를 두고 아래와 같은 시를 지어 『옥담시집(玉潭詩集)』에 실었다. 가자미의 맛을 묘사한 그의 시에 등장하는 가자미 구이는 주로 자반가자미로 만들었던 음식이다. -생략- 사실 가자미는 맛이 담백하고 살이 연하며, 비린내도 적어서 한국인들이 즐겨 먹어 온 어종이다.(‘가자미’)

예) 『해동농서』에는 ‘荊杞 굴기’라고 하였으며 “벼 고갱이를 따로 모으는 연장으로 싸리나무를 구부려 만든 것으로 타작마당에 긴요하며 큰 솔가리 나무를 할 때에도 쓴다(疏剔禾稻之器也揉荊編成列齒場圃間不可無者亦爲樵蘇所用).”라고 기록하였다.(‘갈퀴’)

예) 조선 후기 실학자 이덕무의 《청장관전서》에서는 ‘마가목(馬欄木)’으로 기록되어 있다. 《청장관전서》에서 원약허에게 보내는 편지에 ‘속칭 마가목(馬欄木)은 원래 무슨 글자를 쓰는가요’(俗稱馬欄木. 原號何字.)하는 질문에 ‘마가목은 채찍이나 지팡이를 만드는 줄만 알 뿐 무슨 물건인지 모르겠습니다.’(馬欄木只知爲鞭與杖. 而不知爲何物.)라고 답하는 대목이 있다. ‘欄’은 회초리를 뜻하므로 나무의 쓰임새에 따라 지어진 이름이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김경선의 《연원직지》와 박지원의 《열하일기》에는 ‘마가목(馬家木)’으로 《홍재전서》에는 ‘마가목(馬加木)’으로 표기되어 있어 이름의 유래를 확정하기 쉽지 않다. ‘마가목’의 한자를 ‘마아목(馬牙木)’으로 제시하며 마가목의 새싹이 말의 이빨처럼 보여서 이름 붙여진 것이라는 설명이 널리 알려진 듯하나 ‘마아목(馬牙木)’은 일본에서 ‘마아목(馬牙木)’이라고 부르는 것을 참고하여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마가목’)

- 국어정책적으로 말이 정리된 것을 기술할 수 있다.

예) ‘가르치다’와 ‘가리키다’를 구별해서 쓰게 된 배경

예) 가락국수가 우동의 순화어로 등장했지만 별개의 의미로 쓰이게 된 것

- 집필을 하면서 발견한 자료를 반영하여 작성하되 참고문헌을 밝혀둔다. 정보의 정확성은 감수진과 집필관리자가 추후에 검토한다.

- 다음과 같은 정보는 ‘언어 외적 정보’에서 제시하지 않는다.

예) [의학용어] 서혜부 림프선이 부어오른 것을 말하며 허벅다리 윗부분의 림프절이 부어 생긴 명을 의미한다.

예) 총을 목표물에 조준할 때 이용하는 장치를 ‘가늌-쇠’라 한다.

예)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8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는 정신에 따라 ‘그으름’은 ‘그을음’으로 표기가 고정되었다.(‘그을음’)

예) ‘中’의 15세기 한자음은 ‘둥’이므로 이 단어가 더 이전에 쓰였다면 ‘빅둥’의 형태로 표기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문헌에 나타나지 않은 표기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예) ‘말’은 만주어 morin, 몽골어 mori, 중국어 馬 mǎ, 일본어 uma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말’의 이형태 ‘막’과 관련해서 중국어 mǎ와 일본어 uma를 참고할 수 있다.(‘말’)

☞ 다른 언어와의 비교는 알타이어 비교까지 포함되어야 할 수도 있어 작업 범위가 커지고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다른 언어와의 비교까지로 기술 범위를 넓히지 않는다.

■ ‘언어 외적 정보’가 아닌 ‘언어 내적 정보’에서 기술할 내용

예) 19세기 이후 ‘그저’의 여러 이표기들은 1936년 표준어 사정 때 ‘그저’라는 표기는 “그냥” 등의 의미를, ‘거저’라는 표기는 “공짜로” 등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정리되고, 나머지 ‘그저’, ‘거저’ 등의 표현은 사라지게 되었다.(‘그저’)

예) ‘밴댕이’의 ‘댕’은 뒤에 붙은 접미사 ‘-이’의 영향을 받아 원래의 ‘당’이 ‘댕’으로 되었다는 것 이외에 ‘반당’의 어원은 알 수 없다.(‘밴댕이’)

예) ‘너울’은 여자들이 얼굴을 가리기 위해 쓰던 전통적인 쓰개의 일종인데, 이러한 전통 예법이 사라진 20세기 초에는 서양식 결혼 예복에 맞추어 신부가 쓰는 ‘면사포’를 가리키기도 하였다.(‘너울’)

■ ‘언어 외적 정보’가 아닌 ‘기타 어원 설명’에서 기술할 내용

예) 물벌의 ‘물’은 한자와의 대응을 고려하면 ‘馬’의 직역어일 가능성이 있다.(‘말벌’)

예) ‘미늘’은 물(水)의 고대음 [미]와 늘(늘(刀)의 합성어로서 ‘물속에서 쓰이는 날’이라는 뜻인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미늘’)

예) 《우리말샘》에 ‘미달이’의 방언’으로 나오는 ‘밀창’은 18세기 문헌 자료에 나타난다(완념호로-밀창하야 크리로 들게 호교<1764년 이후 일동 :247>). 즉, ‘미달이’의 옛말인 ‘미다지’보다 더 이른 시기에 나온다. 이로 보아 ‘옆으로 밀어서 열고 닫는 문이나 창’을 일컫는 것으로 18세기에 ‘밀창’이 쓰이다가 19세기에 ‘미다지’ 어형이 등장하면서 세력이 약화된 것으로 짐작한다. 19세기 자료인 《국한회어》에서는 ‘미달이 推窓’으로 나오며, 《한불자전》과 《광재물보》에서는 ‘밀창 推窗’으로 나온다. 당시 두 어휘가 동일 사물을 지칭함을 알 수 있다. 이후 1940년 《조선어사전》에 ‘밀창’이 ‘미달이’의 사투리로 설명하고 있다.(‘미달이’)

예) ‘명석’은 ‘網席’의 한글 표기인 ‘망석’과 의미상 같기 때문에 서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명석’)

예) 15세기 어형인 ‘물-’은 어원적으로는 ‘물[水]’로 거슬러 올라간다. 즉 명사 ‘물’에서 형용사

‘뭍-[淡]’이 파생되고, ‘뭍-’의 모음이 교체되어 ‘뭍-’이 파생된 것이다. ‘뭍-’은 현대국어의 ‘뭍-’으로 이어지고, ‘뭍-’은 ‘뭍-’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불[火]’에서 ‘붉-[赤]’이 파생되고, ‘붉-’의 모음 교체로 ‘붉-’이 파생되어 현대어의 ‘뽀-’으로 이어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뽀다’)

■ 5.2.4. 기타 어원 설명

- 학계에서 널리 인정되지 않는 어원, 즉 민간 어원, 여러 설이 공존하는 어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어원 등을 기술한다.
- 어원사전을 집필할 때, 기존 논저를 인용할 경우 직접 인용하지 않고 요약하여 인용한다. 또한, 이 책이 어원사전임을 감안하여, 저자명이나 논저명을 인용하지 않는다.
- 어느 한 학설이 널리 인정되지 않은 채 여러 학설이 공존하는 경우에 ‘기타 어원 설명’에서 기술한다.

예) ‘가초’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공존한다면 ‘기타 어원 설명’에서 기술

언어 내적 정보	‘갓추’는 15세기 문헌에서부터 ‘ㄱ초’의 형태가 나타난다. 16세기 이후로는 ‘ㄱ초’와 함께 이를 중철 표기한 ‘꺄초, 꺄초’의 예도 나타난다. -생략-
기타 어원 설명	‘ㄱ초’의 구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한다. 용언 ‘꺄-’에 파생접미사 ‘-호-’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동사 ‘ㄱ초-’의 어간이 그대로 부사로 파생되어 쓰였다는 견해와 용언 ‘꺄-’에 부사파생접미사 ‘-호’가 결합하여 부사 ‘ㄱ초’가 만들어졌다는 견해가 있다. -생략-

- 널리 인정되는 학설은 아니나 소개할 만한 학설의 경우에는 ‘기타 어원 설명’에 기술한다. 그러나 ‘기타 어원 설명’은 집필진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학설은 아니며, 문제점이 있을 경우 밝힐 수 있다.

예)

언어 내적 정보	‘서까래’의 옛말인 ‘헛가래’는 17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난다. ‘헛가래’는 “마룻대에서 도리 또는 보에 걸쳐 지른 나무”를 뜻하는 ‘헛’과 ‘ㅅ’과 “길고 가는 물체”를 뜻하는 ‘가래’가 결합한 것이다. [후략]
기타 어원 설명	‘서’의 모양이 “동물의 입 안 아래쪽에 있는 길고 둥근 살덩어리”를 뜻하는 ‘헛’과 같다고 생각하여 ‘서’를 신체 일부를 지칭하는 ‘헛’로 되돌리는 의도가 작동한 결과가 ‘서’와 ‘헛’의 교체라고 보고 있는 견해도 있다.

- 명확하지는 않으나 어원사전 등에서 언급하였거나 널리 언급되면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경우에 기술한다.

예) ‘가시’의 어원을 명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부부의 낮춤말인 ‘가시버시’의 ‘가시’와, “장인”,

“장모”를 뜻하는 ‘가시아비’, ‘가시아미’의 ‘가시’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가시아비’와 ‘가시아미’의 ‘가시’는 ‘갯’(여자, 아내)에 속격 조사 ‘이’가 결합된 어형인 ‘가시’가 변화를 겪은 ‘가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가시아비’)

예) ‘범아귀’는 “손아귀”의 뜻인 중국어 ‘虎口’의 번역 차용어로 추정된다.(‘범아귀’)

- 민간 어원이나 어원 관련 설화 등을 기술할 수 있다.

예) ‘강남이’가 ‘江南+이’라는 어원

예) ‘물레’가 문래(‘文萊’ 또는 ‘文來’)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생긴 이름이라는 어원

예) 옛날에 어떤 집에 달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자 주인이 꾀를 내어 “가라고 가랑비 오네.”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손님은 “있으라고 이슬비 오네.”라고 응수하며 버티었다고 하는 데서 ‘가랑비’와 ‘이슬비’가 생겼다는 민간어원설이 있다.(‘가랑비’)

☞ 개인의 학설이어서 특별히 밝혀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출처는 ‘참고 논저’에서 밝히는 것으로 대신하고 ‘기타 어원 설명’에서는 밝히지 않는다.

예) ‘갈보’의 어원과 관련하여 ‘蠍婦(갈부)’에서 온 것으로 보기도 하였으나 이는 의미를 고려하여 고유어 ‘갈보’와 유사한 한자음을 가져다 쓴 것에 불과하다. 한편 ‘갈보’의 어원을 1920~1930년대에 활약한 영화배우 ‘가르보’에서 찾기도 한다. ‘가르보’라는 영화배우가 아름다운 용모와 빼어난 연기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다가 ‘갈보’로 줄어들었고, 이어서 ‘웃음과 몸을 파는 여자’를 가리키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설에 그친다.(‘갈보’)

- 관련이 있는 다른 표제어와의 특이한 역사적 관계를 기술할 수 있다.

예) ‘간섭하다’는 명사 ‘간섭’에 ‘하다’가 결합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干涉하다’는 15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나고 한글 표기인 ‘간섭하다’는 17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나 ‘간섭’보다 출현하는 시기가 빠르다. 문헌에서 나타나는 예로만 본다면 동사 ‘干涉하다’, ‘간섭하다’의 쓰임이 명사 ‘간섭’의 쓰임보다 앞서고 있다.(‘간섭’)

예) ‘어숙’은 ‘어숙하다<1880 한불 :24>’의 ‘어숙’과 관련이 있다. (‘어숙비숙’)

-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으나 별도의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단어의 어휘 역사 정보는 기술할 수 있다.

예) ‘단추’ 항목에서 ‘돌마기’를 기술함.

예) 현재 ‘너비아니’의 비규범 표기인 ‘너브할미’는 《한불자전》(1880)에 ‘너부할미’로 나타난다. ‘너부할미’는 ‘너브할미’의 제2음절 모음 ‘ㅡ’가 양순음 ‘ㅂ’ 아래에서 ‘ㄴ’로 바뀐 것이다. 문세영의 《조선어사전》(1940)에서는 ‘너브할미’를 ‘너비아니’의 방언으로 설명하였지만, 《조

선일보》(1936. 11. 28.)에 실린 <조선어 표준말 모음 (21)>에서는 ‘너비아니’와 ‘너브할미’를 동의어로 설명하였다.(‘너비아니’)

☞ ‘언어 내적 정보’의 ‘내적 정보를 기술할 때 주의할 사항’ 참조

● 다양한 학설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 정리하여 제시한다.

기타 어원 설명	<p>‘도깨비’의 어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들이 제시되어 있다.</p> <p>첫째, 도깨비는 ‘뚝+아비[父] → 뚝가비>도까비>도깨비’로 어형 변화가 일어났다. ‘뚝’은 ‘뚝ㄱ[帆(범; 돛)]’과 동근어로 돌출 개념어이며, ‘두역신’과 같이 귀신(鬼神)을 뜻한다. 도깨비는 ‘실체가 아닌 헛것’을 이르는 말로 어원적 의미가 ‘갑자기 나타난 아비 같은 것’이라는 설이다.</p> <p>둘째, ‘뚝가비’의 ‘뚝’은 ‘환(幻), 변화와 요술’의 뜻을 지니며, ‘뚝아비’가 ‘뚝ㄱ아비’로 변했다고 보면, ‘뚝ㄱ아비’는 ‘환부(幻父), 요술아비’라는 본 뜻을 지닌다. 국사기 지리지의 백제어 ‘靈’이 ‘솔’로 표기되었다. ‘돌, 돛’으로 읽을 경우 ‘뚝가비’의 ‘뚝(뚝)’은 ‘靈父’의 원의를 지닐 개연성도 있다. 백제어에 돌(靈)이 있는데 조어는 ‘돌’일 것이다. ‘뚝(뚝)아비’가 ‘뚝ㄱ아비’일 수도 있어 ‘靈父’의 어원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p> <p>셋째, “뚝갑다(도답다: 서로의 관계에 사랑이나 인정이 많고 깊다)”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아 “뚝갑+이(접미사)”의 결합으로 파악하고, “뚝갑이>도까비>도깨비”의 변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p>
----------------	---

● 다음과 같은 정보는 ‘기타 어원 설명’에서 기술하지 않는다.

- 동음이의어 혹은 단순히 관련이 되는 다른 단어는 기술하지 않는다.

예) 15세기 ‘ㄱ장’에는 동음이의어로 “끝”을 뜻하는 명사도 있었는데 이 단어는 ‘가장자리’에 흔적이 남아 있다. 또한 명사 ‘ㄱ장’이 관형사형 어미 뒤나 명사 뒤에서 쓰인 경우 “까지,껏”의 의미를 지니기도 했다.(‘가장’)

예) 15세기에는 동음어로서 “베짖이”의 뜻인 ‘뵤짖이’와 “질경이”의 뜻인 ‘뵤짖이’가 있었다.(‘베짖이’)

☞ ‘ㄱ장’은 《우리말샘》에 동음이의어가 구분되어 실려 있으므로 ‘기타 어원 설명’에서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뵤짖이’는 ‘베짖이’의 뜻만 실려 있다. 이런 경우는 ‘기타 어원 설명’이 아닌 ‘메모’에 추가할 표제어로 남겨야 한다.

예) 어근 ‘갑작’은 《1880 韓佛字典 132》에 나온 ‘갑작부리’, ‘갑작쓰레[猝然]’에서 볼 수 있다. ‘갑작스럽다’는 《1940 修正增補朝鮮語辭典》에서처음 등장한다.(‘갑자기’)

예) 15세기 문헌에서 ‘밥의 값’이 확인되는 것을 고려하면 15세기에는 ‘밥값’이 한 단어가 아니라 명사구였다고 할 수 있다. 더 ㅅ 閻羅老子 | {밥의 갑술} 헤리니<1467 사법 05> (번역: 다른 때에 염라노자가 밥값을 셀 것이니)

☞ 집필자는 구에 대한 판단을 내린 후 용례를 찾는 것이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명사구였다는 식의 기술은 할 필요가 없다.

■ 최초 출현형 이전 어형에 대한 추정

☞ 한글 창제 이전의 차자 표기 문헌에서 나타나는 어형에 대한 기술은 나중에 현재의 집필과 별도로 검토가 진행될 계획이므로 따로 집필하지 않는다.

■ ‘기타 어원 설명’이 아닌 ‘언어 내적 정보’에서 기술할 내용

예) 15세기의 부사 ‘ㄱ장’에는 “모두, 다” 정도로 쓰인 예도 보인다.(‘가장’)

예) ‘븘-’에 결합하던 사동파생접사가 ‘-이-’에서 ‘-히-’로 변화하였다.(‘밭히다’)

예) ‘븘-’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느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그 어형을 바꾸는 동사이다. 1450년대까지는 ‘븘-/븘븘-’, 1460년대부터는 ‘븘-/븘오-’와 같은 이형태를 가지는 ‘븘’ 불규칙 용언이었다. 이후 ‘븘고, 븘디’와 같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나타나던 ‘븘-’이 ‘븘아, 븘을’과 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도 ‘븘-’으로 바뀌었다. 이로써 ‘븘-’은 자음이든 모음이든 어미 앞에서는 항상 ‘븘-’으로 나타나는 규칙 용언이 되었다.(‘밭다’)

예) 15세기에는 연철표기를 기본으로 하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15세기의 ‘갈아디-’는 예외적 표기이다. 15세기에는 ‘다르-(異), 오르-(上) 등’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는 ‘달오-, 올오-’와 같이 분철로 표기되는 몇몇 용언이 있다. 이때 ‘오’는 자음으로, 유성 후두 마찰음 ‘o’[h]이다.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는 ‘다르-, 오르-’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가르-’ 역시 이런 교체를 보이는 유형에 속한다. 15세기 문헌 등에서 활용형 ‘갈아’만 보일 뿐 ‘가르-’에 자음으로 시작한 어미가 결합한 형태는 나타나지 않지만, ‘갈아디-’, ‘갈아나-’ 등을 고려하면 ‘가르-’가 기본 어간으로 파악된다.(‘갈라지다’)

예) 16세기의 ‘기천’은 ‘기’와 ‘천(川)’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천(川)’은 “내”를 뜻하는 한자어인데 ‘기’는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다. ‘기천’의 ‘기’를 “물가”를 의미하는 한자어 ‘개(浦)’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浦 개 보 <1527훈몽자회 상:3ㄱ>’에서 보는 것처럼 16세기 ‘포(浦)’의 훈은 ‘기’가 아니라 ‘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다.(‘개천’)

예) ‘비스ㅎ다’가 ‘비슷ㅎ다’로 바뀌는 현상은 국어사에 있던 ‘ㄱ’과 ‘ㅅ’의 교체로 설명할 가능성이 있다. ‘틀림없이 꼭’을 뜻하는 ‘반ㄷ기’가 ‘반ㄷ시’로 바뀌었는데, 이들은 ‘반ㄷ’, ‘반ㄷ’에 접사 ‘-이’가 결합한 형태이다.(‘비슷하다’)

예) 문헌에서 확인되는 ‘밥풀’의 대부분은 ‘밥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飯粒兒’은 <방언유석>(1778)에서는 ‘밥알’이 제시되어 있다.(‘밥풀’)

■ ‘언어 내적 정보’가 아닌 ‘기타 어원 설명’에서 기술할 내용

예) ‘너울’은 한문으로 기록된 문헌들에서 ‘汝火’나 ‘羅兀’로 나타난다. 훈차(訓借) 표기인 ‘汝火’는 ‘*너블’로 재구되는데, ‘*너블 > *너블 > 너울’의 변화 과정을 거쳐 ‘너울’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羅兀’은 ‘너울’의 취음(取音) 표기이다. 문헌에서 처음 확인되는 시기는 비슷하지만 후대로 갈수록 ‘汝火’보다는 ‘羅兀’이 쓰였는데, ‘汝火’는 《선조실록》(선조 36년(1603) 5월 2일 기사), 18세기 중반 이전의 의궤들에서 확인되며 ‘羅兀’은 이수광(李睟光)의 《지봉유설》(1614), 《속종실록》(숙종 14년(1688) 11월 12일 기사), 18세기 중반 이후의 의궤들에서 확인된다.(‘너울’)

■ ‘기타 어원 설명’이 아닌 ‘관련어’로만 제시할 내용

예) 18세기에 “눈을 깜작이-”를 의미하는 ‘눈 끔적이-’와 같은 구성이 나타나고, 20세기 사전에서도 동사 ‘꿈적이-’의 의미로 “눈을 떴다 감았다 하다”를 예로 들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몸’을 움직이는 의미인 ‘꿈적이다001’와 ‘눈’을 움직이는 의미인 ‘깜작이다001’은 의미의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고은숙(2010)에서는 이러한 동사들을 15세기의 ‘굼죽-’류 용언에서 파생돼 나온 동일 기원어임을 논의하였다.(‘꿈적이다’)

■ 5.2.5. 세기별 용례

● 의미 변화가 있는 경우 의미별로 나누어 제시한다.

- ‘언어 내적 정보’에서 의미 변화를 설명한 경우에 의미별로 나누어 의미를 먼저 제시하고 해당 의미에 맞는 용례를 제시한다.
- 제시하는 의미 풀이는 최대한 간략하게 한다.(‘역사정보’ 지침)
예) ‘어리석다’ / ‘나이가 적다’

● 세기별로 3개 이상 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말뭉치에서 용례가 3개 이상 발견되지 않으면 3개보다 적게 제시할 수 있으며, 용례가 없는 세기는 당연히 제시하지 않는다.
- 용례는 1945년 이전에 나온 문헌에서 발견된 것까지만 인용할 수 있다.
예) 할머니머리엔 검불과 {가사랭이} 터럭이 불성 사나웠읍니다. <<경향신문 1983.12.03. 8면>>
☞ 1983년에 나온 기사이므로 인용할 수 없다.
- 용례, 출처, 한문 원문, 현대역을 제시한다.
 - ❖ 용례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길이 범위 내에서 제시한다.
 - ❖ 출처는 말뭉치에 제시된 그대로 제시한다.
 - ❖ 한문 원문은 말뭉치에 있는 경우에 한해 제시한다.
 - ❖ 현대역은 집필자가 번역하여 제시한다.

● 이표기 및 변화형 제시 방법

- 세기별로 말뭉치에서 확인되는 모든 이표기 및 변화형을 제시한다.
- ❖ 세기가 다른 앞선 세기에서 제시된 이표기 및 변화형이라도 다시 제시한다.

예) ‘그저께’

세기	<input type="radio"/> 15세기 <input checked="" type="radio"/> 16세기 <input type="radio"/> 17세기 <input type="radio"/> 18세기 <input type="radio"/> 19세기 <input type="radio"/> 미상 <input type="radio"/> 20세기
표기	그적괴, 그것괴

세기	<input type="radio"/> 15세기 <input type="radio"/> 16세기 <input type="radio"/> 17세기 <input checked="" type="radio"/> 18세기 <input type="radio"/> 19세기 <input type="radio"/> 미상 <input type="radio"/> 20세기
표기	그적괴, 그적씩, 그적괴, 그것괴

- 같은 세기 내의 이표기 및 변화형의 배열 순서는 용례에서 제시되는 순서대로 한다.
- 어간을 제시하되 체언은 조사를 제외한 부분, 용언을 어미를 제외한 부분을 제시한다. (‘형태·표기 변화’ 부분을 기술할 때와 표기법이 다르다. ‘형태·표기 변화’ 부분에서는 ‘다르다’로 제시한다면, 그 외의 부분에서는 ‘다르-’로 제시한다.)
- ❖ 뒤에 오는 조사나 어미에 따라 이형태 교체가 생길 때는 이형태를 각각 제시한다.
예) 나무, 낚 / 노로, 놀오, 놀, 늙 (‘낚’과 ‘놀오’의 차이는 한 음절로 입력이 가능한가의 여부이다. 한 음절로 입력이 가능한 경우에는 겹받침으로 적되, 입력할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적는다. 예컨대, ‘엿오’은 한 음절로 입력할 수 없으므로 ‘엿오’와 같이 적는다.)
- ❖ 용언의 경우 ‘다르-’와 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형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모든 이형태에 줄표(-)를 표시한다.
예) 다르-, 달오-, 달르- / 갓잡-, 갓갈- / ㄱ르-, 굴오-, 가르-, 갈르-
- ❖ 용언의 경우 중철 표기인 경우도 모든 이형태에 줄표(-)를 표시한다.
예) 갑표-, 갑-, 갇-
- ❖ 후행하는 어미의 환경에 따른 이형태를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줄표(-)를 표시한다.
예) 엮미이-, 엮ㅁ이-
- ❖ 체언의 경우에는 나타난 이표기대로 제시한다.
예) 용언 : 다르-, 달오-, 달르- / 갑ㅎ-, 갇-
체언 : 노르, 놀오 / 꽃츠, 꽃ㅎ
- ❖ ‘-ㅎ-’가 탈락한 경우에도 이표기로 제시한다.
예) 그속ㅎ다, 그속다
- ❖ ‘ㅎ 말음 체언’의 경우에는 ‘ㅎ’을 받침에 표기하지 않고, 분리하여 적는다.
예) 암ㅎ, 수ㅎ, 나라ㅎ 등. (‘앓’, ‘술’, ‘나랏’으로 표기하지 않는다.)

- 20세기에는 다양한 이표기 및 변화형이 나타나므로 빈도가 적거나 중요도가 떨어지는 이표기 및 변화형은 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예) ‘그을다’의 이표기 ‘그러서’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이표기로 보이므로 제시하지 않는다.

철근『콩크리트』삼층 건물은 오랜 풍상에 {그을} 대로 {그러서} 마차 고성(古城)과도 가튼
장중한 늦김을 준다. <조선일보 1936.05.29. 3면>

예) ‘긔전’이 이전 문헌부터 나타나고 ‘귀전, 귀편’은 표기의 변형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용하지 않는다.

{귀전에} 박관찰이 엇저고 흐는 말이 들린다. <조선일보 1920/07/21, 4>
軍縮의 空砲聲 쯤아야 {귀편에나} 들릴 줄아 앓으랴. <동아일보 1933/11/19, 1>

- 20세기에는 대부분의 단어에 대한 쓰임이 확인되므로 복합어의 일부 성분으로 쓰인 예를 제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깜박깜박’의 예에서 ‘깜박깜박하다’의 예를 제시하지 않는다.

외로운 등잔불아 {깜박깜박하느} <1922년_고목화 유형=main 언어=kor 장치=68a:1 입력
저본=韓國 開化期 文學叢書, 1: 新小説*翻安(譯)小説 6>

● ‘세기별 용례’ 기술 방법

- 용례는 같은 세기 내에서는 연대순으로 제시한다.
- 연대미상 자료의 경우, 19세기와 20세기 사이에 제시한다.
- 같은 세기의 용례는 가능한 다양한 형태를 보일 수 있도록 제시한다.
- 한자어의 경우 번역문이나 본문에 한자 표기 어형이 출현하면 제시한다. 한문 원문에
만 나오는 것은 제외한다.

언어 내적 정보	‘별세하다’는 18세기 문헌에서 한자 표기인 ‘別世하다’로 나타나고 19세기 문헌에서부터 한글 표기인 ‘별세하다’로 나타난다.
세기별 용례	18세기 : (別世하다) 내 父親은 불셔 {別世하여} 계오시되 <1790 인어대방 3:28ㄱ> (번역: 내 부친은 벌써 별세하여 계시되) 19세기 : (별세하다) {별세하다} 別世 <1880 한불사전 323> 그 남편은 먼저 {별세하교} <1899 매일신보 3월 17일~4월 3일> (번역: 그 남편 -하락-

- 인용 문헌의 경우, 갖은 이름을 밝힌다. (‘석상’을 버리고 ‘석보상절’을 취한다. 단, 1

차년도 사업에서 다른 양식으로 기집필된 경우 수정을 보류한다.)

- 20세기의 경우에는 말뭉치에서 예가 없으면 다음과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여 예를 찾을 수 있다.

- ❖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newslibrary.naver.com) / 연세 20세기 한국어 말뭉치 (<https://ilis.yonsei.ac.kr/corpus/#/search/TW>)

- ❖ 신문의 경우에는 ‘연도+신문명+월일+면수’로 표시한다. (단, 1차년도 사업에서 다른 양식으로 기집필된 경우 수정을 보류한다.)

예) 1924 조선일보 5월 15일 3면

- 말뭉치 혹은 원문에 나타난 표기 그대로 인용하되 띄어쓰기만 현대의 띄어쓰기 규정을 준용한다.

- ❖ 원문에 한자가 노출되면 한자 그대로 인용하고 한자(한글), 한글(한자) 형식인 경우에도 그대로 인용한다.

예) 萬頃 大東團, 白□ A團, 白鵠 B團 등이었는바 第二日인 決勝戰에 이르러<1925 조선일보 9월 2일 4면> 번역: 만경 대동단 백□ A단, 백합 B단 등이었는바 제2일인 결승전에 이르러(‘백합’)

- ❖ 신소설, 독립신문 등에는 띄어쓰기가 이미 되어 있으나, 현대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에 맞추어 수정해야 한다.

- ❖ 말뭉치에서 용례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말뭉치에 있는 띄어쓰기 오류, 명백한 오타 등을 발견하게 될 경우, 용례를 인용하면서 수정하고 ‘우리말샘’ 사이트의 게시판에 기록을 남겨 말뭉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말뭉치 정비에 매우 중요하다.

- ❖ ‘-ㄴ씨-’의 경우, 말뭉치 구축 지침에서 처리한 것과 같이 붙여 쓴다. (‘-을씨라’를 취하고 ‘-을 씨라’를 버린다.)

- 용례 중에 나오는 표제어는 { }를 사용하여 어절 단위로 표시한다.

예) {나모와} (×), {나모와} (○)

● 용례 번역

- 19세기 전반기 이전 문헌에 나타난 용례까지만 현대어로 번역한다.

- ❖ 단, 19세기 후반기 이후 문헌에 나타난 용례 중에서 한자가 많이 노출된 경우에는 현대어로 번역한다.

예) 萬頃 大東團, 白□ A團, 白鵠 B團 등이었는바 第二日인 決勝戰에 이르러<1925 조선일보 9월 2일 4면> 번역: 만경 대동단 백□ A단, 백합 B단 등이었는바 제2일인 결승전에 이르러(‘백

합)

- 표제어에 대응하는 예만 있는 어휘집의 용례는 번역하지 않는다.

예) 兩臉骨 {광디뼈} <1690 역어유해 상:33ㄴ> (번역: 광대뼈)

- 번역을 할 때 설명과 일치되도록 유의한다.

예) 네 代官의 가 내 말로 {그적귀} 여기 노력와 어제라도 오을 거술 路次의 굿브매 이제야 문
석지 왔습니 → 너의 대관에게 가 내 말로 “그저께 여기 내려와 어제라도 올 것을, 도중에 피
곤하여 이제야 문까지 왔습시다.” <1676 첩해신어 초간본 1:1ㄱ-1ㄴ>

☞ 어원 설명에서는 이 당시의 문헌이 ‘그저께’의 뜻이 아니라 ‘며칠 전’의 의미라고 설
명했으나 ‘그저께’로 번역해서 설명과 맞지 않는다.

- 어원적으로 같은 형태로 다의였으나 후대에 별개의 단어로 형태가 달리 분화한 경우
에는 현대어로 번역할 때 각각의 의미에 맞는 단어를 선택하여 번역한다.

예) ‘가르치다’와 ‘가리키다’

■ 5.2.6 이형태/이표기

- 세기, 제시 순서로 이형태와 이표기를 모두 제시한다.

- 앞선 세기에서 나온 이표기나 변화형은 중복하여 제시하지 않는다.

예) 밤나모, 밤남, 밤남오, 밤나무(‘밤나무’)

■ 5.3. 부가 정보

■ 5.3.1. 관련어

- 형태 분석 정보 및 어원과 관련된 단어를 제시한다.

예: ‘사타구니’의 관련어로 ‘살, 살바, 손살, 살살이’ 등이 있다.

예: ‘너비’의 관련어로 ‘넓다 001, 넓이 001’ 등이 있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관련어로 제시하지 않는다.

- 단순히 형태론적으로 관련된 복합어나 합성어

예: ‘돌다리’의 관련어로 ‘돌’과 ‘다리’를 제시하지 않는다.

예: ‘암돼지’의 관련어로 ‘돼지’를 제시하지 않는다.

- 단순히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

예: ‘부채’의 관련어로 ‘선자(扇子)’, ‘인풍(仁風)’을 제시하지 않는다.

예: ‘밧살스럽다’의 관련어로 ‘가증하다 005’를 제시하지 않는다.

☞ 단,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 각각 어원 설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시할 수 있다.

예: ‘바비다’의 관련어로 ‘부비다’, ‘비비다’를 제시할 수 있다.

■ 5.3.2. 참고 논저

- 집필에 참고한 논저를 제시한다. 논저의 내용이 집필에 포함된 것뿐만 아니라 관련된 내용이 있어 참고한 논저까지 포함된다.
- 참고 논저 제시 방식은 학술 논저의 일반적인 제시 방식을 따르며, 단행본과 논문을 구별하여 기술한다.

예) 황선엽(2009), ‘명아주’(藜)의 어휘사, 《국어학》 55, 국어학회, 213-238.

예) 조항범(2022), 《말과 글의 달인이 되는 법: 우리말 어원 사전》, 태학사.

■ 5.4. 기타 정보

■ 5.4.1. 메모 작성

- 위에서 기술할 수 없는 내용, 어휘 역사 정보와 관련 없는 《우리말샘》 사전 기술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사항, 집필자의 추가 의견, 검토하거나 논의할 내용 등을 기술한다.
 - 어원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동음어의 재분류 등 어원과 관련하여 수정이 필요한 사전 기술
 - 용례에서 발견된 말뭉치의 오타, 띄어쓰기 오류
 - 예) 남광우 《고어사전》에서는 ‘발마보다’를 표제항으로 다루고 있다.(‘뺨다’)
 - 동음어인데 《우리말샘》에 오르지 않은 옛말
 - 예) 15세기에는 동음어로서 “배짱이”의 뜻인 ‘뵈짱이’와 “질경이”의 뜻인 ‘뵈짱이’가 있었다.(‘배짱이’)
 - 용례 검색 중에서 추가로 용례를 발견한 단어인데, 북한어로 되어 있는 표제어
 - 예) ‘배배하다’의 관련어인 ‘비비하다’는 북한어로 등재되어 있음.

6. 부록: 현상 설명을 위한 표현

■ 6.1. 음운 변화에 관련된 표현

음운 변화에 대해 기술할 때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한다. () 속의 내용은 생략하거나 적절히 바꿔 쓸 수 있다.

● 아래아 소실

- 16세기 이후 나타난 제2음절 이하의 ‘ㆍ’가 ‘ㅡ’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으로 인해)
- 16세기 이후 나타난 제2음절 이하의 ‘ㆍ’가 ‘ㅡ’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ㅣ’도 ‘ㅡ’로 변하면서
- 18세기 이후 나타난 제1음절의 ‘ㆍ’가 ‘ㅏ’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으로 인해)
- 18세기 이후 나타난 제1음절의 ‘ㆍ’가 ‘ㅏ’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ㅣ’도 ‘ㅑ’로 변하면서

예) 16세기 이후 나타난 제2음절 이하의 ‘ㆍ’가 ‘ㅡ’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18세기에는 ‘다듬다’로 나타나 현재에 이르렀다. (‘다듬다’)

● 어두 자음군

예) ‘뛰-’의 첫소리인 ‘ㅌ’은 어두 자음군이 사라지면서 된소리로 변하여 ‘ㄸ’에서 ‘ㅌ’으로 변함에 따라 현재에 이르렀다.→ ‘뛰-’의 첫소리인 ‘ㅌ’은 된소리로 변하였고 현대 맞춤법에서 된소리는 같은 글자를 반복하여 적도록 함에 따라 ‘걸러뛰다’로 표기하게 되었다.

예) ‘ㅍ’의 초성 ‘ㅍ’은 중세 국어에서 ‘ㅍ’과 ‘ㅍ’이 모두 발음되는 어두 자음군이였다. 근대 국어 이후 된소리로 바뀌고, ‘ㅍ’을 ‘ㅍ’으로 표기하게 됨에 따라 20세기 이후 ‘누에씨’로 나타나 현재에 이르렀다.(예: 누에씨) → 예) 제1음절의 ‘ㅍ’은 근대 국어 시기에 된소리 ‘ㅍ’로 발음되었고 ‘ㅍ’과 ‘ㅍ’로 표기되었는데 점차 ‘ㅍ’으로 굳어져 현재의 ‘씨’가 된다.(예: 씨)

● 어두 경음화

- ‘ㅇㅇ’의 제1음절 초성 ‘ㅇ’이 된소리화된 ‘ㅇㅇ’이 나타난다.

예) ‘뚫다’의 제1음절 초성 ‘ㄷ’이 된소리화된 ‘뚫다’가 나타난다.

예) ‘불휘’의 제1음절 초성 ‘ㅍ’이 된소리화된 ‘뽕휘’, ‘뽕희’, ‘뽕휘’도 나타난다.

● ㅏ

■ ㅏ 소실

- 16세기 이후 ‘ㅏ’이 소실되어

예) 16세기 이후 ‘ㄱ’의 ‘ㅏ’이 소실되어 ‘ㄱ’이 되었고(‘가없다’)

예) 16세기 이후 ‘ㅏ’이 소실되어 ‘ㄱ’이 되었고(‘가말다’)

예) 16세기 이후 ‘ㅏ’이 소실되어 ‘그으하다’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그으하다’)

예) 16세기 이후 ‘ㅏ’이 소실되었으나, 일부 어휘에서는 ‘ㅏ, ㅑ’으로 변하기도 하였다.(‘느시’)

● ㅑ 변화

▪ ㅃ > [w]

- (15세기 중반 이후) ‘ㅃ’이 반모음 [w]로 변하여

예) 15세기 중반 이후 ‘ㅃ’이 반모음 [w]로 변하여 ‘겻와시, 겻워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거지’)

예) 15세기 중반 이후 ‘ㅃ’이 반모음 [w]로 변하여 ‘글빨’은 ‘글왈’ 혹은 ‘글월’로 나타나게 되었다.(‘글월’)

예) ‘갈’과 ‘뱀’이 결합하면서 모음 사이에서 ‘ㅃ’이 ‘ㅍ’으로 바뀐 ‘*갈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갈뱀’의 ‘ㅃ’이 반모음 [w]로 변하여 ‘갈웁’이 된 것이다.(‘갈뱀’)

예) 15세기 중반 이후 ‘ㅃ’이 반모음 [w]로 변하면서 ‘어들’은 ‘어드우’로 변화하여 ‘어듭-/어두우’의 교체를 보이는 불규칙 용언이 되었다.(‘어둡다’)

▪ ㅅ 소실

- (15세기 중반 이후) ‘ㅅ’이 사라지면서

예) 15세기 중반 이후 ‘ㅅ’이 사라지면서 ‘갓가빔’은 ‘갓가이’로 변화하였다.(‘가까이’)

예) 15세기 중반 이후 ‘ㅅ’이 사라지면서 ‘쉬빔’은 ‘쉬이’로 변화하였다.(‘쉬’)

● 구개음화

▪ ㄷ-구개음화

- (근대 국어 시기에 나타난 모음 ‘ㅣ’나 반모음 ‘ㅣ’[j] 앞의 ‘ㄷ, ㅌ’이 ‘ㅈ,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에 따라/로 인해)

예) 근대 국어 시기에 나타난 모음 ‘ㅣ’나 반모음 ‘ㅣ’[j] 앞의 ‘ㄷ, ㅌ’이 ‘ㅈ,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로 인해 18세기 문헌에서 ‘샤치’가 나타난다. (‘새치’)

예) 근대 국어 시기에 나타난 모음 ‘ㅣ’나 반모음 ‘ㅣ’[j] 앞의 ‘ㄷ, ㅌ’이 ‘ㅈ,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로 인해 ‘각디’도 ‘각지’로 변하였다. (‘각지’)

▪ ㄱ 구개음화

- (17세기 이후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ㅣ’모음이나 반모음 ‘ㅣ’[j] 앞에서 ‘ㄱ, ㅋ, ㆁ’이 ‘ㅈ, ㅊ, ㆁ’으로 바뀌는) ㄱ 구개음화(에 따라/로 인해) ‘ㅇㅇ’으로 바뀌었다. … ‘ㅇㅇ’은 18세기 이후 ㄱ구개음화 현상을 의식한 과도 교정에 의하여 ‘ㅇㅇ’로 바뀐 뒤 현재까지 이어진다.

예) (17세기 이후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ㅣ’모음이나 반모음 ‘ㅣ’[j] 앞에서 ‘ㄱ, ㅋ, ㆁ’이 ‘ㅈ, ㅊ, ㆁ’으로 바뀌는) ㄱ 구개음화(에 따라/로 인해)

● ‘ㅣ’ 역행 동화

- 18세기에 모음 ‘ㅏ, ㅑ, ㅓ, ㅕ’가 뒤따르는 ‘ㅣ’ 모음의 영향으로 ‘ㅏ, ㅑ, ㅓ, ㅕ’가 되는 ‘ㅣ’ 역행 동화(에 따라/로 인해)

예) 18세기에 모음 ‘ㅛ, ㅜ, ㅟ’가 뒤따르는 ‘ㅣ’ 모음의 영향으로 ‘ㅛ, ㅜ, ㅟ’가 되는 ‘ㅣ’ 역행 동화에 따라 ‘괘씸하다’도 ‘*괘씸하다’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괘씸하다’)

예) 18세기에 모음 ‘ㅛ, ㅜ, ㅟ’가 뒤따르는 ‘ㅣ’ 모음의 영향으로 각각 ‘ㅛ, ㅜ, ㅟ’가 되는 ‘ㅣ’ 역행 동화에 따라, ‘달팽이’의 제2음절 ‘ㅌ’가 ‘ㅍ’가 되어 19세기 문헌부터 ‘달팽이’, ‘달팽이’로 나타난다. (‘달팽이’)

● 원순 모음화

• 근대 국어 시기에 양순음 ‘ㅁ, ㅂ, ㅍ, ㅃ’ 아래에서 모음 ‘ㅡ’가 ‘ㅜ’로 변하는 원순 모음화(에 따라/로 인해)

예) ‘뿔’은 근대 국어 시기에 양순음 ‘ㅁ, ㅂ, ㅍ, ㅃ’ 아래에서 모음 ‘ㅡ’가 ‘ㅜ’로 바뀌는 원순 모음화에 따른 것이다.(‘뿔’)

예) 근대 국어 시기에 양순음 ‘ㅁ, ㅂ, ㅍ, ㅃ’ 아래에서 모음 ‘ㅡ’가 ‘ㅜ’로 변하는 원순 모음화가 있었는데, ‘눈물’에는 이러한 변화가 좀 더 일찍 적용되어 16세기에 ‘눈물’로 나타나 현재에 이르렀다.(‘눈물’)

예) 근대 국어 시기에 양순음 ‘ㅁ, ㅂ, ㅍ, ㅃ’ 아래에서 모음 ‘ㅡ’가 ‘ㅜ’로 변하는 원순 모음화에 따라 18세기 문헌에 ‘검붉다’가 나타난다. (‘검붉다’)

● 전설 모음화

• (근대 국어 후기에/ 19세기에) ‘ㅅ, ㅈ, ㅊ’ 아래에서 모음 ‘ㅡ’가 ‘ㅣ’로 바뀌는 전설 모음화(에 따라/로 인해)

예) 근대 국어 후기에 ‘ㅅ, ㅈ, ㅊ’ 아래에서 모음 ‘ㅡ’가 ‘ㅣ’로 바뀌는 전설 모음화에 따라 ‘뉘우츠며, 뉘우츠니’ 등이 ‘뉘우치며, 뉘우치니’로 변화하였다.(‘뉘우치다’)

예) 근대 국어 후기에 ‘ㅅ, ㅈ, ㅊ’ 아래에서 모음 ‘ㅡ’가 ‘ㅣ’로 바뀌는 전설 모음화에 따라 20세기 이후 ‘느직이’로 나타나 현재에 이르렀다.(‘느직이’)

예) 19세기에 ‘ㅅ, ㅈ, ㅊ’ 아래에서 모음 ‘ㅡ’가 ‘ㅣ’로 바뀌는 전설 모음화에 따라 ‘지리-’로 변화되어 현재에 이르렀다.(‘지리다’)

● 이중모음 ‘의’의 단모음화: 의>이

• (근대 국어 후기에/19세기에) 자음 뒤에서 모음 ‘ㅡ’가 ‘ㅣ’로 바뀌는 현상(에 따라/으로 인해)

예) 근대 국어 후기에 자음 뒤에서 모음 ‘ㅡ’가 ‘ㅣ’로 바뀌는 현상에 따라 ‘관디’로 나타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관디’)

예) 근대 국어 후기에 자음 뒤에서 모음 ‘ㅡ’가 ‘ㅣ’로 바뀌는 현상에 따라 ‘견디-’로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이어진다. (‘견디다’)

예) 19세기에 자음 뒤에서 모음 ‘ㅡ’가 ‘ㅣ’로 바뀌는 현상에 따라 ‘비비-’로 나타나 현재에 이르렀다. (‘비비다’)

● ㄴ → ㄷ

• 근대 국어 시기에 양성 모음 ‘ㅛ’가 음성 모음 ‘ㅜ’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로 인해) ㅛㅛ세기 문헌에서 ‘ㅕㅕ’로 나타난다.

예) 근대 국어 시기에 양성 모음 ‘ㅛ’가 음성 모음 ‘ㅜ’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17세기부터 ‘광주리’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광주리’)

예) 근대 국어 시기에 양성 모음 ‘ㅛ’가 음성 모음 ‘ㅜ’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19세기에 ‘되우’가 나타나서 현재에 이르렀다.(‘되우’)

예) 근대 국어 시기에 양성 모음 ‘ㅛ’가 음성 모음 ‘ㅜ’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사귀다’도 영향을 받아 19세기 문헌에서는 ‘사귀다’의 형태가 나타나 함께 쓰이다가 ‘사귀다’로 굳어져 현재까지 이어진다.(‘사귀다’)

● ㄱ의 약화

• (‘ㅕㅕ’ 뒤에서) ‘ㄱ’이 약화되어 유성 후두 마찰음 ‘ㅇ’[h]으로

예) ‘늘애’는 동사 어간 ‘늘-’에 명사 파생 접미사 ‘-개’가 결합한 것으로, ‘ㄱ’ 뒤에서 ‘ㄱ’이 약화되어 유성 후두 마찰음 ‘ㅇ’[h]으로 실현된 형태이다. (‘날개’)

예) ‘긔애’는 기원적으로 “자르다, 베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 ‘긔-’과 도구를 나타내는 파생 접미사 ‘-개’의 결합인 *긔개에서 ‘ㄱ’이 약화되어 유성 후두 마찰음 ‘ㅇ’[h]으로 실현된 형태이다. (‘가위’)

예) ‘걸이다’는 동사 ‘걸-’과 피동접미사 ‘-기-’가 결합한 것으로, 접미사 ‘-기-’의 ‘ㄱ’이 어간 말음 ‘ㄹ’ 뒤에서 약화되어 유성 후두 마찰음 ‘ㅇ’[h]으로 실현된 것이다.(‘걸리다’)

예) ‘걸오-’는 동사 ‘걸-’에 사동접미사 ‘-고-’가 결합한 것으로 ‘ㄱ’ 뒤에서 ‘ㄱ’이 약화되어 유성 후두 마찰음 ‘ㅇ’[h]으로 실현된 것이다.(‘걸우다’)

● ㅎ의 약화

예) 근대 국어 시기에 모음 사이에 있는 ‘ㅎ’이 약화된 후 결국 탈락하게 되었는데 ‘가희툽’ 또한 이러한 변화를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우리말샘 ‘가위툽’)

예 ‘긔즌이’는 형용사 ‘긔즌ㅎ-’에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으로 ‘ㄴ’과 모음 사이에서 ‘ㅎ’이 약화된 것이다.(우리말샘 ‘가지런히’)

예) 16세기에는 모음 사이에서 ‘ㅎ’이 약화되어 탈락한 후 음절이 축약된 ‘개[kay]’ 형태가 등장하였다.(우리말샘 ‘개’)

예) ‘즐히-’는 어종의 ‘ㅎ’이 약화된 후 탈락하여 ‘즈리-’로 변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우리말샘 ‘지리다’)

예) 근대 국어 시기에 ‘ㄴ, ㄹ’ 등의 자음이나 모음과 모음 사이에 존재하는 ‘ㅎ’이 약화되어 탈

락되었는데 ‘견호다’ 또한 이러한 변화를 겪어 ‘*겨노다’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우리말샘 ‘겨누다’)

- 니>이

19세기에 ‘ㅣ’ 모음 앞에 ‘ㄴ’이 올 수 없게 됨에 따라 ‘니’가 ‘이’로 바뀌었다.

- ㄹ 첨가

- 축약

예) ‘굳히’의 ‘ㄷ’과 ‘ㅎ’이 축약되어 ‘ㄱ티’로 통합되고(우리말샘 ‘같이’)

예) ‘구티-’는 동사 ‘굳-’에 사동 접미사 ‘-히-’가 결합하여 축약된 것이다.(우리말샘 ‘굳히다’)

예) ‘딕히다’의 제1음절 종성 ‘ㄱ’과 제2음절 초성 ‘ㅎ’이 축약되어 ‘ㅋ’으로 소리 나는데 이를 반영하여 ‘딕킵다’, ‘딕킵다’가 나타난다.(우리말샘 ‘지키다’)

예) 19세기 후반 이후 ‘가음’이 한 음절로 축약되어 오늘날과 같은 형태인 ‘감’이 되었다.(우리말샘 ‘감’)

예) 19세기에 ‘기음’이 축약되어 ‘김’으로 나타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우리말샘 ‘김’)

예) ‘가이다’에서 축약된 형태인 ‘개다’ 역시 15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난다.(우리말샘 ‘개다’)

예) ‘개야미’의 제1음절과 제2음절이 축약되어 ‘개미’ 형태가 등장하게 되었다.(우리말샘 ‘개미’)

예) 20세기 이후에 ‘거어지’의 제1음절 모음과 제2음절 모음이 축약되어 ‘거지’가 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우리말샘 ‘거지’)

예) 모음 ‘ㅛ’의 연속으로 제1음절과 제2음절이 축약되어 ‘고-’가 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우리말샘 ‘고다’)

예) ‘구울다’는 제1음절의 모음 ‘ㅜ’와 제2음절의 모음 ‘ㅜ’로 동일 모음이 반복되어 축약되면서 ‘굴다’가 되었다.(우리말샘 ‘굴다’)

예) 18세기에는 제1음절과 제2음절의 모음인 동일 모음 ‘ㅡ’가 축약된 ‘쓸-’이 공존하였다.(우리말샘 ‘꼴다’)

예) 19세기 이후 제2음절과 제3음절이 축약되어 ‘금세’로 나타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우리말샘 ‘금세’)

■ 6.2. 형태 등의 변화

- 특수 어간 교체

- 체언: ‘○○’은 단독으로 쓰이거나 조사 ‘와’,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에는 ‘○○’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에는 ‘○○’으로 교체를 하였다.
- 용언: ‘○○’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으로 교체를 하였다.

예) ‘구무’는 단독으로 쓰이거나 조사 ‘와’,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에는 ‘구무’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에는 ‘굶’으로 교체를 하였다.

예) ‘다르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다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달○-’으로 교체를 하였다.

● ㅎ 말음 체언

예) ‘몽울ㅎ’은 모음 또는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에는 종성 ‘ㅎ’이 나타나지만, 그 밖의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나 단독으로 쓰일 때는 말음 ‘ㅎ’이 탈락하는 ‘ㅎ 말음 체언’이다. 이후 종성 ‘ㅎ’이 탈락하여 17세기에 ‘몽울’로 나타난다.(‘망울’)

● 과도 교정

예) 18세기에 ‘가락디’로 나타난 예도 있는데 이는 구개음화와 관련된 것이다. 18세기에 ‘ㄷ, ㅌ’이 ‘ㅣ’ 모음 앞에서 ‘ㅈ, ㅊ’로 변하는 구개음화가 일어났는데, 이 변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본래 ‘지’였던 것을 ‘디’로 표기하는 과도교정 현상이 나타났다. 본래 ‘가락지’였던 것을 18세기에 ‘가락디’로도 표기한 것은 이와 같은 과도교정 현상에 의한 것이다.(우리말샘 ‘가락지’) → 18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가락디’는 과도 교정에 의한 것이다. 18세기에 ‘ㄷ, ㅌ’이 ‘ㅣ’ 모음 앞에서 ‘ㅈ, ㅊ’로 변하는 구개음화가 일어났는데, ‘가락지’도 ‘가락디’에서 변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과도하게 교정한 것이다.

예) 18세기에 나타난 ‘군당’은 ‘ㄷ, ㅌ’이 ‘ㅣ’나 ‘ㅣ’ 반모음 앞에서 ‘ㅈ, ㅊ’으로 변하는 구개음화와 관련된 것으로 ‘군장’이 ‘군당’에서 변한 것이라고 잘못 이해하여 나타난 과도 교정형이다.(우리말샘 ‘간장’)

예) 한편 18세기에 보이는 ‘뉘’는 ㄷ구개음화를 의식한 과도 교정 형태이다.(우리말샘 ‘중’)

예) 근대 국어 시기에 ‘ㄱ, ㅋ’이 ‘ㅣ’나 ‘ㅣ’ 반모음 앞에서 ‘ㅈ, ㅊ’으로 변한 구개음화가 일어났는데 이러한 변화를 의식하여 ‘가르치-’의 제 3음절의 첫소리 ‘ㅈ’을 ‘ㅋ’이 구개음화를 겪은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과도 교정하여 ‘가리키-’로 나타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우리말샘 ‘가르치다’) / ‘ㄱ르티-’, ‘ㄱ르티-’는 구개음화 현상을 의식하여 본래 ‘ㅈ’인 것을 ‘ㅌ’로 고친 과도 교정이 나타난 것이다.(정연주 1차 ‘가르치다’)

예) 18세기에 ‘*지애’의 제2음절 ‘애’는 한자 ‘와(瓦)’에 이끌려 ‘와’로 나타나고, 제1음절의 ‘지’는 근대 국어 시기에 ‘ㄱ’이 ‘ㅣ’나 ‘ㅣ’ 반모음 앞에서 ‘ㅈ’로 변한 구개음화를 의식하여 ‘지’를 ‘기’가 구개음화를 겪은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기’로 과도 교정하면서 ‘기와’로 나타나게 되었다.(우리말샘 ‘기와’)

예) 18세기의 ‘구환’은 근대 국어 시기에 모음과 모음 사이에 존재하는 ‘ㅎ’이 탈락하였는데 이

러한 변화를 인식하여 ‘구완’이 ‘구환’에서 변화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과도 교정한 것으로 이해된다.(우리말샘 ‘구완’)

※ 과도 교정 표기 : 근대 국어 시기에 ‘ㄷ, ㅌ’이 ‘ㅣ’나 ‘ㅣ’ 반모음 앞에서 ‘ㅈ, ㅊ’으로 변한 구개음화를 인식하여 ‘훗’의 ‘ㅈ’을 ‘ㅌ’이 구개음화를 겪은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과도 교정 한 결과이다. ㄹ 근대 국어 시기에 ‘ㄱ’이 ‘ㅣ’나 ‘ㅣ’ 반모음 앞에서 ‘ㅈ’으로 변한 구개음화를 인식하여 ‘어루러지’의 ‘ㅈ’을 ‘ㄱ’이 구개음화를 겪은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과도 교정 하여 ‘어루러기’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예: 어루러기) (‘역사정보’ 지침)

❖ 아래의 경우는 과도 교정이 아니라 표기의 혼동으로 보도록 한다.

예) 근대 국어 후기에 ‘ㅅ’ 뒤에서 이중모음 ‘ㅈ, ㅊ, ㅊ, ㅊ’ 등이 반모음 탈락으로 단모음화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19세기 문헌에 보이는 ‘술독’은 이에 대한 과도 교정으로 나타난 표기이다.(우리말샘 ‘술독’) → 근대 국어 후기에 ‘ㅅ’ 뒤에서 이중모음 ‘ㅈ, ㅊ, ㅊ, ㅊ’ 등이 반모음 탈락으로 단모음화하는 현상이 생겨 표기가 혼동되었는데 19세기 문헌에 보이는 ‘술독’은 표기가 혼동된 예이다.

예) 19세기에 나타나는 ‘ㄱ오리’는 18세기 이후에 제1음절에서 일어난 ‘ㄱ>ㅈ’의 변화에 대한 과도 교정 표기이다.(우리말샘 ‘가오리’) → 19세기에 나타나는 ‘ㄱ오리’는 18세기 이후에 제1음절에서 일어난 ‘ㄱ>ㅈ’의 변화에 따라 ‘ㄱ’와 ‘ㅈ’가 표기상 혼동되어 나타난 형태이다.

예) ‘굴이’는 18세기 제1음절 모음에서 일어난 ‘ㄱ>ㅈ’의 변화에 대한 과도 교정 표기이기도 한다.(우리말샘 ‘갈기’) → 굴이’는 18세기 제1음절 모음에서 일어난 ‘ㄱ>ㅈ’의 변화에 따라 ‘ㄱ’와 ‘ㅈ’가 표기상 혼동되어 나타난 형태이다.

예) 18, 19세기에 나타나는 ‘거품’은 근대 국어 시기에 ‘ㅍ’ 뒤에서 모음 ‘ㅡ’가 ‘ㅂ’로 변한 원순 모음화를 인식하여 ‘거품’이 ‘거품’에서 온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과도 교정한 표기이다.(우리말샘 ‘거품’) → 18, 19세기에 나타나는 ‘거품’은 근대 국어 시기에 ‘ㅍ’ 뒤에서 모음 ‘ㅡ’가 ‘ㅂ’로 변한 원순모음화에 따라 ‘ㅡ’와 ‘ㅂ’가 표기상 혼동되어 나타난 형태이다.

● 변화 원인을 설명할 수 없을 때

○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나

예)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나 18세기 문헌에서 ‘불히’의 마지막 음절 ‘히’가 탈락하여 ‘귀스불’로 나타난다.

■ 6.3. 표기 변화에 관련된 표현

● 아래아 표기의 변화

- 20세기 문헌에서 ‘ㆍ’가 ‘ㅏ’로 표기된 ‘ㅇㅇ’가 나타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 ‘ㆍ’ 소리가 없어졌지만 ‘ㆍ’와 ‘ㅏ’가 표기에서 섞여 쓰이면서
- ‘ㅏ’와 ‘ㅑ’가 표기에서 섞여 쓰이면서

예) 20세기 문헌에서 ‘ㆍ’가 ‘ㅏ’로 표기된 ‘괘씸하다’가 나타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예) 19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버셔늬다’와 ‘버셔늬다’는 ‘ㆍ’와 ‘ㅏ’가 표기에서 섞여 쓰이면서 나타난 표기이다.(‘벗어나다’)

예) ‘ㆍ’ 소리가 없어졌지만 ‘ㆍ’와 ‘ㅏ’가 표기에서 섞여 나타남에 따라 ‘ㅏ’와 ‘ㅑ’도 섞여 표기되면서 18세기 문헌에서부터는 ‘ㅑ’가 나타나 20세기 전반부까지 ‘새’와 ‘ㅑ’가 공존하였다.(‘새’)

● 종성 ㅇ(옛이응) 표기의 변화

- 16세기부터 종성의 ‘ㅇ’이 ‘ㅇ’으로 표기되면서 ‘ㅇㅇ’도 ‘ㅇㅇ’으로 나타난다.
- 16세기부터 종성의 ‘ㅇ’이 ‘ㅇ’으로 표기되면서 ‘ㅇㅇ’도 표기가 변화했을 것이나 ㅇㅇ세기 문헌에서 ‘ㅇㅇ’이 확인된다.

예) 16세기부터 종성의 ‘ㅇ’이 ‘ㅇ’으로 표기되면서 ‘광조리’도 ‘광조리’로 나타난다.

예) 16세기부터 종성의 ‘ㅇ’이 ‘ㅇ’으로 표기되면서 ‘광대’도 표기가 변화했을 것이나 17세기 문헌에서 ‘광대’가 확인된다.

● 팔종성법에 따라 -> 소리대로 적는 표기법에 따라

예) ‘밧쁘다’는 “바빠하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 ‘밧-’에 형용사 파생 접미사 ‘-쁘-’가 결합한 것으로, 이 때 ‘밧-’은 소리대로 적는 표기법에 따라 ‘밧-’으로 표기되었다.(‘바쁘다’)

예) ‘결맞다’는 종성에서 소리대로 적는 표기 전통에 따라 적은 것이다. 현대 맞춤법에서 어법에 따라 적도록 하여 지금은 ‘결맞다’로 적는다.(‘결맞다’)

● 된소리 표기

예:

● 종성 ㄷ과 ㅅ 표기의 혼동

- 16세기에 종성 ‘ㄷ’과 ‘ㅅ’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된 (이후에 표기가 섞여 쓰이면서)

예) 18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갑웁’은 16세기에 종성 ‘ㄷ’과 ‘ㅅ’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된 이후에 표기가 섞여 쓰이면서 나타난 것이다.(‘갑웁’)

예) 첫째, 종성의 ㄷ과 ㅅ은 소리가 구별되지 못하게 되었다.(‘갓’) → 첫째, 중세 국어 시기에는 본래 종성의 ㄷ과 ㅅ의 소리가 구별되었으나 16세기에 종성 ‘ㄷ’과 ‘ㅅ’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되었다.

예) 16세기 말부터 종성의 ‘ㄷ’과 ‘ㅅ’ 표기가 혼란되었는데 17세기에 와서 ‘갓모’의 제1음절 종성 ‘ㄷ’도 ‘ㅅ’으로 적히기 시작하였다. 19세기까지 ‘갓모’로 나타났는데 17세기 이후 나타나는 ‘갓모’는 ‘갓모’와 실제 발음은 같은 것이다.(‘갓모’)

※ 근대 국어 시기에는 음절 말 ‘ㄷ’을 ‘ㅅ’으로 표기하는 경향이 있었다. (‘역사정보’ 지침)

● 구개음 표기의 혼동

○ (근대 국어 후기에/19세기에) ‘저’와 ‘저’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되면서 (표기가 혼동되어 나타난 것이다.)

☞ “ㅈ이”, “저와 저”는 설명하는 단어에 맞춰 해당하는 자모와 글자로 바꾼다.

예) 18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그저’는 근대 국어 후기에 ‘저’와 ‘저’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되면서 표기가 혼동되어 나타난 것이다.

예) 19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그적’은 ‘적’과 ‘적’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되면서 표기가 혼동되어 나타난 것이다.

예) 근대 국어 시기에 나타난 ‘ㅣ’ 모음 앞의 ‘ㄷ, ㅌ’이 ‘ㅈ,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로 인해 ‘부터’가 ‘부처’가 되고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하지 않게 되면서 18세기에는 ‘눈부처’로 나타난다. 근대 국어 후기에 ‘처’와 ‘처’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되면서 20세기 문헌에서 ‘눈부처’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눈부처’)

예) 18세기에는 제1음절의 ‘ㄷ, ㅌ’가 ‘ㅈ, ㅊ’로 변하였는데 ‘갈청’ 또한 이 변화를 겪어 ‘갈청’이 되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처’와 ‘처’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되면서 ‘청’이 ‘청’으로 나타나게 되어 현재의 ‘갈청’이 된 것이다.(우리말샘 ‘갈청’)

● ㅅ 아래 단모음과 이중 모음의 표기 혼란

○ (근대 국어 후기에/19세기에) ‘ㅅ’ 아래에서 ‘서’와 ‘서’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되면서 (표기가 혼동되어 나타난 것이다.)

○ 근대 국어 후기에 ‘ㅅ’ 뒤에서 이중 모음 ‘ㅑ, ㅓ, ㅕ, ㅗ’ 등이 반모음 탈락으로 단모음화하는 현상에 따라 ‘서’가 ‘서’로 바뀌었다.(‘역사정보’ 지침)

예) 19세기와 20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버서나다’는 근대 국어 시기에 ‘ㅅ’ 아래에서 ‘서’와 ‘서’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게 되면서 표기가 혼동되어 나타난 것이다.(‘벗어나다’)

예) 현대 국어 ‘소’의 옛말인 ‘쇼’는 15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났다. 근대국어 후기에 자음 ㅅ 뒤에서 모음 ㅑ, ㅓ, ㅕ, ㅗ가 ㅏ, ㅓ, ㅗ, ㅗ로 바뀌는 현상에 따라 19세기에는 현대 국어와 같은 ‘소’가 등장하였다.(우리말샘 ‘소’)

● 연철/분철/중철 표기

예) 제3음절의 끝소리 ‘ㄹ’이 연철 표기 되어 ‘광대싸리’로 나타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광대싸리’)

예) 근대 국어 시기에는 ‘그슬나’라는 표기가 나타나는데, 이는 ‘ㄹㄹ’을 ‘ㄹㄴ’으로 적던 표기 습관에 의한 것이다.(‘그슬리다’)

예) 18세기의 ‘걸나다’는 어중에서 ‘ㄹㄹ’이 연속되어 나타나는 경우 ‘ㄹㄴ’으로 적는 표기 경향에 의한 것이다.(‘걸리다’)

예) 19세기에 ‘눈빛ㅎ’과 같이 ‘ㅈ’가 ‘ㅅ+ㅎ’으로 표기된 것은 ‘빛히’, ‘금빛히’ 등 18세기 이후의 사례들에서도 확인된다.(‘눈빛’)

예) 갓탈’은 ‘가탈’을 중철 표기한 것으로 종성의 표기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7개 자음만을 사용하는 근대 국어 시기의 표기 방식에 따라 ‘ㅅ’으로 표기한 것이고(‘가탈걸음’)

※ 어중 ‘ㄹㄹ’ 표기: 어중에서 ‘ㄹㄹ’이 연속되어 나타나는 경우 ‘ㄹㄴ’으로 적는 표기 경향이 있었다.(‘역사정보’ 지침)

※ 재음소화 표기: 18세기 이후 나타나는 ‘무릅ㅎ’과 같이 말자음 ‘ㅍ’이 ‘ㅂ’과 ‘ㅎ’으로 나뉘어 표기된 재음소화 표기도 보인다. (‘역사정보’ 지침)

※ 중철 표기: 17세기~19세기 문헌에 보이는 ‘갓티다’는 ‘가티다’를 중철 표기 한 것이고, 18~19세기 문헌에 보이는 ‘갓치다’는 ‘가치다’를 중철 표기 한 것이다.(‘역사정보’ 지침)

■ 6.4. 기타 표현

- 띄어쓰기는 《우리말샘》의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한다.

- 《우리말샘》에서 ‘^’로 표시된 부분은 띄어 쓴다.

예)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원순^모음화, 이^모음^역행^동화

- 부호의 사용(‘역사정보’ 지침)

- ❖ 형태나 자모일 때는 ‘ ’, 뜻을 나타낼 때는 “ ”를 사용한다.
- ❖ 의존 형태소인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를 표시한다.
- ❖ 문증되지 않은 형태인 경우에는 *를 사용하여 ‘*두울’과 같이 표시한다.

- 언어 현상을 설명할 때는 ‘중세 국어(에/에서), 15세기(에/에서)’ 등으로 표현하고 문헌에서 출현형을 설명할 때는 ‘15세기 문헌(에/에서, 16세기 문헌(에/에서), 15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등으로 표현한다.

예) 17세기의 ‘닷다’는 종성 ‘ㄷ’을 ‘ㅅ’으로 표기하던 당시의 경향에 따라 나타난 것이다. →

17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닷다’는 종성 ‘ㄷ’을 ‘ㅅ’으로 표기하던 당시의 경향에 따른 것이다.

- 변화를 설명하면서 음절의 위치를 나타낼 때는 ‘제1음절, 제2음절, 제3음절…….’이라고 표현한다.

- 설명에서 자음, 모음의 개별 음소를 제시할 때 ‘ ’를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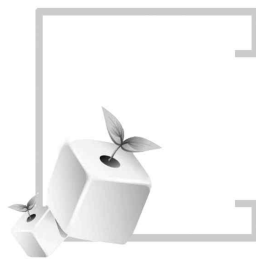
예) ‘ㄷ’가 ‘ㅌ’로 변화였다.

● 기타

- $o[\eta] \rightarrow o, o[\eta]$

☞ 그대로 자모 ‘o’만 써도 되고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o[η]’을 써도 됨

- 비어두 음절 → 제2음절 이하(‘역사정보’ 지침)
- 어두 음절 → 제1음절(‘역사정보’ 지침)
- ‘순음’은 ‘양순음’으로 통일한다.



제 3 장

말뭉치팀



제3장에서는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진 말뭉치팀의 작업 과정을 미정비 역사자료 말뭉치의 목록 확정, 개별 구축 역사자료 말뭉치의 수집, 말뭉치팀 작업 지침, 말뭉치의 정비와 플랫폼 운영의 순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3.1. 미정비 역사자료 말뭉치의 목록 확정

3.1.1. ‘미정비 말뭉치’의 개념과 대상

□ 용어의 개념 정의:

• ‘기(既)정비 역사자료 말뭉치’(이하 ‘기정비 말뭉치’):

- ① 국립국어원의 2014~2016년 및 2018년 「역사자료 종합 정비 사업」에서 일정한 형식으로 정비한 국어사 말뭉치와,
- ② 개별 연구자나 연구 집단이 그러한 형식을 준용하여 구축한 국어사 말뭉치.

* 위 ①의 “일정한 형식”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언해본의 언해문과 한문 원문 간에 일대일 대응(병렬 말뭉치 형식)을 이루도록 한 것이다.

• ‘미(未)정비 역사자료 말뭉치’(이하 ‘미정비 말뭉치’):

- 국립국어원의 2023년 「국어 어원사전 편찬」 사업의 일환으로 구축해야 하는 국어사 말뭉치로서 위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따라서 「역사자료 종합 정비 사업」에서 정비한 말뭉치라 하더라도 주요 내용이 누락된 것은 ‘미정비 말뭉치’로 취급하기로 한다.
예 언해본 중에서 ‘언해문-한문’ 병렬 말뭉치 형식으로 구축되지 않은 것.

3.1.2. 미정비 말뭉치의 초기 목록 검토

(1)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미정비 말뭉치의 초기 목록

□ 목록에 포함된 항목: 총 200개

• 단, 이 200개의 각 항목이 개별 문헌에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 간행/필사/채록 연대: 주로 19~20세기이거나 연대 미상의 자료가 많다.

□ 자료의 성격: 구비문학, 고소설, 신소설 등 문학 작품이 주류이다.

(2) 위 목록에 포함된 문헌의 서지 및 가치 추정

□ 문헌 자체에 대한 검토

- 각 문헌의 간행/필사/채록 시기를 추정함으로써 문헌별 가치를 일차적으로 매겼다.
- 여기서 말하는 ‘문헌의 가치’란, 어디까지나 ‘국어사 문헌 자료로서의 가치’를 뜻한다.
- 목록에서 주류를 이루는 문학 자료의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문헌별 가치를 일차적으로 ‘상, 중, 하’ 세 등급으로 판정하였다.

- ① 창작된 시기가 명확한가?
 - ② 수록된 문헌의 간행/필사 시기가 명확한가?
 - ③ 위 ①·② 시기의 간극이 크지 않아 ② 시기만으로도 그 작품에 반영된 언어를 특정 시기의 것으로 비정할 수 있는가?

- 비문학 자료에도 위의 기준을 준용하여 ‘상, 중, 하’ 세 등급을 매겼다.
- 그렇게 판정한 가치 등급은 이후 ‘올해(2023년) 국어 어원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는가’에 따라 다소 수정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 하도록 한다.

□ 말뭉치에 대한 검토

- 문헌별 말뭉치에 반영되어 있는 편저자 및 문헌명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 각 말뭉치의 상태와 입력 저본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 「역사자료 종합 정비 사업」에서 구축한 언해본 말뭉치 중 한문 원문이 입력되지 않은 것을 파악하였다.

<표 1> 국어원에서 제공한 미정비 말뭉치 초기 목록 검토 결과(일부)

연번	문헌명	간행/필사 (추정) 시기		추정 가치	어절 수
		세기	연도*		
1	가집二	20C	1934	하	35,193
2	가집一	20C	1934	하	24,582
3	감사별곡한국불교가사전집	20C	18XX(作), 1931(筆寫)	하	512
4	강태공전(경판39장본)경인고소설판각본전집1	19C	18XX	하	17,217
5	계우사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1	19C	1890?(筆寫)	중	8,827
6	경세종	20C	1908	상	5,519
7	경허당가가가음석문의범	20C	20C 초(作), 1935(刊行)	상	375
8	계초심학인문명지어문학10호	16C	1577	제외	3,295
9	고대소설양산백전구활자본고소설전집26권	20C	19XX	상	12,510
10	고디초한전실기구활자본고소설전집15권	20C	1917	상	15,056
(중간 생략)					
196	홍길동전24장본고소설판각본전집3	19C	18XX	하	5,364
197	홍도화	20C	1912	상	28,352
198	화중화	20C	1912	상	7,794
199	회심가보권념불문	18C	1776(해인사판) / 1787(선운사판)	상	691
200	회참곡한국불교가사전집	20C 전후	XXXX(作), 20C 전후(筆寫)	하	1,045

※ <표 1>의 전체 내용은 [부록 3]에 첨부함.

3.1.3. 미정비 말뭉치 목록의 수정 및 보완

3.1.3.1. 목록에서 ‘제외’한 문헌

(1) 기정비 말뭉치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문헌

- 미정비 말뭉치의 초기 목록(200개) 가운데 ① 기정비 말뭉치 목록(1,023개)과 중복되거나, ② 미정비 말뭉치 목록 내에서 서로 중복되는 문헌은 정비 대상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 그 문헌의 목록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기정비 말뭉치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문헌 목록

연번	문헌명	간행/필사 (추정) 시기		추정 가치	어절 수
		세기	연도		
8	계초심학인문명지어문학10호	16C	1577	제외	3,295
12	곽해룡전활자본고전소설전집1	20C	1917(刊行)	제외	9,669
18	국민소학독본학부간본아세아문화사영인본	19C	1895	제외	9,562

연번	문헌명	간행/필사 (추정) 시기		추정 가치	어절 수
		세기	연도		
38	대명성주현신개운년/大明聖主賢臣開運傳	19C?	18XX	제외	74,086
41	두시언해초간본3권	15C	1481	제외	5,470
93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국립중앙도서관소장	16C	1560	제외	1,257
114	신약전서개화기국어자료집성10	20C	19XX	제외	67,110
136	어제유대소신료급중외민인척사윤음전북대국문과 영인본	19C	18XX	제외	605
151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	17C	1636	제외	680
157	윤음	18~19C	17XX~18XX	제외	15,807
158	응진경언해한국정신문화연구원소장본	18C	17XX	제외	3,042
160	인목대비내인계축일기	?	16XX(作)	제외	16,699
164	장자방전(경판58장본)전3권3책목판본(국지)	19C	18XX	제외	29,623
168	주교요지	19C	18XX	제외	13,082
176	초암가	19C	18XX	제외	377

□ <표 2>에 대한 특기 사항:

- [연번 8] 『계초심학인문』(誠初心學人文, 發心修行章, 野雲自警文 합본)은 『명지 어문학』 10、12、13호에 영인된 송광사판(1577)이다. 이 문헌은 「역사자료 종합 정비 사업」의 결과물에 포함되어 있어 이번 정비 대상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참고로, ‘3,295어절’은 언해문만을 대상으로 산정된 수치이며, 「역사자료 종합 정비 사업」에서 구축된 것은 한문 원문까지 포함하여 9천여 어절에 이르렀다.
- <표 1>의 [연번 11]과 [연번 12] 『곽해룡전』은 동일 문헌으로 둘의 어절 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두 말뭉치의 태그 방식이 상이하고 후자에 문장 부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번 11]은 정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표 1>의 [연번 17]과 [연번 18] 『국민소학독본학부간본』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유로 후자를 정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연번 38] 『대명성주현신개운년』은 『대명영렬전』 권1의 권수제(卷首題)로 본 서명은 『대명영렬전』이다. 『대명영렬전』은 권1~8이 이미 구축 및 정비되어(2016년 정비사업 당시 서명을 바로 잡고 정비됨) 있으므로 정비 대상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 [연번 151]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은 2014년에 정비된 『우역방』과 같은 문헌이나, 판본의 차이가 있다. 2014년에 정비된 『우역방』은 일본의 개인 소장 초간본(1541년)을 오구라 신포이[小倉進平]가 필사한 책을 입력한 것이다. [연번 151]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은 1636년 중간본으로 일사문고 소장본을 입력한 것이다. 각 말뭉치의 입력 대상인 두 문헌은 이본 관계에 있는데 이본을 모두를 말뭉치로 구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그중 선본을 정하여 구축한다는 기존 「역사자료 종합 정비 사업」의 지침에 의거하여 이 자료는 중복 문헌으로 간주하고 후대의 중간본인 [연번 151]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은 정비 대상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 [연번 158] 『응진경언해』는 『쥬싱연소묘 응진경』이라는 서명으로 이미 구축되어

있으며, 두 말뭉치는 모두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 소장본을 대상으로 입력되어 있다.

(2) 연대 미상의 문헌

- 미정비 말뭉치 초기 목록 가운데 간행/필사/채록 연대가 미상의 문헌이 상당수이다. 이에 따라 그 연대를 확인하거나 추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후대에 채록된 구전 문학 작품의 경우 창작 및 채록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 많다. 따라서 이들은 정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그 목록을 제시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최종 가치: 하).

<표 3> 연대 미상의 문헌 목록

연번	문헌명	간행/필사 (추정) 시기		추정 가치	어절 수
		세기	연도		
79	법화일승가한국불교가사전집	20C?	XXXX(作), XXXX(筆寫)	하	833
163	장안결식가한국불교가사전집	20C?	XXXX(作), XXXX(筆寫)	하	1,099
187	한국고전문학전집3가사	20C	작품별로 간행/필사 시기가 제각각임.	하	17,681

(3) 말뭉치 입력이 불완전한 문헌

- 미정비 말뭉치 초기 목록 가운데 완전히 입력되지 않아 추후 상당한 시간을 들여 입력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문헌은 정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그 목록은 아래 <표 4>와 같다. (최종 가치: 하).

<표 4> 말뭉치 입력이 불완전한 문헌 목록

연번	문헌명	간행/필사 (추정) 시기		추정 가치	어절 수
		세기	연도		
129	양현문직절기필사본고전소설전집17	20C	1916(筆寫)	하	21,268
130	양현문직절기필사본고전소설전집17	20C	1916(筆寫)	하	22,781
131	양현문직절기필사본고전소설전집17	20C	1916(筆寫)	하	7,428
132	양현문직절기필사본고전소설전집17	20C	1916(筆寫)	하	23,297
133	양현문직절기필사본고전소설전집17	20C	1916(筆寫)	하	32,685
134	양현문직절기필사본고전소설전집17	20C	1916(筆寫)	하	24,715
135	양현문직절기필사본고전소설전집17	20C	1916(筆寫)	하	23,515
143	옥루몽서울대도서관본	20C	1906~1909	하	16,830
144	옥루몽서울대도서관본	20C	1906~1909	하	16,274
145	옥루몽서울대도서관본	20C	1906~1909	하	25,088

연번	문헌명	간행/필사 (추정) 시기		추정 가치	어절 수
		세기	연도		
146	옥루몽서울대도서관본	20C	1906~1909	하	31,7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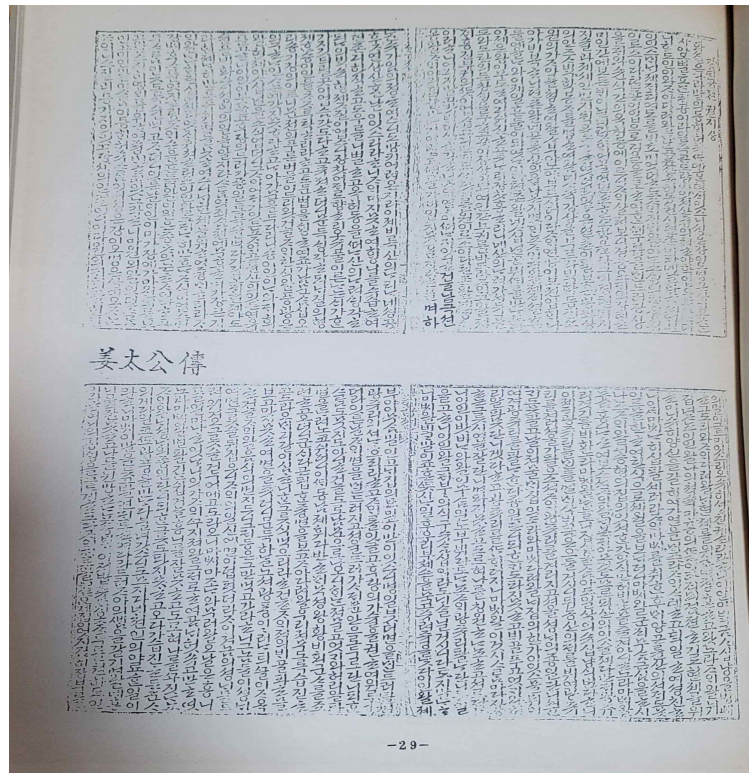
□ <표 4>에 대한 특기 사항:

- 서울대 도서관본 『양현문직절기』는 24권 24책으로 『필사본고전소설전집17~19』(김기동 편)에 영인되어 있다. 본 영인본을 입력 저본으로 삼아 입력된 기존 말뭉치는 권1~20까지만 입력되어 있고 나머지 권21~24는 미입력 상태이다. 이미 구축된 20권의 분량이 약 15만 어절임을 고려할 때 나머지 4권의 분량은 3만 어절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 분량을 단기간에 입력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문헌은 정비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 서울대 도서관본 『옥루몽』은 14권 14책인데, 기존의 말뭉치는 권1~8까지만 입력되어 있고 나머지 권9~14는 미입력 상태이다. 이미 구축된 8권의 분량이 약 9만 어절임을 고려할 때 나머지 6권의 분량은 6만7천 어절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 분량을 단기간에 입력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문헌은 정비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3.1.3.2. 제외/포함 여부의 판단을 ‘보류’한 문헌

(1) 영인 상태가 좋지 않은 문헌

- 미정비 말뭉치 초기 목록에는 경인 판각본 자료가 여러 종이 있다. 이들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간행된 방각본 고소설로, 1973년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에서 영인한 『경인고소설판각본전집』(1~5)을 대상으로 입력한 말뭉치이다.
- 그런데 『경인고소설판각본전집』(1~5)은 축쇄 영인본인 데다 판각본을 영인한 것이라 아래 <그림 3>과 같이 영인 상태가 좋지 않다. 따라서 이 영인본을 바탕으로 말뭉치를 정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문헌들은 정비 대상 목록에 포함하는 것을 보류하였다.



<그림 3> 경판본 『강태공전』 영인본

- 다만, 『경인고소설판각본전집』(1~5)에 수록된 문헌 가운데 [연번 88] 『삼설기』는
 - ① 영인 상태와 입력 말뭉치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며, ② 다양한 어휘가 출현한다는 점에서 목록에 포함해 달라는 집필팀의 요구가 있어 대상 목록에 포함하였다.
- 정비 대상 목록에 포함하기를 보류한 문헌의 목록은 아래 <표 5>와 같다. (최종 가치: 하).

<표 5> 영인 상태가 좋지 않은 문헌 목록

연번	문헌명	간행/필사 (추정) 시기		추정 가치	어절 수
		세기	연도		
4	강태공전(경판39장본)경인고소설판각본전집1	19C	18XX	하	17,217
26	금방울전경판16장본고소설판각본전집4	20C	19XX	하	5,133
37	당태종전경판26장본고소설판각본전집1	19C	1858(刊行), 1921(印出)	하	6,719
77	백학선전(경판24장본)경인고소설판각본전집일	19C	18XX	하	6,580
97	소대성전경판16장본고소설판각본전집1	20C	19XX	하	4,806
110	숙영낭자전경판16장본고소설판각본전집2	20C	19XX	하	4,572
111	숙향전(경판64장본)경인고소설판각본전집4	19C	1858	하	15,846
154	월왕전(경판63장본)경인고소설판각본전집이	19C	1847~1885(刊)	하	13,074

연번	문헌명	간행/필사 (추정) 시기		추정 가치	어절 수
		세기	연도		
			행); 1921(印出)		
156	유충열전(완판86장본)경인고소선판각본전집이	20C	19XX	하	21,141
162	임장군전27장본고소선판각본전집2	19C	186X(刊行), 1920(印出)	하	6,354
177	초한전(완판88장본)경인고소선판각본전집삼	19C	18XX(刊行), 1908(印出)	하	18,253
194	현수문전(경판75장본)경인고소선판각본전집오	19C	18XX	하	17,601
196	홍길동전24장본고소선판각본전집3	19C	18XX	하	5,364

(2) 비교적 후대의 문헌

□ 연대 추정은 가능하나 그 시기가 비교적 후대인 문헌은 어원사전 편찬을 위한 국어사 자료로는 우선순위가 낮다고 판단하여 정비 대상으로 삼는 것을 보류하였다.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간행/필사/채록 시기가 20세기 중반 전후인 문헌, 또는
- ② 간행/필사/채록 시기가 위 ①보다는 다소 앞서더라도 어원 정보를 밝히는 데 크게 유의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운문 문헌.

□ 그 목록을 제시하면 아래 <표 6>과 같다. (최종 가치: 하).

<표 6> 비교적 후대의 문헌 목록

연번	문헌명	간행/필사 (추정) 시기		추정 가치	어절 수
		세기	연도*		
1	가집二	20C	1934	하	35,193
2	가집一	20C	1934	하	24,582
3	감사별곡한국불교가사전집	20C	18XX(作), 1931(筆寫)	하	512
14	광제가한국불교가사전집	19C	18XX(作), 1887(筆寫)	하	933
19	권불가한국불교가사전집	19C	18XX(作), 1887(筆寫)	하	491
24	금강별곡명춘유고	20C?	1739(作), 1969?(刊行)	하	955
33	낙도가조선가요집성	20C	1934	하	185
68	몽환가석문의범	20C	XXXX(作), 1935(刊行)	하	856
69	몽환가한국불교가사전집	19C	XXXX(作), 1829/1889(筆寫)	하	711
70	민속극	20C	채록: 1930(양주별산대놀이) 등	하	65,742
73	발원문한국불교가사전집	20C	XXXX(作), 19XX(筆寫 또는 刊行)	하	314
75	백마강가17세기가사전집	20C?	1625(作). 입력 대본: 황용주의 《昌原黃氏家乘》(필사 시기 불명).	하	242
76	백발가안진호편석문의범	20C	XXXX(作), 1935(刊行)	하	839
80	별희심곡석문의범	20C	XXXX(作), 1935(刊行)	하	928
83	사체가한국불교가사전집	20C	18XX(作), 1931(筆寫)	하	788

연번	문헌명	간행/필사 (추정) 시기		추정 가치	어절 수
		세기	연도*		
90	서정별곡17C가사전집	18C	1694(作), 1781(筆寫)	하	801
92	선심가한국불교가사전집	19C	18XX(作), 1887(筆寫)	하	796
95	성탄경축가석문의범	20C	XXXX(作), 1935(刊行)	하	82
120	아악부가집	20C	1934~1935(筆寫)	하	29,870
121	아악부가집	20C	1934~1935(筆寫)	하	33,723
122	악부上	20C	1930~1935(筆寫)	하	25,338
123	악부上	20C	1930~1935(筆寫)	하	37,807
124	악부下	20C	1930~1935(筆寫)	하	46,876
125	악부下	20C	1930~1935(筆寫)	하	36,947
126	악장가사한국고전총서(Ⅱ)	19C?	XXXX(刊行), 1801~1834(補寫)	하	2,410
127	애닦은노래한국불교가사전집	19C?	18XX(作), 1887 또는 그 이후(筆寫)	하	408
172	채미가17C가사전집	20C	1675 이후(作), 1924(筆寫)	하	194
175	청춘과부가한국불교가사전집	20C	XXXX(作), 1926(刊行)	하	1,109
180	토굴가한국불교가사전집	20C	XXXX(作), 1964(筆寫)	하	1,120
182	판소리수궁가사설과주석	20C	1970s(採錄)	하	16,757
183	판소리춘향가사설과주석	20C	1970s(採錄)	하	31,662
184	판소리춘향가사설과주석	20C	1970s(採錄)	하	19,356
185	판소리춘향가사설과주석	20C	1970s(採錄)	하	16,814
186	판소리흥보가사설과주석	20C	1970s(採錄)	하	21,417
188	한국구전설화:평안북도1	20C	1927, 1931~1940(採錄)	하	83,871
189	한국구전설화:평안북도2	20C	1927, 1931~1940(採錄)	하	79,544
190	해동가요(주씨본)	20C	1763(編纂), 1930(刊行)	하	11,518
200	회참곡한국불교가사전집	20C 전후	XXXX(作), 20C 전후(筆寫)	하	1,045

3.1.3.3. 목록에 ‘추가’한 문헌

-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미정비 말뭉치 초기 목록에 없는 문헌이라도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미정비 말뭉치 목록에 추가하였다.

- ① 어원사전의 말뭉치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문헌.
 ② 「역사자료 종합 정비 사업」 결과물 중 한문 원문이 입력되지 않은 문헌.

- 다만, ②의 경우 올해 사업에서는 그중 한문의 입력 자료를 구할 수 있는 문헌만 작업을 진행하였다.

- 그 목록을 제시하면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미정비 말뭉치 목록에 추가한 문헌 목록

연번	문헌명	저자(필자)	간행/필사 (추정) 시기		어절 수
			세기	연도	
①	대명률직해	고서경, 김지	14C	1395?	약 10만
②	한영자전	게일(Gale, J. S.)	19C	1897	약 50만
③	법화경언해 권5~7		15C	1463	약 10만
④	계초심학인문(서봉사판)		16C	1583	9.3만~
⑤	학봉김선생행장	김주국	18C	1770	2만~

연번	문헌명	저자(필자)	간행/필사 (추정) 시기		어절 수
			세기	연도	
⑥	제국신문(1898.08.10.~1901.03.12.)		19~20C	1898~1901	63만~
⑦	신식부인치가법	시모다우타코[下田歌子]	20C	1925	15,288
⑧	신학신설	지석영	19C	1891	13,304
⑨	언문	지석영	20C	1909	46,146
⑩	포와유람기	현순(玄楯)	20C	1909	7,410
⑪	숙명신한첩 언간		17C	1652~1688	3,413
⑫	숙취신한첩 언간		17C	1653~1696	2,192
⑬	진성이씨 이동표가 언간		17C	1658~1700	4,886
⑭	은진송씨 송규렴가 선찰 소재 언간		17~18C	1684~1709	10,706
⑮	의성김씨 학봉 종가 언간		18~19C	1765~1883	48,821
⑯	추사가 언간		18~19C	1754~1897	6,211
⑰	추사 언간		19C	1818~1844	6,221
⑱	흥은위 정재화가 언간		19C	1790~1905	12,471
⑲	은진송씨 송병필가 언간		18~19C	1863~1922	15,036
⑳	여흥민씨 민영소가 명성황후 언간		19~20C	1875~1895	4,521
㉑	순명효황후 언간		19C	1894~1904	875
㉒	가례언해		17C	1632	73,381
㉓	천의소감언해		18C	1756	70,455
㉔	명의록언해		18C	1777	69,103
㉕	속명의록언해		18C	1778	17,221
㉖	한청문감	이담, 김진하 외	18C	1777/1778	171,766
㉗	어제자성편언해		18C	1746경	18,099
㉘	어제경세문답언해		18C	1761/1762	14,860
㉙	어제경세문답속록언해		18C	1763	16,956
㉚	어제조훈언해		18C	1764	10,177
㉛	어제백행원		18C	1765	2,030

□ <표 7>에 대한 특기 사항:

- [연번 ①]은 이두 문헌이다. 이 차자표기 문헌 말뭉치는 기정비 언해 자료 말뭉치와 마찬가지로 병렬 말뭉치 형식을 갖추나 현대어역도 포함한다는 특징이 있다.
- [연번 ②] 『한영자전』은 집필팀의 요청에 따라 미정비 말뭉치 목록에 추가하게 되었다. 「21세기 세종 계획」에서 구축한 말뭉치는 국어(한글+한자)로 작성된 부분만 입력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 정비하도록 하였다. 정비 분량은 약 16만 어절에 해당하는, 1~295쪽까지로 우선 한정하였다.
- [연번 ③] 『법화경언해』 권5~7은 「역사자료 종합 정비 사업」 결과물에 누락된 문헌이다.
- [연번 ④] 『계초심학인문』(서봉사판)은 기정비 말뭉치 목록에 있는 동명(同名)의 자료(<표 1>의 [연번 8] 계초심학인문명지어문학10호)의 이본이다. 기정비 말뭉치는 송광사판(1577)이다. 두 이본은 서로 독립되어 언해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서봉사판이 송광사판의 중간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어사 자료로서의 가치가

크고, 서봉사판은 송광사판과 언어 내외적 측면이 꽤 많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서봉사판의 이미지 파일(소창문고본)이 현재 <디지털한글박물관>에서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정비 말뭉치 목록에 추가하였다.

- [연번 ⑤] 『학봉김선생행장』은 학봉 김성일의 한문 행장을 언해한 필사본으로 국어사적·방언사적 가치가 높은 문헌이다. 원문 사진과 언해문 및 한문 원문의 입력 자료까지 확보하여 병렬 말뭉치 형식으로 변환 후 정비하였다.
- [연번 ⑥] 『제국신문』은 19·20세기 교체기의 신문 자료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미정비 말뭉치 목록에 추가하게 되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DB에 올라와 있는 입력 자료를 이용하되, 오류를 바로잡고 띄어쓰기를 현행 「한글 맞춤법」에 따라 수정하였다. 정비 분량은 약 63만 어절에 해당하는, 1898.08.10.~1901.03.12. 사이에 발행된 것으로만 우선 한정하였다.
- [연번 ⑦~⑩] 『신식부인치가법』, 『신학신설』, 『언문』, 『포와유람기』는 말뭉치 정비 작업 중 새로 입수한 자료로(기증자: 안예리), 모두 기정비 말뭉치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정비 대상 목록에 추가하여 정비하였다.
- [연번 ⑪~⑳] 17~19세기 조선시대 연간 자료이다. 기정비 말뭉치에는 15~16세기 및 17세기 전기의 연간 5종만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17~19세기 연간 가운데 발신자와 수신자가 명확하고 국어사적 자료의 가치가 높은 연간을 선별하여 목록에 추가하여 정비하였다.
- [연번 ㉒~㉕] 『가례언해』는 기정비 말뭉치에 그림의 글귀와 주석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하여 정비하였다. 『천의소감언해』, 『명의록언해』, 『속명의록언해』는 한문 원문 없이 언해문으로만 간행된 문헌이다. 집필진의 요구에 따라 한문 원문을 추가 입력하여 병렬 말뭉치 형식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 [연번 ㉖] 『한청문감』은 집필팀의 요청에 따라 미정비 말뭉치 목록에 추가하여 정비하였다.
- [연번 ㉗~㉙] 『어제자성편언해』, 『어제경세문답언해』, 『어제경세문답속록언해』, 『어제조훈언해』는 한문 원문 없이 언해문으로만 간행된 문헌이며, 『어제백행원』은 한문본과 언해본이 합책되어 있는 문헌으로, 이들의 말뭉치는 모두 한문이 입력되어 있지 않았다. 집필진의 요구에 따라 한문 원문을 추가 입력하여 병렬 말뭉치 형식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3.1.4. 올해 작업 대상 ‘미정비 말뭉치’의 최종 목록

- 이상에서 밝힌 작업 과정에 따라 추출된 말뭉치 목록의 분량은 올해 목표 작업 분량(370만 어절)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 이에 따라, ① 현재까지 정비한 문헌들의 유형과 분량, ② 연구보조원들의 인원과 구성에 따른 말뭉치 분배 방법 등의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중’ 등급의

문헌 가운데서 올해 우선적으로 정비할 말뭉치 목록의 수를 더 추려내었다.

□ 그 결과, 올해 정비하고 추가할 미정비 말뭉치의 최종 목록을 아래 <표 8>과 같이 확정하고 작업을 진행하였다.

<표 8> 미정비 말뭉치 확정 목록 (연번은 국립국어원 제공 초기 목록에 따름)

연번	문헌명	간행/필사 (추정) 시기		추정 가치	어절 수	
		세기	연도*		정비 전	정비 후
5	계우사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1	19C	1890?(筆寫)	중	8,827	13,683
6	경세종	20C	1908	상	5,519	10,866
7	경허당가가음석문의범	20C	20C 초(作), 1935(刊行)	상	375	656
9	고대소설양산백전구활자본고소설전집26권	20C	19XX	상	12,510	21,212
10	고디조한전실기구활자본고소설전집15권	20C	1917	상	15,056	30,720
11	곽해룡전활자본고전소설전집1	20C	1917(刊行)	상	9,581	16,446
13	관음경언해(관음경언해)	15C	1485	상	1,818	5,777
15	구의산	20C	1912	상	24,632	41,836
16	국문정리서울대규장각소장본	19C	1897	상	1,229	3,079
17	국민소학독본(아세아문화사영인본)	19C	1895	상	9,580	19,679
20	권왕가석문의범	20C	19C 말(作), 1935(刊行)	상	3,396	5,857
21	권용선전활자본고전소설전집제일권	20C	1918(刊行)	중	21,113	21,109
23	귀일가한국불교가사전집	20C	1912(作, 筆寫)	상	79	255
27	기념가한국불교가사전집	20C	1911(作), 1912(刊行)	상	146	364
32	김희경전활자본고전소설전집제이권	20C	1922(刊行)	중	26,998	45,760
35	녀장군전구활자본고소설전집26권	20C	19XX	상	16,541	26,954
36	녀중호걸구활자본고소설전집26권	20C	19XX	상	25,965	42,479
39	동각한매	20C	1911	상	4,574	7,811
40	두견성	20C	1912	상	39,206	70,004
42	마상루	20C	1912	상	10,556	17,844
43	만인계	20C	1912	상	10,874	17,041
44	망월가한국불교가사전집	20C	20C 초(作), 1930(刊行)	상	39	219
45	명월정	20C	1912	상	14,951	26,693
67	목단화	20C	1911	상	17,929	35,148
78	법문곡한국불교가사전집	20C	20C 초(作), 1943(刊行)	상	704	1,258
81	비행선	20C	1912	상	17,320	31,054
82	사각전활자본고전소설전집제삼권	20C	1927(刊行)	중	8,633	15,969
84	산양디전구활자본고소설전집오권	20C	1916	상	7,519	13,995
85	산천초목	20C	1912	상	10,674	18,976
86	삼생기연활자본고전소설전집제삼권	20C	1922(刊行)	중	19,194	32,072
88	삼설기고소설판각본전집1	19C?	18XX	중	10,157	24,559
89	생륙신전활자본고소설전집5권	20C	1929	상	5,985	9,956
91	석존일대가한국불교가사전집	20C	20C 전후(作), 1927(刊行)	상	3,953	8,098
94	성산명경	20C	1911	상	12,059	13,995
96	설당산실기구활자본고소설전집7권	20C	1930	상	16,106	31,676
98	소상강구활자본고전소설전집26	20C	1912	상	6,194	10,169

연번	문헌명	간행/필사 (추정) 시기		추정 가치	어절 수	
		세기	연도*		정비 전	정비 후
99	소디성전구활자본고소설전집7권	20C	1925	상	6,678	12,236
100	소운면구활자본고소설전집7권	20C	1918	상	13,671	26,070
101	소학독본아세아문화사영인본	19C	1895	상	3,865	7,750
102	소현성록서울대도서관본1-4	18C 이후	17C 중후반(作), 18C 이후(筆寫)	중	20,405	40,087
103	소현성록서울대도서관본5-8	18C 이후	17C 중후반(作), 18C 이후(筆寫)	중	20,342	41,477
104	소현성록서울대도서관본9-13	18C 이후	17C 중후반(作), 18C 이후(筆寫)	중	31,178	56,879
105	소현성록서울대도서관본14-17	18C 이후	17C 중후반(作), 18C 이후(筆寫)	중	22,324	40,191
106	소현성록서울대도서관본18-21	18C 이후	17C 중후반(作), 18C 이후(筆寫)	중	25,680	53,662
107	송뢰금	20C	1908	상	17,058	24,249
108	쇼학소전구활자본고소설전집7권	20C	1917	상	16,556	26,615
109	숙영낭조면구활자본고소설전집3권	20C	1915	상	5,618	14,190
112	신년가석문의범	20C	20C 초(作), 1935(刊行)	상	102	174
113	신숙주부인전구활자본고소설전집8권	20C	19XX	상	5,849	9,408
115	신자전	20C	1915	상	15,201	14,015
116	춘향가_신재효판소리사설집(전)	20C	19XX	중	5,673	10,132
	심청가_신재효판소리사설집(전)	20C	19XX	중	9,847	17,104
	퇴별가_신재효판소리사설집(전)	20C	19XX	중	6,818	11,763
117	박타령_신재효판소리사설집(전)	20C	19XX	중	13,098	25,044
	적벽가_신재효판소리사설집(전)	20C	19XX	중	8,387	17,435
118	신정심상소학학부간본아세아문화사영인본	19C	1896?	상	8,475	17,395
119	쌍옥적	20C	1911	상	15,753	36,739
128	약산동디구활자본고소설전집8권	20C	1913	상	12,587	27,224
142	열반가석문의범	20C	20C 초(作), 1935(刊行)	상	85	159
147	옥호괴연	20C	1912	상	8,049	16,885
149	완월루	20C	1912	상	10,457	20,264
150	왕생가석문의범	20C	20C 초(作), 1935(刊行)	상	96	176
152	원양도	20C	1911	상	12,747	21,770
153	원적가석문의범	20C	20C 초(作), 1935(刊行)	상	289	488
155	월하가인	20C	1911	상	18,333	32,025
161	인생탈춤한국불교가사전집	20C	1956(作), 1978(刊行)	상	382	710
165	재봉춘	20C	1912	상	20,998	37,111
169	죽서루	20C	1911	상	8,103	14,368
170	참선곡한국불교가사전집	20C	20C 초(作), 1943(刊行)	상	483	898
171	참선곡한국불교가사전집	20C	20C 초(作), 1929(刊行)	상	163	423
173	철세계	20C	1908	상	13,883	23,470
174	청구영언(진본)	18C	1728	상	12,249	19,733

연번	문헌명	간행/필사 (추정) 시기		추정 가치	어절 수	
		세기	연도*		정비 전	정비 후
178	추풍감수록	20C	1912	상	10,884	11,701
179	충의소설십생구사구활자본고소설전 집8권	20C	1923	상	7,071	11,723
181	통학경편(경북영천간행)	20C	1921	상	4,166	4,315
191	해탈곡한국불교가사전집	20C	20C 초(作), 1929(刊行)	상	54	205
192	행락도	20C	1912	상	19,214	32,269
193	현미경	20C	1912	상	26,399	47,384
195	현씨양응쌍린기활자본고전소설전집 제십이권	20C	1920(刊行)	중	23,385	37,930
197	흥도화	20C	1912	상	28,352	29,540
198	화중화	20C	1912	상	7,794	12,509
199	회심가보권념불문	18C	1776(해인사판)/ 1787(선운사판)	상	691	1,761
①	대명률직해	14C	1395?		100,000 (추정)	89,917
②	한영자전(1~295쪽)	19C	1897		164,315	163,166
③	법화경언해 권5~7	15C	1463		72,915	88,385
④	계초심학인문(서봉사판)	16C	1583		3,295	8,995
⑤	학봉김선생행장	18C	1770		22,081	36,449
⑥	제국신문(1898.08.10.~1901.03.12.)	19~20C	1898~1901		1,000,0 00(추정)	1,460,061
⑦	신식부인치가법	20C	1925		15,288	27,506
⑧	신학신설	19C	1891		13,304	22,389
⑨	언문	20C	1909		46,146	46,740
⑩	포와유람기	20C	1909		7,410	14,502
⑪	숙명신한첩 연간	17C	1652~1688		3,413	6,481
⑫	숙휘신한첩 연간	17C	1653~1696		2,192	4,102
⑬	진성이씨 이동표가 연간	17C	1658~1700		4,886	9,035
⑭	은진송씨 송규렴가 선찰 소재 연간	17~18C	1684~1709		10,706	16,043
⑮	의성김씨 학봉 종가 연간	18~19C	1765~1883		48,821	97,548
⑯	추사가 연간	18~19C	1754~1897		6,211	9,184
⑰	추사 연간	19C	1818~1844		6,221	9,395
⑱	흥은위 정재화가 연간	19C	1790~1905		12,471	21,234
⑲	은진송씨 송병필가 연간	18~19C	1863~1922		15,036	25,705
⑳	여흥민씨 민영소가 명성황후 연간	19~20C	1875~1895		4,521	9,219
㉑	순명효황후 연간	19C	1894~1904		875	13,73
㉒	가례언해	17C	1632		0(한문)	35,829
㉓	천의소감언해	18C	1756		0(한문)	70,455
㉔	명의록언해	18C	1777		0(한문)	39,047
㉕	속명의록언해	18C	1778		0(한문)	(미배정)
㉖	한청문감	18C	1777/1778		171,766	156,907
㉗	어제자성편언해	18C	1746경		0(한문)	9,751
㉘	어제경세문답언해	18C	1761/1762		0(한문)	7,714
㉙	어제경세문답속록언해	18C	1763		0(한문)	9,642
㉚	어제조훈언해	18C	1764		0(한문)	5,303
㉛	어제백행원	18C	1765		0(한문)	1,333

(※ 『소현성록』(102~106), 『신재효판소리사설집』(116, 117) 등은 실제 작업에서는 권이나 작품 별로 별도의 결과물을 만들었고, 『속명의록언해』의 한문 입력은 작업물 분량 초과로 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후속 사업에서 작업해야 할 것임.)

3.1.5. 후속 사업에서 작업해야 할 ‘미정비 말뭉치’ 목록

- 미정비 말뭉치의 초기 목록에 포함된 문헌 중에 올해 작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올해 정비가 완결되지 않은 문헌을 대상으로 후속 사업에서 정비해야 할 자료들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2023년에 정비가 미완결된 문헌

- 어원사전 집필에 필요하여 작업의 대상으로는 삼았으나, 분량이 방대하여 그중 일부만 작업한 문헌은 <표 9>와 같다.

<표 9> 2023년에 정비를 완결하지 못한 문헌

연번	문헌명	저자(필자)	간행/필사 (추정) 시기		미정비 어절 수
			세기	연도	
117	변강쇠가_신재효판소리사설집(전)		20C	19XX	9,325
②	한영자전(296~830쪽)	게일(Gale, J. S.)	19C	1897	50만(추정)
⑥	제국신문(1901.03.13.~1910.08.02.)		20C	1901~1910	300만(추정)
㉓	속명의록언해	김치인 등	18C	1778	0(한문)

- <표 9>에 대한 특기 사항:

- [연번 117] 「변강쇠가_신재효판소리사설집(전)」은 가치 등급 ‘중’을 받은 『신재효 판소리사설집』에 수록된 작품 중 하나이다. 이 사설집에 수록된 다른 작품들은 모두 정비하였으나, 「변강쇠가」는 올해 사업의 목표 분량을 초과하여 정비를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문헌은 차후에 우선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연번 ②] 『한영자전』은 집필팀의 요청에 따라 미정비 말뭉치 목록에 추가하게 되었다. 「21세기 세종 계획」에서 구축한 말뭉치는 국어(한글+한자)로 작성된 부분만 입력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 정비하도록 하였다. 2023년 정비 분량은 약 16만 어절에 해당하는, 1~295쪽까지로 우선 한정하였다(전술한 내용). 차후 296~1096쪽까지 추가 정비 작업이 필요하다.
- [연번 ⑥] 『제국신문』은 19·20세기 교체기의 신문 자료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미정비 말뭉치 목록에 추가하게 되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DB에 올라와 있는 입력 자료를 이용하되, 오류를 바로잡고 띄어쓰기를 현행 「한글 맞춤법」에 따라 수정하였다. 2023년에 정비한 분량은 1898.08.10.~1901.03.12. 사이에 발행된 것으로만 우선 한정하였다. 차후 1901.03.13.~1910.08.02. 사이에 발행된 신문에

대한 추가 정비 작업이 필요하다.

- [연번 ②5] 『속명의록언해』는 ‘역사자료 종합정비’ 사업에서 정비된 것이나, 한문 원문 추가가 필요하다는 집필팀의 요청에 따라 미정비 말뭉치 목록에 추가하게 되었다. 함께 요청받은 『천의소감언해』, 『명의록언해』는 한문 원문을 추가하였으나, 『속명의록언해』는 올해 사업의 목표 분량을 초과하여 정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문헌은 사후에 우선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2) 가치 등급이 ‘중’인 문헌

- 문헌과 말뭉치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가치를 ‘중’으로 판단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작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올해 정비되지 못한 문헌은 아래 <표 10> 과 같다.

<표 10> 2023년에 정비하지 않은 가치 등급 ‘중’인 문헌

연번	문헌명	간행/필사 (추정) 시기		추정 가치	미정비 어절 수
		세기	연도*		
46	명주보월빙(필사본)	20C	19XX	중	29,031
47	명주보월빙(필사본)	20C	19XX	중	29,419
48	명주보월빙(필사본)	20C	19XX	중	27,439
49	명주보월빙(필사본)	20C	19XX	중	26,154
50	명주보월빙(필사본)	20C	19XX	중	28,681
51	명주보월빙(필사본)	20C	19XX	중	26,429
52	명주보월빙(필사본)	20C	19XX	중	25,434
53	명주보월빙(필사본)	20C	19XX	중	25,869
54	명주보월빙(필사본)	20C	19XX	중	26,401
55	명주보월빙(필사본)	20C	19XX	중	26,306
56	명주보월빙(필사본)	20C	19XX	중	26,058
57	명주보월빙(필사본)	20C	19XX	중	26,294
58	명주보월빙(필사본)	20C	19XX	중	26,066
59	명주보월빙(필사본)	20C	19XX	중	27,214
60	명주보월빙(필사본)	20C	19XX	중	26,617
61	명주보월빙(필사본)	20C	19XX	중	10,981
62	명주보월빙(필사본)	20C	19XX	중	11,051
63	명주보월빙(필사본)	20C	19XX	중	28,218
64	명주보월빙(필사본)	20C	19XX	중	26,681
65	명주보월빙(필사본)	20C	19XX	중	30,841
66	명주보월빙(필사본)	20C	19XX	중	28,509
137	엄씨효문청행록한국고대소설대계(三)	20C	19XX	중	28,332
138	엄씨효문청행록한국고대소설대계(三)	20C	19XX	중	26,987
139	엄씨효문청행록한국고대소설대계(三)	20C	19XX	중	30,276
140	엄씨효문청행록한국고대소설대계(三)	20C	19XX	중	29,727
141	엄씨효문청행록한국고대소설대계(三)	20C	19XX	중	17,410

- <표 10>에 대한 특기 사항:

- [연번 46~66] 『명주보월빙(필사본)』은 100권 100책의 장서각 소장본으로 한국학

중앙연구원의 디지털장서각에서 현재 원문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말뭉치는 1986년 고려서림에서 영인·간행한 책을 이용하여 구축되었다. 국어원에서 제공 받은 파일은 22개의 파일이나 이 가운데 2~3번은 중복 내용으로 정확한 파일의 수는 목록과 같이 21개로 나뉘어 있다. 2023년 정비 사업에서는 본 문헌의 분량이 방대한 관계로 작업 우선순위에서 밀렸으나, 20세기 국문 장편소설로서 가치가 있고 문헌의 상태와 말뭉치의 상태가 좋은 편이므로, 향후 이 문헌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연번 137~141] 『엄씨효문청행록』은 30권 30책의 필사본으로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디지털장서각에서 현재 원문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말뭉치는 1982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영인·간행한 책을 이용하여 구축되었다. 『엄씨효문청행록』은 『명주보월빙』과 연작 관계에 있는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세기 국문 장편소설로서 가치가 있다. 또한 문헌의 상태와 말뭉치의 상태가 좋은 편이므로, 향후 이 문헌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3) 영인 상태가 좋지 않은 문헌

- 문헌의 자료적 가치는 크나, 문헌의 영인 상태가 좋지 않아 올해 작업 대상으로 삼지 않은 판각본 문헌은 아래 <표 11>과 같다.
- 2014년부터 2018년 진행된 말뭉치 정비 사업 당시 경판본 28편, 완판본 1편 등의 방각본 소설은 다수 정비된 데 반해 활자본 신소설의 정비 문헌은 극소수였다. 이에 고소설과 신소설의 문헌 수가 비율적으로 많이 차이 나기에 ‘어원사전 편찬을 위한 말뭉치 정비’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판각본 고소설은 작업 대상에서 보류하였다.
- 그럼에도 말뭉치의 상태가 양호하며 문헌의 가치가 높은 편이므로, 향후 이들 문헌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표 11> 2023년에 정비하지 않은 영인 상태가 좋지 않은 문헌

연번	문헌명	간행/필사 (추정) 시기		추정 가치	미정비 어절 수
		세기	연도		
4	강태공전(경판39장본)경인고소설판각본전집1	19C	18XX	하	17,217
26	금방울전경판16장본고소설판각본전집4	20C	19XX	하	5,133
37	당태종전경판26장본고소설판각본전집1	19C	1858(刊行), 1921(印出)	하	6,719
77	백학선전(경판24장본)경인고소설판각본전집일	19C	18XX	하	6,580
97	소대성전경판16장본고소설판각본전집1	20C	19XX	하	4,806
110	속영남자전경판16장본고소설판각본전집2	20C	19XX	하	4,572
111	속향전(경판64장본)경인고소설판각본전집4	19C	1858	하	15,846
154	월왕전(경판63장본)경인고소설판각본전집이	19C	1847~1885(刊行) :1921(印出)	하	13,074
156	유충열전(완판86장본)경인고소설판각본전집이	20C	19XX	하	21,141
162	임장군전27장본고소설판각본전집2	19C	186X(刊行), 1920(印出)	하	6,354
177	초한전(완판88장본)경인고소설판각본전집삼	19C	18XX(刊行), 1908(印出)	하	18,253
194	현수문전(경판75장본)경인고소설판각본전집오	19C	18XX	하	17,601
196	홍길동전24장본고소설판각본전집3	19C	18XX	하	5,364

□ <표 11>에 대한 특기 사항:

- <표 11>에 제시한 판각본 고소설의 목록은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에서 1973년 영인·간행한 『경인고소설판각본』 권1~5를 대상으로 구축된 말뭉치이다.
- <표 11>에 제시한 판각본 고소설의 간행 연대는 말뭉치 목록에는 미상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판권지 및 연구 논문 등을 참고하여 간행 연대를 추정하였다. 다만, 판각본 고소설 작품의 간행 시기는 판권지의 출판연도가 아니라 개판기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4) 기증받은 자료 중 역사자료 말뭉치에 반영되지 않은 문헌

- 2023년에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기증받은 원시말뭉치 자료 중에 이번 정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문헌들이 있다. 특히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 자료집』이나 『언문일치 일본국육법전서』(1908)의 경우 어원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이 문헌들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3.2. 개별 구축 역사자료 말뭉치의 수집

3.2.1. 도입

□ 그동안 개별 연구나 공동 연구 사업을 통해 구축된 말뭉치들 중에 현재 국어 역사자료 말뭉치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들이 지금까지 두루 공유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려 볼 수 있다.

- 자료 공유의 공식적 공개성에 대해 알 수 없다. 즉 개별 연구자들이 알음알음으로 자료를 공유받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바 이는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공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공개적 공유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들을 하고 있다. 가령 남이 공들여 만든 말뭉치를 구축자의 허락 없이 쓰는 것은 비윤리적이라는 학계의 인식도 자료 공유에 영향을 주고 있다.
-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공유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태생적으로 말뭉치는 공동 작업의 결과물인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말뭉치 구축에 참여한 사람도 마음대로 공유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즉 말뭉치의 공유 등의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 학문 분야가 세분화되고 교류가 부족한 상황도 자료의 공유에서 방해 요소가 된다. 역사, 철학, 문학 등 인접 분야에서 구축한 말뭉치의 경우 연구자 집단 간의 네트워크가 약해 그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 이번에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한 어원사전 편찬 준비 사업을 계기로 이러한 개별 말뭉치의 공유 문제에 대하여 공론의 장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3.2.2. 수집 과정

(1) 사업 홍보 및 말뭉치 공유 협조 요청 메일 발송을 통한 수집

- 먼저 사업 개시와 함께 사업단 구성원들에게 협조 메일을 발송하였다.
- 이후 KCI 등록 학회지 목록을 근거로 유관 연구자 집단(학회)을 100여 곳 선별하여 사업 홍보 및 개별 구축 말뭉치 공유에 대한 협조 요청 메일을 발송하였다.
- 사업단 구성원들이나 유관 연구자 집단 구성원들로부터 10여 건 정도의 메일을 회신받았다. 이 중 실제로 자료를 공유한 경우가 절반 정도이고 나머지 절반은

구축된 말뭉치에 대한 제보였다.

(2) 자문 의견을 통한 기관 구축 말뭉치 확보

- 몇 차례의 자문회의를 통해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소유권이 있는 근대 국어 시기 및 개항기 국어 시기에 해당하는 말뭉치를 소개받았다.
- 결과적으로 보면 개별적으로 구축한 말뭉치의 상당수에 대해 그 소유권이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의 국가 기관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 이러한 경우 국립국어원을 통한 기관 접촉으로 말뭉치를 공유받았다.
- 말뭉치의 원전이 어원사전 집필의 측면에서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소장처가 국가 기관이 아닌 경우(예: 한림대 한림학술원) 말뭉치를 공유받기가 어려웠다.
- 다만 해당 말뭉치의 원시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나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소유한 말뭉치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3.2.3. 확보한 자료

(1) 개인 기증 자료

- 서울시립대 이상훈 선생님 기증 자료
 - 『속삼강행실도』, 1581년 선조대 중간본, 대만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삼강행실도』, 1726년 영조대 중간본, 평안도 감영본, UC버클리 소장본
- 한국학중앙연구원 안예리 선생님 기증 자료
 - 『사민필지』(1889)
 - 『신식부인치가법』(1925)
 - 『신학신설』(1891)
 - 『언문』(1909)
 - 『포와유람기』(1909)
- 서울대 김주원 선생님 연구사업 팀 기증 자료
 - 『한청문감』, 연구재단 사업으로 구축한 자료
- 고려대 장경준 선생님 기증 자료
 - 자토석독구결 6종 입력 자료(sktot)
 - 『언문일치 일본국육법전서』(1908)

- 서강대 김한별 선생님 기증 자료
 - 속명신한첩언간(1652-1688)
 - 속휘신한첩언간(1653-1696)
 - 이동표가언간(1658-1700)
 - 음식디미방(1670전후)
 - 송규렴가언간(1684-1709)
 - 송준길가언간(17c-18c)
 - 추사가언간(1754-1897)
 - 의성김씨학봉종가언간(1765-1883)
 - 추사언간(1818-1844)
 - 순원왕후언간(1837-1857, 한박 35건 중 23건만 포함)
 - 송병필가언간(1863-1922)
 - 명성황후언간(1875-1895)
 - 순명효황후언간(1894-1904)
- 고려대 전한솔 선생님 기증 자료
 - 『훈몽자회』 예산본
 - 『사성통해』 (한국어 어휘)
 - 『고열녀전』 권4

(2) 기관 기증 자료

- 한국학중앙연구원 기증 자료
 - 「제국신문」, 개항기 초기 자료
 -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 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기증 자료
 - 근대 잡지 말뭉치
- 고전번역원 기증 자료
 - 『대명률직해』 번역문과 원문

(3) 차후 공유받기로 한 자료

- 고려대 김유범 교수 팀 기증 예정 자료
 - 『노박집람』, 출판 작업 중에 있어 차후 공유받기로 하였다.

3.2.4. 제언

(1) 입력자가 팀인 경우 책임과 권한의 소재가 분명해야 한다.

- 향후 연구재단 등 국가 기관이 지원한 각 연구 사업으로 말뭉치를 구축하게 될 때 말뭉치의 공익적 측면을 살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등의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2) 개인이 구축한 말뭉치를 연구 공동체를 위해 공유하는 것이 권장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 이를 위해 말뭉치 구축이 연구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이때 말뭉치의 크기, 필요도, 참여자 수 등에 따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20세기 전반기 소설 자료와 저작권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20세기 전반기 소설에는 당시의 생생한 언어 표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국어사 연구 및 어원 기술에 있어 그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
- 현재 연구자들은 각자 나름대로 20세기 전반기 소설 텍스트를 모아 개별적인 말뭉치를 구축하여 연구에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그러나 저작권 문제로 공식화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일본 등 외국의 경우처럼 공익적 사용에 대해 저작권을 제한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3. 말뭉치팀 작업 지침

이번 ‘2023 국어 어원사전 편찬’ 사업에서 추가로 구축하는 역사자료 말뭉치는 2014~2016년, 2018년에 국립국어원 연구용역 과제로 진행된 ‘역사자료종합정비’ 사업과의 연속성 및 통일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기존의 말뭉치 구축 방식이나 작업 지침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중 수정·추가·삭제가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먼저 ‘2023 국어 어원사전 편찬’ 사업에서의 말뭉치 가공 방식을 소개하고, 이어서 작업 지침 변경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3.3.1. 말뭉치 가공 방식

말뭉치 형식은 기구축 자료와 동일하게 XML 형식으로 가공하였으며, 글의 분절 단위, 즉 자료 검색 시 노출되는 기본 단위는 절(節, clause)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짧은 단위일수록 가독성이 높고, 짧게 분절된 표현은 비교적 손쉽게 다시 결합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 이는 2015년 역사자료종합정비 사업 때부터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원칙이다.

분석 항목 및 sent type에 적용된 분류 표지는 다음과 같다.

<표 12> 말뭉치 가공 방식 - 분석 항목

항목 표지	의미 및 용법	특기 사항
sent type	sentence type	해당 구절의 텍스트적 성격
lang	language	해당 구절이 표상하는 언어
page		해당 구절이 나타난 면의 정보
n	number	해당 구절이 나타난 상대적 위치

<표 13> sent type의 분류 표지

표지	의미 및 용법	특기 사항
title	제목, 편명, 시명, 권호명 등	문헌에 따라 ‘title’이 편명 등을 나타내기도 함. 큰 제목, 작은 제목이 있을 때 ‘title2’, ‘title3’과 같이 번호를 붙여 위계를 나타냄. ‘theme, main title, head’ 등은 사용하지 않음.
main	본문, 표제어 등	한 단을 내려 쓴 본문의 경우 ‘main2’로 나타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번호를 붙여 위계를 나타냄.
anno	주석	주석에 대한 주석이나 본문2에 대한 주석일 경우, ‘anno2’로 나타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번호를 붙여

		위계를 나타냄.
author	필자명	
date	발행일 등	연속간행물 등에서 사용됨.

먼저, <제국신문>, <법화경언해>의 사례를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 1-1> ‘제국신문’의 서지 정보, 작성 정보 입력 예시

<pre> <teiHeader> <titleStmt> <title lang="kor">제국신문</title> <title lang="chi">帝國新聞</title> <abbre> </abbre> <volume n="제1권 제1호"/> <author></author> <date>1898-08-10-수</date> </titleStmt> <notesStmt> <bibl> <title>제국신문[帝國新聞]</title><!--http://waks.aks.ac.kr/rsh/?rshID=AKS-2011-EBZ-3103--> <pubPlace>한국학중앙연구원</pubPlace> <publisher>한국학중앙연구원</publisher> <date></date> </bibl> </notesStmt> <revisionDesc> <date>2023/03/21</date> <respStmt> <resp>입력자</resp><name>홍길동</name><!--연구보조원--> </respStmt> <respStmt> <resp>교정자</resp><name>김철수</name><!--공동연구원--> </respStmt> </revisionDesc> </teiHeader> <!--'page="01_곡가"'에서 앞의 숫자 '01'은 신문의 면 수, '곡가'는 기사 분류 유형을 가리키며 이 들 사이의 기호는 언더바(_)로 입력한다.--> </pre>
--

<titleStmnt>: 문헌명, 권차, 저자(알 수 없는 경우 미상), 간행년(필사년, 정확하지 않을 경우 '18세기, 18세기 중엽' 등도 가능)

<notesStmnt>: 영인본 서지사항(서명, 간행지, 간행기관/출판사, 간행연도)

<revisionDesc>: 작업 완료 일자, 입력자와 교정자를 기입함.

※ 웹사이트 이미지 파일을 참고하여 원문을 입력한 경우, 출판사 정보 대신에 웹사이트 정보와 해당 문헌의 원소장처도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자료 1-2> '제국신문'의 본문 입력 예시

```
<pages n="01">
<sent type="title" lang="kor" page="01_제호" n="1">제국신문</sent>
<sent type="title2" lang="kor" page="01_기타" n="2">생리(生理)</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1_기타" n="3">문</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1_기타" n="4">사림의 정신은 어디 있뇨</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1_기타" n="5">답</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1_기타" n="6">머리통 속에 두부 갇힌 골이 있느니</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1_기타" n="7">그 두부 갇힌 것슬 뢰(腦)라 하고</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1_기타" n="8">뢰를 속담에 골이라 하느니</sent>
(중략)
<sent type="main" lang="kor" page="01_기타" n="20">하니라</sent>
<sent type="title2" lang="kor" page="01_시사" n="21">農業概要</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1_시사" n="22">농수란 것은</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1_시사" n="23">곡식만 심으는 것뿐 안이라</sent>
```

'제국신문'의 경우, 문헌 특성상 섹션명, 기사 제목 등에 따라 여러 층위의 title로 분류되었으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입력하였다.

<표 14> title 층위 구분에 따른 sent type 입력

구분	내용	태그 예시
title	1면에 '제국신문'이 등장할 때에 title을 입력한다.	<sent type="title" lang="kor" page="01_제호" n="1">제국신문</sent>
title2	섹션명(광고, 잡보, 논설 등), 기사 제목 위계는 'title2'로 입력한다. 2면에 '제국신문'이 등장하지 않아 'title' 입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 섹션명(광고, 잡보 등)이 등장한다면 'title2'를 입력한다.	<sent type="title2" lang="kor" page="01_잡보" n="2">잡보</sent>
title3	다음 위계의 기사 제목이 있을 경우에 'title3'을 입력한다.	

<자료 2-1> ‘법화경언해 권5’의 서지 정보, 작성 정보 입력 예시

<pre> <teiHeader> <titleStmt> <title lang="kor">법화경언해</title> <title lang="chi">法華經諺解</title> <fullname>묘법연화경언해</fullname> <generalname>법화경언해</generalname> <abbre>법화</abbre> <volume n="5"/> <author>세조 외</author> <date>1463</date> </titleStmt> </pre>	[기본 정보]
<pre> <notesStmt> <bibl> <title>大提閣</title> <pubPlace></pubPlace> <publisher></publisher> <date></date> </bibl> </notesStmt> </pre>	[입력 저본]
<pre> <revisionDesc> <date>1996/09/15</date> <respStmt> <resp>입력자</resp><name>송기중</name> </respStmt> <item>권2~권6</item> </revisionDesc> </pre>	[전사 정보1]
<pre> <revisionDesc> <date>1996/09/30</date> <respStmt> <resp>교정자</resp><name>송기중</name> </respStmt> <item>교정</item> </revisionDesc> </pre>	[전사 정보2]
<pre> <revisionDesc> <date>1998/10</date> <respStmt> <resp>프로젝트 책임자</resp><name>김흥규</name> <resp>연구원</resp><name>차준경</name> <resp>프로그래머</resp><name>이애란</name> </respStmt> </pre>	[전사 정보3]

<item>파일 변환, 세종 21 프로젝트 헤더 붙임, 마킹</item>
</revisionDesc>

<revisionDesc>

[전사 정보4]

<date>2009/12</date>

<respStmt>

<resp>교정자</resp><name>홍윤표</name>

</respStmt>

<item>출판 연도 교정</item>

</revisionDesc>

<revisionDesc>

[전사 정보5]

<date>2014</date>

<respStmt>

<resp>교감자</resp><name>고성익·이토 다카요시</name>

<resp>출처</resp><name>"국어사 원문 전산입력자료 1 - 15·16세기 편 ver.1.0", 전자입력공개
자료.</name>

</respStmt>

<item>전면적인 교감 및 재편집 작업</item>

</revisionDesc>

<revisionDesc>

[전사 정보6]

<date>2022/8</date>

<respStmt>

<resp>교정자</resp><name>오민석</name>

</respStmt>

<item>xml 형식으로 변환 및 부분 교감</item><!--"anno" 유형은 戒環의 解이다. ""anno2"는 계
환의 해와 일여의 집주 말미에 있는 본문의 구성에 대한 설명이다. 【 】는 一如의 集註이다. 【② ②】
는 주석 속의 주석이다. "main" 유형은 經의 본문이다. -->

</revisionDesc>

<revisionDesc>

[전사 정보7]

<date>2023/7</date>

<respStmt>

<resp>교정자</resp><name>장경준</name>

</respStmt>

<item>(1) 텍스트 분절을 역사 자료 말뭉치의 성격에 맞게 문맥을 고려하여 세분함</item>

<item>(2) 【 】로 표시된 一如의 集註 부분은 언해되지 않았으므로 제거함</item>

<item>(3) 입력된 텍스트의 누락 부분, 오타자, 띄어쓰기 등의 오류를 수정함</item>

<item>(4) 이전 버전에서 "anno2"로 표시한 것은 (언해문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본문 내용에 대한 과
판(科判)이므로 "title2"로 수정하고, 언해문 안에 포함된 협주를 별도의 문장으로 분리한 경우에
"anno2"로 표시하였다.</item>

</revisionDesc>

</teiHeader>

<자료 2-2> ‘법화경언해 권5’의 본문 입력 예시

```
<pages n="04b">
<sent type="anno" lang="chi" page="04b" n="1">讚持品事也 ㅎ시니라</sent>
<sent type="anno" lang="kor" page="04b" n="1">持品入 이를 讚歎 ㅎ시니라</sent>
<sent type="title2" lang="chi" page="04b" n="2">二請後</sent>
<sent type="main" lang="chi" page="04b" n="3">世尊하 菩薩摩訶薩이 於後惡世에 云何能說是經
ㅎ리잇고</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4b" n="3">世尊하 菩薩摩訶薩이 後 惡世에 엇데 ㅎ야사 이
經을 能히 니르리잇고</sent>
<sent type="anno" lang="chi" page="04b" n="4">請問 ㅎ샤디</sent>
<sent type="anno" lang="kor" page="04b" n="4">請 ㅎ야 묻조오샤디</sent>
<sent type="anno" lang="chi" page="04b-05a" n="5">云何所行이라샤 乃能說是經호디 得無諸難 ㅎ
리잇고 ㅎ시니 </sent>
<sent type="anno" lang="kor" page="04b-05a" n="5">엇데 行호미라샤 能히 이 經을 닐오디 시러
諸難이 업스리잇고 ㅎ시니</sent><!--이 ^ 經을-->
</pages>
```

이어서 <두견성>, <천의소감언해> 등의 사례를 차례로 살펴보하고자 한다.

<자료 3> ‘두견성’의 서지 정보, 작성 정보, 본문 입력 예시

```
<teiHeader>
<titleStmt>
<title lang="kor">두견성</title>
<title lang="chi">杜鵑聲</title>
<fullname> </fullname>
<generalname> </generalname>
<abbre> </abbre>
<volume n="상"/>
<author>선우일 著 ; 이해조 閱</author>
<date>1912</date>
</titleStmt>

<notesStmt>
<bibl>
<title>韓國 開化期 文學叢書, 1: 新小說 翻安(譯)小說 7</title>
<pubPlace>서울</pubPlace>
<publisher>아세아문화사</publisher>
<date>1978년</date>
</bibl>
</notesStmt>

<revisionDesc>
<date>2003/9</date>
```

[기본 정보]

[입력 저본]

[전사 정보1]

```

<respStmt><resp>프로젝트 책임자</resp><name>임용기</name></respStmt>
<item>세종21프로젝트 헤더붙임</item>
</revisionDesc>

<revisionDesc>
<date>2023/05/16</date>
<respStmt>
<resp>교정자</resp><name>오민석</name>
</respStmt>
<item>국립국어원 국어 역사 자료 종합 정비 사업의 규정에 맞게 xml 형식으로 변경</item>
</revisionDesc>

<revisionDesc>
<date>2023/06/01</date>
<respStmt>
<resp>입력자</resp><name>오필애</name><!--연구보조원-->
</respStmt>
<respStmt>
<resp>교정자</resp><name>허인영</name><!--공동연구원-->
</respStmt>
<item>전면적인 교감 및 적절한 문장 내지 절 단위로 분절</item>
</revisionDesc>

</teiHeader>

<pages n="권1_1">
<sent type="title" lang="kor" page="01" n="1">두견성(상) [杜鵑聲]上</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1" n="2">綠東鮮于日 著</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1" n="3">悅子李海朝 閱</sent>
<sent type="title2" lang="kor" page="01" n="4">●데일회</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1" n="5">이 층 늙흔 집에 주렴을 받썸 것고</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1" n="6">디동강 건너편 금슈봉 허리로</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1" n="7">거진거진 넘어가는 히를 무심히 바라보는 부인은</sent>
</pages>
<sent type="main" lang="kor" page="01" n="8">나이 불과 열 팔구 세가량썸 되얏는디</sent>

```

- 교정 사항

[전사 정보2]

- 교정 사항

[전사 정보3]

- 교정 사항

한편, 이미 정비된 말뭉치 가운데 일부를 선정하여 원문 추가 입력 작업을 진행하였다. ‘명의록언해, 천의소감언해, 가례언해’ 등을 대상으로 병렬 말뭉치 방식의 원문 입력 작업을 수행하였다.

<자료 4> ‘천의소감언해’의 한문 원문 입력 예시

```

<pages n="어제유찬슈제신:1a">
<sent type="title" lang="chi" page="어제유찬슈제신:1a" n="1">御製諭纂修諸臣</sent>
<sent type="title" lang="kor" page="어제유찬슈제신:1a" n="1">어제유찬슈제신</sent>

```

```

<sent type="main" lang="chi" page="어제유찬슈제신:1a" n="2">噫 諸逆之罔測語逼於予者</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어제유찬슈제신:1a" n="2">히라 모든 역적이 내게 망측히 어
    펍흔 거슨</sent>
<sent type="main" lang="chi" page="어제유찬슈제신:1a" n="3">蒼穹昭昭 陟降下臨 皇兄俯燭 ,
    </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어제유찬슈제신:1a" n="3">창궁이 쇼쇼흐 오시고 텍강이 하림
    흐 오시고 황형이 부촉흐 오시니</sent>
<sent type="main" lang="chi" page="어제유찬슈제신:1a" n="4">其雖痛心 何累於予</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어제유찬슈제신:1a" n="4">그 비록 막음이 통박흐나 내게 므
    슝 뉘 되리오마는</sent>
<sent type="main" lang="chi" page="어제유찬슈제신:1a" n="5">而但語逼東朝者 爲人子者 痛隕欲
    溘然無知</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어제유찬슈제신:1a" n="5">다만 동묘씩 어핍흐온 거슨 인즈
    되엿는 재 통운흐미 합연히 아루미 업고더 흐며</sent>

```

<자료 5> ‘가례언해’의 한문 원문 입력 예시

```

<pages n="02b">
<sent type="main" lang="chi" page="02b" n="1">凡禮有本有文</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2b" n="1">므룻 禮 本이 이시며 文이 이시니</sent>
<sent type="main" lang="chi" page="02b" n="2">自其施於家者言之</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2b" n="2">그 집의셔 施헝흐는 거스로브터 니르건댄</sent>
<sent type="main" lang="chi" page="02b" n="3">則名分之守 愛敬之實 其本也</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2b" n="3">名分の 디킬 것과 愛敬흐는 實은 그 本이오
    </sent>
<sent type="main" lang="chi" page="02b" n="4">冠昏喪祭儀章度數者 其文也</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2b" n="4">冠례며 昏례며 喪스며 祭스의 儀章과 度數는 그
    文이라</sent>

```

3.3.2. 작업 지침 변경 사항

이번 사업 수행 과정에서 기존 작업 지침과 비교할 때에 새롭게 수정, 추가, 삭제
한 항목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수정 항목

기존 지침을 수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원문의 표기 방식을 최대한 그대로 반영하고자 장바꿈에 관한 정보는 주석으로
대신하였다.

(3) 장 바뀜(page break) 표시

- 원문 형식을 그대로 입력하고, 장 바뀜 표시는 주석으로 별도 표시한다.

① 장이 바뀌는 위치는 '^'으로 표시한다. 한문 원문에는 장 바뀜 표시를 하지 않는다.

② 장 바뀜 위치가 어절 내부에 있는 경우에는 ^ 앞뒤를 모두 붙여 쓴다.

(전략) 다 一乘 爲 亨 紗 物 브터</sent><!--爲 亨 ^ 紗 物-->

③ 장 바뀜 위치가 어절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 앞뒤를 모두 띄어 쓴다.

(전략) 다 一乘 爲 亨 紗 物 브터</sent><!--爲 亨 紗 物 ^ 브터-->

□ 재점에 관한 기술을 명확히 하였다. (기존 2가지 방식 허용 → 1가지 방식 통일)

② 재점(ː): 재점을 해당 글자로 바꿔서 입력하고 주석을 통해 문헌에 재점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명ː백ː 亨다'의 입력

<sent type="anno" lang="kor" page="85b" n="1">명명백백 亨다</sent><!--뒤에 오는 '명'과 '백'은 재점으로 표기되어 있음-->

□ '협주' 표시를 위한 기호를 수정하였다. (이전의 '[]' 기호에서 '【 】'로 수정함.)

나. 협주가 짧은 경우

협주 앞 본문, 협주, 협주 뒤 본문을 하나의 문장으로 처리할 수 있다. 협주 부분은 【 】로 표시한다. (【'는 유니코드 3010, '】'는 유니코드 3011)

<sent type="main" lang="kor" page="9b" n="3">嗚呼 亨야 【嗚呼는 애와티는 마리 라】 기피 내 責호디 엇데 내 모뎨 소기거뇨 亨다니</sent>

□ '제국신문'의 경우, 문헌 특성을 고려하여 '기사 분류 정보'(곡가, 관보, 광고, 급보, 논설, 별보, 사고, 사보, 시사, 외국통신, 외보, 잡보, 전보, 기타)를 태그에 포함하였다.

<!--'page="01_광고"'에서 앞의 숫자 '01'은 신문의 면 수, '광고'는 기사 분류 유형을 가리키며 이들 사이의 기호는 언더바(_)로 입력한다. 한 기사가 두 면(1~2면)에 걸친 경우는

‘page="01-02_광고”와 같이 하이픈(-)을 입력한다.-->

```
<sent type="title" lang="kor" page="01_제호" n="1">데국신문</sent>
<sent type="title2" lang="kor" page="01_기타" n="2">칭리(生理)</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1_기타" n="3">문</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1_기타" n="4">사름의 정신은 어디 잇느뇨</sent>
```

```
<pages n="01">
<sent type="title" lang="kor" page="01_기타" n="1"></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1_기타" n="2"></sent>
(중략)
<sent type="main" lang="kor" page="01-02_기타" n="77"></sent>
</pages>

<pages n="02">
<sent type="main" lang="kor" page="02_기타" n="1"></sent>
<sent type="title2" lang="kor" page="02_잡보" n="2">잡보</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2_잡보" n="3">○ 우리나라</sent>
```

□ ‘제국신문’의 경우, 아래와 같이 sent type 정보를 제시하였다.

- ‘title’ 제시 방법

구분	내용	태그 예시
title	1면에 ‘데국신문’이 등장할 때에 title을 입력한다.	<sent type="title" lang="kor" page="01_제호" n="1">데국신문</sent>
title2	섹션명(광고, 잡보, 논설 등), 기사 제목 위계는 ‘title2’로 입력한다. 2면에 ‘데국신문’이 등장하지 않아 ‘title’ 입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 섹션명(광고, 잡보 등)이 등장한다면 ‘title2’를 입력한다.	<sent type="title2" lang="kor" page="01_잡보" n="2">잡보</sent>
title3	다음 위계의 기사 제목이 있을 경우에 ‘title3’을 입력한다.	

□ ‘미완, 연속(연속)’ 등 신문 자료에서 나타나는 예시를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④ ‘미완’, ‘연속’ 등의 표현: 해당 표현의 ‘sent type’은 ‘note’로 처리한다.

```
<sent type="main" lang="kor" page="01_기타" n="8">죄를 속담에 골이라 헛느니</sent>
<sent type="note" lang="kor" page="01_기타" n="9">(미완)</sent>
<sent type="title2" lang="kor" page="01_잡보" n="10">잡보</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1_잡보" n="11">농수란 것은</sent>
```

2) 추가 항목

지침에 새로 추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본 정보 입력>

(6) 연간류의 경우

- ① sender는 ‘발신자’, writer는 ‘작성자’, receiver는 ‘수신자’, year는 ‘발신 연도’, envelop은 ‘봉투 유형’을 입력한다.
- ② ‘발신 연도’는 연(年) 단위까지만 입력하되, 정확한 연도를 밝힐 수 없는 편지는 ‘19세기 중반’, ‘1851~1857년’ 등과 같이 그 추정 시기를 입력한다.
- ③ 봉투가 하나인 ‘단봉(單封)’은 다시 ‘별봉(別封, 별도로 만든 것)’과 ‘자봉(自封, 내지가 봉투를 겹친 것)’으로 나뉜다. ‘별봉’은 envelop1-1로, ‘자봉’은 envelop1-2로 입력한다. 단봉을 다시 짝 ‘중봉(重封)’은 envelop2로 입력한다.

<형식 정비 방법>

□ 난상 내용 입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5) 난상 내용 처리

- 난상의 내용은 표시된 해당 문장 뒤에 제시하고, 그 성격에 따라서 달리 표시한다.

① 본문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경우

난상 내용을 별도의 문장으로 처리하고, 주석 태그를 통해 난상임을 밝힌다.

```
<sent type="main" lang="kor" page="02b" n="5">방옥지 동서에 맞당이</sent>
<sent type="anno" lang="kor" page="02b" n="5">방옥에 창호는 만을수록 더욱
묘현이라</sent><!--난상에 기입됨-->
```

② 그 외(교정 내지 교감, 발음 정보 따위)의 경우

주석 태그로만 처리한다.

```
<mark type="section_begin">主</mark><!--난상에 주가 적힌 권점-->
```

<내용 정비 방법>

□ 부속문자 입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3) 부속문자 입력

행간의 여백을 이용하여 본문 글자의 위나 옆에 한자 또는 한글로 음이나 훈이 병기된 경우에는 ‘대괄호([])’를 추가하여 해당 문자 오른쪽에 그 내용을 입력한다.

위[魏]를 히[害]하야 군심[軍心]을 산란[散亂]케 함오니

□ 중복된 내용의 목차에 관한 정확한 지침 사항을 추가함.

(4) 중복 내용의 목차 입력

본문과 중복되는 내용의 목차는 추가로 입력하지 않는다. 다만 주석을 활용하여 동일 내용의 목차가 있다는 사실을 기술한다.

□ 문장부호 및 기호에 관한 지침 사항을 추가함.

③ 쉼표(.)와 마침표(.), 소괄호(()), 중괄호({ }), 대괄호([]): 자료에 표기된 방식 그대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료에 ‘학교(學校)’와 같이 소괄호가 기술된 경우에 그대로 입력한다. 세로쓰기에서 쓰인 모점(、)과 고리점(。)은 각각 쉼표(.)와 마침표(.)로 바꾸어 입력한다.

④ 줄임표(...): 원문의 줄임표는 점의 개수에 상관없이 ‘…’(유니코드 2026)로 통일하여 ‘…’를 1회 입력한다.

3) 삭제 항목

기존 지침 내용 중 삭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백’에 관한 내용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함.

③ 유의미한 공백: 유의미한 공백은 ‘~’로 표시한다.

昔者 信陵君이 豪~富貴호디 「墳山恢復謝恩歌清溪歌詞」

※ 이상의 내용을 반영한 작업 지침의 전체 내용은 [부록 4]에 첨부함.

3.4. 말뭉치의 정비와 플랫폼 운영

2014-2016, 2018년에 이루어진 ‘역사자료 종합 정비’ 사업에서는 말뭉치를 구축하고 정비하기 위해 작업자들이 각자의 컴퓨터에서 ‘한글’이나 ‘엠에디터(EmEditor)’ 등의 문서편집기로 작업한 파일을 일일이 수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사업에서는 작업자들마다 작업 환경이 달라지고 파일을 수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온라인상에서 작업하고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위키 기반 플랫폼 ‘KOHICO’를 사용하였다. 이하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역사자료 말뭉치의 정비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또 ‘KOHICO’라는 플랫폼과 그 운영에 대해 설명한다.

3.4.1. 말뭉치의 정비

□ 기구축 말뭉치의 정비

‘역사자료 종합정비’ 사업에서의 말뭉치 정비가 주로 내용의 오류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루어졌다면, KOHICO를 이용한 기구축 말뭉치 정비에서 중점을 둔 사항은 XML 구조의 표준화를 위한 작업에 있다. 다음은 어원사전 항목 집필에 사용된 콘코던서(concordancer)인 깜짝새에서의 검색을 위해 XML 파일을 변경한 주요 사항들이다.

1) 파일명 변경(간행연도 추가, 한글서명으로 통일)

깜짝새의 2b 파일 합치기 기능을 이용할 때 연대순으로 정렬하여야 검색 시에도 연대순으로 결과가 나온다. 이를 고려하여 ‘간행연대_문헌서명’의 형식으로 파일명을 통일한 후 정렬하였다. 이때 파일 통일은 INCLUDE 플러그인을 이용하였다. 또한 파일명에 한자 서명과 한글 서명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를 모두 한글서명으로 통일하였다.

2) 파일의 분할

『맹자언해』와 『청어노걸대』와 같이 여러 권을 함께 묶어 놓은 단일 파일의 경우 권별로 파일을 나누었다. 또한 이렇게 묶인 파일을 권별로 나눈 후 <teiHeader>의 하위 노드에 <volume n='01'>과 같이 태그와 속성을 추가하여 권차 정보를 노출시켰다.

3) 문헌 서지 정보 변경(<teiHeader> 하위 태그 통일)

2016, 2018년에 작업한 역사 자료 종합 정비 결과물 중 일부 <annosStmt>태그를 <notesStmt>태그로 통일하였다. 또한 2014, 2015년에 작업한 파일 중 <meta>태그

를 2016, 2018년의 <teiHeader> 태그 형식으로 통일하였다. <teiHeader>의 본문에 제시한 영인본 웹주소의 경우 특수문자로 인해 파싱 시 에러가 발생하여 주석문(<!-->)으로 바꾸었다.

4) 주석 태그

2면에 걸친 문장에 표시한 장차 부호(^)는 검색의 편의를 위해 앞뒤 1음절씩과 함께 주석문형식(<!-- -->)으로 바꾸었다.

5) 속성값 변경

『석보상절』 권19, 『용비어천가』 권1, 『창진방찰요』, 『한불자전』 등등의 열 말뭉치에서 일부 'n=번호'가 맞지 않는 것을 변경하였다.¹⁾ 또한 lang 속성의 “chi/kor”값이 뒤바뀐 것들을 수정하였다.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의 경우 시가의 특성상 열수보다 장(章)과 기(其)에 의한 위치 파악이 더 일반적으로 이용된다. 이름 감안하여 ‘page’의 속성 값에 『용비어천가』는 장(章) 정보를, 『월인천강지곡』은 기(其) 정보를 추가하였다.

6) 어원사전 집필·감수용 말뭉치 Ver1.0 제공

KOHICO에서 수정·보완한 기구축 말뭉치를 바탕으로 집필진에서 요구한 집필 감수용 말뭉치의 형식은 우리말샘과의 통일성이었다. 이에 맞춰 집필·감수용 말뭉치 Ver1.0을 제공하였다.

<그림 4> 우리말샘의 ‘ㄱ롭’에 대한 예문 정보

ㄱ롭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품사

「명사」

분류

「옛말」

“002” ‘강’의 옛말.

- ▶ 四海를 년글 주리며 ㄱ롭매 비 업거늘 열우시고 또 노기시니. <용가 20장>
원문: 維彼四海 肯他人錫 河無舟矣 既水又釋
번역: 사해를 남을 주랴 하여 강에 배가 없어도 열리시고 또 녹이셨습니다.
- ▶ 三千大千 世界 안팎이 잇는 외히며 수프리며 ㄱ롭미며 바투리며. <석상 19:13>
번역: 삼천 대천 세계 안팎에 잇는 산이며 수풀이며 강이며 바다며. 석보상절(1447)
- ▶ 四月八 八일에 ㄱ롭과 우웠느리 다 났디고. <월석 2:48>
번역: 사월 팔일에 강과 우물물이 다 넘치고.
- ▶ ㄱ롭 우희 쏜 ㄱ숲 비치로디 불 곤흔 구루문 무추매 읊디 아니후돏다. <두시-초 25:25>
원문: 江上亦秋色, 火雲終不移.
번역: 강 위에 또 가을의 빛이로되 불 같은 구름은 끝내 움직이지 않는구나.

1) ‘n’ 속성의 오류는 인지한 것들만 수정한 것으로 더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위의 예는 우리말샘에서 ‘ㄱ롭’을 검색할 때 나오는 예문 정보인데, ‘《》’ 속 정보가 매우 간략하다. 서명은 약호만 제시되어 있고 ‘권차:장차’ 형식으로 위치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말샘의 경우 약호명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위의 예처럼 ‘석보상절(1447)’이라는 ‘서명(간행연도)’ 정보가 뜨기 때문에 약호명만 노출하여도 어떤 문헌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다만 KOHICO에 수록된 기구축 말뭉치에는 약호 정보가 없어서 ‘<abbre>’ 태그를 추가하였다. 문헌의 부정확한 연대를 교정하는 작업도 하였고, 추가로 장의 앞/뒷면 정보를 ‘a/b’에서 ‘ㄱ/ㄴ’으로 교체하였다.

<표 15> KOHICO에서 제공하는 기존의 2b 통합 말뭉치와 집필·감수용 말뭉치의 비교

KOHICO의 통합 말뭉치(2022년10월 버전)	어원사전 집필·감수용 말뭉치 Ver.1.0
<p><1447_석보상절6 유형=title 언어=chi 장차=01a:1 입력자본=디지털한글박물관> 釋譜詳節 第六</p> <p><1447_석보상절6 유형=main 언어=kor 장차=01a:2 입력자본=디지털한글박물관> 世尊이 象頭山에 가샤 (--- 저경 미확인 ---)</p> <p><1447_석보상절6 유형=main 언어=kor 장차=01a:3 입력자본=디지털한글박물관> 龍과 鬼神과 위후야 說法하더시다 (--- 저경 미확인 ---)</p> <p><1447_석보상절6 유형=anno 언어=kor 장차=01a:4 입력자본=디지털한글박물관> 龍鬼 위후야 說法하사미 부뎃 나히 설흔들허러시니</p> <p><1447_석보상절6 유형=anno 언어=kor 장차=01a:5 입력자본=디지털한글박물관> 穆王 여섯차히 乙酉이라</p> <p><1447_석보상절6 유형=section_begin 입력자본=디지털한글박물관> ○</p> <p><1447_석보상절6 유형=main 언어=chi 장차=01a:6 입력자본=디지털한글박물관> 爾時世尊告目犍連。</p> <p><1447_석보상절6 유형=main 언어=kor 장차=01a:6 입력자본=디지털한글박물관> 부데 目連이든러 니루사디</p> <p><1447_석보상절6 유형=main 언어=chi 장차=01a:7 입력자본=디지털한글박물관> 汝今往彼迦毘羅城。</p> <p><1447_석보상절6 유형=main 언어=kor 장차=01a:7 입력자본=디지털한글박물관> 네 迦毘羅國에 가아</p> <p><1447_석보상절6 유형=main 언어=chi 장차=01a:8 입력자본=디지털한글박물관> 問訊我父闍維王。并我姨母波闍波提。</p> <p><1447_석보상절6 유형=main 언어=kor 장차=01a:8 입력자본=디지털한글박물관> 아바넝그와 아즈마넝그와</p> <p><1447_석보상절6 유형=anno 언어=kor 장차=01a:9 입력자본=디지털한글박물관> 아즈마니온 大愛道를 니르시니</p> <p><1447_석보상절6 유형=anno 언어=kor 장차=01a-1b:10 입력자본=디지털한글박물관> 大愛道！摩耶夫人스 尼미시니 (---人스---)</p>	<p><1447_석상 6:01ㄱ> 釋譜詳節 第六</p> <p><1447_석상 6:01ㄱ> 世尊이 象頭山에 가샤</p> <p>(주석: 저경 미확인)</p> <p><1447_석상 6:01ㄱ> 龍과 鬼神과 위후야 說法하더시다</p> <p>(주석: 저경 미확인)</p> <p><1447_석상 6:01ㄱ> 龍鬼 위후야 說法하사미 부뎃 나히 설흔들허러시니</p> <p><1447_석상 6:01ㄱ> 穆王 여섯차히 乙酉이라</p> <p><1447_석상> ○</p> <p><1447_석상 6:01ㄱ> 爾時世尊告目犍連。</p> <p><1447_석상 6:01ㄱ> 부데 目連이든러 니루사디</p> <p><1447_석상 6:01ㄱ> 汝今往彼迦毘羅城。</p> <p><1447_석상 6:01ㄱ> 네 迦毘羅國에 가아</p> <p><1447_석상 6:01ㄱ> 問訊我父闍維王。并我姨母波闍波提。</p> <p><1447_석상 6:01ㄱ> 아바넝그와 아즈마넝그와</p> <p><1447_석상 6:01ㄱ> 아즈마니온 大愛道를 니르시니</p> <p><1447_석상 6:01ㄱ-1ㄴ> 大愛道！摩耶夫人스 尼미시니</p> <p>(주석: 人스)</p>

□ 미정비 말뭉치의 정비 및 신규 구축

1) 말뭉치팀의 작업 개요

이번 사업에서 말뭉치팀은 일관된 지침에 입각하여 미정비 원시 말뭉치를 검토, 300만 어절을 XML 형식으로 정비하고, 70만 어절 규모의 말뭉치를 XML 형식으로 추가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를 위해 연구보조원 6인이 한 팀을 이루고 팀별로 공동연구원 1인이 팀장을 맡아 진행 상황 및 결과물을 관리하였다. 또한 KOHICO를 통하여 연구보조원들이 작업한 파일을 업로드하고, 공동연구원이 업로드된 결과물을 검수하였다.

그리고 ‘역사자료 종합정비’ 사업에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화경언해』 권5-7

의 정비와 한문 원문이 입력되지 않은 5종, 즉 『어제자성편언해』, 『어제조훈언해』, 『어제경세문답언해』, 『어제경세문답속록언해』, 『어제백행원』의 한문 원문 입력 작업도 별도로 진행하였다.

2) 작업 진행 계획

사업 시작 단계에서는 4월부터 11월까지 각 달을 절반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작업량을 계획하였다.

- 4월 전반: 1인당 5천 어절, 합계 15만 어절(누계 15만 어절)
- 4월 후반: 1인당 8천 어절, 합계 24만 어절(누계 39만 어절)
- 5월 전반: 1인당 8천 어절, 합계 24만 어절(누계 63만 어절)
- 5월 후반: 1인당 8천 어절, 합계 24만 어절(누계 87만 어절)
- 6월 전반: 1인당 8천 어절, 합계 24만 어절(누계 111만 어절)
- 6월 후반: 1인당 8천 어절, 합계 24만 어절(누계 135만 어절)
- 7월 전반: 1인당 1만 어절, 합계 30만 어절(누계 165만 어절)
- 7월 후반: 1인당 1만 어절, 합계 30만 어절(누계 195만 어절)
- 8월 전반: 1인당 1만 어절, 합계 30만 어절(누계 225만 어절)
- 8월 후반: 1인당 1만 어절, 합계 30만 어절(누계 255만 어절)
- 9월 전반: 1인당 9천 어절, 합계 27만 어절(누계 282만 어절)
- 9월 후반: 1인당 9천 어절, 합계 27만 어절(누계 300만 어절)
- 10월 전반: 1인당 8천 어절, 합계 24만 어절(누계 333만 어절)
- 10월 후반: 1인당 8천 어절, 합계 24만 어절(누계 357만 어절)
- 11월 전반: 1인당 4천 어절, 합계 12만 어절(누계 369만 어절)

3) 작업 진행 경과

먼저 말뭉치 정비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공동연구원들이 예비 작업을 해본 뒤,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KOHICO 관리자의 회의를 통하여 기초적인 작업지침을 작성하고 KOHICO 내부에 작업 안내 페이지를 작성하였다.

말뭉치 작업이 개시된 뒤부터는 팀원의 질문에 대해 팀장이 빠른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팀별 단톡방을 만들어 운영하는 한편, KOHICO 내에서도 토론 기능을 사용하여 각 문서를 작업하는 담당 연구보조원이 질문을 올리면 누구든지 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작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KOHICO 내에 안내 페이지를 작성하고,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참여자 명단, 지침 변경 및 추가 사항, 담당 문헌 배정 등을 업데이트하였다.

4월부터 5월 전반까지는 미정비 문헌 목록에 포함된 문헌들의 중요도를 판단하여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으므로, 일단 정비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신규 자료 가운데 19세기 말~20세기 초의 신문 자료를 DB화한 '제국신문 DB'에서 구축된 『제국신문』의 내용을 배정하였고, 작업량은 다음과 같다.

- 4월 전반: 합계 333,576어절(1인당 평균 11,119어절)
- 4월 후반: 합계 661,711어절(1인당 평균 22,057어절)
- 5월 전반: 합계 478,297어절(1인당 평균 15,943어절)
- 누계: 총 1,473,584어절 (1인당 평균 49,119어절)

5월 전반까지의 작업량만으로도 이미 계획된 6월까지의 작업량을 초과하였다. 이는 XML 태그를 부착하고 지침에 따라 어절별로 띄어쓰기를 하는 과정에서 어절이 늘어난 것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연구원들이 작업에 빨리 적응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5월 후반부터는 작업자별로 별개의 문헌을 배정하였으므로 작업자에 따라 진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성실히 참여하였다. 5월 후반부터 12월 14일까지의 작업량은 다음과 같다.

- 5월 후반-12/14 작업량: 총 2,512,155어절 (1인당 평균 87,970어절)

5월 전반까지의 작업량(1,473,584어절)과 합치면 총 4,024,739어절이 된다. 별도로 진행된 『법화경언해』 권5-7의 정비(88,385어절)와 5종의 한문 원문 입력 자료(33,743어절) 작업 결과는 총 122,128어절이다. 이를 합치면 현재까지의 작업 결과물의 어절 수는 총 4,146,867어절이 된다.

4월 전반부터 12월 14일까지의 작업량만으로도 410만 어절을 초과하는 자료가 정비 및 구축되었다. 이로써 목표했던 작업량인 370만 어절을 초과 달성하였다.²⁾

3.4.2. 말뭉치 정비용 플랫폼의 소개

□ KOHICO의 제작 의도 및 말뭉치팀의 이용 배경

KOHICO는 'Korean Historical Corpus(한국어 역사 자료 말뭉치)'의 줄임말이다. KOHICO 누리집(<https://kohico.kr/>)은 말뭉치의 입력과 이용의 편의를 위해 만들었다. KOHICO의 주요 서비스는 XML 구조의 한국어 역사 자료 말뭉치를 이용자가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변환한 뒤, 검색을 위한 2b 형식의 파일로 가공·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기구축 말뭉치의 교정과 신규 말뭉치의 추가가 용이하여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도 적합하다.

그동안 말뭉치의 이용 편의성, 말뭉치의 오류 교정, XML 구조 개선 등 KOHICO를

2) 사업 종료 이후 정비 및 구축된 자료의 검토와 수정 과정에서 약간의 증감은 있을 수 있다.

운영하면서 확인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금씩 수정·보완해 왔으며, 이를 대체할 말뭉치 구축 플랫폼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점에서 말뭉치팀에서 이용한 것이다.

□ DokuWiki를 이용한 이유

위키 엔진(wiki engine)은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사용자들 여럿이서 웹 페이지를 만들고 편집할 수 있게 하는 위키 소프트웨어(wiki software)이다(위키백과 ‘위키 소프트웨어’ 항목 참조).

DokuWiki 엔진을 XML 파일의 ‘역사 자료 종합 정비 결과물’의 변환에 이용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가. UTF-8 코드처리

나. 다언어 지원

다. MySQL 등의 DB 처리방식이 아닌 TXT 기반의 파일 시스템

라. 플러그인(plugin)을 이용한 다양한 확장 기능

첫째, ‘역사 자료 종합 정비 결과물’은 모두 “<?xml version="1.0" encoding="UTF-8"?>”이라는 XML 선언문으로 시작한다. XML 파일의 문자코드가 UTF-8 이므로 DokuWiki를 사용하면 별도의 코드변환이 필요 없다.

둘째, 다언어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역사 자료 종합 정비 결과물’에 원문과 언해문을 함께 제공하는 병렬말뭉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언해본 중 중국어(한자) 원문만 입력된 상태이나, 역학서 자료를 고려하면 일본어(가나), 만주어(만주문자), 몽고어(몽고문자)의 입력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19세기 말-20세기 초의 선교사나 외교관이 펴낸 문헌들은 프랑스어, 독일어 등 유럽권 언어의 문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들 언어의 추가 가능성도 고려하였다.

셋째, XML 파일은 확장명만 TXT로 바꾸면 TXT 파일이 되기 때문에 DB 서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이 TXT 파일만으로도 이용 가능한 위키 엔진이라는 점은 DokuWiki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들은 XML파일을 단순히 TXT파일로 변환하여 웹상에 출력해주는 것이 전부이고, 결정적인 동기는 다양한 플러그인(plugin)을 제공하기 때문이었다.

KOHICO의 말뭉치와 관련된 주요 기능들은 플러그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특히 XSLT 플러그인을 통해 XML 파일의 구조를 깜짝새 검색에 용이하게 변환할 수 있고, DISCUSSION 플러그인을 통해 각 페이지마다 토론창을 활성화하여 오류 교정과 말뭉치 개선에 협업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diffpreview 플러그인을 통해 이전 저장 파일과 새로 저장할 파일의 수정 내용을 손쉽게 확인 가능하고, Include 플러그인을 통해 1000여 개의 파일을 20여 개의 파일로 손쉽게 통합할 수 있다.

3.4.3. 말뭉치 정비용 플랫폼의 운영

□ KOHICO의 사용자 경험(UX)

연구보조원들이 처음 KOHICO에서 아이디를 만들고 접속하여 작업을 시작할 때에는 ‘hun글’ 등 문서편집기가 아닌 웹상에서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 낯설어하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특히 처음 작업하는 연구보조원의 경우 XML 태그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KOHICO에서는 XML 형식을 그대로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XSLT(eXtensible Stylesheet Language Transformations) 스타일시트를 사용하여 변형된 형식을 보여준다.

<자료 6> 『제국신문』 정비 결과물(XML 형식, 부분)

```
<sent type="title" lang="kor" page="01_제호" n="1">제국신문</sent>
<sent type="title2" lang="kor" page="01_논설" n="2">논설</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1_논설" n="3">턴하에 데일 요흔 음식이 잇스니
</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1_논설" n="4">이 음식은 사름이 몬든 것도 아니
오</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1_논설" n="5">신선이 보넌 것도 아니라</sent>
```

<자료 7> KOHICO상에서 XML의 내용이 XSLT 스타일시트로 렌더링되어 보이는 화면

```
<1899-03-16-목요일 제국신문 제 2권 제 56호:01_제호 1번째_문장> 제국신문
<1899-03-16-목요일 제국신문 제 2권 제 56호:01_논설 2번째_문장> 논설
<1899-03-16-목요일 제국신문 제 2권 제 56호:01_논설 3번째_문장> 턴하에 데일 요흔
음식이 잇스니
<1899-03-16-목요일 제국신문 제 2권 제 56호:01_논설 4번째_문장> 이 음식은 사름이
몬든 것도 아니오
<1899-03-16-목요일 제국신문 제 2권 제 56호:01_논설 5번째_문장> 신선이 보넌 것도
아니라
```

처음에는 이처럼 눈에 보이는 화면과 ‘편집’을 눌렀을 때 보이는 화면이 다르다는 것에 혼동을 느끼는 연구보조원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완벽하게 적응하였다.

우리는 KOHICO의 UX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공동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대상으로 하여 말뭉치팀에서 진행 중인 작업 및 KOHICO 사용과 관련한 무기명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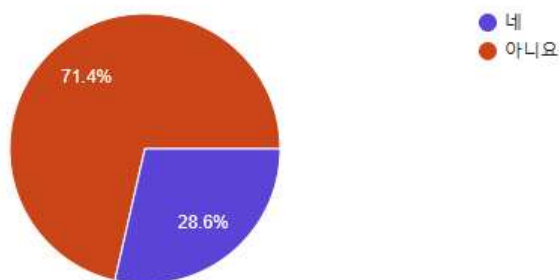
조사를 부탁하는 메일을 발송하였다. 그 결과 33명 가운데 14명(42.4%)이 응답하였다.

1) 이전에 국어사 말뭉치와 관련된 작업(구축, 정비 등)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응답자 14명 중 10명(71.4%)은 국어사 말뭉치 관련 경험이 있었고 4명(28.6%)은 없었다.

<그림 5> 설문조사: 말뭉치 관련 작업의 경험 유무

응답 14개



2) 이번에 말뭉치 정비 작업을 하면서 느낀 점을 간략히 적어 주십시오.

▲ 긍정적

- <역사자료 말뭉치 정비사업>을 수행하던 때보다 훨씬 체계적인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 문제 없이 원활하게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클라우드 방식인 점, 분류가 폴더 방식으로 잘 돼 있는 점, 이미지를 함께 볼 수 있는 점 등이 좋습니다.
- 작업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 신속하게 피드백이 이루어짐. Kohico를 활용해서 작업자 편의를 고려하여 시스템이 운영됨.
- KOHICO와 공유 문서 등을 통해 연구원 전체가 함께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다는 생각이 들어 참여자로서 존중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작업이 처음이라 여전히 어려운 점이 있으나, 팀장님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어려운 점을 그때 그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작업이 전반적으로 흥미롭고 유익합니다. 말뭉치 구축을 하면서, 당시의 문헌을 꼼꼼히 읽어볼 기회가 생긴다는 점에서 공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입력되어 있는 문헌을 교정하는 작업이어서 비교적 수월한 것 같습니다.
- 제국신문 작업을 통해 당시 사회 분위기를 알 수 있었고, 신문에 실린 글임에도 불구하고 표기법이 매우 혼란하다는 점을 느꼈다.
- 입력하면서 새로운 문법사적 사실이나 표기법 등을 관찰하게 되어 흥미로움

- 그 시대의 사용했던 어휘, 문법, 표기 등을 실제적으로 볼 수 있었다.

▲ 부정적

- 절 단위 판단이 쉽지 않다.

-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의 뜻을 파악하여 문맥에 맞게 분절하는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 처음 하는 작업이라 힘들었고, 문헌 종류에 따라 방법이 변경이 되어서 헷갈립니다. 아무래도 검토진과 집필자가 메신저만으로 묻고 답하고 해야해 잘 소통이 안되는 점이 제일 큰 어려움입니다.

- 생각보다 일정이 빠듯하네요

긍정적인 반응의 원인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보인다.

① 말뭉치 구축 작업의 체계적 진행

② 공유 문서, 빠른 피드백 등 원활한 소통

③ 정비 대상 문헌의 검토 과정에서 얻게 되는 전공과 관련된 지식

이전에 ‘역사자료 종합 정비’ 사업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이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며, 사업이 끝날 때까지 이러한 장점을 잘 살려서 말뭉치 정비 및 구축 작업을 진행하였다.

반면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① 절 단위 분절의 기준을 잡기 어려움

② 메신저를 통한 팀내 의사소통의 어려움

③ 타이트한 작업 일정

이러한 문제들은 특히 처음 작업하는 경우에 더 크게 느꼈으나, 모두 점차 적응하였다. 이 과정에서 끊임없는 피드백을 통하여 각 팀 내외의 피드백을 활성화하며 작업 일정을 잘 조율하는 한편, 질문에 대해 팀장급 회의에서의 논의를 통해 자세한 작업 지침을 확충하였다.

3) 현재 사용 중인 KOHICO 사이트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 ① 접근의 용이성('다음'이나 '네이버' 카페 등에 비하여 접근하기 쉬움), ② 수정·보완의 편리성(관계자라면 누구나 쉽게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음), ③ 자료 축적의 체계성(향후 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여러 말뭉치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음).

- 정말 잘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업 현황을 한눈에 보고 공유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서 KOHICO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말뭉치 공동작

업을 위한 플랫폼으로 자리잡았으면 좋겠습니다.

- 참여자 개개인이 할당된 자료만 작업하고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말뭉치 구축의 대상이 되는 자료와 사업의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사업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작업 현황, 작업 내용을 확인하고 참고할 수 있어서 할당된 부분을 작업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어디서든 접근이 쉽다.
- 실시간 피드백 가능
-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한 점
- 하나의 서버에서 실시간 중앙 관리가 용이함.
- 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어서 좋고, 토론 공간도 있어서 좋음.
- 직관적입니다.
- 원본 이미지가 함께 실려 있는 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문헌별로 사진과 텍스트를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좋음.
-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 생각해보지 않음

KOHICO의 장점을 언급한 응답자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꼽았다.

- ① 접근성: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작업할 수 있음.
- ② 편의성: 누구나 편집 가능하고 이미지가 있는 경우 함께 볼 수 있음.
- ③ 체계성: 현황 파악이 직관적이고 관리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음.

‘훈글’이나 ‘엠에디터’ 등 문서편집기를 이용하여 작성한 파일을 일일이 수합하여 정리하던 과거의 방식에 비하면 인터넷을 통해 어디서든 접근하여 실시간으로 작업할 수 있는 KOHICO의 방식이 진일보한 것임은 분명하다. 위키의 장점이자 단점은 누구나 문서를 만들고 편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KOHICO의 경우에는 팀장이 팀원이 작성한 문서를 팀원 아이디로 따로 로그인하지 않아도 확인하고 편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작용한다.

4) 현재 사용 중인 KOHICO 사이트의 개선점은 무엇입니까?

- 없습니다.
- 없는 것 같음
- 로딩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종종 글자가 깨진다. 날개셋이 설치된 컴퓨터가 많지 않은 만큼 날개셋을 통하지 않더라도 옛한글이 입력 가능하도록 개선되면 훨씬 편하겠다.

- 느립니다~~~~
- 속도가 너무 느림. 피드백을 할 때 편집이 쉽지 않음. 간단한 수정만 가능. 행 바꿈 등 전반적인 수정은 어려움.
- 다른 사이트에 비해 로딩시간이 길어요. 누르면 바로 문헌들이 뜨면 좋겠습니다.
- 속도가 느림.
- 속도가 너무 느려 사용하기 불편함. 이 점만 개선하였으면 좋겠음.
- 잘 모르겠으나, 굳이 꼽자면 가끔 사이트가 느려지는 경우가 있어 약간 아쉬움.
- 입력한 말뭉치 파일에 태그 등 형식 오류가 생겼을 때 당황하는 팀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xml editor 등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지만, 그러한 방법이 KOHICO 안에서 자세히 안내되면 좋겠고, (더 욕심내자면) 입력할 때 KOHICO 안에서 자동으로 오류를 발견해준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가령 no30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하나의 문장을 두 문장으로 나누게 될 때 처음부터 다시 번호매김을 해야 하는데, 내용 수정을 하면 줄표시 숫자가 자동으로 수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 작업 분량이 미리 업로드되었으면 합니다
- 원문을 xml 형식에 맞추어 입력할 때 애매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개선점으로 요구된 것은 KOHICO 사이트 자체의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관리자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NAS에 설치된 서버에서 DocuWiki 기반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DocuWiki는 텍스트 파일 기반 위키이므로 설치, 백업, 복구와 설정 및 사용법이 간단하나, 페이지가 늘어나면 검색이 느려진다. 뿐만 아니라 현재 NAS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회선이 500Mbps의 가정용 회선이라는 점도 문제가 된다. 인근 지역에서 인터넷 사용이 많거나, KOHICO에 접속자가 물리게 되면 속도가 급격히 저하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호스팅 업체를 통해 고속 회선과 대용량의 서버를 임대하고, 속도가 빠른 DB 기반 위키를 설치해야 한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기타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 ① '역사자료 종합 정비' 사업에서 XML 태그셋에 문장 번호를 추가하였는데 이것이 절 단위 분절을 하다가 판단이 바뀌는 경우에는 번거롭게 되는 경우가 있다.
- ② XML 형식에 오류가 있으면 아예 문서가 깨져버리는 DocuWiki 특성상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림 6> KOHICO의 오류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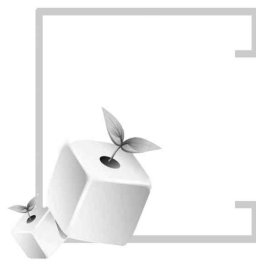
3.4.4. 말뭉치 정비 플랫폼의 보완 방향

□ 문헌 종류에 따라 입력 방법이 변경되어서 혼란스러운 문제

앞으로 국어사 자료에 대한 XML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어사 자료에 대한 XML 구조의 표준화가 이루어지면 텍스트 부호화 주도 기구(Text Encoding Initiative: TEI)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

□ 어휘사전 집필·감수용 말뭉치 Ver. 2.0

어휘사전 집필·감수용 말뭉치 Ver. 1.0은 처음 만든 것이라서 집필자들이 사용하면 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메타 정보를 많이 노출시켜 집필 시에 정보의 부족함이 없도록 XML 구조를 개선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제 4 장

자료구축팀



제4장에서는 먼저 자료구축팀의 작업 개요를 기술한 다음, 어원사전 표제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어원 논저 데이터베이스 구축, 저작권 협의와 검색기 개발의 순으로 작업 내용을 상술하고자 한다.

4.1. 자료 구축 작업 개요

자료구축팀의 목표는 국어 어원사전 편찬자에게 공신력 있는 참조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어원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목표, 대상, 방법을 설정하고, 실용성 있는 참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우리말 어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국립국어원의 온라인 가나다와 주요 포털을 살펴보면 어원이나 유래에 대해 다양한 질문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으며, 종종 특정 어휘의 어원이나 유래가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과 이슈에 대해 신뢰도 높은 설명을 즉각적으로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수의 어원사전이 출간된 바 있으나 종이사전 이용자가 줄어든 탓에 활용도가 높지 않다. <우리말샘>에는 5천 항목의 어휘 역사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나 이용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에는 규모가 적다.

다행스럽게 올해부터 국립국어원과 국어사 전공자들이 국어 어원사전 편찬을 시작하게 되었다. 편찬의 기초를 닦는 데에는 집필 지침을 작성하고 시범 작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원사전 집필자를 위한 기반 자료 조성 또한 중요한 전제가 된다. 왜냐하면 어원사전 집필자 개인이 가진 지식과 정보만으로는 우리말 어원을 기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말 어원에 대한 선학들의 성과, 즉 사전이나 논저 등 여러 자료를 일일이 검토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어휘의 유래 속에는 언어 정보 외 다양한 언어 외적 정보가 녹아 있기 때문에 역사학, 민속학, 미술사, 음악사, 복식사, 건축사, 음식사, 과학사 등 다양한 분과 학문의 어원 논의를 살펴야 하는데, 이를 집필자가 일일이 찾아서 확인하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원 정보 참조 데이터베이스이다. 어원 관련 사전과 논저의 핵심 정보를 집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리말 어원에 대한 기술은 정보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어원 연구 성과를 사전 편찬 자원으로 전환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여 이후 관련 연구와 사전 편찬 작업에 기여하고자 한다.

4.1.1. 작업 목표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서는 편찬 자료로서 각종 자료를 수집, 구축,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유현경·남길임(2009:16~17)에서는 사전 원고 기술을 위한 자료 구

축 및 지원 도구 개발을 사전 편찬의 세 단계 중 첫 단계로 보았다. 국어 어원사전의 경우 대규모의 연구진이 수년간 참여하여 공동 집필하는 편찬 프로젝트이니만큼 참조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에 대한 목표와 방향성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자료구축팀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어원사전을 위한 참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였다.

첫째, 주요 자료의 최대 수집을 목표로 한다.

개인이 편찬하는 사전이라면 편찬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하여 확인하고 내용에 반영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 사전 편찬 시에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연구진이 참여하는 공동 집필의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각 연구자의 역량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는 사전 집필 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사전 전체의 균형성에도 문제가 된다.³⁾ 무엇보다 어원과 관련된 타 분야의 연구 성과까지 충실히 참조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어원사전의 집필에 도움이 되는 사전, 학술 논문과 학위 논문, 단행본, 나아가 기사문을⁴⁾ 자료의 대상으로 한다. 또한 관련성이 높은 어휘 데이터베이스도 수집 범위에 둔다.⁵⁾

둘째,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설정한다.

어원사전의 참조 자료는 사전, 논문, 단행본, 나아가 신문과 잡지의 기사 등도 포함된다. 각 텍스트의 성격이 상이한바, 이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집필자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래서 각 자료가 가진 특성을 반영하되, 미시 항목을 통일시킨다. 단, 자료의 특징을 보여야 하는 항목도 포함하되, 무관한 자료의 경우 공백으로 남기는 방식을 택한다.

셋째, 어원에 대한 핵심 정보를 간명하게 보이도록 한다.

어원을 다룬 논문이나 저술서에 대한 기본적인 서지 정보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집필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일일이 관련 논저를 찾아 읽지 않고도 필자가 언급한 어원의 핵심이 무엇인지 전달할 수 있도록 관련어와 요약 정보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이를 확인한 필자가 해당 논문이나 저술서를 직접 확인할 것일지 결정하

3) 김무림(2019:68, 79)에서는 전문적인 어원사전의 경우 어원론의 심도를 높이면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견해가 표출되는 특징이 있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집필자에게 학계에서 논의된 성과를 두루 확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작성한 글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잡지의 경우 학술적 성격을 띤 매체가 상당하여 이를 포함해야 한다.

5) 단, 저작권자 승인을 받은 자료를 넣되, 그렇지 못한 경우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넷째, 활용 편의성을 도모한 검색기를 개발한다.

어원 관련 자료를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이를 배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글이나 엑셀 프로그램으로는 대규모 자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찾고 확인하기 어렵다. 이미 국어사전 편찬 팀들은 각기 기존의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해 왔다. 이번 사업에서는 통합사전 검색기를 개선하여 사전 및 논저 정보도 다각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⁶⁾

4.1.2 작업 내용

자료구축팀의 사업 세부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DB 구축: 어원사전 표제어 목록 DB, 어원 관련 논저 DB

자료구축팀은 어원사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어원사전 표제어 목록 DB와 어원 관련 논저 DB를 구축하였다. 어원사전 표제어 목록 DB에는 기출간 어원사전에 수록된 표제어의 목록과 각 표제어에 대한 기본 정보를 담았다. 어원 관련 논저 DB는 어원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논저의 목록을 확보한 뒤, 각 논저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 어원사전(10종) 표제어 목록 DB 완성
- 어원사전 논저 목록 DB 작성 완료
- 학술논문 2,131편 검토, 표제어 18,836항목 정리 완료

(2) 지침 작성: 체계성과 일관성을 갖춘 성과물 구축을 위한 지침 마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다수의 작업자에 의해 진행되는 공동 작업이다. 그러므로 작업의 내용과 구체적인 처리 방안을 지침의 형식으로 제공하고, 작업에 투입되기 전에 이를 충분히 교육하여야 한다. 지침 역시 실제 작업 과정에서 보완되어 버전을 관리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작업자 전체 회의를 열어, 작업과 관련된 질문과 의견을 교환하고 이에 따라 수정·보완된 지침을 공유하였다.

- 표제어 목록 DB 지침 완성(첨부 자료)
- 어원 논저 DB 지침 완성(첨부 자료)

6) 기존의 통합사전검색기(일명 짱구사전)와 말뭉치 검색기인 깜짝새(SynKDP)를 통합하여 개발하였다.

(3) 기존 어원사전 저작권 협의

기존 어원사전의 저작권 협의가 완료되면, 데이터베이스에 사전의 전체 내용을 구조화하여 그대로 수록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전 편찬자들은 출간본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줄일 수 있어 작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저자와 출판사, 판매 현황 등의 실질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논의가 쉽지 않았으나 아래 두 권에 대한 협의를 맺을 수 있었다.

- 김민수 외(1997), 『우리말 어원사전』 협의 완료
- 이한섭(2014), 『일본어에서 온 우리말 사전』 협의 완료

(4) 검색기 개발: 말뭉치 검색기, 자료 검색기

자료구축팀은 사전 편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다양한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말뭉치 검색기와 자료 검색기를 개발하였다.

3) 참여 연구원

공동연구원: 도원영, 김숙정

보조연구원: 남유진, 최선지, 한다영, 장준희

충원팀 연구원: 차준경, 이효윤, 조지연, 유환일, 엄효민, 이수아

4.2. 어원사전 표제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4.2.1. 사전 표제어 DB 구축의 목적

기출간 어원사전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면 어원사전의 모든 내용을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전산화하는 작업을 떠올릴 것이다.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이상일뿐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라 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저작권에 관한 것이다. 저작권의 문제는 출판물의 형식과 저자의 의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이에는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게다가 어원사전은 한 연구자의 연구 역량이 집대성된 결과물이므로,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

사전의 미시 구조를 통일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데이터베이스에 수집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고 배치해야 한다. 각 사전을 별개의 파일로 만들면 미시 구조의 통일 과정이 필요 없으나, 매번 각 자료를 따로 검색해야 한다면 데이터베이스로서의 가치는 낮아진다. 각 사전의 미시 구조를 분석하여 통일안을 마련하고 표제어 하나하나의 집필 내용을 확인하며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과정이 이상적이지만 어원사전 편찬 이전에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가 소모될 수 있다. 이에 자료구축팀에서는 각 사전에 수록된 표제어 목록의 대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표제어의 수록 여부를 한 권 한 권 확인하는 소모적인 작업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4.2.2. 표제어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내용과 방법

1) 구축 대상: 10종의 어원사전

기출간된 어원사전은 20여 종이 넘는다. 이 중 대국민 어원사전의 편찬에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어원사전 10종을 선택하여 표제어 대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10종의 목록은 국어 어원사전의 집필에 참여하는 연구진의 의견을 수집하고 어원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선정하였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16> 표제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 사전 목록 및 수집 항목 수

사전 명	항목 수
김무림(2020), 『한국어 어원사전(개정판)』, 지식과교양.	1,558
김민수 외(1997), 『우리말 어원사전』, 태학사.	14,919
김인호(2001), 『조선어어원편람』, 박이정.	678
박갑수(2021), 『우리말의 어원과 그 문화: 우리말의 어원사전』, 역락.	723
백문식(2014), 『우리말 어원사전』, 박이정.	2,605
서정범 저 박재양 편(2019), 『새국어어원사전』, 보고사.	1,616
안옥규(1989), 『어원사전』,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한국문화사 영인본(1996).	989
염광호(2021), 『우리말 어원 산책』, 역락.	1,516
조항범(2022), 『우리말 어원사전』, 태학사.	203
홍윤표(2009), 『살아있는 우리말의 역사』, 태학사.	105
합 계	24,912

이 외에 <우리말샘>에 수록된 어휘 역사 정보 역시 수집의 대상이 될 만하다. 우리말샘에는 4,700여 개의 표제어에 어원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데, 정밀하고 상세한 형태 변화 과정 설명과 풍부한 용례, 정확한 출전 정보가 담겨 있어 가치가 있다. 다만 이미 웹 검색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2) 데이터베이스 항목의 구성과 처리 지침

데이터베이스는 기출간 어원사전, 어원 관련 논저 순으로 단계적으로 구축하였다. 사전은 각 사전 단위로 최소한의 일관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특히 어원사전 표제어 선정의 주요 자료여서 신속하게 완료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다양한 구조의 어원사전 10종을 하나로 수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마련하고 실제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뒤 해당 작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일한 구조로 어원 관련 논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두 데이터베이스에는 동일한 미시 구조를 적용한 것은 ‘자료의 활용성’ 측면에서도 유리한 선택이다. 구축된 자료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한 번의 검색으로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전과 논저 데이터베이스는 작업의 편의를 위해 별도로 구축하였으나, 한 번의 검색으로 모든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미시 구조를 일치시켰다. 데이터베이스는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엑셀 프로그램으로 입력하였다. 데이터베이스의 미시 항목은 최종적으로 ‘표제어, 검색형, 원어, 내용, 관련어, 출처, 주제어, 비고’ 순으로 설정하였다. 이하의 내용은 현재 작성된 지침을 바탕으로 기술한 것이다.

가. 표제어

표제어는 각 사전의 표제어와 논문의 주요 대상이 되는 표현형을 입력하는 항목이다. 표제어 항목에는 사전 및 논저의 등재형을 그대로 적는다. 비표준어형, 방언형, 고어형뿐만 아니라 숫자 및 알파벳, 기호 표기 등도 그대로 적는다.

<표 17> 안옥규(1989)와 <우리말샘> 표제어형 대조

안옥규(1989) 표제어형	<우리말샘> 표제어형
예수 크리스트	예수 그리스도
3.8 국제부녀절	국제부녀절, 삼팔국제부녀절, ⁷⁾ 국제 여성의 날
《샤만》호	제너럴서먼호

예를 들어, <표 17>에서 볼 수 있듯이 안옥규(1989)에는 위와 같이 ‘예수 크리스트, 3.8 국제부녀절, 《샤만》호’ 등의 표제어가 수록되어 있다. 동일한 의미를 가진 표현이 <우리말샘>에는 표 오른쪽 열에 제시된 형태로 수록되어 있다. <우리말샘>에서는 2017년 수정된 한국어 어문 규범에 따라 표제어의 형태를 정리하였으며, 또한 표제어에 한글 외의 기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데이터베이스의 표제어 항목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사전의 등재형을 그대로 적도록 하였다. 표제어형을 수정할 경우 해당 사전이나 논저를 실물로 확인할 때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둘 이상의 표제어형이 나열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별도의 행으로 분리하고, 분리 기록을 별도의 항목(비고)에 기록하였다. 또한 각 사전이나 논저에서 부여한 동형어 구분 번호는 삭제하였다.

나. 검색형

검색형은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항목이다. 하나의 어휘소가 취할 수 있는, 즉 사전 및 논저에 수록될 수 있는 표제어형은 다양하다. 구결 표기형, 한자 표기형, 한글 표기형, 중세, 근대, 현대 국어형, 규범의 적용 및 변화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한 권의 사전 내에서는 일정한 지침을 두어 표제어형을 통제할 수 있으나 본 작업은 다양한 사전과 논저를 대상으로 하므로 가능한 모든 형식의 표제어가 수록될 수밖에 없다. 이에 표제어와 별개로 검색을 위한 형태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여러 사전의 표제어형을 정렬하면 동일 형태의 표제어가 상당히 발견된다. 이때 검색형을 부여하여 각각의 형태가 동형어인지, 동일한 단어인지 구분될 수 있도록 하였

7) ‘국제부녀절’과 ‘삼팔국제부녀절’은 “국제 여성의 날”의 북한어.⁷⁾로 수록되어 있다.

다. 구분 번호는 <우리말샘>의 의미 구분 번호를 기준으로 부여하였다. <우리말샘>에 등재되지 않은 표제어의 검색형에는 출전정보를 붙였다. 또한 동일한 표제어가 표기의 차이로 검색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 표기 기호를 한글로 통일하고 비표준어형, 방언형, 고어형을 모두 표준어형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같은 이유로 띄어쓰기 및 기타 기호는 모두 삭제하였다.

<표 18> 기출간 어원사전 표제어 대조 데이터베이스 일부

표제어	검색형	원어	내용	관련	비고	출처
가래	가래004					김무림(2020), "한국어 어원사전(개정판)", 지식과교양.
가래	가래004		【명】 흙을 파헤치는 농사 도구. [어원 √갈-[耕]+애[접사]. ※ '가래'는 경작(耕作)을 의미하는 '(논밭을) 갈다'에서 직접 파생된 말이지만, 이 '갈다'는 본래 덩어리를 잘게 부수어 가루로 만든다는 의미로부터 출발하였기 때문에 '가루'와도 어원적으로 관련이 있다. 민간 幹兒(東言攷略 45: 挿을 '갈아'라 ???은 幹兒 니, 木幹으로써 長柄을 ??? 者 나라.)]			김민수 편(1997), "우리말 어원사전", 태학사.
가래	가래004					백문식(2014), "우리말 어원
가래	가래004					서정범 저 박재양 편(2019), "새국어어원사전", 보고사.
가래	가래006		【명】 가랫과의 여러해살이 풀. [어원 미상. 변화 ??래(훈해:25) > 가래]			김민수 편(1997), "우리말 어원사전", 태학사.
가래	가래008					서정범 저 박재양 편(2019), "새국어어원사전", 보고사.
가래	가래008		허파에서 후두에 이르는 사이에서 생기는 끈끈한 분비물. 젓빛 흰색 또는 누런 녹색의 차진 풀같이 생겼으며 기침 따위에 의해서 밖으로 나온다.			염광호(2021), "우리말 어원산책", 역락.

다. 원어

원어는 표제어의 어종을 밝히는 항목이다. 각 사전이나 논저에 제시되어 있는 어원 정보를 우선 제시하되, 누락되어 있는 경우 <우리말샘>의 원어 정보를 넣을 수 있게 하였다.

<표 19> 어원사전 편찬을 위한 참조 데이터베이스 어원 항목 일부

표제어	검색형	원어
가야	가야001	伽倻/伽耶/加耶
가히	가히003	可히
각저	각저002	角抵
갈범	갈범	葛범
깁-깁	깁깁	← kinkan[金柑]
부다가야	부다가야	Buddha-Gayā
쓰레빠	슬리퍼001	▼← surippa
카:-스테레오	카스테레오	▼car stereo
코리안 드림	코리안드림-이근화(2009)	Korean dream

라. 내용

내용은 표제어에 대한 사전 및 논저의 기술 내용을 요약하는 항목이다. 저작권이 해결된 자료의 경우에는 기술 내용 전체를 등록할 수 있으나,⁸⁾ 그렇지 않은 경우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요약·요문하여 등록하였다. 논저의 경우 내용 항목을 필수적으로 채우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전의 경우 <우리말샘> 미등록 표제어, 즉 검색형의 동형어 구분 번호를 확인할 수 없을 때만 내용 항목을 채우도록 하였다. 가장 많은 표제어가 수록된 김민수 외(1997)는 사전 내용 전체가 수록되어 있으나, 나머지 9종의 경우 집필자가 직접 사전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전 및 논저의 기술 내용이 워낙 다양하여 내용 항목을 작성하기 위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내용을 요약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검색자의 입장에서 기술하도록 하였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자와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는 다르다.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지침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구축의 과정이나 방식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별도의 노력을 들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사용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마. 관련어

관련어는 표제어에 대해 사전 및 논저에서 제시한 관련 어휘나 표현을 수록하는 항목이다. 사전의 경우 관련어로 구분해 놓은 어휘나 표현을 수록하였다. 관련어는 상당히 넓고 모호한 범주이므로 작업 초기에 가장 많은 질문이 제기된 항목이었다. 이에 저자가 관련어로 제시한 것이라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자가 관련어 인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하였다. 어휘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데 큰 노력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본의 의도를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간을

8) 앞서 언급한 10종의 사전에서 저작권자의 승인을 받은 자료는 김민수 외(1997)가 유일하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에도 피해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작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어에는 동형어 번호를 넣지 않았다.

<표 20> 어원사전 편찬을 위한 참조 데이터베이스 일부

표제어	검색형	관련어
괘종시계	괘종시계	괘종, 괘시계, 벽시계
부짓대	부지깽이	(불)-짚다
지저귀다	지저귀다	(소리)지르다, 지껄이다
호열자	콜레라	괴질, 아세아호열즈, 칼러라, 아세아괴질, 룬질, 곽란, 쥐통, 쥐병, 호역, 회통

바. 출처

출처는 자료의 서지 정보를 밝히는 항목이다. 데이터베이스 수집 대상이 다양하므로 해당 표제어와 그에 따르는 정보의 출처가 무엇인지 적어 두어야 한다. 서지 정보의 형식을 통일하도록 안내하였다.

사. 비고

비고는 작업 중 발생한 문제 상황과 그 처리 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마련한 항목이다. 처리 결과를 공유할 필요가 없는 문제의 경우에는 해결 뒤 비고란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정보가 남지 않도록 하였다.

3) 작업 결과

어원사전 표제어 데이터베이스에서 구축한 표제어 목록은 총 24,912항목이다. 이 중에서 중복 표제어를 제거하면 17,989항목에 이른다.

<표 21> 어원사전 표제어 목록 DB 예

표제어	검색형	원어	내용	관련어	비고	출처
간장	간장001	간醬		간		김무림(2020), "한국어 어원사전(개정판)", 지식과교양.
간장	간장001	간醬	【명】 음식의 간을 맞추는 짠 액체의 조미료. [어원 √ ???[醬漬]+醬. 변화 ??????(훈몽 중:10) > 간장. ※ '간'이란 말은 현대어에서 '간간하다, 간을 맞추다, 간을 보다' 등에 쓰이는 말로서, 중세어에서는 '소금에 절인 것'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그러므로 '간'이란 말에는 '짠 맛'이라는 의미가 본질적으로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김민수 편(1997), "우리말 어원사전", 태학사.
간장	간장001	간醬				백문식(2014), "우리말 어원사전", 박이정.
간장	간장001	간醬				서정범 저 박재양 편(2019), "새국어어원사전", 보고서.
간장	간장001	간醬	'간장'의 옛날말은 '???장'이다. '장유(醬油)'를 '???장'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 말에서 '???'은 후기에 '간'과 '간'으로 갈라져 나갔다. '간장'이란 말에서 '간'은 '짜다'는 뜻을 가진 고유어이고 '장'은 본래 '간'과 동의어로서 '짜다'는 뜻을 가진 고유어와 한자말이 되풀이된 것으로서 본래 '건건이'와 같은 말이었다. 간장 < ???장 ← ???(짜다) + 醬(짜다)			안옥규(1989), "詞源辭典", 동북조선민족출판사.
간장	간장001	간醬				염광호(2021), "우리말 어원 산책", 역락.
간장	간장001	간醬		고추장, 된장		홍윤표(2009), "살아있는 우리말의 역사", 태학사.
지령	간장001	간醬				서정범 저 박재양 편(2019), "새국어어원사전", 보고서.
간장	간장004	肝腸		간(肝)		박갑수(2021), "우리말의 어원과 그 문화: 우리말의 어원사전", 역락.
간장	간장004	肝腸		간(肝), 애(肝)		박갑수(2021), "우리말의 어원과 그 문화: 우리말의 어원사전", 역락.
간장	간장006	肝臟	【명】 간(肝). [어원 (영)liver. 변화 (영)liver > 肝臟 > 간장]			김민수 편(1997), "우리말 어원사전", 태학사.

4) 작업 경과

자료 구축팀에서 수행한 작업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졌다.

3월 말: 구축 대상 확보 및 작업 배분

4월 초: 샘플 작업 및 지침 작성, 샘플 작업 실시

4월 하순~5월: 어원사전 표제어 목록 DB 구축, 지침 공유 및 피드백

5월 말: 집필감수팀에 어원사전 표제어 DB 및 최종 지침 공유

[첨부] 어원사전 표제어 목록 데이터베이스 (4.3.2. 끝)

[부록 5] 사전 표제어 DB 구축 지침/어원 논저 DB 지침

4.3. 어원 논저 데이터베이스 구축

4.3.1. 어원 논저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목적

기출간 어원사전 표제어 데이터베이스에 더하여 어원 관련 학술 논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필요하다. 국어사 연구자들은 각 단어의 형태적, 의미적 변화를 세밀하게 연구하고 그 성과를 논문 및 단행본 등 여러 형태로 발표한다. 이러한 어원 관련 연구 성과의 목록을 통합하고 그 수록 정보를 집필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가 있다. 집필자는 배정받은 표제어에 관련된 연구 목록을 수합하고, 주요 내용을 읽은 뒤 그중 사전에 수록할 정보를 선별하여 사전의 형식에 맞게 녹여내야 한다.

어원 관련 논저 데이터베이스는 그 첫 번째 단계, 즉 연구 목록을 검색하여 수합하는 과정을 줄이기 위한 참조 자료이다. 또한 집필자가 표제어 집필에 필요한 논문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각 논저에 수록된 정보를 요약하여 제시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였다. 앞서 언급한 집필 수준의 확보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4.3.2. 어원 논저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내용과 방법

1) 구축 대상: 3,544편의 어원 관련 논저

어원 관련 논저의 목록은 논문 제목 및 주제어를 검색하여 1차 수집을 하였다. 검색어의 목록은 ‘고어, 어원, 어형 변화, 어휘 변화, 의미 변화, 형태 변화, 어휘사, 우리말의 역사, 유래, 재구형, 최초 출현형, 최초형 등’이다. 수집된 논문 목록을 바탕으로 각 논문의 참고문헌과 인용 논문의 목록을 정리하여 1차 수집 과정에서 누락된 목록을 보완하였다. 인용 논문 목록은 학술지 인용 색인(<https://www.kci.go.kr/kciportal/main.kci>)을 활용하였다.

‘돼지’의 語彙史

A Family History of the Korean Word ‘돼지(a Pig)’

한국어 의미학

2002, vol.11, pp. 13-38 (26 pages)

UCI : G704-001001.2002.11..002

발행기관 : 한국어의미학회

연구분야 : 인문학 > 한국어와문학

조항범 /Cho, Hang-bum¹

¹충북대학교

인용 알림

관심 논문 등록

피인용 횟수

KCI 9회

FWCI (2023-07-26 기준) 1.52

173 회 열람

KCI 원문 미리보기

KCI에서 이 논문을 인용한 논문의 수는 9건입니다. ▲

- 꽃 이름의 통시적 고찰
장충덕 | 2009.11 | 언어학 연구 | (15) | 185 ~ 201
피인용횟수: 2
- ‘아기’의 語源에 대한 再考察
조재형 | 2009.12 | 국제어문 | (47) | 99 ~ 127
피인용횟수: 5
- ‘이어괴, 그어괴, 더어괴’에 대한 考察
조재형 | 2010.03 | 어문연구(語文研究) | (38 (1)) | 103 ~ 129
피인용횟수: 11
- 構造的 相關性으로 본 雙花店
여강석 | 2010.12 | 고전문학연구 | (38) | 241 ~ 278
피인용횟수: 8
- 어휘 연구와 방언의 역할
장충덕 | 2012.12 | 방언학 | (16) | 75 ~ 98
피인용횟수: 2

<그림 7> 학술지 인용 색인 검색 및 피인용 횟수 검색 사례

현재까지 확보된 수집 대상 규모는 학술 논문 약 2,563건, 표제어 대조 데이터베이스 10종에서 누락된 사전을 포함한 단행본 845건, 학위논문 136건이다(총 3,544건). 어원 관련 논저 데이터베이스는 각 자료를 실제로 확인하고 읽으면서 구축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목록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누락 목록이 보완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는 어원사전 편찬을 위한 참조 자료로 적합하지 않은 목록이 데이터 수집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최종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논저의 목록은 더 적다.

기초 자료의 구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어원 관련 논저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이다. 논문 한 편당 평균 15개 정도의 표제어가 추출되는데, 논문을 읽고 표제어를 추출한 뒤 데이터베이스의 형식으로 정리하는 데까지 숙달된 작업자도 1시간에 1편 정도 걸린다. 이에 집필 팀의 표제어 목록 선정 기준을 고려하여 방언 어휘, 고유 명사 등의 목록을 나열한 논문의 경우 구축 순서를 뒤로 미루었다.

	편수	비고
기수집 목록(~ 2017년)	1,524	학술논문 1,273/단행본 212/학위논문 39
추가 수집 목록(2018 ~ 현재)	2,020	학술논문 1,290/ 단행본 633/학위논문 97

2) 국립국어원 기구축 어원 관련 논저 DB(1996)의 미시 구조 분석

#1 표제어 #2 한자어 / 원어 #3 설명 #4 어원 #5 참고 어휘 #7 용례 #% 용례출전
#8 논저 #0 작업자
#1 (귀)먹다 #3 ‘귀먹다’의 ‘먹다’는 ‘食’의 뜻이 아니며 ‘塞’의 뜻. ‘막/먹’의 변형. #4 귀먹다 ← 귀(:耳) + 먹-/막-(塞) #5 먹먹하다 #8 유창돈 (1980) [어휘사연구] \$ 이우출판사

국립국어원에서 1996년에 기구축 어원 관련 논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바, 이를 다시 검토하고 미시구조를 분석하였다. 국어대사전의 어원정보 집필을 위한 참조 자료의 성격으로 작성된 것이다. 1995년까지 발표된 어원 관련 논저 115편을 대상으로 표제어부터 작업자까지 총 9개 항목에 대해 분석하여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검토한 결과 우선 어원에 대한 핵심 내용을 압축해서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어원 요약에 위한 미시 구조를 ‘#숫자’로 구분하여 입력하여 형식적 구조를 잘 갖추고 있다. 다만, 중복 항목이 수차례 확인되었고, 항목별 일관성을 지키지 못한 항목도 있다. 데이터 처리의 일관성이 다소 낮다고 볼 수 있다.

3) 어원 논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방향

첫째, 어원사전 집필자의 편의성, 어원 정보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어원사전 표제어 목록 DB 구조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였다. 무엇보다 검색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의 편의성,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이는 자료 검색기 개발 과정에서 신속하게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셋째, 1996년 국립국어원에서 구축한 어원 관련 논저 DB를 살리되, 데이터베이스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을 수정하였다. 예를 들어 ‘설명’과 ‘어원’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를 모두 ‘내용’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용례’, ‘용례출전’, ‘작업자’ 등의 항목은 어원 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필요하지 않아 삭제하였다.

4) 어원 논저 데이터베이스 항목의 구성과 처리 지침

앞서 설명하였듯이, 어원사전 표제어 목록 데이터베이스와 구조를 통일하였다. 이하에서는 표제어 목록 데이터베이스와 어원 관련 논저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정리하였다.

가. 표제어

어원 관련 논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서는 표제어의 선정부터가 문제가 된다. 논저의 주요 어휘가 무엇인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자가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작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어휘 추출 범위를 ‘제목, 초록, 키워드, 서론, 결론, 논문 내에서 표 등으로 별도 처리된 목록’으로 제한하였다.

나. 검색형

동일한 표제어가 표기의 차이로 검색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 표기 기호를 한글로 통일하고 비표준어형, 방언형, 고어형을 모두 표준어형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같은 이유로 띄어쓰기 및 기타 기호는 모두 삭제하였다. 다만 사어가 되어 대응되는 한글 표기형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나 연구자들 간에 독법이 통일되지 않은 차자 표기 등은 표제어형을 그대로 복사해서 검색형에 넣었다. 이러한 표제어형은 기출간 어원사전의 표제어 목록에서는 발견되지 않아 어원 관련 논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침에만 해당 내용을 수록하였다.

<표 22> 기출간 어원사전 표제어 대조 데이터베이스 일부

표제어	검색형	내용	출처
가래	가래004		김무림(2020), 한국어어원사전(개정판), 지식과교양.
가래	가래004	【명】 흙을 파헤치는 농사 도구. [어원 √갈-[耕]+애[접사]. ※ '가래'는 경작(耕作)을 의미하는 '(논밭을) 갈다'에서 직접 파생된 말이지만, 이 '갈다'는 본래 덩어리를 잘게 부수어 가루로 만든다는 의미로부터 출발하였기 때문에 '가루'와도 어원적으로 관련이 있다. 민간 幹兒(東言攷略 45: 搗을 '갈아'라 ㅎ은 幹兒 니, 木幹으로써 長柄을 ㅎ者 니 라.)]	김민수 편(1997), 우리말 어원사전, 태학사.
가래	가래004		백문식(2014), 우리말어원사전, 박이정.
가래	가래004		서정범(2018), 새국어어원사전, 보고서.
가래	가래006	【명】 가랫과의 여러해살이 풀. [어원 미상. 변화 ㄱ·래(훈해:25) > 가래]	김민수 편(1997), 우리말 어원사전, 태학사.
가래	가래008		서정범(2018), 새국어어원사전, 보고서.
가래	가래008	허파에서 후두에 이르는 사이에서 생기는 끈끈한 분비물. 잿빛 흰색 또는 누런 녹색의 차진 풀같이 생겼으며 기침 따위에 의해서 밖으로 나온다.	염광호(2021), 우리말어원산책, 역락.
가래	가래-서정범(2018)	삿대. 서까래, 널가래의 가래와 같음. 어근 '갈'은 나무를 뜻함.	서정범(2018), 새국어어원사전, 보고서.

<표 23> 어원 관련 논저 데이터베이스 일부(1)

표제어	내용	출처
견독병	『외과총론』(1910)에서 '공수병, 광견병'을 이르는 말.	송미영(2020), '제중원 한글 의학 교과서에 나타난 전염병 관련 어휘에 대한 고찰', "국어사연구" 31, 국어사학회, 233-263.
꽃	꼬챙이처럼 뾰족하게 생긴 물건', '바다, 강, 평야를 향해 길게 내민 땅' 등의 의미. 이 중에 '꼬챙이'가 그 원의(原義)이다. 원의로서의 '꽃'이 '꽃'으로 이어졌으나 근대국어 이후 등장한 '꽃치(>꼬치)', 꽃창이(>꼬챙이)' 등에 밀려나 사라졌다. 현대국어의 '꽃'에는 '바다, 강, 평야를 향해 길게 내민 땅'이라는 의미만 남아 있다.	조항범(2012), "'꽃[串]' 계열 어휘의 形成과 意味에 대하여", "국어학" 63, 국어학회, 37~71.
도포	남자용 상의, 조정아(2014)는 《의성김씨 학봉 김성일가 언간》에 나타난 복식명을 보이고, 이들 간의 관계와 변화를 살핌.	조정아(2014), "'의성김씨 학봉 김성일가 언간'에 나타난 복식명 연구", "장서각", 한국학중앙연구원, 136-166.

마. 관련어

표제어 목록 데이터베이스와 차이 없음.

바. 출처

표제어 목록 데이터베이스와 차이 없음.

사. 주제어

주제어는 최근 학술 논문에 제시된 논문의 키워드, 핵심어, 주제어 등을 수록하는 항목이다. 기출간 어원사전 표제어 대조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에는 설정되지 않았으나, 어원 관련 논저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에서 추가하였다. 관련어에 포함하는 것도 고려하였으나 정보의 성격이 달라 구분하였다.

<표 24> 어원 관련 논저 데이터베이스 일부(2)

표제어	관련어	주제어
결핵	결핵병	전염병, 두창(痘瘡), 콜레라, 『병리통론』(1907), 『외과총론』(1910)
남치마	갈미치마	언간, 의성김씨 학봉 김성일가 언간, 물명, 복식명, 어휘 관계, 어휘 변화
왕솔나무	곰솔	어원, 유래, 이름, 기원형, 의미, 어휘사

아. 비고

표제어 목록 데이터베이스와 차이 없음.

[부록 5] 사전 표제어 DB 구축 지침/어원 논저 DB 지침

<표 25> 어원 논저 DB 일부

표제어	원어	검색형	설명	관련어	키워드	출처
가내 노동	家内勞動	가내노동	1927년 <조선지광>에서는 '부인, 유년, 소년의 × × ×의 하나인바 무산자의 각 가정에서 매우 저렴한 임금을 받는 청부노동'이라고 소개하였지만 1931년 <아동>에서는 '각 가정 안에서 하는 수공 노동'이라고 소개함.	가정부업	경제, 신어, 시장, 공황, 파산, 민족	김윤희(2020), '1930년 전후 불경기와 경제·노동 관련 어휘: 조선인 발행 잡지의 어휘 소개란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제91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23-260.
가야	伽倻/伽耶/加耶	가야001	가야(伽倻)는 인도에서 시작되었고, 중국 예(魏)의 양제(楊帝)에 '구야'(Guy) 보이고 있다. '구야'는 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 서기 297년 편찬)에 최초의 사용례가 보이고 있다. 아무튼 아시아 전역에서 확인되는 '가야'는 대개 부다(보드)가야를 의식해서 명명한 것으로 짐작된다. 동시에 부다(보드)가야의 내포를 둘러싼 그 외연과 계승으로 자리한 것으로 이해된다. 나아가 불교경전에 나오는 산명과 지명 등에서 확인되는 '가야'라는 명칭도 당시 사람들이 부다(보드)가야를 해당 지역에 재현하거나 계승하기 위해 명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구야	가야, 부다가야, 가야사, 가야불교, 심육 나한, 일곱 성인, 대왕사, 왕후사	고영섭(2017), "가야'(Gaya) 명칭의 어원(語源)과 가야불교의 시원(始原)", "한국불교사연구" 12, 한국불교사학회 한국불교사연구소, 4-48.
가히	可히	가히003	어루/어로'는 훈민정음 초기부터 활발히 쓰이다가 변역소학에서부터 유의어 '가히'로 서서히 자리 바꿈을 하고 있다.	어루	어휘사, 분가적 발달, 본래부사, 합성부사, 상징부사	이승명(2002), '중·근세 국어부사 어휘의 변천', "배달말" 31, 배달말학회, 123-156.
어루	可히	가히003	어루/어로'는 훈민정음 초기부터 활발히 쓰이다가 변역소학에서부터 유의어 '가히'로 서서히 자리 바꿈을 하고 있다.	가히	어휘사, 분가적 발달, 본래부사, 합성부사, 상징부사	이승명(2002), '중·근세 국어부사 어휘의 변천', "배달말" 31, 배달말학회, 123-156.
각저	角抵	각저001	고대 중국의 원시시대부터 진한삼국시대에 분포한 격투무예의 어원과 기원을 분석함. "수박, 상박, 각저"는 특정 무예의 이름이 아니라 "싸움기술"의 의미를 갖는 일반명사로 쓰였음. 진한삼국시대에 "각저"는 "상저촉(相抵觸), 각력(角力), 각기예(角技藝), 각저(角抵), 각력희(角力戲), 각저희(角?戲)"	상저촉(相抵觸), 각력(角力), 각기예(角技藝), 각저(角抵), 각력희(角力戲), 각저희(角?戲)	격투무예, 수박(手搏), 상박(相搏?相撲), 각저(角抵)	송일훈·김산(2008), '한·중·일 격투무예의 어원 및 기원에 관한 연구(2) : 고대 중국의 원시시대부터 진한삼국시대를 중심으로', "체육과학연구" 19(4),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104-116.
갈범	葛범	갈범	{갈범}에 대하여 일반적으로는 {칠패}의 잘못으로 보고 {갈-}을 <葛>로 파악한다. 필자는 {갈범}의 {갈-}이 <葛>을 의미하는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필자는 {갈범}은, <虎>를 뜻하는 서로 다른 어휘인 {갈}과 {범}이 일종의 동의중첩 합성어의 형태로 결합한 것이라고 본다. <범의 새끼>를 {갈가지}라고도 하는 것을 본다면, {-아지}가 동물의 새끼를 가리키는 접미사이므로 {갈-}에서 <虎>의 의미를 추출해 낼 수 있다. {갈}의 기원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갈}은 한자 '虎'가 우리말화화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즉 일종의 귀화어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갈, 범	어원, 화석화, 기원적 합성어, 이음동의어, 동의 중첩	김지형(2002), '語彙 化石化 語源 研究', "한국어 의미학" 11, 한국어어미학회, 93-117.
감주	甘酒	감주001	'식혜'를 흔히 방언사용 지역에서는 '감주, 단술'형이 통용되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상주 지역의 변화 형태는 1980년대에 '감주'로만 쓰이던 방언형이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감주, 단술, 숙혜'와 같이 사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식혜, 단술, 숙혜	상주 방언, 언어 변화, 실제 시간, 음운 변화, 어휘 변화, 문법요소의 변화.	박지수, 김덕호(2015), '경북 상주 지역의 언어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 "韓民族語文學" 69, 한민족어문학회, 317-357.

5) 작업자 충원 및 작업 경과

①작업자 충원

학술 논문의 분량이 많아 본팀 연구원으로는 분석을 종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전 공자를 중심으로 작업자를 충원하였다. 학술 논문 기준 편당 1.5~2시간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논문을 배분하였고 목표량을 완수하였다.

- 충원 작업자 명단(6명)

엄효민, 고려대 국어학 박사 과정
유환일, 성균관대 국어학 박사 수료
이수아, 고려대 한국어교육 석사 과정
이효윤, 고려대 국어학 박사
조지연, 서강대 국어학 박사 수료
차준경, 고려대 국어학 박사

②작업 경과

6월: 어원 논저 DB 작업 지침 작성, 샘플 작업 실시

7월: 어원 논저 DB 구축 작업 본격 실시

7월 상순: 충원팀 섭외 및 교육, 지침 수정 보완(별첨)

7월 중순: 충원팀 샘플 작업 및 재교육, 업무 배분, 본팀 추가 배분

8월~9월: 어원 논저 구축 작업

10월: 단행본 2종에 대한 샘플 작업 실시

작업 방법 확인, 작업 시간 대비 표제어 요약 분량 확인

11월: 11월 20일 작업 결과물 최종 수합 및 정리

6) 작업 결과 및 향후 작업 방향

- 학술논문 2,131편 검토

- 1,064편에서 표제어 18,836 항목 정리 완료(중복 제외 13,940항목)

- 제외 대상 1067편

수집 불가 논문 291편

어원 DB 수집 대상이 아닌 논문 512편

방언, 고유명을 다룬 논문 264편(추후 작업으로 보류)

- 단행본 2종 검토

- 표제어 266항목 추출 및 요약

- 김선기(2007). 한국어의 어원. 한울.

- 천소영(2000). 우리말의 속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 창해.

[첨부] 어원 논저 데이터베이스

<표 26> 어원 단행본 DB 일부

표제어	원어	검색형	설명	관련어	키워드	출처	비고
해		해001	'히'의 전신은 '해', [gai]임. '해'의 소리는 목청떨음 소리인 [y]소리. 음운변천의 과정이 'g>y>h'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 '해'는 '개' [gai]까지 거슬러 올라감.			김선기(2007), "한국어의 어원", 파주: 한울.	
밝다		밝다001	'gare'가 '빛'이란 말임을 볼 적에 동고말의 첫소리 마디 [ge]는 <힘춤>을 나타는 동쪽(파생소)인 듯 보임. 만주말에서 <지난끼(과거)>를 [b]를 낸 것은 'g>w>b'의 흐름결(법칙)에 의한 것. <지난끼>를 나타는 끝결이 만주말과 일본말과 동고말이 오롯이 일치된			김선기(2007), "한국어의 어원", 파주: 한울.	
굿		굿001	신라의 왕징어에는 次次雄 외에도 마담간이다 거지간 같은 고유어가 공존했다. 여기서 마리, 마루는 으뜸이라는 뜻이며, 거시, 구시는 복이나 행운을 뜻하는 말로 무당이 행하는 '굿'의 어원이 된다. 굿의 어원에 대하여 어떤 이는 일본어 '구스리'와 관련지어 藥이라고 주장하고, 또 어떤 이는 농사법과 불을 얻는 방법을 일러 준 '고시(高矢)'라는 신의 이름에서 나온 말이라고도 한다. 우리는 지금도 야외에 나가서 무엇을 먹을 때 먼저 '고시례(또는 '구시례')'를 외치면서 음식 일부를 떼서 신에게 바치는 의식을 치른다. 또 푸닥거리할 때 무당이 음식을 귀신에게 바치면서 이렇게 외치는데, 이 고시례의 고시, 구시가 주어 굿이 된다는 것이다.			천소영(2000), '우리말의 속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재미있는 어원 이야기', 창해	

단행본과 학위 논문은 학술 논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용이 길고 풍부하다. 그러나 어원사전과 달리 단행본 등에 수록된 표제어의 목록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 단행본의 목차와 색인은 전체 내용의 구조를 보이고 주요 내용의 기술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되므로, 주요 연구 대상의 목록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전 집필자는 필요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단행본을 선택하고 해당 내용을 찾아야 하는데, 이에선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또한 참조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에서 전제되는 저작권 침해가 여전히 문제가 된다. 이에 숙련된 연구원에 의한 별도의 요약 작업이 필수적이다.

향후 단행본과 학위논문 요약 작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주요 어원 연구자의 단행본을 확인해야 한다. 학술 논문과 단행본, 어원사전 등 다수의 어원 관련 연구 성과를 낸 주요 연구자의 경우, 가장 최신의 결과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또한 연구 성과물에 따라 대상의 목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연구자의 연구 성과가 망라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타 분과 연구자의 단행본도 살펴야 한다. 앞서 국민의 어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이 중에는 타 분과의 연구 성과에 담긴 어원에 대한 사회문화적 성찰을 확인해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적지 않다.

셋째, 재야 연구자의 단행본은 선정 단계부터 검토가 필요하다. 단행본의 저자가 어원 연구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기술된 내용이 학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타 연구자의 연구 성과를 적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용한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야 한다.

올해 어원 논저 요약의 범위는 학술 논문, 학위논문, 단행본에 한정하여 검토하고 작업을 실시하였다. 수 차례의 자문 과정을 통해 전문가가 신문과 잡지에 실은 텍스트에도 어원을 주제로 한 글이 실려 있다는 점, 해당 내용은 학술 논문 등에 실리지 않아 반드시 출처를 기록하고 어원 관련 핵심 정보를 요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국어학계의 어원 연구자뿐만 아니라 타 분과 학문의 어휘사, 개념사 연구자, 재야 학자 등이 전문 잡지와 주요 일간지에 실린 글이 상당한 만큼, 이를 선별하고 주요 핵심어와 출처, 절대 주소(URL)을 작성한다면 어원사전 집필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4.4. 저작권 협의와 검색기 개발

4.4.1. 저작권 협의

1) 목적

이번 과업에서는 주요 어원사전 콘텐츠를 어원사전 집필 과정에서 검색하고 확인하여 인용할 수 있도록 사전 저작권자와 접촉하여 콘텐츠 사용 승인을 받으려고 하였다. 무엇보다 저작권료를 지급함으로써 어원사전의 주요한 참조 정보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2) 협의 경과

(1) 협의 완료

① 김민수 외(1997), 『우리말 어원사전』, 태학사.

- 4월 초 저작권자 접촉 및 협조 요청
- 4월 중순 어원사전 집필진을 위한 이용 허락
향후 활용 결과에 대해 소통 및 공유 요청

② 이한섭(2014), 『일본어에서 온 우리말 사전』 수정 파일

- 7월 말 저작권자 접촉 및 협조 요청
- 8월 중순 어원사전 집필진을 위한 이용 허락
파일 수령
향후 활용 결과에 대해 소통 및 공유 요청
- 10월 중순 수정 파일 수령
- 11월 초순 데이터 정리 후 검색기 개발자에게 발송

(2) 협의 보류

표제어 목록 DB 구축 대상이었던 총 10종의 어원사전 중에서 저작권자 승인을 받은 사전은 김민수(2000)뿐이다. 그 외의 사전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저작권 협의가 어려웠다.

첫째, 김무림(2020)의 『한국어 어원사전(개정판)』를 포함하여 7종의 어원사전은 현재 서점에서 판매 중인 상태이다. 종이책과 전자책을 포함하여 구입 가능한 상태임을 대형 온라인 서점 2곳을 통해 확인하였다. 유통 과정에 있다는 점은 저작권자만이 아니라 출판권자에게도 출판물의 외부 이용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 승인 협의 주체가 복수가 된다. 또한 저자별 출판사와의 계약 관계가 상이하여 협의에 어려움이 있다. 무엇보다 사전 판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어서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저자의 개별 상황이 현 단계에서 협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일부 저

자의 경우 재외동포이며, 해외 거주 여부, 생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일부 저자는 어원사전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

셋째, 일부 사전은 전형적인 사전 형식이 아니라 해설문 형식의 텍스트이다. 이는 일반적인 글이라서 사전 형식의 자료 검색기에 넣기가 어려워서 협의를 보류하게 되었다.

4.4.2. 검색기 개발

1) 검색기 개발 목적

- 깜짝새(SynKDP)와 유사한 기능 및 UI를 가진 말뭉치 검색 기능 개발
- 어원사전 편찬에 필요한 사전 및 관련 자료의 검색 기능 개발
- 어원 집필을 위한 자료 활용도 제고

2) 주요 기능

- PC용 프로그램으로 개발
 - Windows 10이상 운영체제를 탑재한 PC에서 실행
 - 웹사이트(예: <http://synkdp.in/install>)를 통해 다운로드한 후 PC에서 설치하여 실행
 - 웹사이트에 새 버전 등록 시 프로그램 실행 전 자동 업데이트 수행
- 사전 검색
 - 김민수 외(1997), 『우리말 어원사전』 등 사전 자료 검색 기능
 - 어원 관련 연구에 수록된 자료를 DB 형태로 가공하여 검색
- 주요 기능 및 사용 방식은 가급적 SynKDP 1.5버전과 유사하도록 개발
- 사전 검색 기능과 말뭉치 검색 기능 통합
- UI 관련 기능
 - 검색 대상 선택 기능: 폴더 묶음 단위 또는 선택된 파일 단위로 검색
 - 화면 출력용 폰트 종류, 크기 및 각종 폴더 위치 등 설정 사항을 사용자가 제어할 수 있도록 함
 - 검색 결과는 엑셀과 한글 파일로 저장 가능하도록 하되 한글 파일로 저장 기능은 추후에 개발하도록 함
 - 검색 결과에 일련번호 부여하고 키워드를 색깔로 표시하여 시인성 확보
 - 검색 결과를 사용자가 편집 가능하도록 함. 결과 내 검색, 결과 내 제거, 수작업 편집 등
 - 전체 맥락 확인 가능하도록 문맥 출력 범위를 확대하도록 함.
 - 검색 결과 중 일부 예문을 선택 가능하도록 함 (하이라이트 또는 찜)

- 검색 결과 저장 시 키워드 앞뒤 구분자(예. 중괄호)를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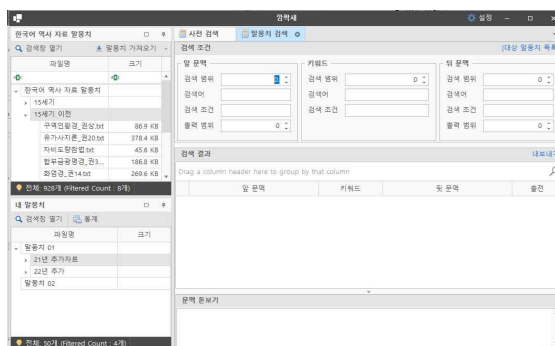
■ 문자 코드 관련

- 프로그램에서 처리되는 문자는 모두 유니코드 기반으로 동작하도록 개발
- 고어자 처리와 관련된 PUA 코드는 유니코드 표준코드로 변환하여 검색
- 검색 대상을 유니코드(utf-8) 형식의 텍스트 파일(.txt)로 관리
- 검색 결과를 저장할 때 유니코드(utf-8)로 저장되도록 함
- 호환자모(\u3131 ~ \u318F) 검색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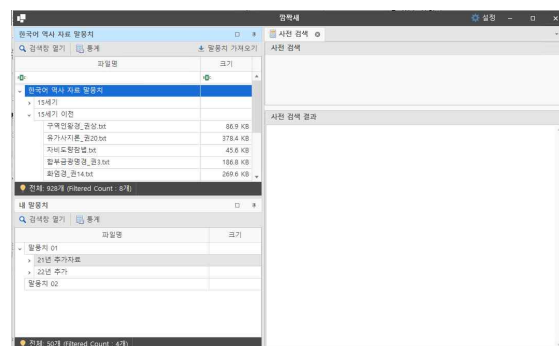
■ 기타 사항

- 검색 대상은 공유자료와 개인자료로 구분하며 공유자료는 KOHICO 사이트와 연동
- 개인자료는 사용자가 지정한 폴더에 있는 말뭉치 파일을 활용하되 PUA 코드를 유니코드로 변환하여 검색되도록 함

3) 개발 화면 예시



말뭉치 검색 화면



사전 자료 검색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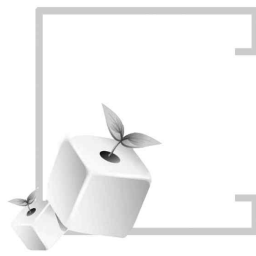
4) 검색기 개발 경과

- 3월 초 어원사전 표제어 및 논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검색기 개발 계획 확정
- 3월 말 자료 검색기와 말뭉치 검색기도 함께 개발하기로 결정
- 4월 초 깜짝새 개발자 접촉 및 검색기 개발 계획 전달
- 말뭉치 검색기 개선 사항 설문 조사 실시(~4.12)
- 4월 중순 자료 검색기 요청 사항 및 말뭉치 검색기 요청 사항 공식 전달
- 주요 자료 발송 완료

4월 말	검색기 개발 1차 회의, 개발자 설계 내용 확인, 추가 사항 전달
5월 중순	개발 계획서 접수
6월 말	개발 현황 보고(말뭉치 검색기 40%, 자료 검색기 75% 진척)
7월 말	개발 현황 보고(말뭉치 검색기 50%, 자료 검색기 90% 진척)
9월	검색기 개발 2차 회의, 온라인 시연, 질의응답 및 추가 요청
10월	3차 자문회의 자료 검색기 및 말뭉치 검색기 시연, 향후 발전 방안 논의
11월 말	어원 논저 DB 최종 파일 전달 자료 검색기 및 말뭉치 검색기 개발 완료

[부록 6] 자료 검색기 사용법

[부록 7] 한국어 역사 자료 말뭉치 검색기 사용법



제 5 장

기대 효과



제5장에서는 2023년 국어 어원사전 편찬 사업에서 팀별로 수행한 작업의 의의와 기대 효과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5.1. 집필·감수팀

□ 최신의 어원 연구 성과를 반영하면서도, 일반 국민을 예상 독자로 하여 완성도 높은 어휘 역사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

본 사업을 통하여 《우리말샘》의 기존 어휘 역사 정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많은 오류를 수정하였고, 현재까지의 최신 어원 연구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욱 완성도 높은 어휘 역사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표제어에 대한 공신력 있는 어원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어 어휘 역사에 대한 정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번에 집필된 항목은 기존 어원 연구 성과를 두루 반영하면서도, 기존에 제공되었던 어떤 표제어보다 많은 표제어를 포함하는 어원사전이기 때문에 그 활용도는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어휘의 형태·음운 변천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전문 용어를 한정하여 제공함으로써 언어학 전공자가 아닌 일반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었다. 《어원사전》의 독자는 전문가에 한정되지 않는다. 한국어 어휘의 역사가 궁금한 일반 사용자가 어원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또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어원 활용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연구 등 여러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원고를 작성하였음.

이번 사업에서는 어휘의 형태·음운뿐 아니라 의미 변화 과정도 다루는 원고를 집필하였기에, 국어 교과의 교육 현장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5 교육과정의 적용된 현행 고등학교 〈국어〉 및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는 한국어의 역사에 관한 학습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익숙한 어휘의 변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 이번 사전은 이들 교과목의 교육 현장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어의 어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한국인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최근 K-컬처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교육하고 학습할 때에도 《어원사전》은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어휘의 역사를 이해함으로써 국어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다. 어원에 대한 이해는 어휘 습득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여러 요소가 결합하여 형성된 복합어의 각 요소의 의미와 그 변천을 제공하는 이 사전은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과 학습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어휘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번에 집필된 《어원사전》에서는 기존에 다루어진 어떤 사전보다 많은 표제어에 대한 어원 기술을 제공하며, 그간의 연구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기별 형태를 상세히 밝히고 있다. 더불어 어원 정보 기술의 참고문헌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어원 연구를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5.2. 말뭉치팀

□ 미정비 말뭉치의 목록 확정은 향후 국어사 말뭉치 구축·정비 목록을 선정하는 데 방향성을 제시함.

본 사업에서 미정비 말뭉치 목록을 확정한 일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향후 국어사 말뭉치 구축·정비 목록을 선정하는 데 방향성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기존의 말뭉치 목록상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미정비 말뭉치 목록 확정 작업은 「21세기 세종 계획」 말뭉치와 「역사자료 종합 정비 사업」 말뭉치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말뭉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에서 출발하였다. 그 과정은 단순히 말뭉치 파일명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에서부터, 기정비 말뭉치 목록(1,023개)과 중복되거나 미정비 말뭉치 목록 내에서 서로 중복되는 문헌을 추려 내는 일까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향후 새로운 국어사 말뭉치를 구축하거나 이전의 것을 정비하고자 할 때 이러한 수고를 덜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미정비 말뭉치 대상 문헌들의 간행/필사/채록 시기를 전반적으로 밝혀 두었다. 비록 더욱 정밀한 서지학적 검토가 후속되어야 하겠으나, 이번 사업에서 정리해 놓은 문헌별 간행/필사/채록 시기는 앞으로 국어사 말뭉치 구축·정비 목록을 선정할 때 일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기준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셋째, 미정비 말뭉치 대상 문헌들의 유형을 조망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국어원에 서 받은 초기 목록이 문학 작품이 주류를 이룬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에 따라 이번 사업에서 차자표기 문헌, 언간, 근대 신문을 비롯한 개화기 문헌, 한문 원문이 누락된 언해본 등을 미정비 말뭉치 목록에 추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향후 어떠한 유형(또는 장르)의 문헌을 국어사 말뭉치로 구축하고 정비해 나가야 하는지를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 신규 말뭉치의 수집은 국어사 자료 전산화의 공백을 보완하여 한국어의 통시적 변천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작업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완성도를 제고함.

본 사업에서 개인이나 기관이 구축하였으나 역사자료 말뭉치에 포함되지 않은 말뭉치를 수집한 일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이를 통해 어원사전 집필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19, 20세기 전환기의 한국어 자료가 기존 역사 말뭉치에는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어형이나 의미의 변화를 추적적으로 기술하는 데 한계가 컸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국어사 연구의 정밀화 및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다. 21세기 세종 계획 및 국어원의 역사 말뭉치 역사자료 종합 정비 사업을 통해 구축된 기존 역사 말뭉치에 빠진 다양한 자료가 추가되고, 특히 개항기 자료가 강화되어 그간 많은 주제에서 추측의 영역으로 남아 있던 19-20세기 전환기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할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국어의 변천을 통시적으로 기술할 때 양적인 연구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어사 연구에서 양적인 연구는 말뭉치의 빈약함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안고 다양한 가설과 방증을 통해 양적인 연구를 시도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부담이 좀 더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말뭉치 작업 지침의 보완은 향후 이루어질 국어사 자료의 전산화를 위한 토대 구축에 기여함.

본 사업에서 신규로 작업한 자료의 성격을 반영하여 기존 말뭉치 작업 지침을 수정 보완한 일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앞서 정비된 각 연도별 사업 결과물과의 종합적인 통일화 작업이 중요한바 kohico 플랫폼을 통해서 기존 말뭉치와의 차이점을 검토하면서 종합적인 수정 보완을 진행하였다. 이전 정비 말뭉치와의 일관성 확보하기 위해 기존 자료 현황을 검토한 결과, 문헌 간 차이가 일부 관찰되었다(예. sent type 표기 방법, 문장 부호 사용, 장바뀔 표시 방법 등). 제한적이긴 하나 kohico 내에서 기존 정비 말뭉치를 일부 수정함으로써 XML 형식의 정비 말뭉치가 전체적인 통일성을 갖추도록 보완하였다. 해마다 달리 진행되어 온 말뭉치 간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비 말뭉치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통일화 종합 사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이번 작업에서 20세기 신문 자료나 연간 자료를 신규로 추가하면서 기존 사업에서 구체화하지 않았던 작업 지침을 보완하였다. 특히 20세기 신문 자료인 ‘제국신문’ 말뭉치를 대량 작업하면서 섹션명과 같이 신문류와 관련한 지침들을 정밀화하였다. 연간 자료에 관한 기본 입력 지침도 추가하여 ‘발신 연도, 봉투 유형(단봉(별봉, 자봉), 중봉)’에 관한 사항도 추가 및 개선하였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될 신문류,

언간류 말뭉치 구축 작업을 위한 기본 틀을 확립하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기존 작업 지침의 한계로 여겨질 만한 것들을 보완하였다. 원문의 표기를 가급적 그대로 반영하는 취지에서 장바뀔 정보는 주석으로 대신하고, 재점에 관한 기술을 1가지로 통일함으로써 작업자의 혼란을 방지하였고, 협주 표시 기호를 수정하는 등 기존 지침 수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난상 내용 입력에 관한 사항, 부속문자 입력에 관한 사항, 문헌 내 문장 부호 입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이전 지침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들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 KOHICO 플랫폼의 운영은 앞으로의 말뭉치 구축·정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

본 사업에서 말뭉치를 정비하는 데 사용된 방법은 이제까지 없었던 것으로, 앞으로의 (역사자료) 말뭉치 구축 및 정비와 관련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도쿠위키(DocuWiki)라는 위키 엔진을 사용한 KOHICO 플랫폼에서 작업하였다. 이 플랫폼은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고 결과물을 검토할 수 있었다. 위키 엔진 기반 플랫폼은 텍스트 중심의 데이터를 다루는 말뭉치 구축·정비 사업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이었다. 사용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앞으로의 말뭉치 구축 및 정비 사업에서는 웹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작업 현황 공지와 업데이트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KOHICO 플랫폼 내에 안내 페이지를 작성하여 공지사항과 함께 최근에 올라온 질문, 업무 분담표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구글 문서에서 제공하는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여 참여자 명단, 지침 변경 및 추가 사항, 담당 문헌 배정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스프레드시트는 동시에 다수의 참여자가 열람 및 수정을 할 수 있어, 동시에 많은 참여자가 작업하는 사업에서 상당히 유용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셋째, 작업 과정에서 지속적이고 신속한 피드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팀원의 질문에 대한 빠른 피드백을 위해 팀별 또 팀장급 메신저 채팅방을 만들어 운영하였다. 뿐만 아니라 KOHICO 내에서 사용 가능한 토론 기능을 이용하여 문서별 담당자가 작업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달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은 향후 유사한 사업에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할 것이다.

5.3. 자료구축팀

□ 국어 어원사전 편찬을 위한 신뢰도 높은 참조 자료를 제공함.

10종의 기출간 어원사전 표제어 DB는 국립국어원 국어 어원사전 편찬 시 표제어 선정의 주요한 자료가 된다. 국어학계의 어원 연구자, 국어사 전문가가 편찬한바, 표제어 선정의 기준과 범위는 우리말 어휘의 기원을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길잡이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어 어원 관련 논저 DB는 그간 사전, 학술 논문과 학위 논문, 저술서에 담긴 어원에 대한 연구 성과를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바, 어원 집필자가 해당 연구 성과를 직접 확인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 국어 지식정보 참조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연구 방법론을 마련함.

국어 어원 정보 참조 데이터베이스는 표제어 목록 DB와 어원 관련 논저 DB로 구축한바, 두 데이터베이스에는 동일한 미시 구조를 적용하였다. 이는 데이터베이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일로, 이질적인 사전과 논저의 특성을 고려하되, 한 번의 검색으로 주요 정보를 모두 출력할 수 있도록 의도한 바이다. 이를 위해 구축 목표를 수립하고 데이터베이스 항목을 목적에 맞게 설정하였고, 세부 지침과 예외 처리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향후 국어지식정보 참조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 국어 어원 참조 DB 마련을 통해 체계적 활용 기반을 조성함.

국어 어원사전 편찬의 참조 자료로 사전, 논문, 단행본을 주요 정보 요소로 선정하고 참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어원 전문가가 집필한 잡지와 신문의 기사문 역시 어원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반영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참조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 이후 출처 등의 서지정보와 표제어와 관련어, URL 등을 입력, 축적한다면 참조 자료로서의 자료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어원 참조 DB는 국어 어원사전 편찬의 참조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어원에 대한 학술적 성과를 확인하고 학술적 이슈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국어사전의 어원 정보 확충을 위한 기초 자료로 쓰일 수 있다. 무엇보다 참조 데이터베이스의 구조화 과정은 향후 국어지식정보뿐만 아니라 인문학 기반의 어휘지식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중요한 방법론으로 쓰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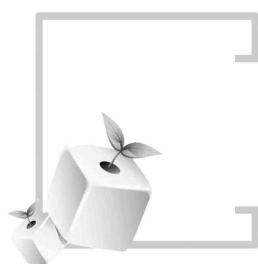
- 자료 및 말뭉치 검색기 개발과 공유를 통해 편찬의 수월성이 향상함. 아울러 국민의 국어사 문헌 접근성과 활용도가 향상함.

기출간 어원사전 표제어 목록 DB와 어원 관련 논저 요약 DB를 어원 집필자가 쉽고 편하게 확인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자료 검색기를 개발하였고, 국어사 문헌을 정비한 말뭉치를 검색할 수 있도록 낱짝새를 개선하였다. 무엇보다 자료 검색기와 말뭉치 검색기를 통합하여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바로 검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 집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됨으로써 편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낱짝새 2.0’가 국민에게 공개되면 국어학계뿐만 아니라 한국학 전공자에게도 훌륭한 옛한글 자료 검색의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며 우리말의 옛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에게 널리 이롭게 쓰일 것이다. 특히 말뭉치 검색기는 기능 자체가 고도화되어서 기존 검색기의 단점을 보강하였기 때문에 국민의 국어 문헌 접근성과 사용성을 모두 높일 것으로 전망한다.

- 국민의 국어 어원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및 국어 어휘 역사에 대한 관심도를 증대함.

우리말 어원에 관한 참조 데이터베이스는 사전 표제어 정보와 학술 연구 성과를 함께 담고 있다. 이런 국어지식정보 데이터는 우리말의 어원과 어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에게 유의미한 정보가 된다. 특히 학술 성과는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운바, 어원에 대한 주요 성과를 요약하고 출처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어원 정보를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국민의 어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우리말 어휘 역사에 대한 관심도도 증대될 것이다.



부록



[부록 1] 집필감수팀 - 집필 완료 항목

가, 가게, 가까이, 가까이하다, 가깝다, 가꾸러지다, 가꾸로, 가끔가끔, 가난, 가난하다, 가난히, 가느다랗다, 가는베, 가늘다, 가늠, 가늠쇠, 가다, 가다듬다, 가닥, 가두다, 가득하다, 가득히, 가라말, 가라사대, 가라앉다, 가라앉히다, 가락, 가락지, 가랑비, 가랑이, 가래, 가래나무, 가래다, 가래떡, 가래침, 가래툰, 가렵다, 가로, 가로막다, 가로서다, 가로지르다, 가로질리다, 가뢰, 가루, 가루약, 가르다, 가르치다, 가리, 가리끼다, 가리다(001), 가리다(003), 가리운, 가리질하다, 가리키다, 가마솔, 가마우지, 가막조개, 가만, 가만가만히, 가만하다, 가만히, 가말다, 가멸다, 가물, 가물다, 가물치, 가뭄, 가뭇가뭇, 가벼이, 가볍다, 가쁘다, 가빠, 가슴, 가슴걸이, 가슴앓이, 가시, 가시다, 가시덤불, 가시랭이, 가시밭, 가시아비, 가시아미, 가시연, 가엸다, 가엸다, 가엸이, 가오리, 가운데, 가웃, 가위, 가위놀리다, 가위톱, 가을, 가자, 가자미, 가잠나룻, 가장, 가재, 가져가다, 가져오다, 가죽나무, 가죽띠, 가지(001), 가지(005), 가지(007), 가지가지, 가지다, 가지런하다, 가지런히, 가탈, 가탈걸음, 가파르다, 각시, 각지, 간간대소, 간간대소하다, 간간이, 간간하다, 간대로, 간들간들하다, 간밤, 간섭, 간섭하다, 간수, 간수하다, 간장, 간정하다, 간지럽다, 간직하다, 간질이다, 간택하다, 갇히다, 갈, 갈거미, 갈건, 갈고랑이, 갈고리, 갈기, 갈기다, 갈까마귀, 갈꽃, 갈다(001), 갈다(003), 갈다(008), 갈대, 갈대밭, 갈라지다, 갈래, 갈리다(004), 갈리다(006), 갈마들다, 갈마들이다, 갈망하다, 갈매기, 갈매나무, 갈모, 갈물, 갈범, 갈보, 갈비, 갈비뼈, 갈아입다, 갈음, 갈음하다, 갈이, 갈이틀, 갈지개, 갈청, 갈치, 갈퀴, 갈퀴질하다, 갈포, 갈피, 값다, 감, 감기다(001), 감기다(009), 감기다(010), 감다(001), 감다(002), 감다(003), 감다(009), 감돌다, 감모, 감발, 감자, 감질, 감질나다, 감추다, 감치다, 감탕, 감투, 감파르다, 감풀, 갑갑하다, 갑옷, 갑자기, 갑작스레, 값, 값지다, 갓, 갓걸이, 갓김치, 갓끈, 갓도래, 갓머리, 갓버섯, 갓장이, 갓집, 강낭콩, 강냉이, 강다짐, 강다짐하다, 강샘, 강아지, 강어귀, 갓가지, 갓바치, 갓신, 갓옷, 갓저고리, 갓추, 갓추다, 갓풀, 갈다, 값다, 개(001), 개(003), 개개다, 개고기, 개고마리, 개구리, 개나리, 개다(001), 개다(004), 개미, 개미구멍, 개미허리, 개밥바라기, 개벼룩, 개새끼, 개수, 개수통, 개숫물, 개암, 개암나무, 개암들다, 개울, 개자하다, 개지, 개지네, 개짐, 개천, 개펄, 개흙, 객쩍다, 갯물, 갯버들, 가름하다, 가우똥하다, 가웃가웃하다, 거기, 거꾸러지다, 거꾸러트리다, 거꾸로, 거닐다, 거동, 거두다, 거두어들이다, 거둥, 거드럭대다, 거드름, 거들다, 거듭, 거듭하다, 거루, 거루다, 거룩하다, 거르다(001), 거르다(002), 거름, 거름하다, 거리끼다, 거머리, 거멸못, 거멍다, 거무스름하다, 거무죽죽하다, 거문고, 거뭇거뭇하다, 거뭇하다, 거미, 거미줄, 거북, 거상하다, 거스러미, 거스러지다, 거스르다, 거여목, 겨우다, 겨우르다, 겨울, 겨울집, 겨위, 겨의, 겨이, 거적, 거적자리, 거죽, 거지, 거짓, 거짓되다, 거짓말, 거치다, 거칠다, 거푸, 거푸집, 거품, 거행하다, 걱정, 걱정꾸러기, 걱정스럽다, 걱정하다, 건너가다, 건너다, 건너뛰다, 건너오다, 건너편, 건너방, 건너다, 건달, 건물, 건사하다, 건조하다, 건지, 건지다, 걷다, 걸어잡다, 걸어지르다, 걸잡다, 걸히다, 걸객, 걸걸하다, 걸군, 걸군하다, 걸귀, 걸근걸근하다, 걸다(001), 걸다(006), 걸러뛰다, 걸리다(001), 걸리다(025), 걸맞다, 걸머지다, 걸쇠, 걸신들리다, 걸얏다, 걸어가다, 걸어얏다, 걸어오다, 걸우다, 걸음, 걸음걸이, 걸치다, 걸타다, 검기다, 검다, 검댕, 검버섯, 검불, 검불다, 검은자위, 검팽나무, 검푸르다, 검화, 검흐르다, 겁꾸러기, 겁나다, 겁내다, 겁탈하다, 경금, 겉, 겉보리, 겉섶, 겉조, 게(001), 게(003), 게걸스럽다, 게로기, 게우다, 게으르다, 게을리, 게짬, 게트림, 겨누다, 겨드랑, 겨드랑이, 겨레, 겨루다, 겨를, 겨릅대, 겨리, 겨우내, 겨우살이, 겨울, 겨자, 꺾다, 꺾이,

견디다, 견주다, 견지르다, 결단, 결단코, 결단하다, 결전, 결혼, 결혼하다, 겹겹이, 겹다,
 겹바지, 겹옷, 겹이불, 경마, 경박하다, 결, 결눈질, 결방, 계시다, 계집, 계집아이, 계집종,
 계집질, 고개(001), 고개(003), 고갱이, 고공, 고공살이, 고괴하다, 고금, 고기, 고깃국, 고깃배,
 고깔, 고니, 고다, 고단하다, 고도리, 곡두, 곤죽, 곧다, 곧이, 곧이든다, 곧추, 골고루,
 골골하다, 골마지, 골목, 골무, 골무떡, 골뱅이, 골병, 골속, 골짜기, 골풀, 골풀무, 굶다, 굶다,
 굶리다, 곰, 곰배팔이, 곰보, 곰삭다, 곰취, 곰팡이, 곰피다, 곱다, 곱빼기, 곱자, 곱, 곱곳,
 곱곳이, 공골말, 공교하다, 공괘, 공괘하다, 공변되다, 공변되이, 공전, 곱감, 과남풀, 과녁,
 과줄, 관계하다, 관디, 관목, 관솔, 광대, 광대뼈, 광대싸리, 광저기, 광주리, 광패하다,
 괘씸하다, 꿩이, 괴머리, 괴발개발, 교만하다, 구경, 구경하다, 구기(001), 구기(006),
 구기(013), 구기다, 구김살, 구더기, 구덩이, 구두쇠, 구라파, 구력, 구령, 구령말, 구령이,
 구레나룻, 구름, 구리다, 구린내, 구멍, 구물거리다, 구물구물하다, 구부러지다, 구부리다,
 구붓하다, 구쁘다, 구석, 구수하다, 구슬, 구슬갓끈, 구실, 구애하다, 구역, 구역나다, 구완하다,
 구원, 구원하다, 구유, 구이, 구지내, 구태여, 국, 국수, 국자, 군것질, 군말, 군소리, 군다,
 군세다, 군이, 군히다, 굴갓, 굴다, 굴뚝, 굴레, 굴리다, 굴밤, 굴밤나무, 굵기, 굵직이,
 굵주리다, 굵뱅이, 굵실굵실, 굵틀굵틀하다, 굵다, 굵어보다, 굵이, 굵이저다, 굵, 굵하다, 궁궁,
 궁궁이, 궁금하다, 궁노루, 궁둥이, 권당, 귀, 귀고리, 귀때기, 귀뚜라미, 귀리, 귀머거리,
 귀먹다, 귀밑, 귀밑털, 귀양, 귀이개, 귀지, 귀찮다, 귀청, 귓가, 귓것, 귓구멍, 귓바퀴, 귓밥,
 귓볼, 귓전, 그, 그간, 그같이, 그것, 그곳, 그글피, 그끄러께, 그끄저께, 그끄제, 그나마, 그날,
 그냥, 그네, 그놈, 그느르다, 그늘, 그늘지다, 그다음, 그다지, 그대, 그동안, 그득하다, 그때,
 그래도, 그러께, 그러나, 그러내다, 그러다, 그러담다, 그러면, 그러므로, 그러쥬다, 그러하다,
 그럭저럭, 그런, 그런고로, 그런즉, 그렁그렁하다, 그렁저렁, 그렇게, 그렁, 그루, 그루콩,
 그루터기, 그르다, 그르치다, 그릇(001), 그릇(004), 그릇되다, 그릇하다, 그리(001), 그리(002),
 그리다(001), 그리다(002), 그리되다, 그리로, 그리마, 그리움, 그리저리, 그리하다, 그림,
 그림자, 그림다, 그만(001), 그만(002), 그만두다, 그만저만하다, 그만치, 그만큼,
 그만하다(001), 그만하다(001), 그물, 그물그물하다, 그물눈, 그물코, 그믐, 그믐께, 그믐날,
 그믐밤, 그분, 그사이, 그슬리다, 그악하다, 그야, 그야말로, 그어주다, 그예, 그옥이, 그옥하다,
 그을다, 그을리다, 그을음, 그이, 그저, 그저께, 그적, 그전, 그제, 그제야, 그즈음, 그지없다,
 그지없이, 그치다, 그해, 근검하다, 근근이, 근근하다, 근대, 근대나물, 근덕이다, 근로,
 근로하다, 근사하다, 근실근실하다, 근심, 근심되다, 근심스럽다, 근심하다, 글, 글경이,
 글경이질하다, 글귀, 글쓰기, 글씨, 글월, 글자, 글재주, 글줄, 글짓기, 글피, 글하다, 굶다,
 굶히다, 금(003), 금(008), 금가락지, 금나다, 금세, 금시, 금실, 금하다, 급자기, 급작스레,
 기꺼워하다, 기꺼하다, 기껍다, 기다, 기다리다, 기둥, 기둥뿌리, 기러기, 기룡, 기룡하다,
 기르다, 기름(001), 기름(005), 기름기, 기름내, 기름지다, 기름하다, 기리다, 기망, 기망하다,
 기미(001), 기미(003), 기미(004), 기미(007), 기뻐하다, 기쁘다, 기쁨, 기슭, 기어가다,
 기어들다, 기엄기엄, 기와, 기와꼴, 기와집, 기우뚱기우뚱, 기우뚱하다, 기운,
 기울, 기울다, 기울어지다, 기울이다, 기웃거리다, 기웃기웃, 기웃기웃하다, 기웃이, 기웃하다,
 기이다, 기장, 기장밥, 기장쌀, 기저귀, 기절, 기절하다, 기지개, 기지개하다, 기직, 기척, 기침,
 기침하다, 기틀, 긴가민가, 긴다, 길, 길가, 길거리, 길경이, 길다(001), 길다(002), 길들다,
 길들이다, 길라잡이, 길마, 길맞가지, 길목, 길물, 길벗, 길사람, 길쌈, 길쌈하다, 길어지다,
 길이(001), 길이(005), 길잡이, 길짐승, 길찍이, 길차다, 길치, 김(001), 김(006), 김(007),

넓다, 넓적다리, 넓히다, 넘기다, 넘나물, 넘다, 넘어가다, 넘어서다, 넘어오다, 넘어지다, 넘치다, 넘치, 넷할머니, 넷쿨, 녀다, 네(001), 네(002), 네(016), 네거리, 네다섯, 네모, 네모나다, 넷, 넷째, 년(001), 년(002), 녀, 노, 노가주, 노구, 노끈, 노느다, 노닐다, 노뚝돌, 노랑이, 노랑다, 노래, 노래기, 노래하다, 노랫소리, 노랑으로, 노루, 노르다, 노른자위, 노름, 노름꾼, 노름하다, 노릇, 노릇바치, 노리개, 노리다, 노린내, 노상(001), 노상(006), 노새, 노성하다, 노야기, 노엽다, 노을, 녹다, 녹이다, 논곡식, 논농사, 논두렁, 논둑, 놀, 놀다, 놀라다, 놀랍다, 놀래다, 놀리다(001), 놀리다(004), 놀림, 놀음놀이, 놀음놀이하다, 놀이, 놀이하다, 놔, 놋그릇, 놋점, 농소, 농어, 높낮이, 높다, 높드리, 높이, 높이다, 높직이, 놓다, 놓아두다, 놓이다, 누구, 누그럽다, 누님, 누더기, 누렇다, 누룩, 누룩가루, 누룽지, 누리, 누리다(001), 누리다(002), 누린내, 누비, 누비다, 누비바지, 누비옷, 누에, 누에고치, 누에나비, 누에똥, 누에씨, 누이, 누이다(001), 누이다(006), 누치, 녹녹하다, 녹다, 녹이다, 눈(001), 눈(009), 눈(014), 눈가, 눈감다, 눈곱, 눈구석, 눈깔, 눈동자, 눈망울, 눈멀다, 눈물, 눈병, 눈보라, 눈부처, 눈비, 눈비음, 눈빛(001), 눈빛(003), 눈살, 눈시울, 눈썹, 눈엣가시, 눈자위, 눈초리, 눈치, 높다, 놀리다, 높다, 뉘우쁘다, 뉘우치다, 느꺼이, 느껍다, 느끼다, 느런히, 느릅나무, 느리다, 느시, 느직느직하다, 느직이, 느직하다, 느티나무, 늑대, 늘어나다, 늘어놓다, 늘어지다, 늘이다, 늘큰늘큰, 늑다, 늑은이, 늑실늑실하다, 능간하다, 능갈치다(001), 능갈치다(002), 능글능글, 능금, 능청스럽다, 늑다, 늑추다, 늑, 다(003), 다(014), 다그다, 다녀가다, 다녀오다, 다니다, 다다르다, 다달이, 다듬다, 다듬이, 다락, 다락집, 다람쥐, 다랍다, 다래, 다래끼, 다래나무, 다로기, 다루다, 다르다, 다름없다, 다름없이, 다름나무, 다리(001), 다리(005), 다리(006), 다리(009), 다리다, 다리미, 다림, 다림줄, 다목, 다물다, 다복다복기, 다복다복하다, 다복쑥, 다사하다, 다섯, 다섯째, 다스리다, 다스하다, 다시금, 다시마, 다짐, 다치다(001), 다치다(004), 다투다, 다하다, 다홍, 닥나무, 닥치다, 닦다, 단골, 단내, 단너삼, 단단하다, 단단히, 단비, 단술, 단오, 단잠, 단장, 단장하다, 단지, 단추, 달다(001), 달다(002), 달아걸다, 달히다, 달(004), 달(005), 달(008), 달갈, 달거리, 달구, 달구다, 달구지, 달구질, 달구질하다, 달기씨깨비, 달님, 달다(001), 달다(006), 달다(007), 달다(016), 달다(017), 달다(020), 달뜨다, 달랑달랑, 달래, 달래다, 달려가다, 달려들다, 달려오다, 달리, 달리기, 달리다(001), 달리다(015), 달리하다, 달맞이, 달무리, 달빛, 달아나다, 달음질, 달이다, 달팽이, 닭, 닭의똥, 닭다, 닭다, 닭, 닭다, 닭박하다, 닭배, 닭벼락, 닭비, 닭쟁이, 닭판, 닭답하다, 닭답히, 닭쌍이다, 닭곱, 닭새, 당기다, 당나귀, 당수, 당신(002), 당신(004), 닭줄, 닭다, 대, 대감, 대견하다, 대그릇, 대껍질, 대나무, 대님, 대다, 대들보, 대롱, 대막대기, 대머리, 대발, 대비, 대비녀, 대수롭다, 대야, 대여섯, 대엿새, 대장(001), 대장(004), 대장(010), 대쪽, 대추, 대추나무, 대추씨, 대충, 대패, 대패질, 대패하다, 대팻밥, 대포, 댕싸리, 댕가지, 댕구멍, 댕잎, 댕줄기, 더, 더구나, 더그레, 더덕, 더덕더덕, 더덕더덕하다, 더덜더덜하다, 더데, 더덩이, 더듬다, 더듬더듬, 더듬더듬하다, 더디, 더디다, 더럽다, 더럽히다, 더레다, 더부룩하다(002), 더부룩하다(003), 더부살이, 더북더북, 더불다, 더욱, 더위, 더위잡다, 더위잡히다, 더위지기, 더떨개, 더하다, 던져두다, 던지다, 덜, 덜다, 덜덜, 덜렁덜렁, 덜렁이, 덜렁이다, 덜리다, 덜하다, 덤, 덤병거리다, 덤병대다, 덤병덤병, 덤병이다, 덤비다, 덩다, 덩적거리다, 덩긋다, 덩니, 덩물, 덩실덩실, 덩어리, 덩이, 덩, 덩개, 덩다, 데다, 데리다, 데릴사위, 데면데면하다, 데우다, 데치다, 덩겅겅겅, 덩겅겅겅하다, 덩겅거리다, 덩겅, 도가니, 도깨비, 도꼬마리, 도끼, 도닐다, 도도룩하다, 도둑하다, 도라지, 도랑, 도랑이, 도랏, 도래, 도래매듭, 도래송곳, 도련님,

도렷하다, 도령, 도로, 도롱뇽, 도롱테, 도리깨, 도리어, 도마, 도마뱀, 도미, 도서다, 도섭,
 도섭스럽다, 도섭질, 도시락, 도와리, 도요새, 도움, 도장, 도적, 도지개, 도타이, 도탑다,
 도토리, 도톨밤, 도투마리, 독수리, 돈, 돈내기하다, 돈다, 돈우다, 돌, 돌계집, 돌고래, 돌공이,
 돌구유, 돌그릇, 돌꺾, 돌꺾잡, 돌다, 돌다리, 돌덩이, 돌리다, 돌매, 돌무더기, 돌무덤, 돌보다,
 돌비늘, 돌아가다, 돌아내리다, 돌아들다, 돌아보다, 돌아서다, 돌아오다, 돛바늘, 돛자리,
 동개, 동고리, 동곳, 동그라미, 동글다, 동냥, 동냥아치, 동냥하다, 동네, 동댕이치다, 동무,
 동생, 동아, 동이, 동이다, 동치미, 돼지, 되다, 되우, 된바람, 된밥, 된서리, 된장, 두근두근,
 두근두근하다, 두꺼비, 두껍다, 두께, 두다, 두더지, 두덩, 두두룩하다, 두둑이, 두둑하다,
 두드러기, 두드리다, 두들기다, 두런두런하다, 두레, 두레박, 두렛줄, 두렵다, 두렷두렷하다,
 두렷이, 두렷하다, 두루, 두루두루, 두루마기, 두루마리, 두루미, 두메, 두어, 두엄, 두엃,
 두터이, 두텁다, 둑, 둘, 둘레, 둥굴레, 둥그렇다, 둥글다, 둥우리, 둥주리, 뒤, 뒤돌다, 뒤보다,
 뒤서다, 뒤섞다, 뒤섞이다, 뒤안, 뒤옹박, 뒤적뒤적, 뒤적뒤적하다, 뒤적이다, 뒤졌다,
 뒤죽박죽, 뒤지, 뒤지다(001), 뒤지다(005), 뒤축, 뒤치다, 뒤틀다, 뒤틀리다, 뒷간, 뒷나무,
 뒷다리, 뒷돈, 뒷동산, 뒷문, 뒷물, 뒷물하다, 뒷발, 뒷자락, 뒷짐, 드나들다, 드러나다,
 드러내다, 드렁허리, 드리다, 드물다, 드잡이, 듣다, 들, 들기름, 들깨, 들나물, 들다(001),
 들다(031), 들다(033), 들뜨다, 들락날락하다, 들리다(001), 들리다(004), 들매, 들매다, 들보,
 들썩들썩하다, 들썩하다, 들어가다, 들어오다, 들여놓다, 들여보내다, 들여오다, 들오리,
 들이다, 들이닫다, 들이밀다, 들이비치다, 들이빨다, 들이쉬다, 들이쪼다, 들이차다,
 들이켜다(001), 들이켜다(002), 들추다(001), 들추다(002), 들추다(003), 들치다, 들피지다, 등,
 등걸, 등걸숯, 등굣길, 등마루, 등신, 등지다, 디디다, 따님, 따다, 따뜻하다, 따라가다, 따로,
 따르다(001), 따르다(009), 따름, 따먹다, 따비, 따오기, 딱따구리, 딱정벌레, 딸, 딸기,
 딸깍딸깍, 딸깍발이, 딸꾹질, 땀(001), 땀(003), 땀띠, 땅, 땅벌, 때(001), 때(009), 때까지,
 때다, 때때로, 때리다, 땀장이, 땀질, 땀질하다, 떠가다, 떠나다, 떠나다, 떠다니다, 떠먹다,
 떠오르다, 떡, 떡갈나무, 떡소, 떨기, 떨다(001), 떨다(007), 떨리다, 떨어내다, 떨어지다,
 떨치다, 떨다, 떼땃이, 떼땃하다, 떼다, 또, 또렷하다, 또한, 톱, 톱물, 톱오줌, 톱리, 톱기,
 뚜껑, 뚜드리다, 툇다, 뛰놀다, 뛰다(001), 뛰다(009), 뛰어내리다, 뿔, 뜨다(001), 뜨다(002),
 뜨다(008), 뜨다(014), 뜨다(021), 뜨다(024), 뜨다(033), 뜨다(036), 뜨더귀, 뜨물, 뜯구름,
 뜯다, 뜯, 뜯, 뜯부기, 뜯질하다, 뜻, 뜻하다, 띠, 띠다, 띠돈, ㄹ망정, 마, 마가목, 마감하다,
 마개, 마고자, 마구, 마누라, 마늘, 마다하다, 마당, 마되, 마디, 마디마디, 마땅하다, 마뜩하다,
 마렵다, 마루(001), 마루(006), 마른국수, 마름(004), 마름(005), 마름쇠, 마리, 마마, 마무르다,
 마상이, 마소, 마시다, 마저, 마전, 마전하다, 마주, 마주치다, 마중, 마지기, 마지막,
 마지못하다, 마치, 마파람, 막, 막가다, 막걸리, 막내, 막다르다, 막바지, 막별이꾼, 막자, 만두,
 만석꾼, 만일, 만지다, 만큼, 많다, 많이, 만누이, 만팔, 만며느리, 맡아들, 말, 말가족, 말갈기,
 말거머리, 말거미, 말고기, 말구유, 말굽, 말긋말긋, 말긋말긋하다, 말달리기, 말똥, 말똥구리,
 말뚝, 말리다(001), 말리다(006), 말말뚝, 말미, 말미암다, 말별, 말불버섯, 말쌈, 말쌈하다,
 말씨, 말여귀, 말오줌나무, 말쑤, 말채, 말총, 말총채, 말하다, 맑다, 맑히다, 맛, 맛보다,
 맛없다, 맛없이, 망건, 망나니, 망령되다, 망석, 망아지, 망울, 망초(002), 망초(004), 맛갓다,
 맛바꾸다, 맛받다, 맛아들이다, 맞이하다, 맞추다, 맞히다, 말기다, 말다, 말이다, 매풍(001),
 매풍(003), 매풍(010), 매풍(012), 매풍기다, 매풍다, 매풍들, 매풍만지다, 매풍미, 매풍방울, 매풍양, 매풍옥하다,
 매풍자기, 매풍질, 매풍질하다(001), 매풍질하다(003), 매풍(001), 매풍(002), 매풍드라미, 매풍드리, 매풍머리,

맨몸, 맨몸둥이, 맨발, 맨밥, 맨손, 맨입, 맵다, 맵시, 맷돌, 맷돌질, 맷돌질하다, 맷맷하다, 맷렬하다, 맷렬히, 맷물, 맷세, 맷세하다, 맷다, 맷하다, 머귀, 머귀나무, 머금다, 머루, 머리(001), 머리(003), 머리꼬리, 머리단장, 머리말, 머리뼈, 머리카락, 머리털, 머릿니, 머릿수건, 머무르다, 머뭇거리다, 머뭇하다, 머슴, 머위, 먹, 먹감나무, 먹구렁이, 먹다(002), 먹다(005), 먹먹하다, 먹물, 먹빛, 먹음직하다, 먹이다, 먹장, 먹줄, 먹칼, 먹통, 먹히다, 먼저, 먼저, 멀겅다, 멀다, 멀떠구니, 멀리, 멀리하다, 멀찍이, 멍덕팔기, 멍석, 멍에, 메(001), 메(005), 메기, 메다(001), 메다(004), 메두기, 메마르다, 메밀, 메밀가루, 메밥, 메아리, 메어치다, 메우다(001), 메우다(006), 메주, 메질하다, 메추라기, 맵쌀, 맷나물, 맷대추, 맷미나리, 맷부리, 맷비둘기, 맷새, 며느리, 며친날, 며칠, 먹, 먹따다, 먹미레, 먹부리, 먹살, 먹찌르다, 면내다, 멸, 명매기, 명치, 명치뼈, 명태, 멧, 모, 모가지, 모감주, 모감주나무, 모과, 모금, 모기, 모깃불, 모꼬지, 모꼬지하다, 모나다, 모내다, 모닥불, 모두, 모든, 모란, 모란꽃, 모래, 모래무지, 모래, 모루, 모시, 모시다, 모심기, 모심다, 모으다, 모이, 모이다, 모이통, 모자라다, 모질다, 모춤(001), 모춤(002), 모춤하다, 모통이, 목, 목거리, 목구멍, 목덜미, 목마르다, 목매다, 목매달다, 목매다, 목뼈, 목소리, 목숨, 목쉬다, 목욕, 목욕하다, 목젓, 몬다위, 물골, 몰라보다, 몰려다니다, 몰리다(001), 몰리다(003), 몰아가다, 몰아내다, 몰아오다(001), 몰아오다(002), 몸, 몸둥이, 몸소, 몸채, 몸쓸, 못내, 못물, 못쓰다, 못하다, 몽당치마, 몽둥이, 무, 무겁다, 무게, 무궁화, 무꾸리, 무꾸리하다, 무너지다, 무너트리다, 무늬, 무당, 무더기, 무던하다, 무던히, 무덤, 무덤다, 무두질, 무두질하다, 무디다, 무뢰배, 무르녹다, 무르다(002), 무르다(005), 무르익다, 무릅쓰다, 무릎, 무릎, 무리, 무명, 무사마귀, 무사하다, 무사히, 무색하다, 무서리, 무섭다, 무소, 무쇠, 무수리(001), 무수리(002), 무슨, 문대다, 문덕문덕, 문둥이, 문드러지다, 문배, 문배목, 문설주, 문지기, 문지르다, 문지방, 문질리다, 문짝, 문턱, 문틈, 문다(001), 문다(003), 문다(008), 문히다(001), 문히다(002), 물, 물가, 물갈래, 물거품, 물결, 물고기, 물구나무서다, 물굽이, 물기, 물길, 물꼬, 물끄러미, 물다(002), 물다(007), 물닭, 물둥이, 물들다(001), 물들다(002), 물들이다, 물러가다, 물러나다, 물러서다, 물러앉다, 물러오다, 물러지다, 물렁물렁, 물렁물렁하다, 물레, 물레질, 물론하다, 물리다(002), 물리다(006), 물리다(016), 물리치다, 물맛, 물밀다, 물방아, 물방울, 물뽕, 물벌레, 물빛, 물새, 물소, 물소리, 물속, 물수리, 물썩다, 물썩, 물앵두, 물약, 물오리, 물줄기, 물집, 물켜다, 물크러지다, 물통, 물푸레, 물푸레나무, 물혹, 물다, 뭇(002), 뭇(008), 뭇다, 뭇매, 뭇매질, 뭇사람, 뭇개다, 뭇개구름, 뭇개뭇개, 뭇구리, 뭇우리들, 뭇치, 뭇치다, 뭇텅뭇텅, 뭇텅이, 뭇툭하다, 물, 미꾸라지, 미꾸리, 미끄러지다, 미끄럼, 미끄럽다, 미끈미끈, 미끈미끈하다, 미끼, 미나리, 미늘, 미다, 미달이, 미덥다, 미란하다, 미련하다, 미령하다, 미루다, 미리, 미쁘다, 미수, 미어지다, 미역, 미옥하다, 미움, 미워하다, 미지근하다, 미쳐, 미치광이, 미치다, 미투리, 민들레, 민머리, 민며느리, 민다, 믿음, 믿음성, 밀(002), 밀(003), 밀가루, 밀기울, 밀돌, 밀리다, 밀물, 밀밀하다, 밀밀히, 밀짚, 밀초, 밀치, 밀치다, 밀타승, 밀풀, 밍다, 밍살스럽다, 밍밍하다, 밍근하다, 밀, 밀구멍, 밀동, 밀바닥, 밀자리, 밀지다, 밀천, 바(001), 바(003), 바가지, 바구니, 바구미, 바글바글, 바글바글하다, 바깥, 바꽃, 바꾸다, 바꾸이다, 바느질, 바느질, 바느질자, 바느질하다, 바늘, 바늘겨레, 바늘구멍, 바늘귀, 바늘방석, 바늘통, 바다, 바닥, 바닷가, 바닷물, 바더리, 바둑, 바둑이, 바둑판, 바드득바드득하다, 바드럽다, 바드바드, 바디, 바디집, 바라, 바라다, 바라보다, 바라지다, 바람(001), 바람(002), 바람(020), 바람개비, 바람둥이, 바람맞다, 바람벽, 바람, 바루다, 바르다(001), 바르다(006), 바리, 바쁘다,

바빠, 바사기, 바삭바삭, 바삭바삭하다, 바서지다, 바수다, 바스라기, 바스스하다, 바짝,
 바야흐로, 바위, 바자, 바지, 바치다, 바퀴(001), 바퀴(003), 바탕(001), 바탕(005), 박, 박고지,
 박꽃, 박다, 박달나무, 박대하다, 박람하다, 박석, 박수, 박음질, 박음질하다, 박이웃,
 박장대소하다, 박쥐, 박차다, 박히다, 박, 반가워하다, 반가이, 반갑다, 반값, 반기다, 반두,
 반들반들, 반들반들하다, 반듯하다, 반디, 반딧불, 반반하다, 반색하다, 반석, 반자,
 반작반작하다, 반죽, 반죽하다, 반질반질하다, 반짇, 반찬, 반다, 받들다, 받잡다, 받치다, 받침,
 발(001), 발(008), 발가락, 발가벗다, 발괄하다, 발구, 발기, 발기다, 발기름, 발길, 발꿈치,
 발끈발끈, 발끈발끈하다, 발끝, 발돋움, 발뒤축, 발등, 발딱발딱, 발딱발딱하다, 발떠퀴, 발목,
 발바닥, 발배하다, 발보이다, 발뺨하다, 발살, 발설하다, 발송하다, 발싸개, 발자국, 발자취,
 발칙하다, 발톱, 발행하다, 밍다, 밍히, 밍히다, 밍다, 밍다, 밍히다, 밤(001), 밤(002), 밤기운,
 밤나무, 밤낮, 밤눈(001), 밤눈(003), 밤들다, 밤사이, 밤새, 밤새다, 밤새우다, 밤송이, 밤이슬,
 밤잠, 밤재우다, 밤중, 밤참, 밥, 밥값, 밥그릇, 밥때, 밥상, 밥술, 밥쌀, 밥알, 밥주걱, 밥투정,
 밥투정하다, 밥풀, 방(008), 방(023), 방구석, 방귀, 방글방글, 방긋, 방긋방긋, 방긋방긋하다,
 방긋이, 방기, 방망이, 방망이꾼, 방목, 방문(001), 방문(002), 방문(003), 방문(004), 방문하다,
 방물장사, 방불하다, 방사하다, 방석, 방수하다, 방실방실, 방실방실하다, 방아, 방아허리,
 방아확, 방앗공이, 방울(001), 방울(004), 방울꽃, 방울방울, 방울새, 방울지다, 방자하다,
 방자히, 방재하다, 방정, 방정맞다, 방정스럽다, 방정하다, 방정히, 방종하다, 방죽, 방차하다,
 방책, 방축, 방축하다, 방탕하다, 방탕히, 방패, 방편, 발, 발고랑, 발다, 발두둑, 발이랑,
 배(001), 배(007), 배(008), 배고프다, 배끓다, 배교, 배교하다, 배괘하다, 배꼽, 배꽃, 배나무,
 배다, 배도, 배도하다, 배때기, 배레, 배레하다, 배롱, 배면하다, 배명하다, 배목, 배목걸쇠,
 배반, 배반하다, 배배, 배부르다, 배불리, 배상, 배상금, 배상하다, 배설하다, 배신하다,
 배알(001), 배알(004), 배알하다, 배알이, 배양하다, 배우다(001), 배우다(003), 배접, 배접하다,
 배정, 배정하다, 배척하다, 배추, 배치하다, 배포하다, 배필, 배합하다, 배행하다, 배회하다,
 백미, 백방하다, 백설기, 백성, 백정, 백주, 백중, 백징하다, 백합(002), 백합(003), 뱀대이, 뱀,
 뱀딸기, 뱀장어, 뱀새, 뱀가죽, 뱀고물, 뱀길, 뱀대, 뱀머리, 뱀멀미, 뱀사람, 뱀속, 뱀전, 뱀어,
 뺨다, 바비다, 버금, 버꾸, 버드나무, 버들가지, 버들강아지, 버들개지, 버들잎, 버릇, 버릇없다,
 버리다, 버무리, 버무리다, 버물다, 버선, 버섯, 버짐, 버티다, 번갈다, 번개, 번거롭다, 번데기,
 번드치다, 번득, 번득번득하다, 번들번들, 번듯하다, 번뜩이다, 번연히, 번지, 번지르르하다,
 번질번질하다, 번쩍, 번쩍번쩍하다, 번쩍이다, 번다, 번디디다, 번지르다, 번치다, 벌,
 벌거벗다, 벌거숭이, 벌겅다, 벌떡, 벌떡벌떡, 벌떡벌떡하다, 벌떡이다, 벌렁벌렁,
 벌렁벌렁하다, 벌레, 벌어지다, 벌이다, 벌집, 범, 범나비, 범람하다, 범부채, 범아귀, 법석, 벗,
 벗다, 벗어나다, 병긋병긋하다, 병긋하다, 병실병실, 병실병실하다, 병어리, 베, 베개, 베갯모,
 베끼다, 베다, 베적삼, 베주머니, 베짚이, 베틀, 베풀다, 벼락, 벼랑, 벼루, 벼룩, 벼룩집,
 벼르다, 벼리, 벼슬, 벼슬하다, 변두리, 변변찮다, 변색하다, 변하다, 변화하다, 별, 별동, 별로,
 별세하다, 벼, 벼짚, 병들다, 병아리, 병장기, 별, 보, 보긋, 보금자리, 보내다, 보다, 보드랍다,
 보들보들하다, 보라매, 보람, 보름, 보름날, 보름달, 보리, 보리밥, 보리쌀, 보배, 보배로이,
 보배롭다, 보살피다, 보습, 보시기, 보쌈, 보자기, 보조개, 보채다, 보태다, 보통이, 보풀,
 보풀보풀하다, 보행하다, 복, 복불복, 복사빠, 복수하다, 복숭아, 복숭아나무, 복숭아빠,
 복숭아씨, 복종하다, 복다, 복이다, 본디, 본받다, 본전, 본처, 볼, 볼기, 볼기짝, 볼꿀, 볼때기,
 볼록하다, 볼통이, 봄, 봄날, 봄물, 봄바람, 봄비, 봉선화, 봉우리, 봉지, 뵈다, 부검지,

부끄럽다, 부나비, 부넘기, 부두, 부드득부드득하다, 부드럽다, 부득부득, 부디, 부딪다, 부딪치다, 부뚜, 부뚜막, 부러, 부러워하다, 부러지다, 부러트리다, 부럽다, 부레, 부레풀, 부루말, 부르다, 부르돈다, 부르짖다, 부르짖다, 부릅뜨다, 부리, 부리나케, 부리다, 부산, 부삽, 부서지다, 부손, 부수다, 부스러기, 부스러지다, 부스럭부스럭하다, 부스럼, 부스스, 부시, 부시다, 부싯깃, 부싯돌, 부아, 부엌이, 부엌, 부엌다, 부족하다, 부지깽이, 부지런하다, 부질없다, 부질없이, 부채, 부채질하다, 부처손, 부추, 부치다(001), 부치다(002), 부치다(009), 부터, 부풀다, 부피, 북, 북돋우다, 북두성, 북받치다, 북소리, 북적, 분, 분꽃, 분네(001), 분네(002), 분디, 분디나무, 분배하다, 분수, 분칠, 분풀이하다, 분하다(001), 분하다(003), 분하다(004), 불, 불같다, 불개미, 불거웃, 불긋불긋하다, 불기운, 불길, 불꽃, 불끈, 불끈불끈하다, 불다, 불두덩, 불뚱, 불량하다, 불려내다, 불려들이다, 불려오다, 불룩이, 불리다(001), 불리다(005), 불리다(009), 불리다(010), 불목하니, 불불다, 불불이다, 불빛, 불상늬, 불쌍하다, 불알, 불어나다, 불여우, 불잉걸, 불콩, 불타다, 불티, 불나무, 불다, 불비다, 붓, 붓꽃, 붓끝, 붓다(001), 붓다(003), 붓대, 붓두껍, 붕어, 불다, 불당기다, 불들다, 불들리다, 불박이, 불박이창, 불안다, 불이(002), 불이(003), 불이다(001), 불이다(003), 불이다(005), 불이다(012), 불이다(014), 붙잡다, 붙잡히다, 붙좃다, 비, 비구, 비구니, 비기다(001), 비기다(003), 비기다(004), 비기다(005), 비끼다(001), 비끼다(001), 비녀, 비늘, 비다(001), 비다(009), 비단(001), 비단(003), 비둘기, 비력질, 비력질하다, 비렁뱅이, 비로소, 비록, 비릇하다, 비루, 비루먹다, 비리다, 비린내, 비비, 비비다, 비스듬하다, 비스름하다, 비스름히, 비속이, 비속하다, 비슷비슷하다, 비슷이(001), 비슷이(002), 비슷하다, 비싸다, 비역, 비오리, 비우다, 비웃, 비웃다, 비웃음, 비접, 비치다, 비탈, 비틀다, 빈대, 빈대떡, 빈말, 빈정거리다, 빈정빈정하다, 빈지, 빌다(001), 빌다(004), 빌다(005), 빌리다, 빌어먹다, 빔, 빗, 빗기다, 빗다, 빗물, 빗발, 빗방울, 빗살, 빗소리, 빗술, 빗장, 빗집, 빗치개, 빙그레, 빙그레하다, 빙글빙글, 빙자하다, 빗, 빗내다, 빗다, 빗, 빗나다, 빠르다, 빠지다(001), 빠지다(014), 뽐뽐하다, 뽐뽐하다, 빨다(001), 빨다(003), 빨다(004), 빨래, 빨래하다, 빨리다, 빨아내다, 뽕뽕하다, 뽕다, 뽕내다, 뽕다, 뽕앗다, 뽕어나다, 뽕치다, 뽕뽕하다, 뽕다, 뽕, 뽕뽕, 뽕근하다, 뽕꾸기, 뽕꾸새, 뽕뽕뽕하다, 뽕뽕, 뽕뽕하다, 뽕뽕하다, 뽕치다, 뽕뽕하다, 뽕, 뽕고도리, 뽕끝, 뽕다귀, 뽕마디, 뽕, 뽕드득, 뽕드득뽕드득하다, 뽕내다, 뽕다, 뽕히다, 뽕, 뽕나무, 뽕발, 뽕잎, 뽕루지, 뽕죽뽕죽하다, 뽕죽하다, 뿌리, 뿌리다, 뿌(001), 뿌(003), 뽕, 뽕할, 뽕다, 뽕다, 뽕대다, 뽕두로, 뽕두름하다, 뽕뚫어지다, 뽕죽뽕죽하다, 뽕죽뽕죽하다, 뽕치다, 뽕뽕이, 뽕뽕하다, 뽕기, 사공, 사과, 사과하다, 사귀다, 사나이, 사나흘, 사납다, 사내, 사냥, 사냥개, 사냥꾼, 사냥하다, 사늘하다, 사늘히, 사다, 사다리, 사닥다리, 사돈, 사돈댁, 사돈집, 사돈하다, 사또, 사라부루, 사라지다, 사람, 사랑, 사랑웁다, 사랑하다, 사랑웁다, 사래질하다, 사래하다, 사로잡그다, 사로잡다, 사로잡히다, 사뢰다, 사르다, 사리다, 사립, 사립문, 사립씩, 사마귀, 사모하다, 사무치다, 사뭇, 사발, 사복, 사사로이, 사사롭다, 사슬(001), 사슬(006), 사슴, 사양하다, 사위(001), 사위(003), 사위다, 사이, 사이사이, 사이하다, 사자, 사재발쑥, 사주, 사주단자, 사주쟁이, 사주전, 사주전하다, 사철, 사침대, 사타구니, 사탕, 사투리, 사하다, 사향노루, 사향쥐, 사흘, 삭다, 삭신, 삭이다(001), 삭이다(002), 삭정이, 샳, 샳짐, 산골(001), 산골(002), 산지니, 살(001), 살(008), 살(018), 살갑다, 살결, 살구, 살구꽃, 살구나무, 살구씨, 살다, 살대, 살뜰하다, 살뜰히, 살랑살랑하다, 살리다, 살림, 살림살이하다, 살림하다, 살밀, 살빛, 살생, 살생하다, 살아나다, 살아오다, 살얼음, 살육, 살육하다, 살조개, 살지다, 살쩍,

살찌다, 살코기, 살행이, 살피다, 삶, 삶기다, 삶다, 삼(003), 삼(013), 삼(014), 삼가다, 삼거웃,
 삼노, 삼대, 삼배, 삼삼하다, 삼신, 삼실, 삼줄, 삼진날, 삼키다, 삼태기, 삼, 삼살개, 삼삼하다,
 삼주, 삼짝, 샷, 샷갓, 상고대, 상관, 상관되다, 상관없다, 상관하다, 상납, 상납하다, 상냥하다,
 상대하다, 상되다, 상두꾼, 상서, 상서롭다, 상서하다, 상수리, 상앗대, 상어, 상없다, 상하다,
 살, 살바, 살살이, 새(001), 새(006), 새(011), 새것, 새기다(001), 새기다(004), 새김,
 새끼(001), 새끼(002), 새끼낫, 새끼발가락, 새끼손가락, 새다(001), 새다(009), 새로, 새로이,
 새록새록, 새롭다, 새매, 새박, 새박뿌리, 새벽, 새삼, 새삼스럽다, 새삼씨, 새서방, 새소리,
 새아기씨, 새알, 새앙, 새우, 새우다(001), 새우다(002), 새우잠, 새우젓, 새치, 새콩, 새해,
 색시, 샘(001), 샘(002), 샘물, 샘바르다, 샘하다, 셋별, 생각, 생각하다, 생강, 생긋생긋,
 생기다, 생동찰, 생산, 생산하다, 생쥐, 생지황, 생철, 생황, 서걱서걱하다, 서글프다, 서까래,
 서낭, 서너, 서넛, 서늘하다, 서늘히, 서다, 서두르다, 서라말, 서랍, 서러워하다, 서럽다, 서로,
 서른, 서른다, 서리(002), 서리(003), 서리다(001), 서리다(006), 서머하다, 서방, 서방님,
 서벽서벽하다, 서분서분, 서분히, 서생, 서어하다, 서운하다, 서운히, 서울, 서자, 서재, 서진,
 서책, 서개, 석쇠, 석임, 석자, 쉼다, 쉼이다, 섯, 선물, 선반, 선보름, 선비, 선생, 선전하다,
 선웃음, 선지, 선행, 선행하다, 선달, 선부르다, 설(001), 설(002), 설거지, 설경설경,
 설경설경하다, 설계하다, 설기, 설날, 설다, 설대, 설령설령, 설마, 설움, 설워하다, 설주,
 설치다(001), 설치다(002), 설치하다, 설핏설핏, 썰다, 섬(001), 섬(005), 섬거적, 섬기다, 섬돌,
 섬뜩하다, 섬어, 섬어하다, 섬새김, 섬섬하다, 성, 성가시다, 성공하다, 성기다, 성나다, 성내다,
 성냥(001), 성냥(002), 성마르다, 성에, 성하다, 성황, 성황당, 쉼, 쉼나무, 세(008), 세(010),
 세(011), 세간, 세납, 세납하다, 세다(001), 세다(003), 세대, 세도, 세도하다, 세로, 세모,
 세모나다, 세모지다, 세밀하다, 세밀히, 세배, 세배하다, 세사, 세상, 세세히, 세속, 세수,
 세수하다, 세숫대야, 세숫물, 세우다, 세월, 세인, 세자, 세장, 세전, 세정, 세정하다, 세주다,
 세차다, 썸, 셋, 셋째, 소, 소걸음, 소경, 소곤소곤하다, 소금, 소금물, 소나기, 소나무,
 소담하다, 소래, 소루쟁이, 소름, 소매, 소맷부리, 소주, 속, 속곳, 속내, 속마음, 속새,
 속서근풀, 속웃, 속절없다, 쏘다, 손가락, 손금, 손꼽다, 손등, 손목, 손바닥, 손발톱, 손뼉,
 손살, 손수, 손수건, 손아귀, 손톱, 솔, 솔개, 솔방울, 솔잎, 솜, 솜씨, 솜털, 솟구다, 솟다,
 솟아오르다, 송골매, 송곳, 송낙, 송송, 송아지, 송이, 송진, 송편, 솔, 솔밭, 췌자, 쇠갈고리,
 쇠고기, 쇠고리, 쇠꼬리, 쇠뇌, 쇠똥(001), 쇠똥(002), 쇠막대기, 쇠머리, 쇠무릎, 쇠무릎지기,
 쇠비름, 쇠뺨, 쇠뿔, 쇠사슬, 쇠스랑, 쇠심, 쇠오줌, 쇠젓, 쇠테, 쇳가루, 쇳소리, 수사슴,
 수틀찌귀, 수태지, 수풀, 숙맥, 숙이다, 순대, 순라, 순무, 순배, 순가락, 술(001), 술(002),
 술값, 술독, 술밑, 술술, 술주정, 술지게미, 술집, 숨, 숨다, 숨바꼭질, 숫돌, 숫되다, 승냥,
 승어, 숫, 숫섬, 숲, 쉬, 쉬이, 쉽다, 스라소니, 스루다, 스무, 스물, 스스로, 스승, 스치다,
 슬겁다, 실리다, 실마리, 실반대, 짜라기, 짜리, 짜리비, 짜매다, 짜전, 짹, 짹, 짹가루, 짹개,
 짹보리, 짹사다, 짹팔다, 짹꺼풀, 짹배목, 짹짹, 찢다, 찢매, 찢물, 쪼가리, 찢기(002),
 찢기(003), 찢다, 쭈시다, 쭈, 쭈떡, 쭈물, 쭈발, 쭈레기, 쭈레하다, 쭈르라미, 찌름, 찌아, 찌앗,
 찌칙하다, 찢다, 아가미, 아가씨, 아궁이, 아기, 아기씨, 아깁다, 아끼다, 아낙, 아내, 아니꼽다,
 아드님, 아득하다, 아득히, 아들, 아람치, 아랑곳, 아래, 아래위, 아랫목, 아랫사람, 아로새기다,
 아롱지다, 아뢰다, 아름, 아름답다, 아리다, 아리답다, 아마존, 아무, 아무개, 아무런, 아무렇다,
 아무리, 아물다, 아버지, 아범, 아비, 아빠, 아스라이, 아스라하다, 아양, 아예, 아우,
 아우르다, 아주까리, 아주머니, 악쓰다, 안, 안개, 안다, 안뜰, 안손님, 안자락, 안장, 안주,

안쪽, 안채, 안타깝다, 안팎, 앓다, 알, 알다, 알리다, 알맞다, 알맞추, 알밤, 알아듣다,
 알아보다, 알짜지근하다, 앓, 앓다, 암, 암만(001), 암만(002), 암사슴, 암수, 암캐, 암컷,
 암키와, 암탉, 암태지, 앓기다, 양감질, 앞, 앞서다, 앞세우다, 애, 애기풀, 애달다, 애쓰다,
 애오라지, 애지중지, 애지중지하다, 애처롭다, 앵두, 야금야금, 야릇하다, 야속하다, 야위다,
 약다, 약대, 약방문, 약속, 약속하다, 얇밋다, 암전, 암전하다, 양념, 양철, 양치, 양치질,
 양치질하다, 양치하다, 양치물, 얹다, 어귀, 어금니, 어긋나다, 어기다, 어깨, 어느, 어두움,
 어둑어둑하다, 어둑하다, 어둑다, 어디, 어떠한, 어련히, 어렴풋이, 어렵다, 어루러기,
 어루만지다, 어르신, 어르신네, 어른, 어른어른하다, 어리광, 어리다, 어린아이, 어린이,
 어림없다, 어머니, 어머님, 어미, 아버지, 어설피다, 어스름, 어스비속, 어스비속하다,
 어여쁘다, 어여뻐, 어우르다, 어울리다, 어이팔, 어이아들, 어이없다, 어이없이, 어저귀,
 어저께, 어제, 어젯밤, 어지간하다, 어지러이, 어지럼, 어지럽다, 어지럽히다, 어지르다,
 어질다, 어질하다, 어찌, 어쩔하다, 억새, 억지로, 억척, 언니, 언덕, 언제, 언치, 없다, 얻다,
 얻어먹다, 얼굴, 열다, 열레, 열레빗, 열룩말, 열룩소, 열른, 열른열른, 열리다(003),
 열리다(004), 열마, 열음, 열쩍지근하다, 열핏, 얻다, 오죽, 오죽이, 오죽하다, 올밤, 옴두꺼비,
 왕밤, 왕방울, 외톨, 외톨밤, 외톨이, 이곳, 이곳저곳, 이빨, 자다, 잠, 잠깐, 잠꼬대, 잠들다,
 잠방이, 잠자리, 잠자코, 잡동사니, 잡수다, 잡수시다, 잡숫다, 잡아가다, 잡아내다,
 잡아당기다, 잡아들이다, 잡은것, 잡쥘다, 잡히다, 잣나무, 잣다, 장가들다, 장가들이다, 장갑,
 장구, 장님, 장마, 장만하다, 장미, 장사, 장아찌, 재다, 재미, 재주, 재채기, 잣물, 쟁기, 저,
 저고리, 저곳, 저녁, 저리다, 저물다, 저미다, 저버리다, 저승, 저어하다, 저자, 저지레하다,
 저지르다, 저축, 적삼, 적시다, 적이, 절구, 절굿공이, 주걱, 죽방울, 쥐방울, 찢다, 총다리,
 콧방울, 투정하다, 핏방울, 하룻밤, 햇밤, 호리, 확, 훗배, 훗배알이, 흡사하다, 힘줄.

[부록 2] 집필감수팀 - 집필 대상 표제어 (22,000개)

가, 가감, 가감승제, 가건물, 가게, 가젯방, 가격, 가결, 가계, 가계약, 가곡, 가공, 가공하다, 가구, 가구주, 가극, 가급, 가급적, 가까스로, 가까이, 가까이하다, 가까이하다, 가깝다, 가꾸다, 가꾸러지다, 가꾸로, 가끔, 가끔, 가끔가끔, 가난, 가난하다, 가난히, 가냘프다, 가녀리다, 가누다, 가느다랗다, 가느스름하다, 가는베, 가는소금, 가늘다, 가늠, 가늠쇠, 가늠하다, 가능, 가능성, 가능하다, 가다, 가다가, 가다듬다, 가다루다, 가닥, 가담하다, 가당찮다, 가대기, 가동, 가두, 가두다, 가두리, 가드, 가득, 가득하다, 가득히, 가든, 가든파티, 가뜩, 가뜩이나, 가라말, 가라사대, 가라앉다, 가라앉히다, 가라지, 가라지, 가라지조, 가라지조, 가라치, 가라테, 가락, 가락, 가락, 가락나무, 가락지, 가락지, 가란침못, 가랑머리, 가랑무, 가랑비, 가랑비, 가랑이, 가랑잎, 가랏, 가랏, 가래, 가래, 가래, 가래나무, 가래다, 가래떡, 가래질, 가래침, 가래툰, 가랭이, 가려내다, 가렵다, 가령, 가로, 가로다, 가로등, 가로막다, 가로서다, 가로수, 가로지다, 가로지르다, 가로질리다, 가뢰, 가루, 가루다, 가루라, 가루약, 가르다, 가르마, 가르새, 가르치다, 가르침, 가롱빈가, 가리, 가리끼다, 가리다, 가리다, 가리마, 가리맛, 가리방, 가리사니, 가리산지리산, 가리온, 가리질하다, 가리키다, 가마, 가마, 가마니, 가마술, 가마우지, 가막조개, 가만, 가만가만, 가만가만히, 가만있다, 가만하다, 가만히, 가말다, 가망, 가맣다, 가맹, 가맹점, 가면, 가면극, 가멸다, 가명, 가무리다, 가문, 가문비, 가물, 가물가물, 가물거리다, 가물다, 가물치, 가뭇, 가뭇가뭇, 가뭇하다, 가발, 가방, 가법, 가벼이, 가볍다, 가보, 가봉, 가부, 가불, 가빠, 가쁘다, 가쁘다, 가빠, 가사, 가상, 가색, 가세하다, 가속도, 가솔린, 가수, 가스, 가스등, 가스등, 가스램프, 가스펠, 가슴, 가슴, 가슴걸이, 가슴빠, 가슴앓이, 가슴패기, 가시, 가시, 가시나무, 가시내, 가시다, 가시다, 가시덤불, 가시랭이, 가시발, 가시버시, 가시아비, 가시어미, 가시연, 가시집, 가식, 가심, 가십, 가액, 가야, 가야금, 가얏고, 가없다, 가없이, 가엽다, 가엿다, 가엿다, 가엿이, 가오리, 가옥, 가요, 가운, 가운데, 가웃, 가위, 가위, 가위놀리다, 가위바위보, 가위톱, 가윗날, 가으내, 가을, 가을, 가을밤, 가이드, 가이드북, 가입, 가입자, 가입하다, 가자, 가자미, 가잠나룻, 가장, 가장귀, 가장자리, 가재, 가정, 가정교사, 가정교육, 가정오랑캐, 가정적, 가정하다, 가져가다, 가져오다, 가족, 가족, 가족가방, 가족나무, 가족띠, 가족장갑, 가중되다, 가지, 가지, 가지, 가지, 가지가지, 가지기, 가지다, 가지런, 가지런하다, 가지런히, 가직이, 가짜, 가차, 가책, 가추럼, 가축, 가출, 가치, 가치관, 가칠, 가타, 가타부타, 가탈, 가탈걸음, 가터, 가톨릭, 가파르다, 가팔막, 가풀막, 가하다, 가해자, 가혹하다, 가회톱, 가히, 각, 각각, 각계, 각광, 각국, 각근하다, 각급, 각기, 각다귀, 각다귀판, 각단, 각담, 각도, 각료, 각목, 각반, 각별하다, 각본, 각색, 각서, 각석, 각선미, 각설, 각설이, 각성, 각시, 각시취, 각오, 각위, 각의, 각자, 각종, 각지, 각하, 각혈, 간, 간, 간간대소, 간간대소하다, 간간이, 간간하다, 간거리, 간격, 간곡, 간과, 간과하다, 간다개, 간단, 간단하다, 간단히, 간담회, 간대로, 간두다, 간드레, 간들간들하다, 간들어지다, 간발, 간밤, 간병인, 간부, 간사, 간석지, 간선, 간섭, 간섭하다, 간수, 간수, 간수하다, 간식, 간신히, 간자말, 간장, 간절하다, 간절히, 간접, 간접적, 간정하다, 간조, 간주, 간주되다, 간주하다, 간지다, 간지럽다, 간직, 간직하다, 간질이, 간짜장, 간첩, 간취하다, 간친회, 간택하다, 간통, 간판, 간편하다, 간호, 간호부, 간호원, 간호하다, 간혹, 갇히다, 갈, 갈거미, 갈건, 갈고랑막대기, 갈고랑이, 갈고리, 갈기, 갈기, 갈기다, 갈기다, 갈까마귀, 갈꽃, 갈다, 갈다, 갈다, 갈다, 갈대, 갈대밭, 갈등, 갈라내다, 갈라람, 갈라지다, 갈래, 갈리다, 갈리다, 갈리다, 갈림길, 갈마, 갈마들다, 갈마들이다, 갈마만다라, 갈망,

갈망하다, 갈매기, 갈매나무, 갈맷빛, 갈모, 갈무리, 갈무리하다, 갈무리, 갈물, 갈바람, 갈
 범, 갈보, 갈비, 갈비뼈, 갈비찜, 갈색, 갈수록, 갈아입다, 갈았하다, 갈외, 갈음, 갈음하다,
 같이, 같이틀, 갈증, 갈지개, 갈지게, 갈청, 갈치, 갈퀴, 갈퀴질하다, 갈포, 갈피, 갈피, 갈하
 다, 값다, 감, 감, 감각, 감격, 감기, 감기다, 감기다, 감기다, 감기다, 감나무, 감다, 감다,
 감다, 감다, 감다, 감당하다, 감독, 감독관, 감독하다, 감돌다, 감동, 감동적, 감람나무, 감
 모, 감발, 감방, 감별, 감봉, 감빨다, 감사, 감사장, 감사하다, 감상, 감상문, 감상적, 감상하
 다, 감성, 감소, 감소되다, 감소하다, 감수하다, 감시하다, 감싸다, 감아쥐다, 감안하다, 감
 염, 감옥, 감응, 감자, 감정, 감제풀, 감주, 감지하다, 감질, 감질나다, 감쪽같다, 감쪽같이,
 감추다, 감축, 감치다, 감탄, 감탄사, 감탄하다, 감탕, 감투, 감투밥, 감파랗다, 감파르다, 감
 풀, 감행하다, 감화원, 감히, 갑, 갑갑하다, 갑곶, 갑옷, 갑이별, 갑자기, 갑작스럽다, 갑작스
 레, 갑절, 갑판, 값, 값비싸다, 값싸다, 값어치, 값지다, 갓, 갓, 갓, 갓걸이, 갓김치, 갓끈,
 갓난아이, 갓난이, 갓도래, 갓머리, 갓밭이, 갓벼섯, 갓장이, 갓집, 강, 강가, 강강술래, 강
 경, 강구하다, 강권, 강남, 강낭콩, 강냉이, 강다짐, 강다짐하다, 강단, 강당, 강도, 강력, 강
 력하다, 강력히, 강렬하다, 강령, 강마르다, 강물, 강변, 강사, 강산, 강샘, 강술, 강습, 강습
 생, 강습소, 강습하다, 강습회,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풀, 강아지풀, 강연, 강연회,
 강요하다, 강의, 강의실, 강점, 강정, 강제, 강조, 강조되다, 강조하다, 강좌, 강철, 강피, 강
 필, 강하다, 강행군, 강행하다, 강호, 강화, 강화되다, 강화하다, 갓가지, 갓갓, 갓다, 갓바
 치, 갓신, 갓옷, 갓은, 갓저고리, 갓추, 갓추다, 갓풀, 갓, 같다, 같이, 같이하다, 같잡다, 같
 다, 개, 개, 개, 개개다, 개개비, 개개인, 개고기, 개고마리, 개골창, 개팔, 개구리, 개구리갓,
 개구리발톱, 개구리밥, 개구리참외, 개구쟁이, 개국, 개그, 개그맨, 개나리, 개날, 개냄, 개
 다, 개다, 개다, 개다, 개떡, 개똥벌레, 개량, 개런티, 개론, 개막, 개머리, 개명, 개미, 개미,
 개미구멍, 개미허리, 개바자, 개발, 개발되다, 개발하다, 개발바라기, 개방, 개방되다, 개방
 하다, 개버딘, 개벼룩, 개벽, 개별, 개별성, 개별적, 개봉, 개봉되다, 개봉심, 개봉알꽃, 개봉
 알풀, 개비, 개뿔, 개사망, 개살이, 개새끼, 개선, 개선되다, 개선문, 개선하다, 개설, 개설하
 다, 개성, 개수, 개수통, 개숫물, 개시, 개씨바리, 개암, 개암나무, 개암들다, 개업, 개오동나
 무, 개울, 개울가, 개원, 개의, 개이파리, 개인, 개인적, 개입, 개입하다, 개자하다, 개잘량,
 개장, 개장국, 개전, 개정, 개정되다, 개정판, 개정하다, 개조, 개조하다, 개종, 개지, 개지
 네, 개진, 개짐, 개차반, 개찰구, 개척, 개척하다, 개천, 개체, 개초, 개최, 개최되다, 개최하
 다, 개키다, 개판, 개필, 개편, 개편하다, 개평, 개표, 개풀, 개학, 개향, 개향장, 개헌, 개혁,
 개혁가, 개혁하다, 개호주, 개화, 개화장, 개회, 개회사, 개회식, 개흙, 객관, 객관적, 객석,
 객실, 객실, 객쩍다, 객차, 객체, 객초, 객혈, 객러리, 객런, 객, 갯물, 갯버들, 갯벌, 갯, 갯
 도, 갯목, 갯스티, 가름하다, 가름하다, 가우똥하다, 가웃, 가웃가웃하다, 가웃거리다, 거간,
 거기, 거꾸러지다, 거꾸러트리다, 거꾸로, 거느리다, 거닐다, 거대, 거대하다, 거덜, 거동, 거
 두다, 거두어들이다, 거동, 거드럭대다, 거드름, 거들, 거들다, 거들다, 거듬, 거듬, 거듬하
 다, 거란, 거랑, 거래, 거래되다, 거래소, 거량, 거러지, 거렁뱅이, 거론되다, 거론하다, 거
 루, 거루다, 거룩하다, 거룩히, 거룻배, 거류지, 거르다, 거르다, 거름, 거름하다, 거리, 거
 리, 거리거리, 거리끼다, 거리치, 거머리, 거멀못, 거명, 거뭇다, 거무스름하다, 거무죽죽하
 다, 거문고, 거물거리다, 거물거물, 거뭇거뭇, 거뭇거뭇하다, 거뭇하다, 거미, 거미줄, 거반,
 거부, 거부감, 거부하다, 거부, 거부꼬리, 거부선, 거부하다, 거사, 거상하다, 거세, 거세다,
 거스러미, 거스러지다, 거스르다, 거스름돈, 거슬리다, 거시적, 거실, 거액, 거여목, 거우다,

거우르다, 거울, 거울집, 거울집, 거웃, 거위, 거위, 거의, 거의, 거인, 거적, 거적자리, 거절하다, 거점, 거주, 거주지, 거주하다, 거죽, 거죽, 거즈, 거지, 거짓, 거짓되다, 거짓말, 거짓말하다, 거창하다, 거쳐, 거치, 거치다, 거치하다, 거칠다, 거침없이, 거탈, 거푸, 거푸집, 거풀, 거품, 거하다, 거행하다, 걱정, 걱정꾸러기, 걱정되다, 걱정스럽다, 걱정하다, 건, 건강, 건강하다, 건건이, 건국, 건너, 건너가다, 건너가다, 건너다, 건너뛰다, 건너오다, 건너편, 건넌방, 건넌목, 건네다, 건네주다, 건달, 건달바, 건달뱅이, 건더기, 건도, 건드리다, 건땅, 건립, 건물, 건반, 건방지다, 건뽕, 건사하다, 건설, 건설되다, 건설하다, 건성, 건수, 건의, 건의하다, 건전지, 건전하다, 건조, 건조기, 건조하다, 건줄, 건지, 건지다, 건축, 건축가, 건축물, 건축하다, 건치, 건다, 건다, 건다, 건어들다, 건어잡다, 건어지르다, 건잡다, 건히다, 걸, 걸객, 걸걸하다, 걸군, 걸군하다, 걸귀, 걸근걸근하다, 걸다, 걸다, 걸때, 걸러뛰다, 걸레, 걸리다, 걸리다, 걸림돌, 걸맞다, 걸머지다, 걸상, 걸쇠, 걸쇠, 걸스카우트, 걸식, 걸신들리다, 걸았다, 걸어가다, 걸어왔다, 걸어오다, 걸우다, 걸음, 걸음, 걸음걸이, 걸음마, 걸작, 걸짜, 걸쭉하다, 걸치다, 걸타다, 걸터앉다, 걸핏하면, 검기다, 검다, 검댕, 검박, 검버섯, 검부나무, 검부잣불, 검불, 검불다, 검사원, 검색, 검속, 검시, 검역, 검열, 검은기, 검은데기, 검은색, 검은옻, 검은자위, 검은콩, 검은팔, 검인, 검정, 검증, 검지, 검찰, 검토, 검토하다, 검팽나무, 검푸르다, 검화, 검흐르다, 겁, 겁꾸러기, 겁나다, 겁내다, 겁먹다, 겁탈하다, 것, 경금, 걸, 걸보리, 걸썰, 걸잡다, 걸절이, 걸조, 게, 게, 게걸, 게걸스럽다, 게다, 게다가, 게로기, 게릴라, 게시문, 게시판, 게우다, 게으르다, 게을리, 게임, 게재, 게재되다, 게재하다, 게점, 게트림, 겨, 겨끔내기, 겨냥, 겨냥하다, 겨누다, 겨드랑, 겨드랑이, 겨레, 겨루다, 겨를, 겨름대, 겨리, 겨린, 겨릿소, 겨우, 겨우, 겨우내, 겨우살이, 겨우살이, 겨울, 겨울날, 겨울철, 겨자, 겨자씨, 격, 격구, 격납, 격동, 격려, 격려하다, 격렬하다, 격상, 격식, 격언, 격자문, 격전장, 격지, 격차, 격하, 꺾다, 꺾이, 견고하다, 견과, 견디다, 견디다, 견문, 견본, 견습, 견습생, 견습원, 견양, 견적, 견적서, 견제, 견제하다, 견주다, 견지, 견지하다, 견책, 견출지, 견치, 견칫돌, 견학, 견해, 견고틀다, 견다, 견지르다, 결, 결과, 결과적, 결국, 결단, 결단코, 결단하다, 결따마, 결판, 결론, 결리다, 결부되다, 결사, 결사대, 결산, 결석, 결석하다, 결성되다, 결성하다, 결승, 결실, 결심, 결심하다, 결여되다, 결은신, 결의, 결재, 결전, 결점, 결정, 결정권, 결정되다, 결정자, 결정적, 결정짓다, 결정하다, 결제, 결찌, 결코, 결투, 결함, 결합, 결합되다, 결합하다, 결혼, 결혼식, 결혼하다, 겸, 겸손하다, 겸하다, 겹, 겹겹이, 겹다, 겹다, 겹바지, 겹웃, 겹이불, 겹치다, 꺾불, 경각, 경계, 경계선, 경계하다, 경고하다, 경공업, 경과, 경관, 경기, 경기도, 경기병, 경기장, 경내, 정도, 경력, 경련, 경례, 경로, 경마, 경마장, 경매, 경박하다, 경비, 경비원, 경사, 경상, 경상도, 경시청, 경영, 경영권, 경영인, 경영자, 경영하다, 경우, 경원, 경위, 경자마지, 경작지, 경쟁, 경쟁력, 경쟁률, 경쟁심, 경쟁적, 경쟁하다, 경전, 경제, 경제력, 경제적, 경제학자, 경주, 경찰, 경찰관, 경찰력, 경찰서, 경찰, 경축, 경축일, 경치, 경치다, 경치다, 경쾌하다, 경하, 경합, 경향, 경험, 경험하다, 경험, 경화, 결, 결눈질, 결두리, 결들이다, 결방, 계, 계곡, 계급, 계기, 계단, 계란, 계명, 계명산천, 계몽, 계산, 계산기, 계산대, 계산서, 계산하다, 계상하다, 계선, 계속, 계속되다, 계속적, 계속하다, 계승자, 계승하다, 계시, 계시다, 계시다, 계약, 계엄, 계엄령, 계열, 계열사, 계열, 계장, 계열, 계열품, 계정, 계좌, 계집, 계집년, 계집아이, 계집애, 계집종, 계집질, 계층, 계통, 계획, 계획되다, 계획적, 계획하다, 겹시다, 고, 고, 고가, 고개, 고개, 고개, 고객, 고갱이, 고거, 고고, 고고성, 고고지성, 고공, 고공살이, 고괴하다, 고교, 고구

과열, 과외, 과일, 과잉, 과자, 과장, 과장되다, 과정, 과제, 과줄, 과판, 과판, 과학, 과학자, 과학적, 객취, 관, 관객, 관건, 관계, 관계되다, 관계없이, 관계자, 관계하다, 관광, 관광객, 관념, 관능, 관대하다, 관동팔경, 관두다, 관디, 관람, 관람객, 관람하다, 관련, 관련되다, 관련자, 관련하다, 관례, 관료, 관리, 관리자, 관리하다, 관뎀, 관목, 관문, 관민, 관배자, 관보, 관서팔경, 관성, 관세, 관세음보살, 관솔, 관습, 관심, 관심사, 관여하다, 관영, 관자놀이, 관장하다, 관점, 관조, 관중, 관직, 관찰, 관찰하다, 관청, 관측, 관측되다, 관하다, 관할, 관행, 관헌, 관혼상제, 팔시, 팔호, 광, 광경, 광고, 광고비, 광기, 광대, 광대나물, 광대뼈, 광대싸리, 광맥, 광물, 광범위하다, 광복, 광부, 광산, 광산물, 광석, 광선, 광업, 광역, 광우리, 광의, 광장, 광저기, 광주리, 광주리, 광택, 광패하다, 광활하다, 쾌도, 쾌씸하다, 쾌씸히, 쾌종, 쾌지, 괜찮다, 괜히, 켜이, 켜이, 괴나리, 괴나리봇짐, 괴다, 괴다, 괴다, 괴다, 괴로움, 괴로워하다, 괴로이, 괴롭다, 괴롭히다, 괴머리, 괴물, 괴발개발, 괴불나무, 괴상하다, 괴악하다, 괴이다, 괴이찮다, 괴찮다, 괴춤, 괴팍하다, 꺾, 꺾장하다, 꺾장히, 교가, 교감, 교과, 교과목, 교과서, 교구, 교단, 교도관, 교도소, 교량, 교류, 교리, 교만하다, 교묘하다, 교무실, 교문, 교복, 교사, 교서, 교섭, 교수, 교습소, 교실, 교양, 교역, 교우, 교원, 교육, 교육계, 교육비, 교육자, 교육청, 교인, 교장, 교재, 교전, 교정, 교제, 교직원, 교차, 교차하다, 교체, 교체하다, 교칙, 교통, 교통사고, 교편, 교포, 교합, 교환, 교환하다, 교황, 교회, 교훈, 구, 구간, 구경, 구경꾼, 구경하다, 구교, 구구단, 구근, 구금, 구기, 구기, 구기, 구기다, 구김살, 구단, 구더기, 구뎀다, 구덩이, 구도, 구독, 구두, 구두, 구두선, 구두쇠, 구두장이, 구들, 구라파, 구락부, 구랍, 구력, 구령, 구령말, 구령이, 구령찰, 구레나룻, 구룡단, 구루마, 구르다, 구르다, 구름, 구름다리, 구리, 구리다, 구린내, 구릿대, 구매, 구멍, 구멍가게, 구매, 구매, 구매밥, 구매혼인, 구면, 구문, 구물거리다, 구물구물, 구물구물하다, 구미, 구반다, 구배, 구별, 구별되다, 구별하다, 구부러지다, 구부리다, 구분, 구분되다, 구분하다, 구뵤하다, 구쁘다, 구사하다, 구상, 구석, 구석구석, 구석기, 구성, 구성되다, 구성원, 구성체, 구성하다, 구세, 구세계, 구속, 구속되다, 구속력, 구속하다, 구수담, 구수하다, 구슬, 구슬갓끈, 구슬쟁기, 구식, 구실, 구실, 구매하다, 구역, 구역, 구역나다, 구와가막사리, 구와꼬리풀, 구와말, 구와썹, 구와취, 구완, 구완하다, 구원, 구원하다, 구월, 구유, 구용젓, 구이, 구입, 구입하다, 구적, 구절, 구접, 구접스럽다, 구정물, 구제, 구조, 구조개, 구조물, 구조적, 구좌, 구주, 구지, 구지내, 구지람, 구천, 구청, 구체적, 구축, 구축하다, 구축함, 구치소, 구태여, 구푸리다, 구하다, 구한국, 구현, 구현하다, 구호, 국, 국가, 국가적, 국거리, 국경, 국고, 국교, 국권, 국기, 국내, 국내외, 국도, 국력, 국말이, 국면, 국무, 국무총리, 국문, 국민, 국민적, 국민학교, 국방, 국보, 국산, 국세, 국수, 국수나무, 국어, 국왕, 국외, 국으로, 국자, 국장, 국적, 국정, 국제, 국제적, 국제화, 국제, 국토, 국판, 국한되다, 국회, 국회의원, 군, 군가, 군것, 군것질, 군계일학, 군고구마, 군국주의, 군내, 군다리, 군대, 군데, 군데군데, 군림하다, 군말, 군밤, 군벌, 군부, 군부대, 군불, 군비, 군사, 군사력, 군사적, 군새, 군소리, 군속, 군수, 군식구, 군약, 군약대, 군인, 군자금, 군장, 군주, 군중, 군청, 군침, 군함, 군건하다, 군다, 군다, 군세다, 군어지다, 군이, 군히다, 굴, 굴갓, 굴다, 굴다, 굴다, 굴대, 굴뚝, 굴렁쇠, 굴레, 굴레미, 굴리다, 굴리다, 굴밤, 굴밤나무, 굶기, 굶다, 굶직이, 굶다, 굶주리다, 굶주림, 굶닐다, 굶뎀이, 굶실굶실, 굶적이다, 굶틀굶틀하다, 굶, 굶다, 굶다, 굶도리, 굶신굶신, 굶실굶실, 굶어보다, 굶이, 굶이굶이, 굶이지다, 굶적, 굶히다, 굶, 굶, 굶거리, 굶웃, 굶일, 굶하다, 궁구, 궁궁, 궁궁이, 궁궐, 궁극적, 궁글다, 궁금증, 궁금하다, 궁노루, 궁둥이,

궁리, 궁전, 궁형, 굿다, 권, 권능, 권당, 권력, 권력자, 권리, 권모술수, 권위, 권위주의, 권
 위주의적, 권유, 권유하다, 권총, 권투, 권하다, 권한, 궤련, 궤도, 궤변, 궤약하다, 궤적, 궤
 짝, 귀, 귀걸이, 귀고리, 귀국, 귀국하다, 귀금속, 귀납, 귀때, 귀때그릇, 귀때기, 귀뚜라미,
 귀뿔, 귀리, 귀머거리, 귀먹다, 귀밀, 귀밀털, 귀밤이술, 귀부인, 귀성, 귀신, 귀싸대기, 귀
 알, 귀양, 귀양살이, 귀예지, 귀엽다, 귀이개, 귀접이하다, 귀족, 귀중하다, 귀지, 귀찮다, 귀
 청, 귀통이, 귀틀집, 귀하다, 귀향, 귀향, 귀화, 꺾가, 꺾것, 꺾구멍, 꺾바퀴, 꺾밥, 꺾불, 꺾
 전, 규격, 규명, 규명하다, 규모, 규범, 규소, 규약, 규율, 규정, 규정되다, 규정하다, 규제,
 규제하다, 규칙, 규칙적, 균등, 균형, 그, 그간, 그같이, 그거, 그것, 그곳, 그글피, 그끄러께,
 그끄저께, 그끄제, 그나마, 그날, 그냥, 그네, 그녀, 그놈, 그느르다, 그늘, 그늘지다, 그다
 음, 그다지, 그대, 그대로, 그동안, 그득하다, 그때, 그때그때, 그라운드, 그라인더, 그랑프
 리, 그래, 그래도, 그래도, 그래서, 그래프, 그램, 그러께, 그러나, 그러내다, 그러니까, 그러
 다, 그러담다, 그러면, 그러므로, 그러쥬다, 그러하다, 그럭저럭, 그런, 그런고로, 그런대로,
 그런데, 그런즉, 그럴듯하다, 그럴싸하다, 그림, 그렁그렁하다, 그렁저렁, 그렇게, 그렇다,
 그렇지, 그렇지만, 그렁, 그로기, 그로테스크, 그루, 그루콩, 그루터기, 그롭, 그르다, 그르치
 다, 그릇, 그릇되다, 그릇하다, 그리, 그리, 그리고, 그리다, 그리다, 그리되다, 그리로, 그리
 마, 그리메, 그리스도, 그리스도교, 그리움, 그리워하다, 그리저리, 그리하다, 그리하다, 그
 리하여, 그린벨트, 그릴, 그림, 그림자, 그림다, 그만, 그만, 그만두다, 그만저만하다, 그만
 치, 그만큼, 그만하다, 그만하다, 그맘때, 그물, 그물그물하다, 그물눈, 그물코, 그물통, 그
 뭍, 그뭍께, 그뭍날, 그뭍달, 그뭍밤, 그분, 그빨로, 그사이, 그슬리다, 그슬리다, 그악하다,
 그야, 그야말로, 그어주다, 그예, 그옥이, 그옥하다, 그을다, 그을리다, 그을리다, 그을음, 그
 이, 그저, 그저께, 그적, 그전, 그제, 그제서야, 그제야, 그중, 그즈음, 그지없다, 그지없이,
 그쪽, 그치다, 그토록, 그해, 극단, 극단적, 극도, 극동, 극렬, 극명하다, 극복, 극복하다, 극
 본, 극소수, 극심하다, 극작가, 극장, 극적, 극점, 극좌, 극한, 극화, 극히, 근거, 근거하다,
 근거점하다, 근거, 근거이, 근거하다, 근대, 근대나물, 근대적, 근대화, 근덕이다, 근데, 근동,
 근래, 근로, 근로자, 근로하다, 근무, 근무하다, 근본, 근본적, 근사하다, 근세, 근시, 근시
 안, 근실근실하다, 근심, 근심되다, 근심스럽다, 근심하다, 근원, 근원적, 근육, 근일, 근접,
 근처, 글, 글경이, 글경이질하다, 글귀, 글쑤다, 글라이더, 글래머, 글러브, 글로브, 글리, 글
 썰, 글썰요, 글쓰기, 글썩이, 글씨, 글월, 글자, 글재주, 글줄, 글짓기, 글피, 글하다, 글개,
 굶다, 굶히다, 금, 금, 금강석, 금강초롱, 금계랍, 금고, 금광, 금기, 금나다, 금난초, 금년,
 금리, 금메달, 금방, 금붕어, 금성, 금세, 금세기, 금속, 금수강산, 금승말, 금시, 금시계, 금
 실, 금액, 금연, 금요일, 금융, 금융권, 금은방, 금은화, 금자탑, 금전, 금줄, 금지, 금지되다,
 금지하다, 금품, 금하다, 금혼식, 급, 급격하다, 급격히, 급급하다, 급기야, 급사, 급성, 급속
 하다, 급속히, 급식, 급여, 급자기, 급작스레, 급제, 급제하다, 급증하다, 급진적, 급하다, 급
 히, 굿다, 긍정, 긍정적, 금지, 긍하다, 글, 기가, 기간, 기계, 기계적, 기고, 기공, 기관, 기
 관사, 기관차, 기관총, 기교, 기구, 기권, 기근, 기금, 기기, 기꺼워하다, 기꺼이, 기꺼하다,
 기껍다, 기껏해야, 기념, 기념물, 기념비, 기념식, 기념일, 기념하다, 기능, 기니피그, 기다,
 기다랗다, 기다리다, 기대, 기대감, 기대다, 기대되다, 기대하다, 기도, 기도하다, 기독, 기독
 교, 기둥, 기둥뿌리, 기득권, 기라성, 기량, 기러기, 기록, 기록되다, 기록하다, 기룡, 기룡하
 다, 기류, 기르다, 기름, 기름, 기름기, 기름내, 기름지다, 기름하다, 기리다, 기린, 기막히
 다, 기망, 기망하다, 기묘하다, 기미, 기미, 기미, 기미, 기밀, 기반, 기발하다, 기법, 기별,

기별지, 기병, 기본, 기본권, 기본적, 기부, 기부금, 기본, 기빠하다, 기쁘다, 기쁨, 기사, 기
상, 기상대, 기색, 기생, 기생충, 기선, 기성, 기성세대, 기세, 기수, 기숙사, 기술, 기술자,
기술적, 기술하다, 기스, 기스락, 기슭, 기슭, 기아, 기약, 기안, 기압, 기압계, 기약, 기여,
기어가다, 기여들다, 기여이, 기여코, 기억, 기억나다, 기억되다, 기억력, 기억하다, 기염기
염, 기업, 기업가, 기업인, 기업체, 기여, 기여하다, 기억, 기여, 기온, 기와, 기와꼴, 기와집,
기요틴, 기우, 기우듬하다, 기우똥기우똥, 기우똥하다, 기운, 기울, 기울기, 기울다, 기울어
지다, 기울이다, 기웃거리다, 기웃기웃, 기웃기웃하다, 기웃이, 기웃하다, 기원, 기원전, 기
원하다, 기이다, 기이하하다, 기인하다, 기입, 기자, 기장, 기장밥, 기장쌀, 기장차다, 기저귀,
기적, 기절, 기절하다, 기점, 기제, 기조, 기존, 기준, 기준, 기준기, 기준, 기준하다, 기지개,
기지개하다, 기직, 기질, 기차, 기차표, 기척, 기체, 기초, 기초하다, 기취, 기침, 기침하다,
기타, 기틀, 기판, 기피하다, 기하다, 기합, 기현상, 기형, 기호, 기회, 기획, 기획하다, 기후,
긴가민가, 긴가민가하다, 긴급, 긴나라, 긴밀하다, 긴장, 긴장감, 긴장되다, 긴장하다, 긴다,
길, 길, 길가, 길거리, 길경이, 길다, 길다, 길들다, 길들이다, 길라잡이, 길라잡이, 길마, 길
맛가지, 길목, 길물, 길미, 길벗, 길사람, 길썰, 길속, 길쌈, 길쌈하다, 길어지다, 길이, 길이,
길일, 길잡이, 길짐승, 길찍이, 길차다, 길치, 김, 김, 김, 김, 김, 김매다, 김밥, 김알지, 김
장, 김치, 김, 김다, 김스, 김웃, 김체, 깃, 깃, 깃, 깃, 깃다, 깃대, 깃들다, 깃들이다, 깃발, 깃
웃, 깃다, 깃속이, 깃속하다, 깃이, 깃이, 깃이다, 까까머리, 까꾸, 까끄라기, 까나리, 까다,
까다, 까다롭다, 까닭, 까라지다, 까라지다, 까마귀, 까마득하다, 까마종이, 까막까치, 까망,
까망다, 까뭇까뭇, 까부르다, 까부르다, 까불다, 까불다, 까지, 까짓, 까치, 까치놀, 까치무
룻, 까치설, 까치설날, 까투리, 까풀, 깍깍하다, 깍두기, 깍듯이, 깍듯하다, 깍쟁이, 깍정이,
깍지, 깍지, 깍다, 깍다, 깍이다, 깍이다, 깍이다, 깍, 깍깍하다, 깍풍기, 깍개, 깍깍, 깍깍하
다, 깍깍하다, 깍끔깍끔, 깍끔하다, 깍다, 깍다, 깍따구, 깍딱깍딱, 깍때기, 깍리다, 깍밋잡
다, 깍보다, 깍종, 깍축없다, 감감하다, 감냥, 감박감박, 감박이다, 감부기, 감부기, 감작, 감
작감작, 감작감작하다, 감작이다, 감작하다, 감짝, 감찍하다, 감죽대다, 감그리, 감강, 감통,
감패, 깨, 깨끗이, 깨끗하다, 깨다, 깨다, 깨다, 깨닫다, 깨달음, 깨물다, 깨어나다, 깨어지
다, 깨우다, 깨우치다, 깨지다, 깨치다, 깨트리다, 깨묵, 꺼내다, 꺼내리다, 꺼당기다, 꺼두르
다, 꺼들다, 꺼들이다, 꺼리다, 꺼림하다, 꺼병이, 꺼병하다, 꺼병이, 꺼오다, 꺼올리다, 꺼지
다, 꺼지다, 꺼풀, 꺾꺾, 꺾꺾하다, 꺾저기, 꺾지다, 꺾꽃이, 꺾다, 꺾다, 꺾쇠, 꺾어지다, 꺾
이다, 꺾이다, 꺾꺾, 꺾꺾하다, 꺾, 꺾데기, 꺾질, 꺾, 꺾, 꺾서, 꺾들다, 꺾붙들다, 꺾안다,
꺾입다, 꼬느다, 꼬느다, 꼬다, 꼬락서니, 꼬랑이, 꼬랑지, 꼬리, 꼬리뺨, 꼬리치마, 꼬마, 꼬
박, 꼬봉, 꼬이다, 꼬장꼬장, 꼬집다, 꼬챙이, 꼬치, 꼬치구이, 꼬치꼬치, 꼬투리, 꼭, 꼭, 꼭
대기, 꼭두각시, 꼭두머리, 꼭두서니, 꼭둑각시, 꼭뒤, 꼭쇠, 꼭지, 꿇다, 풀, 풀, 풀갈잡다,
풀답잡다, 풀두기, 풀불견, 풀찌, 풀통, 꼼꼼하다, 꿈수, 꿈짝, 꿈다, 꿈사리, 꿈추, 꿈히다,
꽃꽃이, 꽃꽃이, 꽃꽃하다, 꿈꿈, 꿈무늬, 꿈지, 꿈치, 꽃다, 꽃다, 꽃히다, 꽃히다, 꽃, 꽃가
지, 꽃게, 꽃나무, 꽃다지, 꽃달임, 꽃답다, 꽃병, 꽃봉오리, 꽃봉오리, 꽃부리, 꽃비, 꽃샘,
꽃송이, 꽃술, 꽃잎, 꽃제비, 파리, 파배기, 팍, 팍팍, 팔팔, 팟팟하다, 팡, 팡팡, 꽤, 팡과리,
꽤, 꽤꼬리, 꽤다, 꽤배, 꽤병, 꽤쓰다, 꽤하다, 꾸다, 꾸다, 꾸러기, 꾸러미, 꾸리, 꾸리다,
꾸물대다, 꾸미, 꾸미다, 꾸벽꾸벽, 꾸벽이다, 꾸불꾸불, 꾸역꾸역, 꾸이다, 꾸정꾸정하다,
꾸준하다, 꾸준히, 꾸중, 꾸중하다, 꾸지, 꾸지나무, 꾸지람, 꾸지람하다, 꾸짖다, 꼭, 꼭꼭,
꾼, 꿀, 꿀꺽, 꿀꺽꿀꺽, 꿀꿀, 꿀꿀하다, 꿀내기, 꿀떡, 꿀물, 꿀밤, 꿀벌, 꿀송이, 꿀다, 꿀

앓다, 끓어앓다, 꿈, 꿈같다, 꿈같이, 꿈꾸다, 꿈밖, 꿈속, 꿈자리, 꿈적꿈적, 꿈적꿈적하다, 꿈적이다, 꿈틀거리다, 꿈틀꿈틀, 곳곳하다, 궁궁, 꿍, 꿍의다리, 꿍의밥, 꿍다, 꿍뚫다, 꿍뚫다, 꿍뚫리다, 꿍미, 꿍이다, 꿍지르다, 꺾다, 꺾다, 꺾나풀, 꺾다, 꺾다, 꺾다, 꺾덕꺾덕하다, 꺾덕이다, 꺾르다, 꺾숙이다, 꺾잡다, 꺾집다, 꺾집어내다, 꺾트러기, 꺾트머리, 끈, 끈끈하다, 끈질기다, 끓기다, 끓다, 끓어지다, 끓이다, 끓임없다, 끓임없이, 끌, 끌끌, 끌다, 끌려가다, 끌리다, 끌신, 끌어가다, 끌어내다, 끌어당기다, 끌어들이다, 끌어안다, 끌어오다, 끌어올리다, 끌줄, 끌질하다, 끌채, 끌탕하다, 끓다, 끓이다, 끄적끔적, 끄적이다, 끄찍하다, 낄, 낄다, 끝, 끝, 끝나다, 끝내, 끝내, 끝내다, 끝없다, 끝없이, 끝장, 끼, 끼, 끼니, 끼다, 끼다, 끼리, 끼리끼리, 끼무릇, 끼어들다, 끼었다, 끼우다, 끼이다, 끼절가리, 끼치다, 낚새, 낚강, ㄴ, 나, 나, 나가다, 나귀, 나그네, 나긋나긋하다, 나나니, 나나니벌, 나날, 나날이, 나누다, 나누다, 나누다, 나누이다, 나눗셈, 나뉘다, 나뉘다, 나다, 나다, 나다니다, 나달, 나도밤나무, 나돌다, 나들다, 나들목, 나들이, 나들이하다, 나라, 나라미, 나락, 나란히, 나랏일, 나래, 나래질, 나루, 나루질하다, 나룻, 나룻가, 나룻배, 나르다, 나른하다, 나름, 나룻, 나리, 나리꽃, 나마, 나막신, 나머지, 나무, 나무, 나무꾼, 나무딸기, 나무라다, 나무뿌리, 나무새, 나무아미타불, 나무하다, 나물, 나물국, 나물밥, 나뭇가지, 나뭇결, 나뭇등결, 나뭇잎, 나뭇진, 나박김치, 나발, 나방, 나부끼다, 나부랭이, 나비, 나빠지다, 나쁘다, 나빠, 나사, 나서다, 나선, 나선형, 나수다, 나아가다, 나아오다, 나아지다, 나약하다, 나오다, 나왕, 나우, 나위, 나이, 나이테, 나이팅게일, 나이프, 나인, 나일론, 나절, 나중, 나지리, 나지막하다, 나직이, 나직하다, 나쪼다, 나찰, 나치, 나침반, 나타나다, 나타내다, 나탈나탈, 나틀, 나팔, 나팔꽃, 나프탈렌, 나한, 나흔날, 나흘, 낙관, 낙관하다, 낙뢰, 낙서, 낙성식, 낙수, 낙엽, 낙점, 낙제, 낙지, 낙타, 낙태, 낙하산, 낙화생, 낙화생, 낚다, 낚다, 낚시, 낚시, 낚시꾼, 낚시질하다, 낚싯대, 낚싯밥, 낚싯줄, 낚아채다, 낚, 난, 난간, 난감하다, 난달, 난데없다, 난데없이, 난로, 난리, 난민, 난방, 난벌, 난생처음, 난센스, 난야, 난자, 난장판, 난쟁이, 난전, 난젠완썩, 난처하다, 난추니, 낱, 낱가리, 낱알, 낱, 낱, 낱, 낱, 낱개, 낱개깃, 낱개깃, 낱갯죽지, 낱겉, 낱고기, 낱기와, 낱다, 낱다, 낱다람쥐, 낱뿔다, 낱라리, 낱래다, 낱로, 낱리다, 낱리다, 낱물, 낱밤, 낱벼락, 낱빔, 낱솟다, 낱씨, 낱아가다, 낱아가다, 낱아다니다, 낱아들다, 낱아오다, 낱아오다, 낱아오르다, 낱인, 낱집승, 낱짜, 낱치, 낱카롭다, 낱카롭다, 낱갑다, 낱콩, 낱큰하다, 낱파람, 낱포, 낱포, 낱다, 남, 남가새, 남과, 남극, 남기다, 남기다, 남녀, 남녘, 남다, 남다, 남다르다, 남도, 남동생, 남매, 남바위, 남방서츠, 남방아, 남부, 남북, 남빙양, 남사당, 남산골샌님, 남상, 남새, 남생이, 남성, 남양, 남용, 남우세스럽다, 남자, 남작, 남정네, 남진계집, 남짓, 남짓이, 남짓하다, 남쪽, 남편, 남포, 남포등, 남학생, 남, 남, 남거미, 남득, 남득하다, 남세, 남시다, 남작이, 남작하다, 남치, 남향날, 낯, 낯쟁기, 낯다, 낯다, 낯잡다, 낭독, 낭떠러지, 낭만, 낭비, 낭비하다, 낭성대, 낭자, 낭자군, 낭패, 낭패하다, 낯, 낯, 낯다, 낯밤, 낯잠, 낯추다, 낯, 낯가죽, 낯꽃, 낯빔, 낯설다, 낯익다, 낯, 낯날, 낯날이, 낯말, 낯다, 낯다, 낯다, 내, 내, 내, 내, 내, 내, 내가다, 내각, 내걸다, 내과, 내기, 내기, 내기하다, 내내, 내년, 내놓다, 내다, 내다, 내다보다, 내달다, 내던지다, 내두, 내란, 내려가다, 내려가다, 내려놓다, 내려다보다, 내려다보이다, 내려서다, 내려앉다, 내려오다, 내려오다, 내려지다, 내려지다, 내력, 내로라하다, 내륙, 내리, 내리누르다, 내리누르다, 내리다, 내리달다, 내리달다, 내리우다, 내리우다, 내리치다, 내립떠보다, 내면, 내미손, 내밀다, 내뺄다, 내버리다, 내보내다, 내보이다, 내부, 내부적, 내비치다, 내뿜다, 내색, 내세우다, 내수,

내송, 내쉬다, 내실, 내심, 내역, 내연, 내외, 내용, 내음, 내의, 내일, 내장, 내적, 내전, 내
 족다, 내정, 내주다, 내지, 내지르다, 내쫓기다, 내쫓다, 내쳐, 내치, 내치다, 내키다, 내포하
 다, 내풀로, 냄비, 냄새, 냄다, 냄뛰다, 냄뜨다, 냄킨, 넷가, 넷내, 넷물, 냉과리, 냉대, 냉동,
 냉면, 냉수마찰, 냉이, 냉장고, 냉정하다, 너, 너, 너구리, 너그럽다, 너끈하다, 너나들이, 너
 덜거리다, 너덧, 너력바위, 너르다, 너르다, 너름새, 너머, 너무, 너무나, 너무너무, 너백선,
 너비, 너비아니, 너삼, 너새, 너새, 너와, 너울, 너울, 너울너울, 너풀너풀, 너희, 녀, 녀가래,
 녀녀하다, 녀녀하다, 녀더듬이하다, 녀두리, 녀살, 녀장뽀다, 녀, 녀, 녀두리, 녀지시, 녀출,
 녀출지다, 녀, 녀, 녀다리, 녀따랑다, 녀뛰기, 녀뛰다, 녀리, 녀리다, 녀뺨지, 녀쪽, 녀다, 녀
 이, 녀적다리, 녀적하다, 녀히다, 녀겨보다, 녀겨주다, 녀기다, 녀기다, 녀나들다, 녀나물, 녀
 다, 녀다, 녀버원, 녀보다, 녀어가다, 녀어가다, 녀어서다, 녀어오다, 녀어지다, 녀치다, 녀
 적, 녀죽, 녀치, 녀, 녀할머니, 녀할아버지, 녀쿨, 녀다, 녀다, 네, 네, 네, 네거리, 네놈, 네
 다섯, 네댓, 네뚜리, 네모, 네모나다, 네미랄, 네온, 네온사인, 네트워크, 네티즌, 넥타, 넥타
 이, 넌다하다, 넌장맛을, 넷, 넷째, 녀석, 년, 년, 년기, 년대, 년도, 녀, 노, 노가다, 노가리,
 노가주, 노각나무, 노게임, 노골적, 노구, 노구술, 노끈, 노느다, 노느몹, 노니다, 노닐다, 노
 다지, 노동, 노동계, 노동력, 노동자, 노동조합, 노뚝돌, 노드리뚝, 노란색, 노랑, 노랑이, 노
 랑이, 노랑다, 노래, 노래, 노래기, 노래미, 노래방, 노래하다, 노랫소리, 노랑으로, 노려보
 다, 노력, 노력하다, 노루, 노루귀, 노루오줌, 노르다, 노른자, 노른자위, 노름, 노름꾼, 노름
 하다, 노릇, 노릇바치, 노리게, 노리다, 노린내, 노린재, 노면, 노목괘, 노박이로, 노비, 노
 사, 노상, 노상, 노새, 노서아, 노선, 노성하다, 노숙자, 노야기, 노여움, 노엽다, 노예, 노예
 제, 노을, 노이로제, 노익장, 노인, 노인정, 노자, 노장, 노적가리, 노점, 노정기, 노조, 노쳐
 녀, 노출되다, 노친, 노크, 노타이, 노트, 노틀, 노파리, 노파심, 노폐물, 노화, 녹나무, 녹다,
 녹다, 녹다운, 녹비, 녹색, 녹용, 녹음, 녹음하다, 녹이다, 녹이다, 녹지, 녹초, 녹화, 논, 논
 곡식, 논농사, 논다니, 논도랑, 논두렁, 논둑, 논란, 논리, 논리적, 논문, 논산, 논설, 논술,
 논스톱, 논의, 논의되다, 논의하다, 논쟁, 논점, 논증, 논지, 논평, 논하다, 논항, 놀, 놀, 놀
 다, 놀다, 놀라다, 놀랍다, 놀래다, 놀리다, 놀리다, 놀림, 놀부, 놀음놀이, 놀음놀이, 놀음놀
 이하다, 놀음놀이하다, 놀이, 놀이터, 놀이하다, 놀, 놀팡이, 낫, 낫그릇, 낫점, 농가, 농경,
 농경지, 농구, 농군, 농노, 농단, 농담, 농도, 농림, 농민, 농민군, 농부, 농사, 농산물, 농산
 품, 농성, 농소, 농약, 농어, 농어촌, 농업, 농익다, 농작물, 농장, 농정, 농지, 농촌, 높낮이,
 높다, 높다, 높드리, 높새, 높새바람, 높이, 높이, 높이다, 높이다, 높직이, 높다, 높다, 놓아
 두다, 놓아두다, 놓이다, 놓이다, 놓치다, 놔두다, 뇌, 뇌다, 뇌리, 뇌물, 뇌졸중, 뇌보, 누구,
 누구럽다, 누구하다, 누나, 누님, 누다, 누더기, 누드, 누령, 누령물, 누령다, 누룩, 누룩가
 루, 누룽지, 누르다, 누름적, 누리, 누리다, 누리다, 누린내, 누비, 누비다, 누비다, 누비바
 지, 누비웃, 누비흔인, 누에, 누에고치, 누에나비, 누에똥, 누에씨, 누역차조, 누이, 누이다,
 누이다, 누지다, 누치, 녹녹하다, 녹다, 녹이다, 눈, 눈, 눈, 눈, 눈가, 눈감다, 눈곱, 눈곱,
 눈구멍, 눈구석, 눈기이다, 눈길, 눈갈, 눈갈사탕, 눈꺼풀, 눈꼴, 눈독, 눈동자, 눈두덩, 눈뜨
 다, 눈망울, 눈멀다, 눈물, 눈병, 눈보라, 눈부시다, 눈부처, 눈비, 눈비음, 눈빛, 눈빛, 눈빛,
 눈살, 눈살, 눈섭, 눈시울, 눈썰미, 눈썹, 눈썹달, 눈앞, 눈엣가시, 눈여겨보다, 눈자라기, 눈
 자위, 눈초리, 눈치, 눈치코치, 높다, 놀려듣다, 놀리다, 놀리다, 놀은밥, 높다, 높다, 뉘,
 뉘, 뉘, 뉘앙스, 뉘우쁘다, 뉘우치다, 뉘웃다, 뉴스, 느긋하다, 느꺼이, 느껍다, 느끼, 느끼
 다, 느낌, 느낌표, 느닷없이, 느런히, 느루, 느릅나무, 느리다, 느림, 느슨하다, 느시, 느직느

직하다, 느직이, 느직하다, 느직하다, 느타리, 느티나무, 늑대, 늑장, 늑줄, 늘, 늘그막, 늘
 다, 늘리다, 늘씬하다, 늘어나다, 늘어놓다, 늘어서다, 늘어지다, 늘옴치래기, 늘이다, 늘큰
 늘큰, 늘품, 늙다, 늙다, 늙은이, 늙실늙실하다, 능가하다, 능간하다, 능갈치다, 능갈치다, 능
 그다, 능글능글, 능금, 능금, 능금나무, 능놀다, 능동적, 능력, 능률, 능수버들, 능숙하다, 능
 쟁이, 능지처참, 능청스럽다, 능히, 늦깎이, 늦다, 늦마, 늦추다, 늦추다, 늦, 늪, 니, 니스,
 니은, 니코틴, 님, 다, 다, 다가, 다가가다, 다가서다, 다가오다, 다갈솔, 다과회, 다국적, 다
 국적군, 다그다, 다그다, 다그치다, 다급하다, 다꾸앙, 다녀가다, 다녀오다, 다니다, 다다기,
 다다르다, 다다미, 다달이, 다대기, 다도해, 다듬다, 다듬이, 다듬이질, 다라니, 다라이, 다라
 지다, 다락, 다락방, 다락집, 다람쥐, 다랍다, 다랍다, 다랑귀, 다랑어, 다래, 다래, 다래끼,
 다래나무, 다랑, 다로기, 다루다, 다르다, 다른, 다름없다, 다름없이, 다릅나무,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다, 다리미, 다리살, 다리통, 다림, 다림줄, 다마, 다마네기, 다만, 다만, 다
 목, 다물다, 다발, 다방, 다방골잡, 다복다보기, 다복다복하다, 다복다복하다, 다복쑥, 다분
 히, 다비, 다사하다, 다섯, 다섯째, 다수, 다수결, 다스, 다스리다, 다스하다, 다습, 다습다,
 다시, 다시, 다시, 다시금, 다시다, 다시마, 다시피, 다식, 다알리아, 다양성, 다양하다, 다
 음, 다음, 다이너마이트, 다이를까, 다이버, 다이빙, 다이아몬드, 다이얼, 다정하다, 다조지
 다, 다쫓다, 다지다, 다질리다, 다짐, 다짐하다, 다짜고짜, 다짜고짜로, 다채롭다, 다치다, 다
 치다, 다크호스, 다투다, 다통, 다하다, 다행, 다행스럽다, 다행히, 다홍, 닥, 닥나무, 닥치
 다, 닦다, 단, 단결, 단계, 단계적, 단골, 단골집, 단군교, 단기, 단기적, 단꺼번에, 단꿈, 단
 내, 단너삼, 단단하다, 단단히, 단독, 단돈, 단두대, 단란, 단말마, 단맛, 단면, 단무지, 단봇
 짐, 단비, 단서, 단선, 단소, 단속, 단속하다, 단순, 단순하다, 단순히, 단술, 단숨에, 단어,
 단연, 단오, 단원, 단위, 단일, 단자, 단작하다, 단장, 단장고, 단장하다, 단적, 단전호흡, 단
 절, 단절되다, 단점, 단정하다, 단지, 단지, 단짜, 단체, 단체장, 단초, 단추, 단축, 단편, 단
 풍, 단행하다, 단호하다, 단화, 달다, 달다, 달아걸다, 달집, 달히다, 달, 달, 달, 달, 달강달
 강, 달개, 달갈, 달거리, 달거리, 달구, 달구다, 달구다, 달구리, 달구지, 달구질, 달구질하
 다, 달기씨개비, 달님, 달다, 달다, 달다, 달다, 달다, 달다, 달뜨다, 달라붙다, 달라지다, 달
 랑달랑, 달래, 달래다, 달려, 달려가다, 달려들다, 달려오다, 달력, 달리, 달리기, 달리다, 달
 리다, 달리아, 달리하다, 달마, 달맞이, 달맞이꽃, 달무리, 달밀, 달불이, 달빛, 달성, 달성하
 다, 달아나다, 달아나다, 달아오르다, 달음, 달음질, 달이다, 달창나다, 달콤하다, 달팽이, 달
 포, 달하다, 닭, 닭의똥, 닭의씻개비, 닭다, 닭다, 닭다, 닭, 닭그다, 닭그다, 닭기다, 닭기다,
 닭다, 닭당, 닭당자, 닭당하다, 닭박하다, 닭배, 닭뻗대, 닭벼락, 닭보, 닭비, 닭요, 닭임, 닭
 장, 닭쟁이, 닭판, 닭합, 닭, 닭다, 닭답하다, 닭답히, 닭답히, 닭변, 닭변하다, 닭사, 닭신,
 닭쌈이다, 닭쌈이다, 닭안, 닭하다, 닭, 닭곱, 닭새, 당, 당구, 당국, 당국자, 당기다, 당나귀,
 당내, 당달봉사, 당당하다, 당당히, 당대, 당도리, 당면, 당면하다, 당번, 당부하다, 당분간,
 당사자, 당선되다, 당선자, 당수, 당숙, 당시, 당신, 당신, 당연하다, 당연히, 당원, 당위성,
 당일, 당장, 당정, 당조짐, 당직, 당직자, 당찮다, 당초, 당파, 당하다, 당황하다, 닭, 닭줄,
 닭줄, 달다, 달다, 대, 대, 대가, 대가리, 대갈, 대갈뺨, 대감, 대감, 대강, 대강이, 대개, 대
 거, 대거리, 대견하다, 대결, 대고, 대공, 대교구, 대구, 대구탕, 대국, 대권, 대규모, 대그릇,
 대금, 대기, 대기업, 대기하다, 대껍질, 대꾸, 대꾸하다, 대나무, 대나무, 대낮, 대님, 대님,
 대다, 대다, 대다수, 대단찮다, 대단하다, 대단히, 대담, 대담하다, 대담, 대담하다, 대대로,
 대대적, 대도시, 대돈변, 대동여지도, 대두되다, 대들보, 대들보, 대등, 대등하다, 대뜸, 대

락, 대량, 대로, 대롱, 대롱, 대륙, 대륙붕, 대리, 대리석, 대리점, 대립, 대립되다, 대립하다, 대마, 대막대기, 대막리지, 대맥, 대머리, 대머리, 대목, 대문, 대발, 대변, 대변인, 대변하다, 대본, 대부분, 대북, 대비, 대비, 대비녀, 대비되다, 대비하다, 대사, 대사관, 대살, 대상, 대상자, 대서소, 대서양, 대서양, 대선, 대성, 대세, 대소변, 대수, 대수롭다, 대수롭다, 대승, 대시, 대신, 대신하다, 대안, 대야, 대야, 대야, 대양주, 대여섯, 대여섯, 대열, 대엿, 대엿새, 대왕, 대외, 대원군, 대응, 대응책, 대응하다, 대인, 대입, 대자연, 대장, 대장, 대장, 대장, 대장간, 대접, 대접하다, 대조, 대조적, 대종교, 대중, 대중문화, 대중음악, 대중적, 대중화, 대쪽, 대쪽, 대책, 대처, 대처하다, 대책, 대체, 대체로, 대체적, 대체하다, 대추, 대추, 대추나무, 대추씨, 대출, 대출하다, 대충, 대충, 대치, 대통령, 대패, 대패, 대패질, 대패하다, 대팻밥, 대포, 대포, 대폭, 대폭발, 대꽃술, 대표, 대표단, 대표작, 대표적, 대표하다, 대하다, 대학, 대학, 대학생, 대학원, 대한, 대한민국, 대합실, 대항, 대항하다, 대행, 대형, 대형화, 대화, 대화하다, 대회, 댁, 댄서, 댄스, 댄스홀, 댐, 댐싸리, 댐싸리, 댛가지, 댛구멍, 댛잎, 댛줄기, 댛기, 댛기풀이, 더, 더, 더구나, 더구나, 더군다나, 더그레, 더그레, 더기, 더께, 더넘, 더더욱, 더덕, 더덕, 더덕더덕, 더덕더덕하다, 더덜더덜하다, 더데, 더덩이, 더듬다, 더듬다, 더듬더듬, 더듬더듬하다, 더디, 더디다, 더디다, 더러, 더럽다, 더럽다, 더럽히다, 더레다, 더리다, 더미, 더버기, 더벽머리, 더부룩하다, 더부룩하다, 더부살이, 더부살이, 더북더북, 더불다, 더불다, 더없이, 더욱, 더욱, 더욱더, 더욱이, 더위, 더위, 더위잡다, 더위잡히다, 더위지기, 더위지기, 더떨개, 더하다, 더하다, 덕담, 덕목, 덕분, 덕석, 덕수, 덕장, 덕지덕지, 덕택, 던져두다, 던지다, 던지다, 덜, 덜, 덜다, 덜다, 덜덜, 덜렁덜렁, 덜렁이, 덜렁이다, 덜리다, 덜리다, 덜하다, 덤, 덤, 덤병거리다, 덤병대다, 덤병덤병, 덤병이다, 덤불, 덤비다, 덤터기, 덤핑, 덩다, 덩다, 덩적거리다, 뎃, 뎃게비, 뎃굿다, 뎃니, 뎃물, 뎃불이다, 뎃셈, 뎃없다, 뎃입다, 덩, 덩거칠다, 덩굴, 덩달다, 덩실덩실, 덩어리, 덩이, 덩치, 뎃, 뎃개, 뎃다, 뎃이다, 뎃치다, 데, 데굴데굴, 데다, 데다, 데려가다, 데려오다, 데리다, 데리다, 데릴사위, 데마고그, 데마고기, 데면데면하다, 데모, 데뷔, 데뷔하다, 데스마스크, 데우다, 데유, 데이지, 데이터베이스, 데이트하다, 데치다, 데카당스, 덴푸라, 뎃겉뎃겉, 뎃겉뎃겉하다, 뎃경거리다, 뎃뎃, 도, 도가, 도가니, 도거리, 도구, 도그마, 도금, 도급, 도기, 도깨비, 도깨비바늘, 도깨비부채, 도꼬마리, 도끼, 도나캐나, 도넛, 도닐다, 도달하다, 도대체, 도덕, 도덕성, 도덕적, 도도록하다, 도둑하다, 도둑, 도둑질, 도둑질하다, 도드리장단, 도떼기, 도떼기시장, 도라지, 도량, 도량이, 도랏, 도래, 도래, 도래매듭, 도래송곳, 도래하다, 도량, 도레미, 도련님, 도렷하다, 도령, 도로, 도롱고리, 도롱뇽, 도롱이, 도롱태, 도롱태, 도롱태, 도루묵, 도르다, 도르다, 도르래, 도르리, 도리, 도리깨, 도리깨질, 도리도리, 도리머리, 도리어, 도리질, 도린결, 도마, 도마뱀, 도망, 도망가다, 도망치다, 도말다, 도매, 도매금, 도매상, 도면, 도모하다, 도무지, 도무지, 도미, 도미노, 도박, 도발, 도붓장수, 도사리다, 도서, 도서관, 도서다, 도서다, 도서실, 도섭, 도섭스럽다, 도섭질, 도수, 도시, 도시락, 도심, 도약, 도와리, 도와주다, 도요새, 도우미, 도움, 도움말, 도입, 도입되다, 도입하다, 도자기, 도장, 도저히, 도적, 도전, 도전장, 도전하다, 도제, 도중, 도지개, 도지사, 도차지, 도착, 도착하다, 도쳐, 도청, 도타이, 도탑다, 도토리, 도톨밤, 도투라지, 도투락, 도투마리, 도피, 도형, 도회, 도회병, 도회지, 독, 독단, 독대, 독립, 독립국, 독립군, 독립되다, 독립심, 독립적, 독립하다, 독본, 독사, 독서, 독서가, 독수리, 독신, 독신녀, 독일, 독자, 독자적, 독장사구구, 독장수구구, 독재, 독점, 독점하다, 독지가, 독직, 독창, 독창적, 독트린, 독특하다, 독하다, 독

회, 돈, 돈가스, 돈건, 돈내기하다, 돈돌라리, 돈별이, 돈오, 돈오점수, 돈육, 돈저냐, 돈지갑, 돈다, 돈다, 돈보기, 돈보이다, 돈아나다, 돈우다, 돈치다, 돌, 돌, 돌격대, 돌계집, 돌고래, 돌공이, 돌구유, 돌곶, 돌그릇, 돌곶, 돌꽃, 돌나물, 돌날, 돌다, 돌다리, 돌덩이, 돌려주다, 돌리다, 돌리다, 돌매, 돌맹이, 돌무더기, 돌무덤, 돌미나리, 돌발, 돌보다, 돌부리, 돌부채, 돌부처, 돌비늘, 돌아가다, 돌아가다, 돌아내리다, 돌아내리다, 돌아다니다, 돌아다보다, 돌아들다, 돌아들다, 돌아보다, 돌아보다, 돌아서다, 돌아서다, 돌아오다, 돌연, 돌이키다, 돌입하다, 돌쩌귀, 돌파, 돌팔매, 돌팔매질, 돌팔이, 돌풍, 돔, 돛다, 돛바늘, 돛자리, 돛, 돛개, 돛개, 돛고리, 돛곳, 돛광, 돛구, 돛구권, 돛굴, 돛그라미, 돛그랑다, 돛글다, 돛급생, 돛기, 돛나다, 돛냥, 돛냥아치, 돛냥하다, 돛내, 돛넉, 돛맹이치다, 돛돛, 돛돛주, 돛돛하다, 돛떨어지다, 돛력, 돛료, 돛맹, 돛맹휴업, 돛명왕, 돛무, 돛무, 돛무니, 돛문, 돛문회, 돛물, 돛물원, 돛반자, 돛반하다, 돛방, 돛부, 돛산, 돛산, 돛상, 돛생, 돛서, 돛서남북, 돛서양, 돛시, 돛식물, 돛아, 돛아리, 돛아줄, 돛안, 돛안거, 돛양, 돛양인, 돛양화, 돛요, 돛원, 돛원되다, 돛원하다, 돛의, 돛의하다, 돛의학, 돛이, 돛이다, 돛일, 돛일시하다, 돛일하다, 돛자꽃, 돛작, 돛적, 돛전, 돛정, 돛조하다, 돛지, 돛짓달, 돛쪽, 돛참, 돛참하다, 돛창, 돛창생, 돛창회, 돛체, 돛치미, 돛티, 돛포, 돛학, 돛행, 돛행하다, 돛향, 돛, 돛대, 돛지, 돛지고기, 돛, 돛, 돛게, 돛놈, 돛다, 돛다, 돛다, 돛도록, 돛돌리다, 돛돌아가다, 돛돌아보다, 돛돌아오다, 돛메우기, 돛묻다, 돛살리다, 돛살아나다, 돛새기다, 돛술래잡다, 돛우, 돛잡다, 돛찾다, 돛풀이되다, 돛풀이하다, 돛매, 돛바람, 돛밥, 돛서리, 돛장, 돛박, 두, 두각, 두건, 두겁, 두견, 두견새, 두고두고, 두근거리다, 두근두근하다, 두꺼비, 두껍다, 두께, 두께, 두뇌, 두다, 두더지, 두덩, 두덩, 두두룩하다, 두두룩하다, 두둑, 두둑, 두둑두둑하다, 두둑이, 두둑하다, 두둔, 두드러기, 두드러지다, 두드리다, 두드리다, 두들기다, 두런두런하다, 두령, 두례, 두례박, 두렛줄, 두려움, 두려워하다, 두렵다, 두렷두렷하다, 두렷두렷하다, 두렷이, 두렷하다, 두루, 두루두루, 두루마기, 두루마리, 두루미, 두루춘풍, 두르다, 두르다, 두름, 두름성, 두름손, 두름, 두름나무, 두리기, 두리번거리다, 두말하다, 두멍, 두매, 두부, 두세, 두셋, 두어, 두엄, 두엣, 두여머조자기, 두타, 두터이, 두터이, 두텁다, 두텁다, 두통, 두통하다, 두, 두중개, 두덕, 두치, 두테, 두하다, 두화, 두화되다, 두, 두러리, 두러보다, 두러싸다, 두러싸이다, 두레, 두리다, 두째, 두, 두개두개, 두구미, 두굴레, 두그렇다, 두글다, 두우리, 두주리, 두지, 두지다, 두, 두, 두늦다, 두다, 두다, 두덮이다, 두돌다, 두돌아보다, 두따르다, 두떨어지다, 두버무리다, 두보다, 두서다, 두서다, 두섞다, 두섞이다, 두섞이다, 두안, 두안길, 두영키다, 두옹박, 두잇다, 두적두적, 두적두적하다, 두적이다, 두젓다, 두쫓다, 두죽박죽, 두지, 두지다, 두지다, 두집다, 두집어쓰다, 두집히다, 두쪽, 두척이다, 두축, 두치다, 두통수, 두트기, 두틀다, 두틀다, 두틀리다, 두틀어지다, 두편, 두풀이, 두흔들다, 두쓰다, 두간, 두갱기, 두골목, 두나무, 두다리, 두다리, 두돈, 두동산, 두면, 두모습, 두문, 두물, 두물하다, 두받침되다, 두받침하다, 두발, 두발, 두방, 두산, 두자락, 두짐, 두굴다, 두오, 두나들다, 두난살이, 두디어, 두디어, 두라이버, 두라이브, 두러나다, 두러나다, 두러내다, 두러내다, 두러늬다, 두름, 두렁허리, 두레, 두레박, 두레스, 두롭스, 두리다, 두리우다, 두릴, 두림, 두림셈, 두링크, 두물다, 두므, 두스하다, 두습다, 두오, 두잡이, 두점, 두하다, 두든하다, 두별, 두손, 두기, 두다, 두다, 두잡다, 두, 두것, 두기름, 두깨, 두깨, 두나물, 두다, 두다, 두다, 두다, 두뜨다, 두뜨다, 두락날락하다, 두러리, 두레다, 두려오다, 두려주다, 두르다, 두리다, 두리다, 두리다, 두리다, 두먹이다, 두매, 두메나무, 두메다, 두무새, 두보, 두보, 두씩

들썩하다, 들썩이다, 들썩하다, 들썩대다, 들썩날썩, 들어가다, 들어서다, 들어앉다, 들어오
 다, 들어주다, 들어차다, 들여놓다, 들여놓다, 들여다보다, 들여보내다, 들여보내다, 들여오
 다, 들여오다, 들오리, 들이, 들이다, 들이닫다, 들이대다, 들이마시다, 들이밀다, 들이비치
 다, 들이빨다, 들이쉬다, 들이쪼다, 들이차다, 들이켜다, 들이켜다, 들이키다, 들짐승, 들추
 다, 들추다, 들추다, 들치다, 들키다, 들통나다, 들판, 들피지다, 듯, 듯싶다, 듯이, 듯하다,
 등, 등, 등걸, 등걸썰, 등글개첩, 등글기, 등굣이, 등급, 등기, 등나무, 등대, 등대수, 등등,
 등록, 등록금, 등록증, 등록하다, 등마루, 등불, 등산, 등신, 등심, 등에, 등에, 등에, 등자,
 등잔불, 등장, 등장인물, 등장하다, 등지, 등지다, 디, 디디다, 디스크, 디오라마, 딛다, 딜레
 마, 따갑다, 따님, 따다, 따다, 따돌리다, 따듯하다, 따따부따, 따뜻이, 따뜻하다, 따라가다,
 따라다니다, 따라서, 따라오다, 따라지, 따로, 따로따로, 따르다, 따르다, 따름, 따먹다, 따먹
 다, 따비, 따스하다, 따오기, 따위, 따지다, 딱, 딱다구리, 딱따구리, 딱딱하다, 딱새, 딱성
 냥, 딱정벌레, 딱지, 딱총, 딱총나무, 딱하다, 탄, 탄따라패, 탄이, 탄전, 탄죽, 딸, 딸기, 딸
 기, 딸각딸각, 딸각발이, 딸꾹질, 딸리다, 딸아이, 딸애, 땀, 땀, 땀, 땀내, 땀띠, 땀받이, 땀
 두릅나무, 땅, 땅거미, 땅꾼, 땅땸, 땅바닥, 땅벌, 땅벌, 땅속, 땅콩, 땀다, 때, 때, 때까지,
 때다, 때다, 때다, 때때로, 때로, 때리다, 때문, 때우다, 때절레, 땀, 땀장이, 땀질, 땀질하다,
 땀전, 떠가다, 떠꺼머리, 떠나가다, 떠나다, 떠내다, 떠내다, 떠다니다, 떠돌다, 떠돌아다니
 다, 떠돌이별, 떠들다, 떠말다, 떠먹다, 떠오르다, 떠올리다, 떡, 떡, 떡갈나무, 떡볶이, 떡
 소, 떡잎, 떨구다, 떨기, 떨다, 떨다, 떨다, 떨리다, 떨어내다, 떨어지다, 떨어지다, 떨어트리
 다, 떨치다, 떨다, 떼땀이, 떼땀하다, 떼, 떼, 떼다, 떼돈, 떼쓰다, 떼땀, 떼장, 땀깡, 또, 또
 는, 또다시, 또라이, 또래, 또렷하다, 또렷또렷하다, 또한, 또한, 똑같다, 똑같이, 똑딱선, 똑
 똑하다, 똑똑히, 똑바로, 똑마니, 땀, 땀물, 땀물, 땀오줌, 땀리, 땀기, 땀약별, 땀창, 땀깡,
 땀깡밥, 땀드리다, 땀렛이, 땀렛하다, 땀쟁이, 똑, 똑배기, 똑지, 땀다, 땀리다, 땀어지다, 땀
 땀지, 땀땀하다, 땀놀다, 땀다, 땀다, 땀어가다, 땀어나가다, 땀어나다, 땀어내리다, 땀어넘
 다, 땀어다니다, 땀어들다, 땀어오다, 땀어오르다, 땀쳐나가다, 땀, 땀, 뜨겁다, 뜨내기, 뜨
 다, 뜨다, 뜨다, 뜨다, 뜨다, 뜨다, 뜨다, 뜨다, 뜨더귀, 뜨듯하다, 뜨뜻하다, 뜨락, 뜨물, 뜨
 음하다, 뜯구름, 뜯금, 뜯다, 뜯어내다, 뜯, 뜯, 뜯, 뜯부기, 뜯질하다, 뜻, 뜻밖, 뜻밖에, 뜻
 있다, 뜻하다, 뜻하다, 띄다, 띄우다, 띄우다, 띄우다, 띄, 띄, 띄다, 띄앗, 띄돈, ㄹ망정, 라
 디에이터, 라디오, 라면, 라벨, 라운지, 라이벌, 라이브, 라이터, 라이트, 라일락, 라켓, 란제
 리, 랜, 랜턴, 램프, 랭킹, 럭비, 레모네이드, 레몬, 레미콘, 레벨, 레스토랑, 레슨, 레슬링,
 레이더, 레이스, 레이저, 레일, 레자, 레즈비언, 레지, 레지스탕스, 레코드, 레퍼토리, 렌즈,
 렌치, 로마, 로맨스, 로맨틱하다, 로봇, 로비, 로션, 로스구이, 로켓, 로터리, 로프, 록, 롤러
 스케이트, 룽다, 룽런, 윈트겐션, 루머, 루비, 루주, 룬, 룬살롱, 룬펜, 룬색, 리넨, 리더, 리
 더십, 리듬, 리벳, 리본, 리스트, 리어카, 리얼하다, 리터, 린치, 릴레이, 린스틱, 링, 링거,
 ㄹ, 마, 마가린, 마가목, 마각, 마감, 마감하다, 마개, 마계, 마고자, 마구, 마구리, 마냥, 마
 냥모, 마네킹, 마녀, 마누라, 마늘, 마님, 마다하다, 마담, 마담, 마당, 마대, 마도로스, 마도
 위, 마되, 마디, 마디다, 마디마디, 마디마디, 마땅찮다, 마땅하다, 마땅히, 마땅히, 마뜩이,
 마뜩찮다, 마뜩찮다, 마뜩하다, 마라톤, 마래기, 마력, 마련, 마련되다, 마련하다, 마렵다, 마
 령서, 마루, 마루, 마루, 마루터기, 마르다, 마르다, 마르크스주의, 마른국수, 마른국수, 마
 림, 마름, 마름, 마름쇠, 마름자, 마름질, 마리, 마마, 마마님, 마무르다, 마무리, 마무리되
 다, 마무리하다, 마법, 마분지, 마비, 마비되다, 마빡, 마사니, 마사지, 마상이, 마상이, 마

소, 마속, 마수, 마수걸이, 마술, 마스카라, 마스코트, 마스크, 마시다, 마약, 마요네즈, 마
 을, 마을, 마음, 마음가짐, 마음껏, 마음껏, 마음대로, 마음먹다, 마음속, 마음씨, 마이너스,
 마이크, 마일, 마작, 마저, 마저, 마전, 마전하다, 마주, 마주보기, 마주치다, 마주하다, 마
 중, 마지기, 마지노선, 마지막, 마지못하다, 마진, 마질, 마차, 마찬가지로, 마찰, 마천루, 마
 치, 마치, 마치다, 마침, 마침, 마침내, 마침내, 마침표, 마칼바람, 마케팅, 마크, 마투리, 마
 파람, 마편초, 마풀, 마하, 마하가라, 마하마야, 마하바라다, 마하살, 마호가니, 마호병, 마후
 라, 마흔, 막, 막가다, 막간, 막강하다, 막걸리, 막걸리다, 막깎기, 막나이, 막내, 막다, 막다,
 막다르다, 막대, 막대기, 막대잡이, 막대하다, 막둥이, 막론하다, 막막하다, 막무가내, 막바
 지, 막별이꾼, 막사, 막상, 막새, 막연하다, 막연히, 막자, 막장, 막지르다, 막지밀, 막질리
 다, 막질리다, 막차, 막창자, 막판, 막히다, 만, 만, 만가, 만고뎡, 만국, 만기, 만끽하다, 만
 나다, 만날, 만남, 만년설, 만년필, 만다라, 만담, 만돌린, 만두, 만두, 만들다, 만듭새, 만리
 경, 만만찮다, 만만찮다, 만만하다, 만만하다, 만무방, 만물, 만석꾼, 만성, 만세, 만수받이,
 만신, 만약, 만우절, 만인계, 만일, 만자, 만장이, 만점, 만족감, 만족스럽다, 만족하다, 만지
 다, 만지작거리다, 만지작만지작, 만찬, 만큼, 만하다, 만형, 만화, 만화경, 많다, 많이, 만,
 만누이, 만딸, 만며느리, 만물, 만아들, 만아주머니, 만오빠, 만이, 말, 말, 말, 말, 말, 말가
 죽, 말갈, 말갈기, 말갈다, 말개미, 말개지다, 말거머리, 말거미, 말고기, 말고빠, 말괄량이,
 말구유, 말굴레, 말굽, 말굽, 말귀, 말그스레하다, 말그스름하다, 말긋말긋, 말긋말긋하다,
 말기, 말끔, 말끔히, 말다, 말다, 말다, 말다툼, 말단, 말달리기, 말달리기, 말달리다, 말대
 꾸, 말더듬이, 말뚝, 말뚝구리, 말뚝말뚝, 말뚝, 말라깽이, 말라리아, 말랭이, 말롱질, 말리
 다, 말리다, 말리다, 말림, 말막음, 말말뚝, 말매미, 말모이, 말문, 말미, 말미암다, 말미잘,
 말버둥질, 말벌, 말벌, 말벗김, 말불버섯, 말쌈, 말쌈꾼, 말쑥이, 말쑥하다, 말쌈, 말쌈하다,
 말씨, 말없이, 말여뀌, 말여뀌, 말오줌나무, 말짜, 말짱하다, 말짱히, 말째, 말채, 말초적, 말
 총, 말총채, 말코지, 말투, 말하기, 말하다, 말하다, 말혁, 맑다, 맑스그레하다, 맑은술, 맑히
 다, 맑히다, 맘, 맘마, 맵소사, 맛, 맛, 맛나다, 맛보다, 맛보다, 맛없다, 맛없다, 맛없이, 맛
 있다, 망가지다, 망건, 망고하다, 망구다, 망나니, 망년회, 망녕그물, 망둑어, 망둥이, 망령되
 다, 망령되이, 망명, 망상, 망석, 망석중, 망설이다, 망신, 망아지, 망언, 망울, 망월경, 망초,
 망초, 망초, 망치, 망치다, 망태, 망태기, 망토, 망하다, 맛갓다, 맛갓잡다, 맛다, 맛다, 맛달
 다, 맛대다, 맛물리다, 맛바꾸다, 맛바람, 맛받다, 맛받다, 맛발기, 맛서다, 맛아들이다, 맛은
 편, 맞이하다, 맛장구, 맞추다, 맞춤, 맞히다, 맞히다, 맞다, 말, 말기다, 말다, 말다, 말이다,
 매, 매, 매, 매, 매, 매가리, 매각, 매각하다, 매개, 매기다, 매끄럽다, 매끼, 매나니, 매너,
 매년, 매니저, 매니큐어, 매다, 매다, 매달, 매달다, 매달리다, 매도, 매독, 매듭, 매력, 매력
 적, 매립, 매만지다, 매매, 매머드, 매머드, 매무새, 매무시, 매물, 매미, 매미꽃, 매번, 매사,
 매상, 매섭다, 매수, 매스컴, 매양, 매옴하다, 매우, 매우, 매웁하다, 매운맛, 매옴하다, 매
 음, 매음굴, 매이다, 매일, 매일매일, 매입, 매입하다, 매자기, 매장, 매장꾼, 매장이치다, 매
 점, 매정하다, 매조이, 매조이다, 매주, 매지구름, 매직, 매진, 매질, 매질하다, 매질하다, 매
 질하다, 매체, 매춘, 매출, 매출액, 매개하다, 매콤하다, 매콤하다, 매트, 매트리스, 매한가
 지, 매화틀, 맥, 맥고모자, 맥락, 맥박, 맥주, 맥주병, 맥쩍다, 맨, 맨, 맨드라미, 맨드리, 맨
 머리, 맨몸, 맨몸둥이, 맨발, 맨밥, 맨밥, 맨션, 맨손, 맨입, 맨홀, 맨들다, 맨돌이, 맨매, 맵
 다, 맵시, 맵싸하다, 맵쌀, 맷돌, 맷돌질하다, 맷맷하다, 맷중쇠, 맹간수수, 맹꽁이, 맹렬하
 다, 맹렬히, 맹목적, 맹물, 맹세, 맹세코, 맹세하다, 맹아, 맹장지, 맹종, 맹탕, 맷다, 맷다,

땃하다, 땃하다, 머구리, 머귀나무, 머금다, 머나멀다, 머다랗다, 머루, 머리, 머리꼬리, 머리
 단장, 머리말, 머리뼈, 머리카락, 머리칼, 머리털, 머리통, 머리핀, 머릿니, 머릿속, 머릿수
 건, 머무르다, 머무적머무적, 머물다, 머뭇거리다, 머뭇머뭇, 머뭇하다, 머슴, 머슴애, 머위,
 머저리, 머지않다, 머춤하다, 머춤하다, 머플러, 먹, 먹, 먹감나무, 먹고살다, 먹구렁이, 먹
 다, 먹다, 먹다, 먹먹하다, 먹먹히, 먹물, 먹빛, 먹새, 먹성, 먹음새, 먹음직스럽다, 먹음직하
 다, 먹이, 먹이다, 먹이다, 먹이다, 먹자, 먹장, 먹줄, 먹줄, 먹칼, 먹통, 먹팔, 먹히다, 먹히
 다, 먼동, 먼산바라기, 먼장질, 먼저, 먼지, 먼지떨음, 먼지떨이, 먼지쟁, 멀거니, 멀건이, 멀
 절다, 멀그스레하다, 멀그스름하다, 멀다, 멀다, 멀다, 멀떠구니, 멀리, 멀리, 멀리하다, 멀리
 하다, 멀미, 멀쑥하다, 멀쩡하다, 멀찌가니, 멀찌감치, 멀찌막이, 멀찌막하다, 멀찍멀찍, 멀
 짝이, 멀찍하다, 멀티미디어, 멈추다, 멈춤새, 멈칫, 멧, 멧있다, 멧지다, 멧쩍다, 멧구력, 멧
 덕팔기, 멧들다, 멧멍이, 멧석, 멧석팔기, 멧석말이, 멧에, 멧청스럽다, 멧청이, 멧청하다, 멧
 추, 멧텅구리, 멧하니, 멧하다, 멧다, 메, 메, 메, 메, 메, 메, 메가폰, 메기, 메기다, 메기장,
 메꽃, 메꾸다, 메나리, 메뉴, 메다, 메다, 메다, 메다, 메달, 메뚜기, 메뚜기피, 메리야스, 메
 마르다, 메모, 메밀, 메밀가루, 메밀잠자리, 메밥, 메벼, 메뽕나무, 메스, 메스껍다, 메시지,
 메신저, 메아리, 메어치다, 메우다, 메우다, 메이다, 메이커, 메일, 메조, 메주, 메지, 메지
 다, 메질하다, 메추라기, 메추리, 멜랑콜리, 멜로, 멜로디, 멜론, 멜빵, 뽕쌀, 멧갓, 멧나물,
 멧대추, 멧돼지, 멧미나리, 멧부리, 멧비둘기, 멧새, 며느님, 며느리, 며느리밀씻개, 며느리
 발톱, 며느리배꼽, 며늘아기, 며칠날, 며칠, 먹, 먹등구미, 먹따다, 먹미래, 먹부리, 먹살, 먹
 서리, 먹찌르다, 면, 면내다, 면내다, 면담, 면도질, 면류관, 면모, 면사포, 면세, 면양, 면역,
 면적, 면접, 면죄부, 면주, 면하다, 면허, 면회, 멸, 멸망하다, 멸치, 명, 명기, 명년, 명단,
 명량하다, 명령, 명령어, 명령하다, 명료, 명매기, 명목, 명백하다, 명백히, 명분, 명상, 명
 색, 명성, 명시하다, 명심하다, 명아주, 명아주, 명암, 명예, 명왕성, 명의, 명일, 명자, 명작,
 명장지, 명절, 명제, 명주, 명주바람, 명질, 명찰, 명치, 명치뼈, 명칭, 명태, 명편, 명함, 명
 확하다, 명확히, 몇, 몇몇, 모, 모, 모가비, 모가지, 모가치, 모감주, 모감주나무, 모개, 모계,
 모과, 모과수, 모교, 모국, 모금, 모기, 모기장, 모깃불, 모꼬지, 모꼬지하다, 모나다, 모내
 기, 모내다, 모눈, 모닥불, 모델, 모도록, 모두, 모두먹기, 모든, 모들뜨기, 모들뜨다, 모란,
 모란, 모란꽃, 모람모람, 모래, 모래무지, 모래시계, 모래톱, 모락, 모레, 모로, 모루, 모르
 다, 모르쇠, 모르쇠, 모르타르, 모르핀, 모름지기, 모방, 모방하다, 모범, 모색, 모색하다, 모
 서리, 모순, 모순되다, 모습, 모시, 모시, 모시다, 모시조개, 모시풀, 모심기, 모심다, 모싯
 대, 모양, 모양새, 모여들다, 모으다, 모이, 모이다, 모이통, 모임, 모자, 모자라다, 모자이
 크, 모조, 모조리, 모조품, 모종, 모지락스럽다, 모지랑붓, 모지랑비, 모지랑이, 모직, 모직
 물, 모질다, 모질음, 모집, 모집하다, 모짜, 모찌기, 모처럼, 모체, 모춤, 모춤, 모춤하다, 모
 터, 모투저기다, 모통이, 모포, 모함, 모험, 모호하다, 목, 목, 목, 목거리, 목걸이, 목격하다,
 목공, 목구멍, 목근화, 목낭청, 목누름, 목달이, 목덜미, 목도리, 목란, 목랍, 목로주점, 목
 록, 목마르다, 목말, 목매기, 목매다, 목매달다, 목매아지, 목매다, 목면, 목뼈, 목사, 목사
 리, 목새, 목설, 목성, 목소리, 목소리, 목수, 목숨, 목쉬다, 목요일, 목욕, 목욕탕, 목욕하다,
 목잠, 목재, 목적, 목적지, 목젓, 목주가, 목줄띠, 목청, 목탁, 목탄, 목탑, 목표, 뭇, 몬다위,
 몬다위, 물골, 물다, 물두하다, 물라보다, 물락, 물락하다, 물래, 물려다니다, 물려들다, 물려
 오다, 물리다, 물리다, 물매, 물사, 물수, 물아가다, 물아가다, 물아내다, 물아내다, 물아넣
 다, 물아쉬다, 물아오다, 물아오다, 물아치다, 물이, 몸, 몸, 몸가짐, 몸담다, 몸뚱이, 몸매,

몸무게, 몸부림, 몸부림치다, 몸뻘, 몸살, 몸소, 몸속, 몸종, 몸집, 몸짓, 몸차림, 몸채, 몸체, 몸통, 몸피, 몹시, 몹시, 몹쓸, 못, 못, 못, 못나다, 못내, 못내, 못다, 못도지, 못되다, 못마땅하다, 못물, 못물, 못생기다, 못서다, 못쓰다, 못지않다, 못하다, 못하다, 몽, 몽고, 몽구리, 몽글다, 몽글리다, 몽당이, 몽당치마, 몽둥이, 몽땅, 몽실몽실하다, 몽우리, 몽짜, 몽치다, 몽키다, 몽타주, 뵈, 묘법연화경, 묘사, 묘사되다, 묘사하다, 묘지, 묘지기, 묘하다, 무, 무거리, 무겁다, 무게, 무고, 무고지민, 무관심, 무관심하다, 무관하다, 무궁화, 무기, 무기력하다, 무꾸리, 무꾸리하다, 무너지다, 무너트리다, 무넘기, 무녀리, 무논, 무느다, 무능력, 무니, 무다리, 무당, 무당벌레, 무당새, 무당질하다, 무대, 무더기, 무더위, 무던하다, 무던히, 무덤, 무덤가, 무덤새, 무덤다, 무도회, 무동, 무두질하다, 무드, 무디다, 무따래기, 무랍, 무력무력, 무림생선, 무렵다, 무려, 무력하다, 무렵, 무뢰배, 무뢰한, 무료, 무르녹다, 무르녹다, 무르다, 무르다, 무르다, 무르와가다, 무르와내다, 무르익다, 무르익다, 무르춤하다, 무르팍, 무름하다, 무름쓰다, 무름쓰다, 무름쓰다, 무릇, 무릇, 무릇하다, 무릉도원, 무릎, 무릎도리, 무릎디피무, 무릎맞춤, 무리, 무리, 무리, 무리꾸력, 무리하다, 무말랭이, 무명, 무명배, 무명실, 무명옷, 무모하다, 무방하다, 무분별하다, 무사, 무사마귀, 무사하다, 무사히, 무산되다, 무살, 무살이, 무상, 무색, 무색하다, 무생물, 무서리, 무서움, 무선, 무섭다, 무성하다, 무소, 무소속, 무솔다, 무쇠, 무쇠, 무수기, 무수리, 무수리, 무수하다, 무수히, 무술, 무쉬, 무슨, 무슨, 무시되다, 무시무시하다, 무시하다, 무식하다, 무신경, 무심, 무심코, 무심하다, 무심히, 무씨, 무아, 무어, 무엇, 무엇하다, 무에리수예, 무역, 무용, 무응애수수, 무의미, 무의미하다, 무의식, 무의식적, 무임, 무자리, 무자맥질, 무자맥질, 무자맥질하다, 무자맥질하다, 무자위, 무자이, 무자이, 무작정, 무장, 무저울, 무정부, 무정하다, 무젖다, 무제한, 무조건, 무좀, 무주고혼, 무지, 무지개, 무지기, 무지러지다, 무지령이, 무지르다, 무지하다, 무지하다, 무지하다, 무직하다, 무직하다, 무진, 무진장, 무질리다, 무질서하다, 무집게, 무찌르다, 무찔리다, 무책임하다, 무척, 무치다, 무침, 무턱, 무트로, 무표정하다, 무한, 무한대, 무한하다, 무화과, 무환자, 무효, 무희, 묵, 묵계, 묵과, 묵다, 묵다, 묵다, 묵묵히, 묵상, 묵새, 묵수, 묵시, 묵은쌀, 묵이, 묵중하다, 묵직묵직이, 묵직묵직하다, 묵직이, 묵직하다, 묵히다, 묶다, 묶음, 묶이다, 문, 문건, 문고, 문구, 문님이, 문단, 문답, 문대다, 문덕문덕, 문돌이, 문둥이, 문득, 문득, 문명, 문명국, 문문하다, 문물, 문민, 문민정부, 문밖, 문발, 문방구, 문배, 문벧내, 문법, 문서, 문설주, 문신, 문양, 문예, 문의, 문인, 문자, 문장, 문전성시, 문제, 문제점, 문쥐, 문지기, 문지르다, 문지방, 문질리다, 문 째, 문체, 문턱, 문틈, 문패, 문학, 문학론, 문학사, 문학예술, 문학적, 문헌, 문호, 문화, 문화권, 문화재, 문화적, 문다, 문다, 문다, 문다, 문잡다, 문히다, 문히다, 물, 물, 물가, 물갈래, 물감, 물거품, 물건, 물결, 물고기, 물구나무서다, 물굽이, 물긋물긋하다, 물긋하다, 물기, 물길, 물꼬, 물끄러미, 물너울, 물다, 물다, 물다짐, 물닭, 물둥이, 물들다, 물들다, 물들이다, 물량, 물러가다, 물러나다, 물러서다, 물러서다, 물러앉다, 물러오다, 물러지다, 물령물령, 물령물령하다, 물령하다, 물레, 물레, 물레방아, 물레질, 물렛가락, 물려받다, 물려주다, 물론, 물론하다, 물류, 물리, 물리다, 물리다, 물리다, 물리다, 물리적, 물리치다, 물림, 물마, 물말이, 물맛, 물매, 물맴이, 물목, 물밀다, 물반이, 물방개, 물방아, 물방울, 물뱀, 물벌레, 물보김, 물부리, 물빛, 물뿔이, 물새, 물소, 물소리, 물속, 물수리, 물숨, 물써다, 물썰하다, 물썩, 물썩, 물썩하다, 물앵두, 물약, 물어보다, 물어우, 물오리, 물울림, 물외, 물음, 물이뭇나개, 물자, 물장구치다, 물장사, 물줄기, 물질, 물질적, 물질, 물뽕하다, 물체, 물초, 물총새, 물컹거리다, 물컹물컹, 물컹이, 물컹

하다, 물켜다, 물くだ, 물크러지다, 물통, 물푸레, 물푸레나무, 물품, 물혹, 몯다, 몯숙하다, 몯스그레하다, 몯, 몯, 몯, 몯가름, 몯갈림, 몯다, 몯따래기, 몯매, 몯매질, 몯사람, 몯개다, 몯개다, 몯게구름, 몯게몯게, 몯구리, 몯우리돌, 몯치, 몯치다, 몯키다, 몯텅몯텅, 몯텅이, 몯특하다, 몯, 몯길, 몯, 몯, 몯지컬, 몯간, 몯개, 몯개인, 몯개지, 몯국, 몯궁, 몯꾸라지, 몯꾸리, 몯끄러지다, 몯끄러트리다, 몯끄럼, 몯끄럽다, 몯끈둥하다, 몯끈미끈, 몯끼, 몯나리, 몯녀, 몯농지, 몯늘, 몯다, 몯다, 몯달이, 몯대다, 몯덕, 몯답다, 몯라, 몯란하다, 몯래, 몯레그물, 몯레질, 몯련, 몯련하다, 몯령하다, 몯루나무, 몯루다, 몯루적거리다, 몯루적대다, 몯룩, 몯리, 몯만, 몯망인, 몯모, 몯모사, 몯묘하다, 몯미하다, 몯봉, 몯쁘다, 몯사, 몯사리, 몯사일, 몯성년, 몯세기, 몯세하다, 몯수, 몯숙하다, 몯술, 몯술관, 몯숫가루, 몯스, 몯스터, 몯신, 몯심쩍다, 몯싱, 몯아, 몯안하다, 몯어지다, 몯역, 몯역, 몯역국, 몯용, 몯용실, 몯옥, 몯옥하다, 몯움, 몯워하다, 몯음, 몯이다, 몯인, 몯장이, 몯장이, 몯적, 몯적거리다, 몯적대다, 몯적미적하다, 몯주, 몯주알, 몯주알고주알, 몯지, 몯지근하다, 몯쳐, 몯치광이, 몯치다, 몯치다, 몯친개, 몯터, 몯투리, 몯혹, 몯흔, 몯흠하다, 몯서, 몯, 몯간, 몯간인, 몯감하다, 몯값, 몯권, 몯낫, 몯담, 몯등산, 몯들레, 몯망하다, 몯머리, 몯며느리, 몯사, 몯생, 몯소매, 몯속, 몯심, 몯요, 몯원, 몯의, 몯적, 몯족, 몯족적, 몯족주의, 몯주, 몯주적, 몯주주의, 몯주화, 몯중, 몯충이, 몯트, 몯툫하다, 몯회, 몯다, 몯음, 몯음성, 몯음직스럽다, 몯음직하다, 몯, 몯, 몯가루, 몯감, 몯개떡, 몯기울, 몯다, 몯도, 몯돌, 몯따기, 몯랍, 몯려나다, 몯려들다, 몯려오다, 몯리, 몯리다, 몯리미터, 몯물, 몯밀하다, 몯밀히, 몯수, 몯어내다, 몯어붙이다, 몯월, 몯월여행, 몯접하다, 몯짚, 몯초, 몯치, 몯치다, 몯타승, 몯푸러기, 몯풀, 몯, 몯광스럽다, 몯다, 몯살맛다, 몯살머리스럽다, 몯살스럽다, 몯밋하다, 몯밋하다, 몯근하다, 몯, 몯, 몯구멍, 몯갈이짚, 몯동, 몯바닥, 몯신개, 몯씻개, 몯자리, 몯정, 몯지다, 몯천, 몯니다, 바, 바, 바, 바가지, 바게트, 바겐세일, 바곳, 바구니, 바구미, 바글바글, 바글바글하다, 바깥, 바깥, 바깥쪽, 바깥쓰, 바꽃, 바꾸다, 바꾸다, 바꾸이다, 바꿈질, 바뀐다, 바나나, 바느질, 바느질, 바느질, 바느질아치, 바느질자, 바느질하다, 바늘, 바늘겨레, 바늘구멍, 바늘귀, 바늘꽃, 바늘방석, 바늘통, 바닐라, 바다, 바닥, 바닥재, 바닷가, 바닷물, 바닷소금, 바더리, 바둑, 바둑이, 바둑판, 바드득바드득하다, 바드럽다, 바둑바둑, 바듯이, 바듯하다, 바디, 바디집, 바라, 바라기, 바라다, 바라다보다, 바라문, 바라밀, 바라밀다, 바라보다, 바라지, 바라지다, 바라크, 바람, 바람, 바람, 바람, 바람, 바람개비, 바람꽃, 바람나다, 바람둥이, 바람맞다, 바람벽, 바람비, 바람직하다, 바람, 바래다, 바래다주다, 바랭이, 바로, 바로, 바로잡다, 바루다, 바르다, 바르다, 바리, 바리, 바리깡, 바리데기, 바리깡, 바리케이드, 바리케이트, 바바리, 바보, 바쁘다, 바쁘다, 바빠, 바사기, 바삭바삭, 바삭바삭하다, 바서지다, 바셀린, 바수다, 바스라기, 바스스하다, 바짝, 바야흐로, 바위, 바위, 바위틈, 바이러스, 바이블, 바이올렛, 바이올린, 바자, 바지, 바지게, 바지랑대, 바짝, 바치다, 바치다, 바침술집, 바캉스, 바케쓰, 바퀴, 바퀴, 바퀴벌레, 바탕, 바탕, 바텐더, 바통, 바투, 바특이, 바특하다, 박, 박, 박각시, 박고지, 박꽃, 박다, 박다, 박달, 박달나무, 박대하다, 박람하다, 박람회, 박멸, 박물, 박물관, 박사, 박살, 박새, 박석, 박수, 박스, 박쌈, 박애, 박음질, 박음질하다, 박이다, 박이웃, 박자, 박장대소하다, 박제, 박쥐, 박쥐구실, 박쥐나무, 박쥐우산, 박차, 박차다, 박치기, 박탈, 박태기나무, 박테리아, 박하, 박해, 박히다, 뱀, 반, 반가워하다, 반가이, 반감, 반갑다, 반값, 반결음, 반경, 반공일, 반군, 반기다, 반나마, 반달이, 반대, 반대편, 반대하다, 반도, 반동, 반두, 반드럽다, 반드레하다, 반드시, 반드시, 반득반득하다, 반들반들, 반들반들하다,

반듯반듯하다, 반듯하다, 반디, 반딧불, 반쪽반쪽하다, 반란, 반론, 반말, 반면, 반면교사, 반문하다, 반물, 반박하다, 반반하다, 반발, 반발하다, 반복, 반복되다, 반복하다, 반빛아치, 반빛아치, 반빛하님, 반사, 반사적, 반색, 반색하다, 반석, 반성, 반성하다, 반세기, 반야, 반영되다, 반영하다, 반응, 반응하다, 반자, 반작반작하다, 반장, 반전, 반절, 반주, 반죽, 반죽하다, 반지, 반지랍다, 반지레, 반진고리, 반질반질하다, 반짇, 반짇거리다, 반짇이다, 반찬, 반찬단지, 반창고, 반추, 반하다, 반향심, 반향, 반환, 반다, 반다, 반다, 받들다, 받아들이다, 받자, 받잡다, 받치다, 받침, 받히다, 발, 발, 발, 발가락, 발가벗다, 발가숭이, 발간, 발감개, 발강, 발강다, 발개지다, 발걸음, 발견, 발견되다, 발견하다, 발괄하다, 발광, 발구, 발굴, 발굴되다, 발굴하다, 발그대대하다, 발그댕댕하다, 발그레하다, 발그름하다, 발그무레하다, 발그속속하다, 발그스레하다, 발그스름하다, 발그족족하다, 발긋발긋, 발기, 발기다, 발기름, 발길, 발꿈치, 발끈발끈, 발끈발끈하다, 발끝, 발달, 발달되다, 발달하다, 발돋움, 발뒤축, 발등, 발딱발딱, 발딱발딱하다, 발떠귀, 발레, 발령, 발록구니, 발리다, 발리다, 발림, 발막, 발맘발맘, 발명, 발명가, 발명하다, 발목, 발바닥, 발바리, 발밤발밤, 발배하다, 발버둥이, 발버둥질, 발버둥질, 발보이다, 발뵈다, 발부, 발뺨, 발뺨하다, 발사, 발사하다, 발상, 발상지, 발생, 발생되다, 발생하다, 발설하다, 발송하다, 발싸개, 발씨, 발씨, 발언, 발음, 발자국, 발자취, 발전, 발전기, 발전되다, 발전소, 발전하다, 발절라, 발주, 발짹, 발차, 발치, 발칙하다, 발코니, 발톱, 발특마, 발판, 발표, 발표되다, 발표하다, 발하다, 발해, 발행, 발행되다, 발행하다, 발호, 발효, 발휘되다, 발휘하다, 밝기, 밝다, 밝혀내다, 밝히, 밝히다, 밝히다, 밝다, 밝다, 밝히다, 밤, 밤, 밤기운, 밤나무, 밤낮, 밤눈, 밤눈, 밤늦다, 밤들다, 밤새, 밤새껏, 밤새다, 밤새우다, 밤송이, 밤이슬, 밤잠, 밤재우다, 밤중, 밤참, 밤하늘, 밥, 밥값, 밥그릇, 밥때, 밥물, 밥상, 밥쌀, 밥알, 밥주걱, 밥투정, 밥풀, 밥풀, 밥하다, 밧줄, 방, 방, 방갈로, 방게, 방관, 방귀, 방귀벌레, 방그레, 방글방글, 방금, 방긋, 방긋방긋, 방긋방긋하다, 방긋이, 방기, 방대하다, 방망이, 방망이꾼, 방매, 방면, 방문, 방문, 방문, 방문하다, 방물, 방물장사, 방바닥, 방법, 방사선, 방사하다, 방식, 방세, 방송, 방송국, 방송되다, 방송사, 방송하다, 방수하다, 방시레, 방식, 방실방실하다, 방아, 방아깨비, 방아쇠, 방아허리, 방아확, 방안, 방앗간, 방앗공이, 방어, 방언, 방영되다, 방울, 방울, 방울꽃, 방울땀, 방울벌레, 방울새, 방울줄, 방위, 방이다, 방임, 방자하다, 방자히, 방장, 방재하다, 방정, 방정스럽다, 방정하다, 방정히, 방종하다, 방죽, 방지, 방지하다, 방짜, 방차하다, 방책, 방출하다, 방치하다, 방침, 방당하다, 방패, 방편, 방풍, 방학, 방한, 방한모, 방해, 방해하다, 방향, 방황하다, 발, 발, 발갈이, 발고랑, 발다, 발두둑, 발이다, 발이랑, 발장다리, 발치다, 배, 배, 배, 배갈, 배경, 배고프다, 배끓다, 배교, 배교하다, 배구, 배괘하다, 배급, 배기다, 배꼽, 배꽃, 배나무, 배낭, 배내, 배넷짓, 배다, 배다, 배다, 배다리, 배다리, 배달, 배달부, 배덕, 배도, 배도하다, 배동, 배드민턴, 배따라기, 배때기, 배뚜리, 배띠, 배럴, 배려, 배려하다, 배례하다, 배롱, 배롱나무, 배면하다, 배명하다, 배목, 배반하다, 배배, 배부, 배부르다, 배분, 배불뚝이, 배불리, 배상, 배상하다, 배설, 배설물, 배설하다, 배수, 배수진, 배신하다, 배알, 배알, 배알하다, 배알이, 배양하다, 배역, 배열, 배우, 배우다, 배우다, 배우자, 배웅, 배자, 배장수, 배접, 배접하다, 배정, 배정하다, 배제하다, 배좁다, 배지, 배짱, 배착배착하다, 배참, 배척하다, 배추, 배출, 배치, 배치되다, 배치하다, 배코, 배터리, 배트, 배포, 배포하다, 배필, 배합하다, 배행하다, 배회하다, 배후, 백, 백과사전, 백금, 백년해락, 백년해로, 백두옹, 백랍, 백리향, 백만, 백만장자, 백묵, 백미, 백반, 백방하다, 백병전, 백사장, 백색, 백서, 백설기, 백성, 백

신, 백안시, 백야, 백열, 백열등, 백인, 백일장, 백일홍, 백작, 백장, 백정, 백주, 백중, 백중
 날, 백지, 백징하다, 백척간두, 백철광, 백치, 백통, 백합, 백합, 백화점, 백당이, 백덕, 백드,
 백세, 벨, 벨브, 뱀, 뱀도랏, 뱀딸기, 뱀뱀이, 뱀장어, 뱀새, 뱀가죽, 뱀고물, 뱀구레, 뱀길,
 뱀대, 뱀머리, 뱀멀미, 뱀사람, 뱀살, 뱀속, 뱀심, 뱀전, 뱀줄, 뱅그레, 뱅시레, 뱅어, 뱀다,
 바비다, 반덕, 반주그레하다, 밥뛰다, 버금, 버꾸, 버너, 버둥버둥, 버드나무, 버드나무, 버드
 러지다, 버드렁니, 버드름하다, 버들, 버들가지, 버들강아지, 버들개지, 버들웃, 버들잎, 버
 들치, 버러지, 버럭, 버렁, 버르장머리, 버르잡다, 버름하다, 버릇, 버릇없다, 버릇다, 버리
 다, 버마재비, 버무리, 버무리다, 버물다, 버물리다, 버새, 버선, 버섯, 버스, 버저, 버전, 버
 젓이, 버짐, 버클, 버터, 버튼, 버티다, 버팀목, 벽차다, 번, 번갈다, 번개, 번개, 번거롭다,
 번거하다, 번뇌, 번데기, 번드럽다, 번드레하다, 번드치다, 번드치다, 번득, 번득번득하다,
 번들번들, 번들번들하다, 번듯이, 번듯하다, 번뜩이다, 번번이, 번번하다, 번번히, 번식하다,
 번역, 번역되다, 번역하다, 번연히, 번영, 번지, 번지, 번지다, 번지럽다, 번지레, 번지르르하
 다, 번지질, 번질번질하다, 번쩍, 번쩍, 번쩍번쩍하다, 번쩍이다, 번하다, 번호, 번호부, 번
 히, 벌다, 벌다, 벌디디다, 벌정다리, 벌지르다, 벌, 벌, 벌, 벌, 벌거벗다, 벌거숭이, 벌겉다,
 벌금, 벌기다, 벌다, 벌떡, 벌떡벌떡, 벌떡벌떡하다, 벌떡이다, 벌렁벌렁, 벌렁벌렁하다, 벌
 레, 벌리다, 벌림새, 벌물, 벌새, 벌써, 벌써, 벌어지다, 벌음, 벌이, 벌이다, 벌집, 벌타령,
 벌판, 범, 범강장달이, 범꼬리, 범나비, 범람하다, 범벅, 범부채, 범선, 범아귀, 범위, 범인,
 범죄, 범주, 범주, 범하다, 범행, 법, 법관, 법규, 법당, 법대, 법랑, 법령, 법률, 법사, 법석,
 법석, 법안, 법원, 법인, 법적, 법정, 법칙, 법하다, 벗, 벗겨지다, 벗기다, 벗다, 벗어나다,
 벗어지다, 벗하다, 병거지, 병그레, 병긋거리다, 병긋병긋하다, 병긋하다, 병시레, 병실병실,
 병실병실하다, 병어리, 병커, 벗, 벗나무, 베, 베개, 베갯모, 베갯속, 베끼다, 베니어, 베다,
 베다, 베란다, 베레, 베레모, 베매기, 베스트, 베스트셀러, 베옷, 베이컨, 베자루, 베적삼, 베
 주머니, 베짚이, 베치마, 베테랑, 베틀, 베풀다, 벤처, 벤치, 벨, 벨트, 벼, 벼꽃, 벼락, 벼랑,
 벼루, 벼룩, 벼룩시장, 벼룩집, 벼르다, 벼름, 벼리, 벼리다, 벼슬, 벼슬아치, 벼슬하다, 벽,
 벽난로, 벽돌, 벽돌집, 벽면, 벽장, 벽창우, 벽창호, 벽화, 변, 변경, 변경하다, 변기, 변동,
 변두리, 변리, 변명, 변변찮다, 변비, 변사, 변색하다, 변소, 변신, 변신하다, 변인, 변질되
 다, 변천, 변통, 변하다, 변함없다, 변혁, 변형, 변호사, 변호인, 변화, 변화되다, 변화하다,
 별, 별개, 별거, 별것, 별기, 별다르다, 별도, 별동, 별동별, 별로, 별명, 별세하다, 별수, 별
 안간, 별일, 별자리, 별지, 별짜, 별쫓나다, 별쫓맛다, 별쫓스럽다, 별책, 별초군, 별표, 별
 호, 범, 범쌀, 범씨, 벗, 벗, 벗날, 벗짚, 병, 병기, 병들다, 병력, 병사, 병신, 병실, 병아리,
 병아리풀, 병어, 병원, 병장기, 병정, 병참, 병추기, 병행하다, 별, 별늪, 보, 보가지, 보강하
 다, 보건, 보고, 보고되다, 보고서, 보고하다, 보관, 보관하다, 보긋, 보금자리, 보급, 보급되
 다, 보기, 보깨다, 보깍질, 보꾸러미, 보내다, 보내오다, 보너스, 보늬, 보다, 보다, 보도, 보
 도되다, 보도하다, 보드랍다, 보드레하다, 보드카, 보득솔, 보들보들하다, 보따리, 보라, 보
 라매, 보라색, 보라콩, 보람, 보람줄, 보람차다, 보람하다, 보랏빛, 보로, 보루, 보름, 보름
 날, 보름달, 보름보기, 보리, 보리, 보리카락, 보리동지, 보리바둑, 보리밥, 보리밥나무, 보리
 살타, 보리수, 보리쌀, 보리웃, 보릿가루, 보릿고개, 보물, 보배, 보배로이, 보배롭다, 보병,
 보복, 보부상, 보살, 보살피다, 보살핌, 보상, 보상금, 보석, 보수, 보수적, 보스, 보습, 보습
 고지, 보시, 보시기, 보싸기, 보쌈, 보아지, 보안, 보암보암, 보암직하다, 보약, 보양다, 보온
 병, 보완, 보완하다, 보유, 보유스레하다, 보유스름하다, 보유하다, 보육, 보육원, 보이, 보이

다, 보이콧, 보인, 보일러, 보임새, 보자기, 보잘것없다, 보장, 보장되다, 보장하다, 보쟁기, 보전, 보조, 보조개, 보조금, 보존, 보존되다, 보존하다, 보좌관, 보증, 보증금, 보증인, 보지, 보채다, 보채이다, 보초, 보충, 보충하다, 보타이, 보태다, 보탬, 보통, 보통이, 보트, 보편성, 보편적, 보편화되다, 보푸라기, 보풀, 보풀리다, 보풀보풀하다, 보행하다, 보험, 보헤미안, 보호, 보호되다, 보호하다, 북, 북, 북구, 북권, 북귀, 북귀하다, 북달임, 북대기다, 북덕방, 북도, 북두, 북무, 북분자, 북불북, 북사빠, 북사하다, 북색, 북선, 북성스럽다, 북수, 북수하다, 북송아, 북송아꽃, 북송아나무, 북송아뼈, 북송아씨, 북식, 북심, 북싱, 북압, 북역, 북용하다, 북음, 북자, 북잡, 북잡하다, 북장, 북전, 북제, 북종하다, 북지, 북판, 북합, 북합적, 북다, 북다, 북음, 북이다, 본, 본가, 본격, 본격적, 본격화되다, 본곳, 본관, 본능, 본능적, 본당, 본데, 본드, 본디, 본때, 본래, 본론, 본문, 본밀, 본받다, 본변, 본봉, 본부, 본부장, 본사, 본새, 본선, 본성, 본연, 본의, 본인, 본전, 본점, 본질, 본질적, 본처, 본회의, 볼, 볼기, 볼기짝, 볼꿀, 볼때기, 볼록하다, 볼링, 볼모, 볼썽, 볼우물, 볼일, 볼장보다, 볼통이, 볼펜, 봄, 봄가을, 봄같이팔, 봄꽃, 봄날, 봄물, 봄물, 봄바람, 봄비, 봄빛, 봄풀, 붓, 봉건적, 봉건제, 봉급, 봉기, 봉래산, 봉사, 봉사자, 봉사하다, 봉선화, 봉쇄, 봉수, 봉숭아, 봉오리, 봉우리, 봉인, 봉죽, 봉지, 봉치, 봉토, 봉투, 봉합, 봉호, 봉화, 봐주다, 뵈다, 뵈다, 부, 부가, 부각, 부각되다, 부개비잡히다, 부검지, 부결, 부계, 부고, 부과, 부과하다, 부교, 부근, 부기, 부끄러움, 부끄러이, 부끄럽다, 부나방, 부나비, 부넘기, 부넘기, 부닐다, 부다듯, 부다듯하다, 부닥치다, 부담, 부담스럽다, 부담하다, 부당하다, 부대, 부대끼다, 부대발, 부대찌개, 부도, 부동산, 부두, 부등키다, 부드득부드득하다, 부드러이, 부드럽다, 부드레, 부드레하다, 부득부득, 부들, 부등가리, 부디, 부딪다, 부딪치다, 부딪히다, 부뚜, 부뚜막, 부라, 부라리다, 부라부라, 부라질, 부라퀴, 부락, 부랑인, 부랑자, 부라부라, 부러, 부러워하다, 부러지다, 부러트리다, 부럼, 부럽다, 부레, 부레풀, 부루, 부루말, 부룩소, 부류, 부르다, 부르다, 부르돈다, 부르르, 부르주아, 부르쥐다, 부르짖다, 부르트다, 부름, 부름켜, 부름뜨다, 부를다, 부리, 부리나케, 부리다, 부리다, 부리이다, 부마, 부메랑, 부모, 부모님, 부목, 부문, 부부, 부부간, 부분, 부분적, 부사리, 부사장, 부산, 부삽, 부상, 부상자, 부상하다, 부서, 부서지다, 부서지다, 부설, 부속, 부손, 부수다, 부수트리다, 부스러기, 부스러지다, 부스력부스력하다, 부스럼, 부스스, 부스스하다, 부시, 부시다, 부시다, 부실, 부실하다, 부싯깃, 부싯돌, 부아, 부양, 부업, 부영이, 부영이셈, 부엌, 부여잡다, 부여하다, 부엌다, 부엌다, 부용, 부위, 부위원장, 부유스름하다, 부응하다, 부의, 부인, 부인하다, 부임하다, 부자, 부자지, 부작용, 부잣집, 부장, 부재, 부저, 부적합, 부접, 부접하다, 부젓가락, 부정, 부정부패, 부정적, 부정하다, 부정확, 부조리, 부족, 부족하다, 부주의, 부지, 부지깽이, 부지런, 부지런하다, 부지런히, 부지불식간, 부진, 부진하다, 부질간, 부질없다, 부질없이, 부집, 부집게, 부쩍, 부채, 부채질, 부채질하다, 부챗살, 부처, 부처손, 부총리, 부총재, 부추, 부추기다, 부축, 부츠, 부치다, 부치다, 부치다, 부치다, 부치다, 부치다, 부치이다, 부칙, 부친, 부침개, 부침질, 부게, 부탁, 부탁하다, 부터, 부테, 부터, 부터, 부패, 부패하다, 부표, 부푸러기, 부풀다, 부풀리다, 부품, 부푹부푹, 부피, 부하, 부호, 부활, 부회장, 북, 북, 북간도, 북극, 북녘, 북돋우다, 북두, 북두성, 북두칠성, 북망산, 북받치다, 북방, 북부, 북빙양, 북새통, 북소리, 북어, 북재비, 북적, 북쪽, 분, 분간하다, 분교, 분권, 분규, 분기, 분기점, 분꽃, 분네, 분네, 분노, 분단, 분담, 분담하다, 분디, 분디나무, 분량, 분류되다, 분류하다, 분리, 분리되다, 분리하다, 분말, 분명, 분명하다, 분명히, 분배, 분배하다, 분별, 분산, 분석, 분석되다, 분석하

다, 분수, 분수대, 분수령, 분야, 분양, 분업, 분열, 분위기, 분장, 분재, 분쟁, 분주하다, 분지, 분출, 분칠, 분침, 분투, 분포, 분포하다, 분풀이하다, 분필, 분하다, 분하다, 분하다, 분할, 분화, 분화구, 불, 불, 불가, 불가능하다, 불가사리, 불가사의, 불가침, 불가피하다, 불가항력, 불같다, 불같다, 불개미, 불거웃, 불경이, 불경기, 불고기, 불과, 불과하다, 불교, 불구, 불구속, 불구자, 불구하다, 불규칙, 불규칙하다, 불균형, 불그데데하다, 불그땡땡하다, 불그레하다, 불그름하다, 불그무레하다, 불그속속하다, 불그스레하다, 불그스름하다, 불그죽죽하다, 불긋불긋, 불긋불긋하다, 불긋하다, 불기운, 불길, 불길하다, 불까다, 불꽃, 불끈, 불끈불끈하다, 불다, 불도맛이, 불도저, 불두덩, 불땀, 불땀머리, 불똥, 불뚝, 불란서, 불량기, 불량, 불량하다, 불러내다, 불러들이다, 불러오다, 불러일으키다, 불로소득, 불룩이, 불리다, 불리다, 불리다, 불리다, 불리다, 불리다, 불리우다, 불리하다, 불림, 불만, 불면증, 불목하니, 불발기, 불발탄, 불법, 불불다, 불붙이다, 불빛, 불사조, 불상놈, 불신, 불쌍놈, 불쌍하다, 불쌍히, 불쏘시개, 불쑥, 불씨, 불안, 불안감, 불안정하다, 불안하다, 불알, 불야성, 불어나다, 불어나다, 불어넣다, 불어리, 불어오다, 불여우, 불완전하다, 불이익, 불입, 불잉걸, 불자, 불줄기, 불치병, 불친소, 불콩, 불과하다, 불쾌하다, 불타, 불타다, 불태우다, 불투명하다, 불티, 불편, 불편하다, 불평, 불평등, 불필요하다, 불한당, 불합리, 불행, 불행하다, 불현듯, 불현듯, 불현듯이, 불현듯이, 불확실성, 불확실하다, 불황, 불나무, 불다, 불덩물, 불어지다, 불으락푸르락, 붉은색, 붉히다, 붉다, 봄비다, 붓, 붓꽃, 붓끝, 붓다, 붓다, 붓대, 붓두껍, 붓고, 붓고되다, 붓대, 붓송하다, 붓어, 불다, 불다, 불당기다, 불들다, 불들리다, 불매이다, 불박이, 불박이창, 불안다, 불이, 불이다, 불임대, 불임성, 불임질, 불임틀, 불임판, 불임혀, 붙잡다, 붙잡히다, 붙좃다, 뷔페, 브나로드, 브라, 브라보, 브라스밴드, 브래지어, 브랜드, 브레이크, 브로마이드, 브로치, 브로커, 블라우스, 블랙리스트, 블록, 비, 비, 비계질, 비결, 비계, 비공식적, 비판, 비판적, 비교, 비교적, 비교하다, 비구, 비구니, 비그이, 비극, 비극적, 비기다, 비기다, 비김수, 비꼬이다, 비끼다, 비난, 비난하다, 비녀, 비누, 비누, 비늘, 비다, 비단, 비단, 비대다, 비대발괄, 비더리, 비데, 비둘기, 비듬, 비등, 비뚜로, 비뚜름하다, 비뿔어지다, 비람바, 비력질, 비렁뱅이, 비레하다, 비로드, 비로소, 비로자나, 비록, 비릇, 비릇되다, 비릇하다, 비료, 비루, 비루먹다, 비류, 비름, 비리, 비리다, 비리다, 비리척지근하다, 비린내, 비릿비릿, 비릿하다, 비만, 비명, 비밀, 비바람, 비바리, 비번, 비비다, 비비대기치다, 비비적거리다, 비비적대다, 비빔, 비빔밥, 비사부불, 비사치기, 비사치다, 비상, 비상하다, 비서, 비서, 비서관, 비서실, 비서실장, 비석, 비손, 비손하다, 비스듬하다, 비스듬히, 비스러지다, 비스름하다, 비스킷, 비속거리다, 비속대다, 비속이, 비속하다, 비슬거리다, 비슬대다, 비슬비슬, 비suit, 비슷하다, 비시, 비실비실, 비싸다, 비아이에스디엔, 비약, 비양, 비역, 비영비영하다, 비오리, 비오리사탕, 비용, 비우다, 비웃, 비웃구이, 비웃다, 비웃음, 비웃적거리다, 비웃적대다, 비위, 비유, 비유하다, 비율, 비자, 비자금, 비장, 비적비적, 비접, 비정상적, 비좁다, 비죽하다, 비준, 비중, 비즈니스, 비지, 비지땀, 비쭈기나무, 비차, 비참하다, 비추다, 비추이다, 비치다, 비키다, 비타민, 비탈, 비틀거리다, 비틀다, 비틀다, 비틀리다, 비틀하다, 비틀히, 비파, 비판, 비판적, 비판하다, 비평, 비평가, 비프가스, 비프스테이크, 비하다, 비합법, 비행, 비행기, 비호, 빅딜, 빈곤, 빈대, 빈대떡, 빈대떡, 빈두로, 빈말, 빈민굴, 빈민촌, 빈번하다, 빈사과, 빈약, 빈약하다, 빈정거리다, 빈정빈정하다, 빈지, 빈털터리, 빌다, 빌다, 빌딩, 빌라, 빌리다, 빌리다, 빌미, 빌미하다, 빌어먹다, 빔, 빙더서다, 빗, 빗, 빗, 빗기다, 빗나가다, 빗다, 빗물, 빗발, 빗방울, 빗살, 빗소리, 빗솔, 빗장, 빗집, 빗줄기, 빗지

개, 빙고, 빙구, 빙그레, 빙글빙글, 빙빙, 빙수, 빙시레, 빙어, 빙자하다, 빙하, 빗, 빗내다, 빗다, 빗어내다, 빗어지다, 빗지다, 빗, 빗갈, 빗나다, 빗내다, 빠꾸, 빠데, 빠듯하다, 빠르다, 빠름, 빠져나가다, 빠져나오다, 빠지다, 빠지다, 빠짐없이, 빠트리다, 뽐뽐하다, 뽐드럽다, 뽐뽐하다, 뽐쓰, 뽐히, 빨간색, 빨강, 빨갈다, 빨갱이, 빨다, 빨다, 빨다, 빨다, 빨래, 빨래, 빨래하다, 빨리, 빨리, 빨리다, 빨리다, 빨아내다, 빨아내다, 빨치산, 뽐뽐하다, 뽐, 뽐꾸, 뽐집, 뽐다, 빼기, 빼기, 빼내다, 빼놓다, 빼다, 빼도리, 빼두로, 빼돌다, 빼앗기다, 빼앗다, 빼어나다, 빼치다, 뽐뽐이, 뽐뽐하다, 뽐셈, 뽐다, 뽐소니, 뽐쑥, 뽐줄, 뽐, 뽐뽐, 뽐근하다, 뽐기다, 뽐꾸기, 뽐꼭새, 뽐꼭채, 뽐드러지다, 뽐드렁니, 뽐드렁이, 뽐드름하다, 뽐득뽐득하다, 뽐젓하다, 뽐뽐, 뽐뽐, 뽐뽐하다, 뽐드럽다, 뽐뽐하다, 뽐뽐히, 뽐하다, 뽐히, 뽐다, 뽐지르다, 뽐치다, 뽐침대, 뽐팔이, 뽐쭈하다, 뽐뽐하다, 뽐뽐하다, 뽐세다, 뽐짜, 뽐튀기, 뽐뽐, 뽐, 뽐고도리, 뽐끝, 뽐다귀, 뽐뜯이, 뽐마디, 뽐, 뽐다, 뽐드득, 뽐드득뽐드득하다, 뽐뽐, 뽐, 뽐내다, 뽐다, 뽐다, 뽐다, 뽐아내다, 뽐히다, 뽐, 뽐나무, 뽐발, 뽐뽐지다, 뽐잎, 뽐두라지, 뽐루지, 뽐족뽐족하다, 뽐족이, 뽐족하다, 뽐다구니, 뽐듯하다, 뽐리, 뽐리내리다, 뽐리다, 뽐리다, 뽐리등걸, 뽐리치다, 뽐영다, 뽐장귀, 뽐, 뽐, 뽐, 뽐그름하다, 뽐그스름하다, 뽐그죽죽하다, 뽐긋긋, 뽐뽐이, 뽐활, 뽐다, 뽐어내다, 뽐다, 뽐다, 뽐대다, 뽐두로, 뽐두름하다, 뽐돌어지다, 뽐라, 뽐죽뽐죽하다, 뽐죽뽐죽하다, 뽐치다, 뽐침, 뽐뽐이, 뽐뽐하다, 뽐기, 뽐, 뽐그레, 뽐시레, 스, 사, 사, 사각, 사각형, 사감, 사건, 사격, 사고, 사고력, 사고방식, 사골, 사공, 사과, 사과하다, 사관, 사교, 사교계, 사귀다, 사귀다, 사그라지다, 사그라트리다, 사그랑이, 사그랑주머니, 사글세, 사금, 사금파리, 사기, 사기꾼, 사기한, 사나이, 사나흘, 사날, 사납다, 사내, 사냥, 사냥, 사냥, 사냥개, 사냥꾼, 사냥하다, 사느랴다, 사늘하다, 사늘히, 사니, 사다, 사다가, 사다리, 사다새, 사닥다리, 사당춤, 사대주의, 사돈, 사들이다, 사또, 사라부루, 사라수, 사라지다, 사라화, 사람, 사람, 사랑, 사랑니, 사랑옴다, 사랑채, 사랑하다, 사랑하다, 사랑롭다, 사례질, 사례질하다, 사례, 사령관, 사례, 사례하다, 사로자다, 사로잡, 사로잡그다, 사로잡다, 사로잡다, 사로잡히다, 사뢰다, 사료, 사료마차, 사르다, 사름, 사리, 사리다, 사립, 사립문, 사립짜, 사립짜문, 사마귀, 사마귀풀, 사막, 사막스럽다, 사막하다, 사망, 사망하다, 사면팔방, 사명, 사모, 사모곡, 사모님, 사모하다, 사목, 사무, 사무라이, 사무소, 사무실, 사무총장, 사무치다, 사물, 사뭇, 사바, 사바사바, 사박스럽다, 사발, 사발통문, 사방, 사범, 사법, 사변, 사보타주, 사복개천, 사본, 사부자기, 사복, 사사, 사사로이, 사사롭다, 사살, 사삼버무레, 사상, 사상가, 사상자, 사상적, 사생아, 사생활, 사설, 사소하다, 사숙, 사슬, 사슬, 사슬, 사슴, 사슴벌레, 사시나무, 사시미, 사실, 사실상, 사십, 사안, 사양, 사양채, 사양하다, 사업, 사업가, 사업자, 사업장, 자연, 사옴, 사옴, 사옴되다, 사옴자, 사옴하다, 사우나, 사운드, 사월, 사위, 사위, 사위다, 사유, 사육신, 사이, 사이다, 사이렌, 사이버, 사이사이, 사이클, 사이트, 사이하다, 사익, 사인, 사자, 사자후, 사자밥, 사장, 사장간, 사재, 사재기, 사재발쑥, 사쟁이, 사적, 사전, 사접시, 사정, 사정없이, 사제, 사조, 사족, 사주, 사주팔자, 사지, 사직, 사진, 사진관, 사진기, 사진사, 사찰, 사채, 사처, 사철, 사철나무, 사춘, 사춘기, 사치, 사침대, 사쿠라, 사타구니, 사타귀, 사탕, 사탕무, 사탕발림, 사탕수수, 사탕절이, 사태, 사택, 사토리, 사퇴, 사투리, 사팔뜨기, 사포, 사표, 사프란, 사하다, 사학, 사항, 사해, 사행심, 사항노루, 사항쥐, 사형, 사화, 사환, 사회, 사회, 사회관계, 사회단체, 사회생활, 사회성, 사회자, 사회적, 사회주의적, 사후, 사흘날, 사흘, 사흘돌이, 삭다, 삭망월, 삭신, 삭이다, 삭이다, 삭정이, 삭제하다, 삭치다, 삭히다, 삭.

샷집, 샷팔이, 산, 산골, 산골, 산군, 산길, 산림, 산맥, 산물, 산보, 산봉우리, 산사병, 산사
 편, 산삼, 산소, 산속, 산송, 산수, 산술, 산양, 산업, 산업화, 산자고, 산장, 산적, 산지, 산
 지기, 산지니, 산책, 산천, 산타클로스, 산통, 산파, 산판, 산하, 산행, 산호초, 산화, 산후,
 살, 살, 살, 살갑다, 살갑다, 살갓, 살결, 살구, 살구꽃, 살구나무, 살구씨, 살그머니, 살그미,
 살깃, 살다, 살대, 살뜰하다, 살뜰히, 살랑살랑하다, 살롱, 살리다, 살림, 살림살이, 살림살이
 하다, 살림하다, 살며시, 살무사, 살밀, 살바야, 살반이, 살벌하다, 살벌, 살빔, 살살이, 살
 생, 살생하다, 살아가다, 살어나다, 살어나다, 살아남다, 살아오다, 살얼음, 살육, 살육하다,
 살인, 살장, 살조개, 살지다, 살짝, 살짝, 살짝, 살쩍, 살쩍밀이, 살찌다, 살찌우다, 살치, 살
 코기, 살랭이, 살타, 살피보다, 살포, 살품, 살풍경, 살피다, 살해, 살해하다, 삶, 삶, 삶기다,
 삶다, 삶이, 삼, 삼, 삼, 삼가다, 삼거웃, 삼경, 삼계, 삼계탕, 삼국, 삼꽃, 삼남, 삼노, 삼다,
 삼다, 삼대, 삼라만상, 삼림, 삼마야, 삼매, 삼발이, 삼백, 삼베, 삼별초, 삼보, 삼보리, 삼복,
 삼삼하다, 삼세, 삼수갑산, 삼신, 삼신할머니, 삼실, 삼십, 삼외, 삼월, 삼일, 삼일절, 삼잡
 이, 삼재, 삼재비, 삼줄, 삼지구엽초, 삼지놓이, 삼진날, 삼질, 삼천, 삼천갑자동방삭, 삼청냉
 돌, 삼촌, 삼치, 삼키다, 삼태기, 삼태기, 삼팔따라지, 삼하다, 삼, 삼사리, 삼살개, 삼삼하
 다, 삼시, 삼주, 삼짝, 삼화, 샷, 샷갓, 샷갓나물, 샷대, 샷대질, 샷자리, 상, 상가, 상감, 상
 감마마, 상고대, 상공업, 상관, 상관관계, 상관도, 상관되다, 상관없다, 상관없이, 상관하다,
 상권, 상그레, 상금, 상급생, 상급자, 상기, 상기하다, 상납, 상납하다, 상냥하다, 상념, 상
 담, 상담하다, 상당, 상당수, 상당하다, 상당히, 상대, 상대방, 상대성, 상대적, 상대편, 상대
 하다, 상되다, 상두, 상두꾼, 상두받잇집, 상례, 상록수, 상류, 상륙, 상무, 상민, 상반기, 상
 반되다, 상부, 상비군, 상사, 상사뒤야, 상사리, 상상, 상상력, 상상하다, 상서, 상서롭다, 상
 서하다, 상선, 상설, 상세하다, 상세히, 상속, 상채, 상수리, 상술, 상습, 상승, 상승률, 상승
 세, 상승하다, 상식, 상식적, 상신, 상실, 상실하다, 상아, 상아탑, 상앗대, 상앗대질, 상어,
 상업, 상없다, 상여, 상여금, 상영, 상오, 상원, 상위, 상응하다, 상의하다, 상이, 상이하다,
 상인, 상임, 상자, 상장, 상점, 상종, 상좌, 상징, 상징성, 상징적, 상징하다, 상처, 상체, 상
 추, 상추, 상층, 상쾌하다, 상큼상큼, 상태, 상투, 상패, 상표, 상품, 상품권, 상피, 상피리,
 상하, 상하다, 상한, 상현, 상호, 상환, 상황, 상회, 살, 살바, 살살이, 새, 새, 새, 새, 새,
 새, 새것, 새경, 새고기, 새그무레하다, 새기다, 새기다, 새김, 새까맣다, 새끼, 새끼, 새끼
 낫, 새끼발가락, 새끼손가락, 새남, 새내기, 새다, 새다, 새로, 새로이, 새록새록, 새롭다, 새
 매, 새물, 새박, 새벽, 새빨갳다, 새삼, 새삼스럽다, 새삼씨, 새서방, 새소리, 새소리, 새수나
 다, 새아기씨, 새알, 새알심, 새앙, 새앙나무, 새웅, 새우, 새우다, 새우다, 새우잠, 새우젓,
 새조개, 새참, 새치, 새코찌리, 새콩, 새털, 새파랗다, 새해, 색, 색깔, 색다르다, 색동단, 색
 동저고리, 색상, 색소폰, 색스폰, 색시, 색안경, 색주가, 색채, 색님, 샌드백, 샌드위치, 샌드
 위치맨, 샌들, 쉐러드, 쉐러리맨, 쉐비어, 샘, 샘, 샘, 샘물, 샘바르다, 샘반이, 샘플, 샘하다,
 췌장, 췌노랗다, 췌문, 췌바람, 췌별, 췌서방, 생, 생각, 생각, 생각나다, 생각되다, 생각하
 다, 생각, 생겨나다, 생계, 생과자, 생그레, 생긋생긋, 생기, 생기다, 생김새, 생도, 생동찰,
 생동팔, 생때같다, 생략하다, 생리, 생리적, 생명, 생명력, 생명선, 생명수, 생명체, 생모, 생
 목, 생물, 생물학적, 생사, 생산, 생산관계, 생산되다, 생산량, 생산물, 생산자, 생산품, 생산
 하다, 생생하다, 생석회, 생선, 생성, 생성되다, 생성하다, 생소하다, 생수받이, 생애, 생역
 지, 생원, 생육신, 생이별, 생인발, 생인손, 생일, 생장, 생재기, 생전, 생존, 생존하다, 생쥐,
 생지황, 생철, 생체, 생태, 생태계, 생태적, 생활, 생활력, 생활비, 생활양식, 생활용품, 생활

하다, 생황, 샤부샤부, 샤쓰, 샤프, 샤프심, 샤프연필, 샤프펜슬, 샤프펜슬, 삭스핀, 샴페인, 샴푸, 샹들리에, 새시, 서, 서, 서간, 서간도, 서격서격하다, 서구, 서그럽다, 서글프다, 서기, 서까래, 서껌, 서낭, 서너, 서넛, 서넛, 서느렇다, 서늘하다, 서늘히, 서다, 서다, 서당, 서두르다, 서두르다, 서라말, 서랍, 서러움, 서러워하다, 서럽다, 서력, 서로, 서류, 서른, 서름하다, 서룻다, 서리, 서리, 서리꽃, 서리다, 서머타임, 서머하다, 서면, 서명, 서무날, 서민, 서반아, 서방, 서방님, 서벽서벽하다, 서부, 서분서분, 서분서분, 서분히, 서비스업, 서생, 서서히, 서술, 서술어, 서술하다, 서슴다, 서식, 서약, 서양, 서양인, 서양화, 서어하다, 서열, 서운하다, 서울, 서울까투리, 서자, 서자지, 서재, 서적, 서점, 서진, 서쪽, 서책, 서캐, 서커스, 서클, 서투르다, 석, 석가모니, 석결명, 석고, 석공, 석궁, 석류, 석산, 석쇠, 석수어, 석유, 석임, 석자, 석탄, 석탑, 석회, 섞갈리다, 섞다, 섞이다, 섞이다, 섞임월, 섯, 선, 선가, 선각자, 선거, 선교, 선교사, 선글라스, 선녀, 선다님, 선달, 선도자, 선동, 선두, 선뜻, 선로, 선명하다, 선물, 선물하다, 선박, 선반, 선발, 선발되다, 선배, 선보름, 선보이다, 선불, 선비, 선비, 선사, 선생, 선생님, 선서, 선선하다, 선수, 선수권, 선술, 선술집, 선언, 선언서, 선언하다, 선영, 선웃음, 선을, 선인장, 선장, 선적, 선전, 선전하다, 선정, 선정되다, 선정하다, 선조, 선주후면, 선지, 선진, 선진국, 선집, 선짓국, 선착장, 선천적, 선체, 선출, 선출되다, 선출하다, 선태, 선택, 선택되다, 선택하다, 선풍, 선풍기, 선하다, 선행, 선행하다, 선후, 선후하다, 선훈, 선훈받이, 선후르다, 선훈리, 설, 설, 설거지, 설경설경, 설경설경하다, 설계, 설계도, 설계하다, 설교, 설기, 설기, 설날, 설다, 설다, 설다듬이, 설대, 설득, 설득력, 설득하다, 설령, 설령설령, 설령당, 설레기, 설레다, 설령, 설립, 설립되다, 설립하다, 설마, 설면하다, 설명, 설명되다, 설명서, 설명하다, 설문, 설비, 설빔, 설사, 설움, 설워하다, 설정, 설정되다, 설정하다, 설치, 설치다, 설치다, 설치되다, 설치하다, 설탕, 설피다, 설핏설핏, 설혹, 설화, 설다, 섬, 섬, 섬, 섬거적, 섬기다, 섬기다, 섬돌, 섬뜩하다, 섬세하다, 섬유, 섬리, 섬새기다, 섬새김, 섬섬하다, 섬섬하다, 섬섬히, 섬씨, 섬정, 섬취, 섬취하다, 셋밀, 성, 성가시다, 성가귀, 성격, 성경, 성공, 성공적, 성공하다, 성과, 성교육, 성그레, 성금, 성급하다, 성기, 성기다, 성깃성깃, 성나다, 성내다, 성내다, 성냥, 성냥, 성냥갑, 성냥개비, 성냥하다, 성년, 성능, 성님, 성당, 성령, 성립, 성립되다, 성립하다, 성마르다, 성명, 성명서, 성묘, 성바지, 성벽, 성별, 성분, 성사되다, 성서, 성성, 성숙, 성숙하다, 성스럽다, 성시, 성실하다, 성짚다, 성악, 성애, 성애, 성엿장, 성원, 성의, 성인, 성장, 성장률, 성장하다, 성적, 성주, 성주받이, 성질, 성찰, 성취, 성취하다, 성탄절, 성폭력, 성품, 성하다, 성하다, 성행위, 성향, 성화, 성황, 성황당, 섣, 섣, 섣, 섣나무, 세, 세, 세, 세, 세간, 세계, 세계관, 세계적, 세계화, 세관, 세균, 세금, 세기, 세기말, 세납, 세납하다, 세다, 세다, 세다, 세다, 세단, 세답, 세대, 세도, 세도하다, 세뚜리, 세력, 세련되다, 세로, 세로, 세면기, 세면도구, 세모, 세모나다, 세모지다, 세무서, 세밀하다, 세밀히, 세배, 세배하다, 세부, 세사, 세상, 세상에, 세세히, 세속, 세수, 세수하다, 세숫대야, 세숫물, 세심하다, 세우다, 세월, 세인, 세일, 세일즈맨, 세자, 세장, 세전, 세정, 세정하다, 세제, 세주다, 세차다, 세차다, 세치, 세컨드, 세탁기, 세탁실, 세포, 센둥이, 센티, 센티미터, 썸, 썸, 썸수, 썸, 썸집, 썸째, 셔벗, 셔츠, 션참다, 셰퍼드, 소, 소, 소가지, 소갈딱지, 소갈머리, 소감, 소개, 소개되다, 소개하다, 소결음, 소경, 소경, 소경불알, 소곤소곤하다, 소곰, 소구, 소구멍, 소귀나물, 소규모, 소극적, 소금, 소금물, 소금물, 소금쟁이, 소금절이, 소꿉, 소꿉놀이, 소나기, 소나무, 소낙비, 소날, 소녀, 소년, 소년군, 소농, 소다, 소단원, 소달걀날, 소담하다, 소댕, 소독, 소동, 소득, 소등,

소라, 소란, 소란스럽다, 소래, 소량, 소령, 소록소록, 소루쟁이, 소르르, 소름, 소리, 소리나
 무, 소리치다, 소마, 소망, 소매, 소매치기, 소매, 소매부리, 소멸되다, 소문, 소문나다, 소박
 하다, 소방, 소방서, 소변, 소복단장, 소복담장, 소비, 소비자, 소비재, 소비하다, 소사, 소
 사, 소생, 소설, 소설가, 소소리, 소소리바람, 소속, 소속되다, 소스치다, 소승, 소시지, 소
 식, 소식통, 소신, 소액, 소외, 소외되다, 소요되다, 소용, 소용돌이, 소용없다, 소원, 소위,
 소유, 소유권, 소유자, 소유하다, 소음, 소작, 소작료, 소작인, 소재, 소재, 소주, 소주병, 소
 줏고리, 소중하다, 소중히, 소지, 소지인, 소질, 소쩍새, 소총, 소쿠리, 소통, 소파, 소포, 소
 품, 소품, 소프트웨어, 소학교, 소해, 소형, 소홀하다, 소홀히, 소화, 소화기, 소화하다, 소
 환, 속, 속곳, 속국, 속기, 속꺼풀, 속내, 속눈썹, 속다, 속단, 속담, 속도, 속돌, 속력, 속마
 음, 속병, 속사포, 속삭이다, 속상하다, 속새, 속서근풀, 속성, 속속, 속악, 속옷, 속이다, 속
 임수, 속저고리, 속절없다, 속절없이, 속출하다, 속치마, 속하다, 슈다, 슈음, 손, 손, 손소,
 손가락, 손가방, 손거울, 손결이, 손금, 손길, 손꼽다, 손꼽히다, 손끝, 손녀, 손님, 손도울
 이, 손돌바람, 손돌이추위, 손등, 손목, 손목시계, 손바꿈, 손바닥, 손발, 손발톱, 손뼉, 손사
 래, 손상, 손상되다, 손살, 손수, 손수건, 손쉽다, 손실, 손씻이, 손아귀, 손위, 손자, 손자,
 손잡다, 손잡이, 손질하다, 손짓, 손찌검, 손톱, 손톱깎이, 손퐁금, 손해, 솔, 솔, 솔, 솔, 솔
 개, 솔기, 솔다, 솔방울, 솔새, 솔솔이, 솔수평이, 솔잎, 솔직하다, 솔직히, 솜, 솜대, 솜방망
 이, 솜사탕, 솜씨, 솜털, 솜털, 솜털, 솜뜨다, 솟고라지다, 솟구다, 솟구치다, 솟다, 솟대, 솟
 아나다, 솟아오르다, 솟을대문, 솟치다, 송고리, 송골, 송골매, 송곳, 송곳니, 송금, 송낙, 송
 림, 송별회, 송사리, 송송, 송송, 송아지, 송어, 송이, 송이버섯, 송진, 송진, 송치, 송판, 송
 편, 솔, 솔발, 쇠국, 쇠신, 쇠자, 쇠, 쇠, 쇠가래, 쇠갈고리, 쇠고기, 쇠고랑, 쇠고리, 쇠꼬리,
 쇠꼬챙이, 쇠뇌, 쇠다, 쇠다, 쇠똥, 쇠똥, 쇠똥구리, 쇠막대, 쇠막대기, 쇠망치, 쇠머리, 쇠뿔
 등이, 쇠무릎, 쇠무릎지기, 쇠비름, 쇠뿔, 쇠뿔, 쇠사슬, 쇠새, 쇠손, 쇠스랑, 쇠심, 쇠오줌,
 쇠젓, 쇠지랑물, 쇠창살, 쇠치, 쇠테, 쇠퇴하다, 흰네, 흰가루, 흰소리, 쇼, 쇼윈도, 쇼크, 쇼
 핑, 솔더, 솟, 수, 수, 수갑, 수건, 수계, 수고, 수고로이, 수고롭다, 수고하다, 수교, 수군,
 수군대다, 수군덕거리다, 수군수군, 수그러지다, 수그러다, 수급, 수기, 수나이, 수난, 수녀,
 수년, 수늑, 수다, 수단, 수당, 수도, 수도관, 수도꼭지, 수도원, 수돗물, 수동적, 수떨다, 수
 락, 수락장, 수량, 수령, 수레, 수레바퀴, 수력, 수련, 수렴청정, 수록되다, 수류탄, 수르르,
 수리, 수리취, 수립, 수립하다, 수릿날, 수만, 수많다, 수말, 수망, 수명, 수면, 수명, 수모,
 수무지개, 수바늘, 수박, 수박씨, 수반되다, 수반하다, 수배, 수백, 수백만, 수법, 수비, 수비
 대, 수사, 수사관, 수사슴, 수사하다, 수산, 수산물, 수산업, 수상, 수상자, 수상하다, 수새,
 수선, 수선거리다, 수성, 수세, 수세미, 수세미외, 수소, 수소문, 수속, 수송, 수수, 수수께
 끼, 수수료, 수술, 수숫대, 수습, 수습하다, 수시로, 수신, 수신기, 수심, 수습, 수아주, 수양
 회, 수업, 수업료, 수없이, 수염, 수영장, 수요, 수요일, 수용, 수용소, 수용하다, 수월수월,
 수월찮다, 수월하다, 수위, 수육, 수은, 수이, 수익, 수익률, 수입, 수입되다, 수입하다, 수자
 원, 수자해쫓, 수작, 수잠, 수장하다, 수재민, 수저, 수전노, 수정하다, 수제비, 수제품, 수족
 관, 수종쇠, 수준, 수중다리, 수지니, 수직, 수진, 수진매, 수질, 수집, 수집하다, 수차, 수차
 래, 수채, 수천, 수첩, 수축, 수출, 수출하다, 수치, 수캉아지, 수개, 수컷, 수키와, 수탉, 수
 탕나귀, 수톨찌귀, 수통, 수태지, 수통니, 수평, 수평선, 수평아리, 수표, 수풀, 수퐁금, 수
 프, 수필, 수학, 수학여행, 수할치, 수해, 수행, 수행되다, 수행원, 수행자, 수행하다, 수험
 생, 수화, 수화기, 수확, 속다, 속덕속덕, 속맥, 속소, 속수, 속식비, 속신, 속이다, 속제, 속

주나물, 숙지다, 숙직, 숙직실, 순, 순간, 순간적, 순검, 순경, 순교, 순대, 순라, 순록, 순무, 순배, 순보, 순사, 순서, 순수, 순수하다, 순순히, 순식간, 순위, 순응하다, 순전히, 순조롭다, 순진하다, 순찰, 순화, 순환, 순가락, 순갈, 술, 술, 술, 술값, 술독, 술래, 술래잡기, 술밑, 술병, 술술, 술자리, 술잔, 술적심, 술주정, 술지게미, 술집, 술찌끼, 숨, 숨결, 숨기다, 숨다, 숨바꼭질, 숨박질, 숨소리, 숨지다, 숨탄것, 숫, 숫구멍, 숫기, 숫돌, 숫되다, 숫자, 승고하다, 승냥, 승배, 승어, 숫, 숫불, 숫섬, 숫섬, 술, 술하다, 술하다, 숲, 쉬, 쉬, 쉬다, 쉬다, 쉬다, 쉬다, 쉬슬다, 쉬엄쉬엄, 쉬이, 쉬지근하다, 쉬척지근하다, 쉬파리, 쉼, 쉼내, 쉼표, 쉽다, 쉽사리, 쉽사리, 슈트, 슈퍼, 숫, 스넥, 스님, 스라소니, 스란치마, 스러지다, 스럽다, 스루다, 스릴러, 스며들다, 스무, 스물, 스미다, 스산하다, 스스로, 스승, 스웨터, 스위치, 스치다, 스카프, 스커트, 스킵크, 스케이트, 스케치, 스케치북, 스쿠버, 스크랩, 스크랩북, 스키, 스킨십, 스타, 스타디움, 스타일, 스타킹, 스태프, 스탬프, 스테이크, 스테이플, 스테인리스, 스텐, 스토리, 스토브, 스텐, 스트레스, 스트레이트, 스틱, 스파이, 스페너, 스펀지, 스펙트럼, 스포츠, 스폰, 스프, 스프링, 스피커, 슬갑, 슬겁다, 슬그머니, 슬그미, 슬기, 슬기롭다, 슬다, 슬다, 슬라이드, 슬럼프, 슬리퍼, 슬며시, 슬쩍, 슬치, 슬퍼하다, 슬프다, 슬픔, 슬피, 숨배, 습관, 습기, 습니다, 습도, 습득, 습득하다, 습진, 승, 승가, 승가리, 승강기, 승강장, 승객, 승검초, 승계, 승기, 승냥이, 승리, 승리하다, 승부, 승부하다, 승새, 승아, 승용차, 승인, 승인하다, 승진, 승차, 승차권, 승창, 승합, 승합차, 승화, 시가, 시각, 시각적, 시간, 시간대, 시간적, 시간제, 시간표, 시계, 시곗박, 시계, 시골, 시공, 시구문, 시국, 시궁, 시궁쥐, 시궁창, 시근거리다, 시근대다, 시근덕거리다, 시근덕대다, 시금떨떨하다, 시금석, 시금시금, 시금쑹쑹하다, 시금치, 시급하다, 시기, 시꺼멓다, 시끄럽다, 시나위, 시내, 시냇스, 시냇가, 시냇물, 시너, 시늉, 시다, 시달리다, 시답다, 시답잖다, 시대, 시대적, 시도, 시도되다, 시도하다, 시동, 시동생, 시드력부드럭, 시들다, 시들먹하다, 시디, 시디롬, 시라소니, 시래기, 시러베아들, 시러베자식, 시러베장단, 시럽, 시령, 시력, 시련, 시론, 시루, 시루떡, 시름, 시리다, 시리다, 시먹, 시멘트, 시무나무, 시무나무, 시민, 시범, 시부령거리다, 시비, 시사, 시사하다, 시상식, 시재우다, 시선, 시절, 시소, 시속, 시승, 시시, 시신, 시아버지, 시앗, 시야, 시어머니, 시어미, 시에프, 시에프시, 시웃, 시우쇠, 시울, 시원, 시원찮다, 시원하다, 시원히, 시월, 시위, 시위, 시위대, 시인, 시인하다, 시일, 시작, 시작되다, 시작하다, 시장, 시장하다, 시적, 시절, 시점, 시조, 시종, 시중, 시지근하다, 시집, 시집가다, 시책, 시척지근하다, 시청, 시청자, 시체, 시치다, 시치미, 시침, 시침실, 시침질, 시커멓다, 시큰거리다, 시큰대다, 시큰둥이, 시큰둥하다, 시큰하다, 시큼시큼, 시큼하다, 시키다, 시태, 시태질, 시트, 시툇이, 시툇하다, 시표, 시한, 시합, 시행, 시행되다, 시행착오, 시행하다, 시험, 시험관, 시험지, 시험하다, 시호, 시혹, 시화, 시효, 식, 식구, 식다, 식단, 식당, 식당차, 식량, 식료품, 식모, 식물, 식물원, 식민, 식민지, 식비, 식빵, 식사, 식사하다, 식산, 식생활, 식수, 식언, 식욕, 식용, 식자, 식장, 식차마나, 식탁, 식품, 식혜, 식히다, 신, 신가정, 신감기, 신깡기, 신경, 신경계, 신경질, 신경질적, 신고, 신고산타령, 신고하다, 신교, 신규, 신기다, 신기료장수, 신기루, 신기원, 신기전, 신기하다, 신나다, 신나무, 신년, 신년사, 신념, 신다, 신당, 신도, 신도시, 신돌이, 신랑, 신뢰, 신뢰성, 신뢰하다, 신맛, 신명, 신문, 신문사, 신문지, 신민, 신바람, 신발, 신부, 신부례, 신분, 신비, 신비롭다, 신비하다, 신사, 신석기, 신선, 신선로, 신선하다, 신설, 신설하다, 신성하다, 신세, 신세계, 신세대, 신소재, 신속하다, 신시대, 신식, 신심, 신앙, 신앙심, 신약, 신여성, 신용, 신원, 신음, 신인, 신임, 신입생, 신자,

신작로, 신장, 신종, 신중, 신중하다, 신지, 신진대사, 신창, 신천지, 신청, 신청부갈다, 신청
 하다, 신체, 신체검사, 신체적, 신축, 신춘문예, 신탄, 신통, 신통력, 신파, 신힐, 신힐호, 신힐
 기, 신힐호등, 신힐호수, 신힐혼, 신힐혼부부, 신힐혼여행, 신힐화적, 신힐흥, 신힐다, 신힐, 신힐, 신힐감, 신힐감개,
 신힐감하다, 신힐개울, 신힐개천, 신힐과, 신힐굽, 신힐굽달이, 신힐권, 신힐그러지다, 신힐그물, 신힐꾸리, 신힐날,
 신힐내, 신힐내마님, 신힐내악, 신힐답다, 신힐도랑, 신힐랑이, 신힐랑이하다, 신힐력, 신힐로, 신힐로폰, 신힐루엣,
 신힐리다, 신힐리다, 신힐마리, 신힐망, 신힐망하다, 신힐명제, 신힐무, 신힐물, 신힐반대, 신힐사, 신힐색하다, 신힐생
 활, 신힐섭, 신힐세, 신힐시, 신힐시되다, 신힐시하다, 신힐업, 신힐업계, 신힐업률, 신힐업자, 신힐없다, 신힐오라
 기, 신힐오리, 신힐을, 신힐용성, 신힐용적, 신힐용화, 신힐은, 신힐장, 신힐적, 신힐정, 신힐제, 신힐제로, 신힐제적,
 신힐존, 신힐종, 신힐종되다, 신힐증, 신힐직, 신힐직자, 신힐질, 신힐질적, 신힐쪽하다, 신힐천, 신힐천하다, 신힐체,
 신힐컷, 신힐컷, 신힐켜다, 신힐크, 신힐큼하다, 신힐태, 신힐터, 신힐툇, 신힐패, 신힐패하다, 신힐하다, 신힐학, 신힐행,
 신힐행하다, 신힐험, 신힐험하다, 신힐현, 신힐현되다, 신힐현하다, 신힐효, 신힐하다, 신힐어하다, 신힐이, 신힐, 신힐각
 성, 신힐각하다, 신힐경, 신힐기다, 신힐다, 신힐돈우개, 신힐드령하다, 신힐드령히, 신힐리, 신힐리적, 신힐마니,
 신힐미, 신힐미안, 신힐방, 신힐별, 신힐보, 신힐불, 신힐부름, 신힐사, 신힐상찮다, 신힐상하다, 신힐성, 신힐신, 신힐심
 찡다, 신힐심풀이, 신힐심하다, 신힐심하다, 신힐심히, 신힐야, 신힐의, 신힐장, 신힐장병, 신힐정, 신힐증, 신힐지,
 신힐지어, 신힐층, 신힐판, 신힐하다, 신힐호흡, 신힐화, 신힐화되다, 신힐히, 신힐, 신힐년감수, 신힐만, 신힐사, 신힐상,
 신힐이월, 신힐일월, 신힐자가, 신힐자군, 신힐자매, 신힐장, 신힐장생, 신힐팔번, 신힐겁다, 신힐그레, 신힐송생송,
 신힐싱하다, 신힐아, 신힐다, 신힐개, 신힐구려, 신힐느랄다, 신힐늘하다, 신힐다, 신힐다, 신힐다, 신힐다, 신힐다, 신힐
 라기, 신힐라기눈, 신힐락눈, 신힐락돌, 신힐리, 신힐리비, 신힐매다, 신힐우다, 신힐움, 신힐움하다, 신힐이다, 신힐
 전, 신힐, 신힐수, 신힐트다, 신힐, 신힐가루, 신힐가마, 신힐개, 신힐바구미, 신힐밥, 신힐보리, 신힐사다, 신힐수수,
 신힐쌀히, 신힐팔다, 신힐풀, 신힐, 신힐지, 신힐짓돈, 신힐, 신힐그레, 신힐꺼풀, 신힐둥이, 신힐룩, 신힐쌍, 신힐안경,
 신힐다, 신힐이다, 신힐근덕거리다, 신힐근덕대다, 신힐다, 신힐그레, 신힐, 신힐느렇다, 신힐다, 신힐레, 신힐레질,
 신힐, 신힐다, 신힐이다, 신힐정이, 신힐다, 신힐다, 신힐령하다, 신힐리다, 신힐매, 신힐물, 신힐음질, 신힐가리, 신힐다,
 신힐다니다, 신힐아보다, 신힐이다, 신힐독새, 신힐살같이, 신힐다, 신힐다, 신힐아지다, 신힐라닥질, 신힐리다, 신힐
 기, 신힐기, 신힐기풀, 신힐다, 신힐군덕거리다, 신힐군덕대다, 신힐다, 신힐시다, 신힐, 신힐대밭, 신힐떡, 신힐물,
 신힐밭, 신힐버무리, 신힐새, 신힐스럽다, 신힐개, 신힐나미, 신힐다, 신힐다, 신힐다, 신힐다, 신힐다, 신힐라리다, 신힐리
 지다, 신힐러트리다, 신힐레그물, 신힐레기, 신힐레기통, 신힐레받기, 신힐레빠, 신힐레질, 신힐레질하다, 신힐
 레하다, 신힐르라미, 신힐리다, 신힐이다, 신힐이다, 신힐임새, 신힐잘머리, 신힐적거리다, 신힐적대다, 신힐너
 삼, 신힐맛, 신힐개, 신힐다, 신힐다, 신힐데없다, 신힐리다, 신힐모, 신힐쓸하다, 신힐어버리다, 신힐음질, 신힐다,
 신힐바귀, 신힐سمى, 신힐쓰레하다, 신힐쓰름하다, 신힐쓸하다, 신힐다, 신힐우개, 신힐우다, 신힐, 신힐, 신힐도리,
 신힐름, 신힐름하다, 신힐받이, 신힐식잖다, 신힐아, 신힐앗, 신힐족, 신힐씩하다, 신힐씩히, 신힐다, 신힐히다, 신힐가
 시다, 신힐기다, 신힐김곳, 신힐다, ○, 아, 아가, 아가리, 아가미, 아가씨, 아가위, 아가위, 아가위
 나무, 아가타, 아갈머리, 아갈잡이, 아궁이, 아귀, 아그배, 아기, 아기씨, 아기씨, 아까, 아
 까, 아까시나무, 아깝다, 아끼다, 아낌없다, 아낌없이, 아나키, 아나키스트, 아나함과, 아낙,
 아낙, 아낙군수, 아낙네, 아내, 아냐, 아내모네, 아내자, 아뇨, 아누다라삼막삼보리, 아늑하
 다, 아늑, 아니, 아니꼽다, 아니다, 아니야, 아니요, 아니하다, 아닥치듯, 아담하다, 아동, 아
 둔, 아둔하다, 아드님, 아득, 아득아득, 아득아득하다, 아득하다, 아득히, 아득히, 아들, 아라
 리, 아라한, 아란야, 아람, 아람바, 아람치, 아랑, 아랑곳, 아랑곳없다, 아랑곳하다, 아랑주,
 아래, 아래아, 아래웃, 아래위, 아래윗니, 아래쪽, 아래층, 아랫도리, 아랫동, 아랫목, 아랫
 배, 아랫사람, 아랫입술, 아랫잇몸, 아령, 아로새기다, 아로새기다, 아롱사태, 아롱지다, 아
 뢰다, 아르, 아름, 아름다움, 아름답다, 아름드리, 아리다, 아리뭇다, 아리랑, 아리송하다, 아

리수, 아마, 아마, 아마도, 아마존, 아메리카, 아멘, 아몬드, 아무, 아무개, 아무것, 아무래
 도, 아무런, 아무렇다, 아무리, 아무쪼록, 아무쪼록, 아무튼, 아무튼지, 아물다, 아물다, 아바
 마마, 아방가르드, 아버지, 아범, 아베크, 아비, 아비규환, 아비달마, 아빠, 아사리,
 아삼룩, 아서, 아수라, 아수라장, 아쉬움, 아쉽다, 아스라이, 아스라하다, 아스팔트, 아승기,
 아시아, 아씨, 아아, 아얌, 아양, 아연, 아예, 아우, 아우님, 아우르다, 아우성, 아우성치다,
 아욱, 아울러, 아울러다, 아웃사이드, 아유, 아이, 아이고, 아이고머니, 아이리스, 아이보리,
 아이스박스, 아이스커피, 아이스케이크,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하키, 아이종, 아재,
 아재비, 아저씨, 아저씨, 아전, 아주, 아주, 아주, 아주까리, 아주머니, 아주머니, 아주미, 아
 주버니, 아주버님, 아주버님, 아주비, 아줌마, 아지랑이, 아지트, 아직, 아직, 아질하다, 아찔
 하다, 아차, 아첨하다, 아치, 아침, 아침밥, 아침저녁, 아카시아, 아코디언, 아크, 아크등, 아
 킬레스건, 아파트, 아파하다, 아편, 아편쟁이, 아프다, 아프리카, 아픔, 아하, 아해사리, 아
 흠, 아흠썰, 아흠, 아흐레, 아흔, 악, 악감정, 악기, 악대, 악마, 악머구리, 악몽, 악물다, 악
 선전, 악수, 악순환, 악쓰다, 악쓰다, 악어, 악장치다, 악취, 악하다, 악화, 악화되다, 안, 안,
 안간힘, 안갯음, 안개, 안개, 안거, 안건, 안경, 안경방, 안경점, 안경테, 안기다, 안내, 안내
 서, 안내양, 안내장, 안내하다, 안녕, 안녕하다, 안녕히, 안다, 안다, 안다미, 안다미로, 안
 달, 안달복달, 안도, 안돌이, 안동답답이, 안되다, 안뜰, 안락의자, 안마술, 안말이, 안목, 안
 받다, 안방, 안보, 안부, 안성맞춤, 안손님, 안식, 안심, 안심찮다, 안심하다, 안스럽다, 안악
 군수, 안약, 안이하다, 안자락, 안장, 안전, 안전성, 안전지대, 안전하다, 안절부절, 안절부절
 못하다, 안정, 안정되다, 안정성, 안정적, 안주, 안주, 안주하다, 안쪽, 안쪽, 안종잡다, 안차
 다, 안채, 안출, 안치다, 안침, 안타, 안타까이, 안타깝다, 안타깝다, 안타깝비, 안테나, 안틀
 다, 안팎, 안팎, 안해, 앓다, 앓다, 앓은뱅이, 앓히다, 앓다, 알, 알, 알, 알나리깁나리, 알다,
 알다, 알뜰하다, 알락달락, 알람, 알레르기, 알리다, 알리다, 알맞다, 알맞다, 알맞추, 알맹
 이, 알몸, 알바트로스, 알밤, 알사탕, 알선, 알아내다, 알아듣다, 알아듣다, 알아맞히다, 알아
 보다, 알아보다, 알아주다, 알아차리다, 알짜지근하다, 알차다, 알천, 알칼리성, 알코올, 알
 파벳, 앓, 앓, 앓다, 앓다, 암, 암거래, 암기, 암내, 암만, 암만, 암반, 암벽, 암상, 암석, 암
 수, 암시, 암시하다, 암자, 암죽, 암초, 암캉아지, 암개, 암개, 암컷, 암컷, 암키와, 암키와,
 암탉, 암탉, 암탕나귀, 암톨찌귀, 암돼지, 암돼지, 암평아리, 암행어사, 암호, 암흑, 압권, 압
 도적, 압도하다, 압력, 압박, 압수, 압정, 앓기다, 앓다, 앓, 양, 양감질, 양갯음, 양고라, 양
 금, 양꼬, 양코르, 양탈, 앞, 앞, 앞길, 앞날, 앞니, 앞다리, 앞당기다, 앞두다, 앞뒤, 앞바다,
 앞부분, 앞서, 앞서다, 앞서다, 앞세우다, 앞세우다, 앞장, 앞장서다, 앞쪽, 앞치마, 애, 애,
 애고머니, 애국, 애국가, 애국심, 애국자, 애급, 애기테, 애기풀, 애기풀, 애꾸, 애꿎다, 애꿎
 다, 애꿎다, 애달다, 애달다, 애달프다, 애달프다, 애달프다, 애달피, 애달다, 애당초, 애독
 자, 애드벌룬, 애매, 애매하다, 애매하다, 애먼, 애먼, 애먼글면, 애물단지, 애벌, 애송이, 애
 시당초, 애쓰다, 애쓰다, 애오라지, 애오라지, 애옥살이, 애원하다, 애인, 애잇뎁기, 애절하
 다, 애정, 애지중지, 애착, 애창, 애처롭다, 애처롭다, 애초, 애뜻하다, 애향심, 액때움, 액
 면, 액센트, 액수, 액자, 액체, 앨범, 앳되다, 앵두, 앵두, 앵두편, 앵무새, 앵미, 앵벌이, 앵
 속, 야, 야간, 야구, 야권, 야금야금, 야기되다, 야단, 야단나다, 야단법석, 야담, 야당, 야레,
 야릇하다, 야릇하다, 야만, 야만인, 야무지다, 야바위, 야살, 야삼경, 야생, 야속하다, 야시,
 야심, 야옹, 야외, 야위다, 야자, 야자수, 야적, 야젓잡다, 야차, 야채, 야청, 야트막이, 야트
 막하다, 야툼하다, 야포, 야학, 야합, 야호, 약, 약간, 약과, 약관, 약국, 약다, 약다, 약대,

약대, 약물, 약밥, 약병, 약빠르다, 약사, 약삭빠르다, 약삭스럽다, 약산단, 약속, 약속, 약속
 하다, 약속하다, 약손가락, 약수, 약수터, 약자, 약점, 약주, 약품, 약하다, 약혼, 약혼자, 약
 화되다, 약효, 안정, 알, 알개, 알따랗다, 알밋다, 알밋다, 알브스름하다, 알찍이, 알찍하다,
 알팍하다, 얇다, 암생이, 암전, 암전, 암전이, 암전하다, 암전하다, 암체, 암치, 양, 양, 양갈
 보, 양갱, 양갱, 양계장, 양과자, 양관, 양국, 양귀비, 양귀비, 양금, 양념, 양념, 양달, 양당,
 양도, 양동이, 양등, 양력, 양로원, 양말, 양머리, 양반, 양반, 양반, 양배추, 양버들, 양보,
 양보하다, 양복, 양복쟁이, 양복점, 양봉투, 양분, 양산, 양산도, 양상, 양성, 양성하다, 양
 손, 양식, 양심, 양아치, 양약, 양약국, 양어, 양옥, 양옥집, 양요리, 양육비, 양육원, 양은,
 양자, 양장, 양장하다, 양재기, 양젓물, 양주, 양지, 양쪽, 양철, 양철통, 양초, 양총, 양측,
 양치, 양치, 양치질, 양치질하다, 양치질하다, 양치하다, 양칫물, 양키, 양탄자, 양파, 양피
 지, 양해, 양행, 양화점, 양회, 얹다, 얹보다, 얹잡다, 애, 애기, 애기하다, 어, 어귀, 어귀,
 어근, 어금니, 어금니, 어긋나다, 어긋나다, 어긋매끼다, 어기다, 어기다, 어기차다, 어김없
 다, 어김없이, 어깃장, 어깨, 어깨, 어깨, 어느, 어느, 어느덧, 어느덧, 어느새, 어두움, 어두
 움, 어두컴컴하다, 어둑새벽, 어둑어둑하다, 어둑어둑하다, 어둑하다, 어둑하다, 어둑히, 어
 둑, 어둑다, 어둑다, 어디, 어디, 어떠하다, 어떠하다, 어떤, 어떻게, 어떻게, 어라하, 어레
 미, 어랭이, 어려움, 어려이, 어련히, 어렴성, 어렴풋이, 어렴풋이, 어렴풋하다, 어렵다, 어렵
 다, 어렵사리, 어루러기, 어루러기, 어루만지다, 어루만지다, 어르다, 어르릉이, 어르신, 어
 르신, 어르신네, 어르신네, 어른, 어른, 어른거리다, 어른어른하다, 어름치, 어리, 어리광, 어
 리광, 어리굴젓, 어리눅다, 어리다, 어리다, 어리둥절, 어리둥절하다, 어리보기, 어리석다,
 어리척척하다, 어린아이, 어린애,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날, 어림없다, 어림없다, 어릿거리
 다, 어릿광대, 어마나, 어마어마하다, 어머,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멈,
 어미, 어미, 어미, 아버지, 아버지, 어법, 어부, 어부바, 어비, 어비딸, 어비아들, 어사또, 어
 색하다, 어서, 어서, 어선, 어설피다, 어설피다, 어설피, 어수선하다, 어스레하다, 어스름, 어
 스름, 어스름달, 어슴새벽, 어슴푸레하다, 어언간, 어업, 어여쁘다, 어여쁘다, 어여뻐, 어우
 러지다, 어우렁더우렁, 어우르다, 어우르다, 어울리다, 어울리다, 어울림, 어유, 어음, 어이
 구, 어이구머니, 어이딸, 어이딸, 어이며느리, 어이새끼, 어이아들, 어이아들, 어이없다, 어
 이없다, 어이없이, 어이없이, 어저귀, 어저귀, 어저께, 어저께, 어제, 어제, 어젯밤, 어조, 어
 중이떠중이, 어지간하다, 어지러이, 어지러이, 어지럼, 어지럼, 어지럽다, 어지럽다, 어지럽
 히다, 어지르다, 어지자지, 어질다, 어질다, 어질하다, 어쨌든, 어찌다, 어찌면, 어쩐지, 어
 찌, 어찌, 어찌나, 어찌하다, 어쩔하다, 어쩔하다, 어차피, 어처구니, 어처구니없다, 어휘, 어
 흥, 억겁, 억누르다, 억새, 억새, 억세다, 억수, 억압, 억압하다, 억양, 억울하다, 억제, 억제
 하다, 억지, 억지로, 억지로, 억척, 억척, 억척스럽다, 언급, 언급하다, 언니, 언니, 언덕, 언
 덕, 언뜻, 언론, 언론계, 언론사, 언론인, 언문, 언문금란, 언문청, 언약, 언어, 언어도단, 언
 어적, 언저리, 언제, 언제, 언제나, 언젠가, 언짢다, 언청이, 언청이, 언청이, 언치, 언치, 언
 덕, 언해, 었다, 었다, 었히다, 언다, 언다, 얻어먹다, 열, 열간, 열간망둥이, 열간이, 열개,
 열거리, 열굴, 열굴, 열금뱅이, 열금숨숨, 열금열금, 열기설기, 열다, 열다, 열떨하다, 열러
 기, 열령장사, 열레, 열레, 열레빗, 열레빗, 열레살풀다, 열루기, 열룩, 열룩말, 열룩말, 열룩
 빼기, 열룩소, 열룩소, 열룩지다, 열른, 열른, 열른열른, 열리다, 열리다, 열리다, 열마, 열
 마, 열마간, 열마나, 열버무리다, 열빠지다, 열싸안다, 얼어붙다, 얼음, 얼음, 얼크러지다, 얼
 크러트리다, 얼토당토않다, 얼핏, 얼핏, 었다, 었다, 었둥이다, 었둑빼기, 었둑었둑, 었매다,

얹매다, 얹매이다, 얹매이다, 얹벽얹벽, 얹어매다, 얹이, 얹이치다, 얹적얹적, 얹적얹적, 얹
 죽얹기, 얹히다, 얹히다, 얹격하다, 얹격히, 얹나무, 얹대, 얹두, 얹마, 얹마, 얹밀하다, 얹숙
 하다, 얹연히, 얹연히, 얹이도령, 얹지, 얹지, 얹지가락, 얹지가락, 얹지발가락, 얹지손가락,
 얹청나다, 얹폐물, 얹포, 얹하다, 얹, 얹계, 얹다, 얹다, 얹둥이, 얹무, 얹소, 얹송이, 얹신여
 기다, 얹신여기다, 얹장, 얹적, 얹종, 얹진, 얹체, 얹히다, 얹다, 얹다, 얹애다, 얹이, 얹갈리
 다, 얹셈, 얹, 얹거시, 얹거주춤, 얹겹결, 얹경귀, 얹금얹금, 얹기다, 얹기다, 얹덩이, 얹덩
 이, 얹똥하다, 얹똥하다, 얹똥하다, 얹망, 얹망진창, 얹성하다, 얹터리, 얹터리없다, 얹드리
 다, 얹드리다, 얹디다, 얹지르다, 얹구머니, 얹굽다, 얹너지, 얹누리, 얹다, 얹다, 얹들다, 얹
 락, 얹로, 얹메칼드, 얹비, 얹서, 얹스아이, 얹스컬레이터, 얹우다, 얹우다, 얹움길, 얹움길,
 얹워싸다, 얹이, 얹이프런, 얹티켓, 얹스, 얹스세대, 얹스포, 얹, 얹간찰다, 얹담, 얹화, 얹리
 베이더, 얹시, 여, 여간, 여객, 여객선, 여건, 여고생, 여공, 여관, 여권, 여급, 여기, 여기,
 여기다, 여기다, 여기저기, 여뀌, 여뀌, 여남은, 여남은, 여느, 여느, 여달다, 여달이, 여당,
 여대생, 여덟, 여덟, 여덟째, 여동생, 여드레, 여드레, 여드름, 여든, 여든, 여래, 여래선, 여
 러, 여러분, 여럿, 여럿, 여론, 여름, 여름, 여름내, 여름철, 여리꾼, 여리다, 여리다, 여물,
 여물, 여물다, 여물다, 여미다, 여미다, 여백, 여보, 여보, 여보세요, 여부, 여비, 여사, 여섯,
 여섯, 여섯째, 여성, 여송연, 여신, 여야, 여염, 여왕, 여우, 여우, 여운, 여울, 여울, 여울목,
 여위다, 여위다, 여유, 여의다, 여의다, 여의참다, 여인, 여인숙, 여자, 여전하다, 여전히, 여
 정하다, 여줄가리, 여지없이, 여쭙다, 여쭙다, 여쭙다, 여쭙다, 여타, 여담, 여태, 여태, 여태
 께, 여투다, 여투다, 여트막하다, 여툼하다, 여파, 여편네, 여편네, 여하튼, 여학교, 여학생,
 여행, 여행하다, 역, 역겹다, 역대, 역량, 역력하다, 역린, 역마살, 역부, 역사, 역사상, 역사
 적, 역설, 역설하다, 역시, 역임하다, 역작, 역전, 역점, 역질, 역참, 역할, 역행, 역다, 역다,
 역음, 역이다, 연, 연, 연간, 연거푸, 연결, 연결되다, 연결하다, 연계, 연고, 연관되다, 연구,
 연구되다, 연구소, 연구실, 연구원, 연구자, 연구하다, 연귀, 연극, 연금, 연기, 연기되다, 연
 기자, 연기하다, 연꽃, 연단, 연대, 연대장, 연도, 연돌, 연락, 연락선, 연락하다, 연령, 연료,
 연륜, 연립, 연막, 연막탄, 연말, 연맹, 연못, 연미복, 연민, 연발총, 연방, 연봉, 연사, 연사
 과, 연상, 연상하다, 연설, 연설회, 연소, 연속, 연속극, 연속적, 연쇄, 연쇄극, 연습, 연습하
 다, 연신, 연안, 연예, 연예인, 연와, 연유, 연인, 연일, 연잇다, 연자방아, 연장, 연장자, 연
 장하다, 연주, 연주되다, 연주자, 연주하다, 연주회, 연중, 연지, 연초, 연출, 연출하다, 연
 탄, 연통, 연판장, 연평균, 연필, 연하, 연하다, 연하장, 연합, 연합군, 연호, 연회석, 연휴,
 연희, 연아홉, 열, 열, 열강, 열거하다, 열광, 열구름, 열기, 열다, 열다, 열두째, 열등감, 열
 등생, 열등하다, 열렬하다, 열리다, 열리다, 열망, 열매, 열목어, 열목이, 열무, 열반, 열쇠,
 열심히, 열악하다, 열없다, 열정, 열중하다, 열째, 열차, 열치다, 열풍, 열한, 열한째, 열흘,
 열다, 열, 열가, 열남, 열두, 열려, 열려하다, 열법, 열병, 열병할, 열분, 열불, 열산, 열소,
 열알이, 열원, 열접, 열증, 열통, 열서, 열전, 열총, 열, 열, 열기름, 열기름, 열보다, 열보이
 다, 열새, 열셋날, 영, 영감, 영검, 영계, 영광, 영국, 영국, 영농, 영동할머니, 영리하다, 영
 문, 영부인, 영사, 영산회상, 영상, 영생, 영생이, 영수, 영수증, 영악하다, 영양, 영어, 영업,
 영역, 영영, 영예, 영웅, 영원하다, 영원히, 영위하다, 영입, 영장, 영접, 영창, 영토, 영하,
 영해, 영향, 영향력, 영혼, 영화, 영화계, 영화관, 영화사, 영화제, 열다, 옆, 옆구리, 옆댁이,
 옆방, 옆집, 예, 예, 예, 예, 예감, 예고, 예고하다, 예금, 예기하다, 예년, 예능, 예니레, 예
 날곱, 예다, 예리하다, 예민하다, 예방, 예방하다, 예배, 예보, 예복, 예비, 예쁘다, 예사롭

다, 예산, 예상, 예상되다, 예상외, 예상하다, 예순, 예술, 예술가, 예술성, 예술적, 예식, 예식장, 예약, 예언, 예언하다, 예예, 예외, 예의, 예전, 예절, 예정, 예정되다, 예측, 예측하다, 예컨대, 예포, 옛, 옛글, 옛날, 옛말, 옛네, 옛다, 옛소, 옛습니다, 오, 오가다, 오갈, 오갈피 나무, 오곡, 오곡밥, 오곡백과, 오그라들다, 오그라지다, 오그라트리다, 오그랑망태, 오그랑 오그랑, 오그랑이, 오그랑장사, 오그랑쫓그랑, 오그랑쪽박, 오그랑하다, 오그리다, 오금, 오긋하다, 오냐, 오누이, 오늘, 오늘날, 오늬, 오다, 오대양, 오대주, 오댕, 오도카니, 오독도기, 오두막, 오디, 오디새, 오뚝이, 오뚝하다, 오라, 오라기, 오라버니, 오라버님, 오라범, 오라비, 오라이, 오라질, 오락, 오락가락하다, 오락실, 오락장, 오랑우탄, 오랑개, 오랑개꽃, 오래, 오래다, 오래도록, 오래되다, 오래뜰, 오래오래, 오래전, 오랜, 오랜만, 오랫동안, 오랜지, 오려논, 오로라, 오로지, 오로지하다, 오롯이, 오롯하다, 오류, 오르간, 오르골, 오르내리다, 오르다, 오르락내리락, 오르막, 오른, 오른발, 오른손, 오른쪽, 오른팔, 오름세, 오리, 오리나무, 오리다, 오막살이, 오맞이꾼, 오목하다, 오무래미, 오물, 오믈렛, 오미자, 오미자편, 오백, 오버, 오버코트, 오보, 오보에, 오복, 오븐, 오비다, 오빠, 오사리, 오소리, 오솔길, 오스트레일리아, 오십, 오아시스, 오염, 오염되다, 오월, 오이, 오이지, 오입, 오자미, 오작교, 오장육부, 오쟁이, 오전, 오전, 오죽, 오죽잡다, 오줌, 오줌똥, 오줌보, 오지, 오지그릇, 오지랖, 오직, 오직, 오징어, 오케이, 오토바이, 오토밀, 오펜라, 오포, 오피스텔, 오해, 오해하다, 오행, 오후, 오히려, 옥, 옥당, 옥류금, 옥사쟁이, 옥상, 옥생각, 옥수수, 옥신각신, 옥양목, 옥중, 옥호, 온, 온갖, 온건, 온대, 온도, 온도계, 온돌, 온디콩, 온라인, 온몸, 온실, 온전하다, 온전히, 온정, 온조왕, 온종일, 온천, 온천장, 온통, 온화하다, 올, 올, 올가미, 올곡하다, 올곧다, 올곧잡다, 올깎이, 올드미스, 올라가다, 올라서다, 올라앉다, 올라오다, 올라타다, 올레길, 올려놓다, 올려다보다, 올리다, 올리다, 올리브, 올림, 올림대, 올림표, 올림픽, 올망이줄망이, 올무, 올바로, 올바르다, 올발라, 올백, 올벼, 올빼미, 올올이, 올챙이, 올케, 올팔, 올해, 옴다, 옴히다, 옴기다, 옴다, 옴아가다, 옴아오다, 옴다, 옴이, 옴, 옴나위, 옴니암니, 옴두꺼비, 옴쑥하다, 옴죽옴죽하다, 옴천면, 옴파리, 옴포동이같다, 옷, 옷가슴, 옷가지, 옷감, 옷걸이, 옷고름, 옷깃, 옷깃차례, 옷밥, 옷섶, 옷소매, 옷자락, 옷장, 옷차림, 옹고집, 옹골차다, 옹구, 옹달샘, 옹두라지, 옹두리, 옹자배기, 옹헤야, 옹호하다, 옷, 옷기장, 옷나무, 옷칠, 와락, 와사, 와사등, 와사등, 와이샤쓰, 와이셔츠, 와인, 와중, 와플, 왁댓값, 왁스, 왁자지껄, 완구, 완납, 완두, 완만하다, 완벽, 완벽하다, 완성, 완성되다, 완성하다, 완자탕, 완장, 완전, 완전하다, 완전히, 완화, 완화하다, 왈가닥, 왈츠, 왕, 왕골, 왕국, 왕권, 왕래하다, 왕밤, 왕복, 왕비, 왕성하다, 왕세자, 왕실, 왕얼이, 왕위, 왕자, 왕정, 왕조, 왕청같다, 왜, 왜가리, 왜간장, 왜건, 왜곡, 왜곡되다, 왜냐하면, 왜비단, 왜수건, 왜청빛, 웬지, 외, 외, 외곬, 외곽, 외교, 외교관, 외국, 외국어, 외국인, 외기, 외꼬지, 외나무다리, 외나물, 외다, 외대다, 외도, 외따로, 외딴, 외로, 외로움, 외로이, 외롭다, 외면하다, 외모, 외목, 외방, 외부, 외삼촌, 외상, 외상, 외세, 외손, 외식, 외신, 외알제기, 외양, 외양간, 외엮이, 외우다, 외유, 외자, 외적, 외제, 외지, 외짜, 외채, 외출, 외치다, 외침, 외톨밤, 외톨이, 외투, 외틀다, 외할머니, 외형, 외화, 외환, 윈, 윈발, 윈빔, 윈손, 윈쪽, 윈팔, 요, 요, 요, 요강, 요거, 요건, 요괴, 요구, 요구되다, 요구르트, 요구하다, 요금, 요년, 요대, 요란하다, 요령, 요리, 요리사, 요리점, 요릿집, 요맘때, 요법, 요사이, 요새, 요약하다, 요요, 요원, 요인, 요일, 요점, 요정, 요즈음, 요즘, 요지, 요지경, 요청, 요청하다, 요컨대, 요트, 요하다, 욕, 욕구, 욕망, 욕설, 욕실, 욕심, 욕조, 욕지기, 욕탕, 욕하다, 읊드, 용, 용감하다, 용고두

리, 용골때질, 용기, 용납하다, 용달, 용달, 용달사, 용도, 용돈, 용두레, 용두질, 용마루, 용
 병, 용빼다, 용서, 용서하다, 용솟음, 용수, 용수철, 용어, 용역, 용오름, 용이하다, 용인, 용
 트림, 용틀임, 용품, 용하다, 우거지, 우거지다, 우격뿔, 우격다짐, 우그러들다, 우그러지다,
 우그러트리다, 우그렁우그렁, 우그렁이, 우그렁쾅박, 우그렁쭈그렁, 우그렁하다, 우그리다,
 우금, 우긋우긋, 우긋이, 우긋하다, 우기, 우기다, 우김성, 우너리, 우는살, 우닐다, 우대, 우
 동, 우두, 우두머리, 우두커니, 우듬지, 우등생, 우뚝, 우뚝하다, 우라질, 우란분, 우러나다,
 우러러보다, 우러르다, 우력, 우력우력, 우렁우렁, 우렁이, 우레, 우레, 우렛소리, 우려, 우려
 되다, 우려하다, 우롱차, 우르르, 우리, 우리, 우리나라, 우리다, 우리다, 우리다, 우리말, 우
 릿간, 우무, 우묵우묵, 우묵하다, 우물, 우물물, 우므려들다, 우므려지다, 우므려트리다, 우
 므리다, 우미인초, 우바니, 우바새, 우바이, 우박, 우비다, 우산, 우산, 우상, 우선, 우선권,
 우선적, 우선하다, 우세, 우세스럽다, 우세하다, 우송, 우수리, 우수하다, 우스개, 우스팍스
 럽다, 우습다, 우승, 우아하다, 우애, 우영, 우연, 우연만하다, 우연찮다, 우연하다, 우연히,
 우울하다, 우위, 우유, 우유병, 우익, 우정, 우주, 우줄거리다, 우지, 우짚다, 우체, 우체국,
 우체부, 우체통, 우측, 우케, 우편, 우편물, 우표, 우화, 옥분, 옥이다, 운, 운기, 운동, 운동
 가, 운동권, 운동복, 운동장, 운동하다, 운동회, 운명, 운반하다, 운석, 운세, 운송, 운수, 운
 수납자, 운영, 운영되다, 운영하다, 운용, 운우, 운운하다, 운임, 운전, 운전기사, 운전사, 운
 전수, 운전자, 운전하다, 운철, 운하, 운항, 운행, 울, 울, 울, 울긋불긋, 울다, 울다, 울대,
 울돌목, 울력, 울리다, 울림, 울림소리, 울먹거리다, 울먹대다, 울먹울먹, 울먹이다, 울면, 울
 바자, 울보, 울부짖다, 울상, 울새, 울음, 울음소리, 울창하다, 울타리, 움, 움, 움팔, 움막살
 이, 움직이다, 움직임, 움츠려들다, 움츠리다, 움치다, 움켜쥐다, 움큼, 움키다, 움평눈, 움
 폭, 움쌀, 웃, 웃기, 웃기다, 웃기떡, 웃다, 웃돌다, 웃음, 웃음소리, 웅덩이, 웅변, 웅변가,
 웅변술, 웅장하다, 웅크리다, 워낙, 워낙, 워낙에, 워낙에, 워워, 워커, 원, 원가, 원거리, 원
 고, 원고지, 원금, 원년, 원단, 원동, 원동의, 원두막, 원래, 원로, 원료, 원리, 원만하다, 원
 망, 원망하다, 원목, 원산지, 원색, 원서, 원수, 원숭이, 원시, 원유, 원유회, 원자력, 원자재,
 원작, 원장, 원점, 원정, 원조, 원족, 원주민, 원천, 원추리, 원칙, 원칙적, 원피스, 원하다,
 원한, 원형, 원화, 원활하다, 월, 월경, 월계, 월계관, 월권, 월급, 월급쟁이, 월드컵, 월부,
 월사금, 월세, 월식, 월요일, 웨이티, 웬, 웬만하다, 웬일, 웹, 위, 위곡, 위기, 위기일발, 위
 대하다, 위도, 위력, 위로, 위로하다, 위반, 위반하다, 위불없다, 위상, 위생, 위선, 위스키,
 위아래, 위약, 위염, 위없다, 위원, 위원장, 위원회, 위임, 위임장, 위자료, 위작, 위장, 위정
 척사론, 위조지폐, 위주, 위쪽, 위축되다, 위치, 위치하다, 위태롭다, 위트, 위하다, 위헌, 위
 험, 위험성, 위험하다, 위협, 위협하다, 원치, 윈니, 윈토리, 윈동, 윈머리, 윈사람, 윈옷, 윈
 크, 유가, 유감, 유감스럽다, 유곽, 유권자, 유급, 유기, 유기적, 유난히, 유능하다, 유니폼,
 유대, 유도, 유도하다, 유독, 유람선, 유래, 유래하다, 유럽, 유력하다, 유령, 유리문, 유리
 병, 유리수, 유리왕, 유리잔, 유리창, 유리컵, 유리하다, 유망주, 유머, 유명, 유명하다, 유모
 차, 유목민, 유물, 유발하다, 유사, 유사하다, 유산, 유산자, 유성, 유성기, 유순, 유신, 유심
 히, 유아, 유아기, 유약, 유연, 유연장, 유역, 유예, 유용하다, 유원지, 유월, 유의하다, 유익
 하다, 유일, 유일하다, 유입, 유입되다, 유적, 유적지, 유전, 유전자, 유족, 유지, 유지되다,
 유지하다, 유착, 유추, 유출, 유치, 유치원, 유쾌하다, 유토피아, 유통, 유학, 유학생, 유해,
 유행, 유행어, 유행하다, 유향, 유형, 유혹, 유혹하다, 유향, 유효하다, 유흥장, 유희장, 육,
 육, 육개장, 육교, 육군, 육대주, 육박하다, 육발이, 육상, 육성, 육성하다, 육손이, 육시랄,

육신, 육십,육십갑자,육이오,육자배기,육장,육지,육체,육체적,육통터지다,육혈포,윤
 관,윤기,윤년,윤달,윤리,윤리적,윤회,율동,율모기,율무,율무쌀,유자,유통,유화,
 윗,윗진아비,으,으깨다,으뜸,으레,으름덩굴,으름장,으스름달,으쓱하다,으응,은,은
 근히,은막,은밀하다,은빛,은어,은은하다,은조롱,은총이,은하수,은행,은행나무,은행
 장,은혜,은혼식,을씨년스럽다,을다,을조리다,음,음달,음력,음력설,음료,음료수,음
 모,음미하다,음반,음성,음식,음식물,음식점,음악,음악가,음악적,음악회,음양,음양
 관,음양오행,음용수,음절,음주,음향,읍,읍내,응,응가,응급,응급실,응달,응답,응
 답하다,응석스럽다,응시하다,응어리,응용,응용하다,응접실,응집,응큼하다,응하다,의
 거하다,의견,의견서,의결,의구심,의논하다,의대,의도,의도적,의도하다,의례,의뢰,
 의뢰하다,의료,의료계,의료인,의류,의리,의무,의문,의몽,의미,의미하다,의복,의붓
 아들,의붓아비,의사,의사소통,의상,의석,의술,의식,의식적,의식주,의식하다,의심,
 의심스럽다,의심쩍다,의심하다,의아하다,의안,의약,의약품,의연금,의외,의외로,의
 욕,의용군,의원,의의,의자,의장,의젓잡다,의정서,의제,의족,의존,의존하다,의지,
 의지하다,의치,의하다,의학,의혹,의회,이,이,이,이,이,이같이,이거,이것,이것저
 것,이견,이곳,이곳저곳,이권,이기다,이기다,이기심,이기적,이까짓,이끄미,이끌다,
 이끌리다,이곳,이끼,이날,이남박,이내,이내,이년,이념,이놈,이다,이다,이달,이대
 로,이데올로그,이데올로기,이데올로기적,이동,이동하다,이두,이득,이듬,이듬해,이따
 가,이따가,이따금,이따금,이때,이랑,이래,이라,이러구러,이러다,이러면,이러저러하
 다,이러하다,이러히,이런,이런저런,이령저령,이렇다,이레,이렛날,이력서,이례적,이
 론,이론가,이론적,이롭다,이루,이루다,이루어지다,이룩되다,이룩하다,이르다,이르
 다,이르다,이른바,이를테면,이름,이름나다,이리,이리,이리,이리,이리저리,이리하
 다,이리하여,이마,이마뺨,이만,이만하다,이맘때,이메일,이면,이면수,이모,이모,이
 모부,이문,이물,이물질,이미,이미,이미지,이민,이바지,이바지하다,이발,이발관,이
 발사,이발소,이밥,이번,이번,이별,이봐,이부자리,이분,이불,이빨,이빨,이뿌리,이
 사,이사장,이사하다,이사회,이삭,이산화탄소,이상,이상적,이상하다,이상향,이성,이
 세,이슈,이스트,이속하다,이슬,이승,이십,이악스럽다,이야기,이야기하다,이야말로,
 이어,이어서,이어지다,이엄이엄,이영,이에,이에짬,이외,이용,이용되다,이용자,이용
 하다,이우다,이울다,이웃,이웃집,이웃하다,이월,이유,이윤,이율,이욕고,이음,이응,
 이의,이익,이자,이장,이재민,이전,이점,이제,이제,이제야,이주민,이중,이즈음,이
 지러지다,이지러트리다,이쪽,이천,이치,이탈,이탈하다,이태,이태리,이텔릭,이토록,
 이튿날,이틀,이튿,이파리,이판사판,이팝나무,이풀,이하,이해,이해관계,이해되다,이
 해하다,이행,이혼,이혼하다,이후,익다,익다,익다,익더귀,익명서,익살,익숙하다,익
 일,익히,익히다,익히다,인,인가,인간,인간관계,인간성,인간적,인감,인건비,인격,
 인견,인계,인공,인공위성,인구,인권,인근,인기,인기척,인내,인당,인도,인도양,인
 도하다,인두,인두겁,인디고,인력거,인력거꾼,인류,인류학자,인문,인물,인민,인민
 군,인부,인사,인사말,인사성,인사하다,인삼,인상,인상기,인상적,인생,인생관,인세,
 인쇄,인쇄기,인쇄물,인쇄소,인쇄술,인쇄하다,인수,인수하다,인스턴트커피,인습,인
 식,인식되다,인식하다,인심,인연,인용,인용하다,인원,인위적,인재,인적,인절미,인
 정,인정되다,인정받다,인정하다,인제,인조건,인종,인주,인준,인체,인촌,인치,인터
 넷,인터넷,인텔리,인텔리겐치아,인플레,인플레이션을,인하,인하다,인허,인형,인화

물, 일, 일가, 일각, 일간지, 일개인, 일곱, 일곱째, 일과, 일관되다, 일관성, 일관하다, 일괄, 일괄, 일구다, 일그러지다, 일급, 일기, 일기장, 일깨우다, 일꾼, 일다, 일다, 일단, 일대, 일 등, 일람표, 일련, 일류, 일면, 일명, 일반, 일반인, 일반적, 일반화되다, 일방적, 일벌레, 일 보, 일본어, 일부, 일부러, 일부분, 일삼다, 일상, 일상생활, 일상적, 일색, 일생, 일석이조, 일선, 일손, 일수, 일숏돈, 일시, 일시적, 일심, 일쑤, 일어나다, 일어서다, 일어났다, 일요 일, 일용품, 일원, 일월, 일으키다, 일으키다, 일일이, 일일초, 일자, 일자리, 일절, 일정, 일 정하다, 일제, 일제히, 일종, 일주일, 일찌감치, 일찍, 일찍, 일찍이, 일찍이, 일차적, 일체, 일치, 일치되다, 일치하다, 일컫다, 일컬리다, 일터, 일하다, 일행, 일화, 일환, 일흔, 읽기, 읽다, 읽히다, 읽다, 잃어버리다, 임, 임금, 임금님, 임기, 임대, 임명, 임명되다, 임명하다, 임무, 임박하다, 임상, 임시, 임신, 임신하다, 임업, 임연수어, 임원, 임의, 임자, 임진왜란, 임차, 임차인, 임파, 임하다, 입, 입가, 입가심, 입각하다, 입간판, 입구, 입김, 입내, 입노릇, 입다, 입대, 입덧, 입때, 입력하다, 입맛, 입맞춤, 입발림, 입방, 입법, 입사, 입선, 입성, 입 수염, 입수하다, 입술, 입술가벼운소리, 입술소리, 입시, 입쌀, 입씨름, 입씨름하다, 입씻김, 입씻이, 입아귀, 입원, 입원하다, 입자, 입장, 입증되다, 입증하다, 입지, 입찰, 입천장, 입 체, 입학, 입학생, 입학시험, 입학하다, 입향, 입헌, 입회, 입회인, 입히다, 잇, 잇꽃, 잇다, 잇달다, 잇달다, 잇대다, 잇따르다, 잇몸, 잇바다, 잇비, 잇살, 잇새, 잇소리, 잇짚, 있다, 잉 아, 잉어, 잉여, 잉크, 잉크병, 잇다, 잇어버리다, 잇히다, 잎, 잎갈나무, 잎갈나무, 잎담배, 잎사귀, 잎잎이, 자, 자, 자, 자가사리, 자가용, 자각, 자갈, 자개, 자개미, 자갯돌, 자가, 자 국, 자국물, 자국민, 자귀, 자귀나무, 자그마치, 자그마하다, 자그맣다, 자그시, 자극, 자극하 다, 자금, 자기, 자기황, 자꾸, 자꾸만, 자네, 자녀, 자늑자늑, 자늑자늑하다, 자닝하다, 자닝 히, 자다, 자동, 자동차, 자동화, 자두, 자라, 자라나다, 자라다, 자라다, 자락, 자락, 자랑, 자랑스럽다, 자랑하다, 자료, 자루, 자루, 자루, 자르다, 자르다, 자리, 자리, 자리, 자리공, 자리끼, 자리다, 자리하다, 자린고비, 자린고비, 자립, 자매, 자맥질, 자명종, 자명하다, 자 못, 자몽, 자몽, 자문, 자물쇠, 자바라, 자반, 자반뒤집기, 자발적, 자밤, 자배기, 자백, 자본, 자본가, 자본금, 자본주의적, 자불기, 자부심, 자부하다, 자본참, 자본치, 자비, 자비롭다, 자 빠지다, 자빠, 자산, 자산가, 자살, 자살하다, 자상하다, 자새, 자서전, 자석, 자세, 자세하 다, 자세히, 자손, 자수, 자시다, 자식, 자신, 자신감, 자아, 자아내다, 자아내다, 자연, 자연 법칙, 자연스럽다, 자연적, 자연현상, 자연환경, 자연히, 자옥하다, 자옥, 자옥하다, 자원, 자 위, 자유, 자유롭다, 자유자재, 자유화, 자율, 자율성, 자율적, 자율화, 자의, 자의식, 자작, 자작나무, 자작자작, 자장가, 자장면, 자장자장, 자재, 자전거, 자정, 자제하다, 자존심, 자 주, 자주, 자주성, 자지, 자지러지다, 자진모리, 자질, 자처올다, 자처하다, 자체, 자체적, 자 초하다, 자총이, 자취, 자취, 자치, 자치동갑, 자칫, 자칫하다, 자태, 자투리, 자포자기, 작, 작가, 작곡, 작곡가, 작년, 작다, 작다리, 작달막하다, 작대기, 작동, 작동하다, 작두, 작두, 작물, 작박구리, 작법, 작벼리, 작사리, 작살, 작설차, 작성, 작성하다, 작아지다, 작약, 작 업, 작업실, 작용, 작용하다, 작은곰자리, 작은며느리,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작은창자, 작인, 작자, 작작, 작전, 작정, 작정하다, 작품, 작히, 작히나, 잔, 잔걸음, 잔나비, 잔누비, 잔등, 잔등이, 잔디, 잔디밭, 잔뜩, 잔말, 잔말하다, 잔무, 잔소리, 잔술집, 잔액, 잔인하다, 잔입, 잔잔하다, 잔챙이, 잔치, 잔치, 잔치하다, 잔다랗다, 잘, 잘나다, 잘다, 잘되다, 잘름발 이, 잘리다, 잘못, 잘못되다, 잘못하다, 잘살다, 잘생기다, 잘코사니, 잘하다, 잠, 잠, 잠귀, 잠그다, 잠그다, 잠기다, 잠기다, 잠깐, 잠꼬대, 잠꼬대하다, 잠들다, 잠바, 잠방이, 잠수함,

잠시, 잠언, 잠자다, 잠자리, 잠자코, 잠자코, 잠잠하다, 잠잠히, 잠재력, 잡가, 잡귀, 잡기, 잡다, 잡다하다, 잡도리, 잡동사니, 잡말, 잡살뱅이, 잡수다, 잡수시다, 잡숫다, 잡스럽다, 잡아가다, 잡아내다, 잡아넣다, 잡아당기다, 잡아들이다, 잡아매다, 잡아먹다, 잡은것, 잡은것, 잡음, 잡쥘다, 잡지, 잡초, 잡혀가다, 잡화상, 잡화전, 잡화점, 잡히다, 잣, 잣기름, 잣나무, 잣다, 잣다, 잣대, 장가, 장가들다, 장가들이다, 장갑, 장거리, 장관, 장교, 장구, 장구벌레, 장구채, 장국, 장군, 장기간, 장기적, 장기튀김, 장끼, 장난, 장난, 장난감, 장난하다, 장남, 장님, 장단, 장닭, 장담하다, 장대, 장도감, 장도리, 장돌림, 장돌뱅이, 장판지, 장래, 장례, 장마, 장막, 장만, 장만하다, 장맛비, 장면, 장명등, 장모, 장물, 장미, 장벽, 장본인, 장비, 장사, 장사, 장사꾼, 장사진, 장사치, 장상, 장서, 장소, 장수, 장수선무, 장승, 장시간, 장식, 장식품, 장식하다, 장아찌, 장악, 장악하다, 장애, 장애물, 장애인, 장엄하다, 장옷, 장우산, 장원급제, 장의사, 장이, 장인, 장점, 장조림, 장지, 장지문, 장차, 장치, 장치기, 장편, 장피살, 장학금, 장화, 잣감, 잣다, 잣추, 잣추다, 잣히다, 재, 재, 재, 재간, 재갈, 재강, 재개, 재건, 재계, 재고, 재구성하다, 재궁, 재깍재깍, 재난, 재능, 재다, 재다, 재단, 재떨이, 재래식, 재력, 재료, 재무, 재미, 재미없다, 재미있다, 재밌다, 재배, 재배하다, 재벌, 재봉, 재봉, 재봉틀, 재봉틀, 재빨리, 재산, 재산가, 재산권, 재상, 재생산, 재수, 재스민, 재앙, 재야, 재우다, 재우치다, 재원, 재정, 재주, 재즈, 재지니, 재채기, 재채기하다, 재촉, 재촉하다, 재치, 재킷, 재판, 재판관, 재판부, 재판소, 재학, 재해, 재현하다, 재혼, 재화, 재활, 잼잼, 잼싸다, 잼물, 잼빛, 쟁기, 쟁기, 쟁반, 쟁의, 쟁이다, 쟁점, 저, 저, 저, 저, 저거, 저것, 저격, 저고리, 저금, 저금통, 저기, 저기압, 저나, 저녁, 저녁밥, 저놈, 저당, 저러다, 저러면, 저러하다, 저런, 저렇다, 저렴하다, 저리, 저리다, 저마, 저마다, 저맘때, 저물다, 저미다, 저버리다, 저번, 저서, 저수지, 저승, 저쏘다, 저어하다, 저울, 저울눈, 저울대, 저자, 저작, 저작권, 저잣거리, 저장, 저장하다, 저절로, 저주, 저지레, 저지레하다, 저지르다, 저지하다, 저쪽, 저축, 저치, 저편, 저하, 저항, 저항력, 저항하다, 저해하다, 저희, 적, 적국, 적극, 적극적, 적나라, 적다, 적다, 적당하다, 적당히, 적도, 적령, 적립, 적바르다, 적반하장, 적발되다, 적삼, 적성, 적시다, 적십자, 적어도, 적요, 적용, 적용되다, 적용하다, 적응, 적응하다, 적이, 적이나, 적자, 적잖다, 적절하다, 적절히, 적정, 적합하다, 적화, 적확, 적히다, 전, 전가, 전개, 전개되다, 전개하다, 전경, 전골, 전공하다, 전과자, 전국, 전국구, 전국적, 전나귀, 전나무, 전날, 전년, 전단, 전달, 전달되다, 전달하다, 전담, 전담하다, 전당포, 전대, 전도사, 전동차, 전두리, 전등, 전라도, 전략하다, 전람회, 전략, 전략적, 전력, 전령, 전례, 전류, 전망, 전망되다, 전망차, 전망하다, 전매, 전면, 전면적, 전멸, 전무, 전문, 전문가, 전문성, 전문의, 전문적, 전문점, 전문직, 전반, 전반적, 전별, 전병, 전보, 전복, 전부, 전산, 전생, 전서구, 전선, 전설, 전세, 전승, 전술, 전승되다, 전시, 전시관, 전시되다, 전시장, 전시회, 전신, 전신기, 전액, 전야, 전역, 전연, 전염병, 전용, 전우, 전원, 전원주택, 전월, 전유어, 전임, 전쟁, 전쟁터, 전적, 전전하다, 전제하다, 전중이, 전직, 전진, 전집, 전차, 전차표, 전차길, 전철, 전철역, 전체, 전체적, 전통, 전통적, 전투, 전하다, 전함, 전향, 전혀, 전혀, 전형, 전형적, 전화, 전화기, 전화번호, 전화벨, 전화하다, 전환, 전환점, 전환하다, 전후, 전후하다, 절, 절, 절감, 절구, 절국대, 절굿공이, 절기, 절다, 절다, 절다, 절대, 절대로, 절대적, 절따, 절따말, 절뚝발이, 절로, 절름발이, 절망, 절박하다, 절반, 절벽, 절실하다, 절실히, 절약, 절약하다, 절음, 절이다, 절절, 절절하다, 절정, 절차, 절하다, 절다, 절은이, 절음, 점, 점검, 점검하다, 점령, 점령하다, 점박이, 점복하다, 점뿌림, 점수, 점심, 점심시간, 점원, 점

유율, 점자, 점잔, 점잖다, 점잖다, 점쟁이, 점점, 점점이, 점진적, 점차, 점치다, 점퍼, 점포, 점프, 점견, 점근, 점근하다, 점다, 점동새, 점때, 점속, 점속하다, 점수, 점시, 점시꽃, 점어들다, 점질리다, 점촉, 점촉하다, 점치다, 점치이다, 점침점침, 점하다, 점히다, 젓, 젓가락, 젓가락돈, 젓가락풀, 젓국, 젓나무, 젓다, 정, 정가, 정가롭다, 정강말, 정객, 정거, 정거장, 정거하다, 정겹다, 정경, 정계, 정곡, 정교하다, 정구, 정국, 정권, 정글, 정기적, 정나미, 정녕, 정녕코, 정답, 정당성, 정당하다, 정당화하다, 정도, 정독, 정들다, 정력, 정류장, 정리되다, 정리하다, 정말, 정말로, 정면, 정무, 정문, 정미소, 정밀, 정밀하다, 정박, 정반대, 정벌, 정보, 정보화, 정복, 정복하다, 정부, 정비, 정비하다, 정사각형, 정상, 정상적, 정상화, 정서, 정서적, 정성, 정성껏, 정성스럽다, 정세, 정수리, 정신, 정신과, 정신없이, 정신적, 정열, 정예, 정오, 정원, 정월, 정음청, 정의, 정의되다, 정의하다, 정자, 정작, 정장, 정적, 정점, 정종, 정주, 정지, 정지되다, 정지하다, 정직하다, 정착, 정착되다, 정착하다, 경찰, 정책, 정체, 정체성, 정치, 정치가, 정치권, 정치인, 정치적, 정담, 정통성, 정하다, 정확하다, 정확히, 정황, 젓, 젓가슴, 젓꼭지, 젓다, 젓떼기, 젓무덤, 젓버듬하다, 젓부들기, 젓빛, 젓어미, 젓어미, 젓줄, 젓통, 젓히다, 제, 제, 제, 제, 제가, 제각기, 제갈동지, 제거, 제거되다, 제거하다, 제고, 제곱근, 제곱미터, 제공, 제공되다, 제공하다, 제국, 제기, 제기다, 제기되다, 제기차기, 제기하다, 제대로, 제도, 제도권, 제도적, 제독, 제때, 제라늄, 제로, 제리, 제멋대로, 제목, 제물, 제물땀, 제물로, 제물에, 제반, 제발, 제법, 제복, 제비, 제비, 제비꽃, 제비꿀, 제비쑥, 제비초리, 제비추리, 제빵, 제사, 제삼자, 제석, 제수, 제스처, 제시, 제시되다, 제시하다, 제안, 제안하다, 제야, 제약, 제어, 제왕, 제왕절개, 제외되다, 제외하다, 제육, 제육볶음, 제의, 제의하다, 제일, 제자, 제자리, 제작, 제작되다, 제작비, 제작자, 제작진, 제작하다, 제재, 제정, 제정되다, 제정신, 제정하다, 제조, 제조업, 제출, 제출되다, 제출하다, 제치다, 제품, 제한, 제한되다, 제한적, 제한하다, 제휴, 젠장, 젠체하다, 젤리, 젼병, 조, 조가비, 조각, 조각가, 조각상, 조감도, 조개, 조개나물, 조건, 조경, 조계종, 조국, 조그마하다, 조그맣다, 조금, 조금날, 조금씩, 조금하다, 조기, 조깅, 조끼, 조끼, 조다, 조달하다, 조라치, 조랑말, 조련찮다, 조롱, 조롱박, 조르다, 조르다, 조르르, 조리, 조리개, 조리다, 조리차, 조림, 조립, 조마조마하다, 조막, 조막손, 조만간, 조맘때, 조명, 조무래기, 조물주, 조바심, 조방가새, 조방꾸니, 조뱅이, 조보, 조붓하다, 조사, 조사되다, 조사선, 조사하다, 조서, 조선소, 조성, 조성되다, 조성하다, 조세, 조수, 조심, 조심스럽다, 조심하다, 조아리다, 조약돌, 조언, 조업, 조용, 조용하다, 조용히, 조이다, 조자리, 조작, 조작하다, 조장하다, 조절, 조절하다, 조정, 조정하다, 조제, 조종, 조지다, 조직, 조직되다, 조직적, 조직하다, 조직화, 조짐, 조짐머리, 조짚, 조차, 조차떡, 조처, 조출하다, 조출히, 조총, 조치, 조치개, 조치개, 조카, 조크, 조퇴, 조팝나무, 조포, 조폭, 조피, 조피나무, 조하다, 조합, 조합원, 조항, 조형, 조화, 조화롭다, 족두리, 족발, 족보, 족쇄, 족자, 족제비, 족족, 족집게, 족치다, 존경, 존경하다, 존대, 존대법, 존재, 존재론적, 존재하다, 존중, 존중하다, 졸, 졸개, 졸다, 졸다, 졸때기, 졸리다, 졸리다, 졸본부여, 졸업, 졸업, 졸업반, 졸업생, 졸업식, 졸업장, 졸업증, 졸업하다, 졸업하다, 졸음, 졸이다, 졸참나무, 줌, 줌도둑, 줌먹다, 줌생이, 줌스럽다, 줌쳐럼, 줌팽이, 줌다, 줌쌀, 줌쌀과녁, 줌쌀풀, 줌히다, 종, 종개, 종결, 종과득과, 종교, 종교계, 종교적, 종국, 종기, 종놈, 종다리, 종단, 종달새, 종두, 종두법, 종래, 종로제기, 종료, 종류, 종말, 종목, 종발, 종부돈음, 종사, 종사자, 종사하다, 종소리, 종속, 종아리, 종아리뼈, 종업원, 종요로이, 종요롭다, 종이, 종이학, 종일, 종자, 종전, 종점, 종족, 종종, 종지,

종지기, 종지뻘, 종합, 종합적, 종합하다, 좇, 좇다, 좇아가다, 좇아오다, 좇잡다, 좋다, 좋
 다, 좋아하다, 좋이, 좌경, 좌담, 좌석, 좌선, 좌우, 좌우되다, 좌우명, 좌우하다, 좌익, 좌절,
 좌종, 좌천, 좌초, 좌측, 좌파, 좌판, 좌기, 쟁이, 좌, 좌다, 좌송하다, 좌수, 좌악, 좌이다,
 좌인, 좌임성, 좌책감, 좌쇠, 좌침, 좌틀, 주, 주가, 주간, 주간지, 주감이, 주거, 주거지, 주
 격, 주검, 주고받다, 주관, 주관적, 주관하다, 주근깨, 주기, 주기적, 주꾸미, 주낙, 주년, 주
 녹, 주님, 주다, 주도, 주도권, 주도하다, 주동자, 주되다, 주둥아리, 주둥이, 주둥치, 주력,
 주력하다, 주례, 주로, 주룩주룩, 주류, 주름, 주름막, 주름잡다, 주름, 주리, 주리다, 주마가
 편, 주마등, 주막, 주말, 주머니, 주머니, 주먹, 주먹구구, 주모, 주목, 주목되다, 주목받다,
 주목하다, 주무르다, 주무시다, 주문, 주문하다, 주물럭거리다, 주물럭대다, 주물럭주물럭,
 주물리다, 주민, 주방, 주변, 주변, 후보, 주부, 주부코, 주비, 주뻗하다, 주사, 주사기, 주사
 니, 주사위, 주살, 주석, 주섬주섬, 주섬주섬, 주소, 주소지, 주술, 주스, 주시하다, 주식, 주
 악, 주어지다, 주역, 주요, 주요하다, 주위, 주의자, 주의하다, 주인, 주인공, 주인아저씨, 주
 일, 주임, 주입, 주자, 주자소, 주장, 주장하다, 주재, 주재소, 주저, 주저리, 주저리주저리,
 주저앉다, 주저하다, 주전부리, 주전자, 주접, 주정하다, 주제, 주주, 주줄이, 주지, 주지육
 림, 주차, 주차장, 주창, 주책, 주책없다, 주체, 주체사상, 주체적, 주최, 주최하다, 주추, 주
 축, 주춧돌, 주치의, 주택, 주택가, 주파수, 주판, 주필, 주한, 죽, 죽나무, 죽다, 죽대, 죽데
 기, 죽물, 죽방울, 죽살이, 죽상, 죽음, 죽이다, 죽죽, 죽지, 죽치다, 준거, 준거하다, 준공,
 준법, 준비, 준비되다, 준비하다, 준용, 준치, 줄, 줄, 줄, 줄거리, 줄곧, 줄기, 줄기차다, 줄
 넘기, 줄다, 줄다리기, 줄어들다, 줄어지다, 줄이다, 줄잡다, 줄행랑, 줌, 줌다, 줌대, 중, 중
 간, 중개, 중견, 중계, 중고, 중공업, 중구, 중국, 중기, 중년, 중다버지, 중단, 중단되다, 중
 단하다, 중대하다, 중도, 중독, 중동, 중량, 중립, 중매, 중매쟁이, 중문경무, 중반, 중병, 중
 부, 중뿔나다, 중사, 중산모, 중산층, 중상, 중생, 중세, 중소, 중소기업, 중속환이, 중순, 중
 시하다, 중심, 중심부, 중심지, 중뿔하다, 중앙, 중얼거리다, 중역, 중엽, 중올피, 중요, 중요
 성, 중요시하다, 중요하다, 중인, 중절모, 중절모자, 중진, 중추, 중치, 중턱, 중포, 중학, 중
 학교, 중학생, 중형, 중흔, 쥐, 쥐구멍, 쥐날, 쥐다, 쥐대기, 쥐뿔, 쥐뿔나무, 쥐락펴락, 쥐며
 느리, 쥐방울, 쥐불, 쥐불놀이, 쥐불놀이, 쥐뿔, 쥐엄나무, 쥐엄질, 쥐이다, 쥐뿔, 쥐참외, 쥐
 치, 즈봉, 즈음, 즈음하다, 즉, 즉각, 즉각적, 즉석, 즉시, 즉시, 즐거움, 즐거이, 즐겁다, 즐
 기다, 줍, 증가, 증가되다, 증가세, 증가율, 증가하다, 증거, 증권사, 증기, 증기선, 증대, 증
 대되다, 증명, 증명되다, 증명서, 증명하다, 증상, 증서, 증세, 증시, 증언, 증언하다, 증여,
 증오, 증인, 증정, 증진, 증편, 증폭되다, 지, 지가, 지갑, 지게, 지게문, 지게미, 지겹다, 지
 경, 지구, 지구당, 지구의, 지구촌, 지꺠련, 지그시, 지그재그, 지극하다, 지극히, 지금, 지금
 꺠, 지급하다, 지기, 지기, 지꺠이다, 지나, 지나가다, 지나다, 지나다니다, 지나오다, 지나치
 다, 지난날, 지난달, 지난번, 지난주, 지난해, 지내다, 지네, 지느러미, 지능, 지니다, 지다,
 지다, 지다, 지단, 지도력, 지도리, 지도부, 지도자, 지도층, 지도하다, 지독하다, 지돌이, 지
 동, 지라, 지랄, 지랄하다, 지렁이, 지레, 지레, 지루, 지루하다, 지르다, 지르다, 지르다, 지
 르박, 지르잡다, 지름, 지름길, 지름뜨다, 지리다, 지린내, 지망생, 지며리, 지면, 지배, 지배
 권, 지배되다, 지배인, 지배자, 지배적, 지배하다, 지부지기, 지불, 지불하다, 지붕, 지사, 지
 상, 지새다, 지새우다, 지서, 지선, 지성, 지속, 지속되다, 지속적, 지속하다, 지시, 지시하
 다, 지식, 지식인, 지아비, 지아이, 지어내다, 지어미, 지에, 지역, 지역구, 지역적, 자연, 지
 옥, 지우개, 지우다, 지우다, 지원, 지원금, 지원병, 지원자, 지원하다, 지위, 지음치다, 지

의, 지이다, 지자제, 지장, 지저귀, 지저귀다, 지저분하다, 지적, 지적되다, 지적하다, 지전,
 지점, 지점장, 지정, 지정되다, 지정하다, 지주, 지중해, 지지, 지지다, 지지다, 지지르다, 지
 지미, 지지하다, 지진, 지질구레하다, 지질리다, 지질하다, 지짐, 지참금, 지축, 지출, 지출하
 다, 지치, 지치다, 지침, 지칭개, 지칭하다, 지켜보다, 지키다, 지킴, 지탱하다, 지팡이, 지팽
 이, 지퍼, 지평선, 지평시차, 지폐, 지푸라기, 지프, 지피다, 지하, 지하도, 지하실, 지향, 지
 향적, 지향하다, 지형, 지혜, 지혜롭다, 지휘, 지휘자, 지휘하다, 직, 직결되다, 직계, 직공,
 직급, 직면하다, 직무, 직물, 직선, 직성, 직업, 직업병, 직역, 직원, 직위, 직장, 직장인, 직
 접, 직접적, 직종, 직책, 직하다, 직향, 직후, 진, 진갑, 진구리, 진급, 진단, 진단서, 진단하
 다, 진달래, 진달래꽃, 진동, 진드기, 진득찰, 진득하다, 진디, 진로, 진료, 진리, 진물, 진버
 짐, 진보, 진부하다, 진산, 진상, 진선미, 진술, 진실, 진실로, 진실하다, 진심, 진압, 진언,
 진열되다, 진열장, 진영, 진입, 진입하다, 진작, 진저리, 진전, 진전되다, 진정, 진정서, 진정
 하다, 진주, 진지, 진지하다, 진진하다, 진짜, 진짜로, 진짤, 진창, 진출하다, 진통, 진티, 진
 펄, 진풀, 진하다, 진학, 진학하다, 진행, 진행되다, 진행자, 진행하다, 진흙, 진흥, 질, 질감,
 질것, 질경이, 질그릇, 질기다, 질다, 질동이, 질리다, 질문, 질문하다, 질방구리, 질병, 질
 서, 질소, 질적, 질주하다, 질통, 질투, 질퍽하다, 질환, 질흙, 짊어지다, 짐, 짐대, 짐받이,
 짐병, 짐승, 짐승, 짐실이, 짐작, 짐작되다, 짐작하다, 짐짓, 짐짝, 집, 집계, 집계별레, 집계
 되다, 집권, 집권하다, 집다, 집단, 집단적, 집들이, 집무, 집배원, 집비둘기, 집사, 집사람,
 집세, 집시, 집안, 집안사람, 집안일, 집알이, 집어내다, 집어넣다, 집오리, 집요하다, 집일,
 집중, 집중되다, 집중적, 집중하다, 집짐승, 집착, 집착하다, 집터, 집행, 집행하다, 집회, 집
 히다, 짓, 짓개다, 짓다, 짓두드리다, 짓무르다, 짓무르다, 짓밟다, 짓썩다, 짓이기다, 짓쪼
 다, 짓쪼다, 짓치다, 징, 징, 징결이, 징검다리, 징검돌, 징검장검, 징경이, 징계, 징그럽다,
 징수, 징역, 징조, 징크스, 징후, 짓다, 질다, 질다, 짚, 짚다, 짚동, 짚신, 짚자리, 짜개, 짜
 갑기, 짜다, 짜다, 짜름하다, 짜이다, 짜임, 짜임새, 짜장, 짜장면, 짜증, 짜증스럽다, 짹, 짹
 눈, 짹사랑, 짹짜꿍, 짹짜꿍이, 짹짜이, 짹태, 짹통, 짹하다, 짹맛, 짹지, 짹하다, 짹따랏다,
 짹라뱅이, 짹다, 짹, 짹밥, 짹뽕, 짹짜미, 짹짹이, 짹짹참다, 짹구, 짹개, 짹개집, 짹다, 짹마
 리, 짹어지다, 짹, 짹찌기, 쪼가리, 쪼각, 쪼개다, 쪼그라들다, 쪼그라지다, 쪼그라트리다, 쪼
 그랑, 쪼그랑박, 쪼그리다, 쪼금, 쪼다, 쪼이, 쪼이다, 쪽, 쪽, 쪽, 쪽나무, 쪽박, 쪽발이, 쪽
 빛, 쪽술, 쪽지, 쪽파, 쫄쫄, 쫄쫄하다, 쫄겨나다, 쫄기다, 쫄다, 쫄아가다, 쫄아다니다, 쫄아
 오다, 쪽, 쪽다, 쫄그렁이, 쫄그리다, 쫄뻗하다, 쪽, 쪽정이, 쫄, 쫄쫄, 쫄, 쫄개, 쫄그렁이,
 쫄꺼기, 쫄끼, 쫄다, 쫄다, 쫄다, 쫄들다, 쫄르다, 쫄르레기, 쫄푸리다, 쫄다, 쫄히다, 쫄뎡
 다, 쫄레, 쫄레꽃, 쫄레나무, 쫄리다, 쫄, 쫄그리다, 쫄기다, 쫄기다, 쫄다, 쫄어지다, 쫄다,
 차, 차가다, 차갑다, 차곡차곡, 차관, 차관보, 차기, 차다, 차다, 차다, 차다, 차다, 차단되다,
 차단하다, 차도, 차들, 차라리, 차량, 차례, 차례꾼, 차례, 차례, 차로, 차리다, 차림, 차림새,
 차림차림, 차림표, 차마, 차반, 차별, 차별화, 차분하다, 차비, 차사, 차선, 차세대, 차오르
 다, 차이, 차이다, 차이점, 차일, 차장, 차전, 차전자, 차제, 차조, 차조기, 차조밥, 차좁쌀,
 차종, 차지, 차지다, 차지하다, 차질, 차차, 차창, 차츰, 차표, 차흙다, 착각, 착각하다, 착륙,
 착상, 착색, 착수, 착수하다, 착실히, 착오, 착잡하다, 착취, 착하다, 찬동, 찬란하다, 찬물,
 찬미, 찬바람, 찬성, 찬성하다, 찬송, 찬송가, 찬송하다, 찬스, 찬조금, 찬찬하다, 찬찬히, 찰
 기, 찰기장, 찰기장쌀, 찰나, 찰떡, 찰벼, 찰수수, 참, 참가, 참가자, 참가하다, 참게, 참고,
 참고인, 참고하다, 참기름, 참깨, 참꽃, 참나무, 참나물, 참다, 참담하다, 참답다, 참되다, 참

먹, 참모, 참빛, 참새, 참석, 참석자, 참석하다, 참신, 참신하다, 참싸리, 참여, 참여하다, 참
 예, 참여하다, 참외, 참외꼭지, 참으로, 참을성, 참조, 참조개, 참죽, 참죽나무, 참척, 참척하
 다, 참호, 참혹하다, 참회, 참회록, 찹쌀, 찹쌀떡, 찻물, 찻잔, 찻종, 창, 창가, 창같이,
 창고, 창고지기, 창구, 창나무, 창당, 창립, 창문, 창밖, 창백하다, 창애, 창업, 창업자, 창의
 적, 창자, 창작, 창작극, 창조, 창조되다, 창조성, 창조적, 창조하다, 창출, 창출하다, 창포,
 창피, 창피하다, 창호지, 찻다, 찻아가다, 찻아내다, 찻아다니다, 찻아보다, 찻아오다, 채,
 채, 채, 채광, 채광주리, 채권, 채권단, 채끝, 채널, 채다, 채독, 채롱, 채무, 채무자, 채비,
 채색, 채석장, 채소, 채신, 채용, 채용하다, 채우다, 채우다, 채우다, 채우다, 채점, 채질하
 다, 채찍, 채취, 채취하다, 채치다, 채택, 채택되다, 채택하다, 책, 책가방, 책벌레, 책보, 책
 상, 책씻이, 책임, 책임감, 책임자, 책임지다, 책자, 챔피언, 챔피언, 챗열, 쟁, 쟁기다, 처,
 처가, 처가살이, 처남, 처남대, 처녀, 처녀, 처녀작, 처녀지, 처넵, 처란, 처럼, 처리, 처리되
 다, 처리장, 처리하다, 처마, 처맛기술, 처매다, 처먹다, 처방, 처방전, 처벌, 처벌하다, 처
 분, 처분하다, 처사, 처음, 처절하다, 처제, 처지, 처지다, 처지, 처치하다, 처하다, 처형, 척,
 척결, 척도, 척지다, 척추, 척하다, 천, 천국, 천남성, 천더기, 천도교, 천둥, 천둥벌거숭이,
 천량, 천리경, 천리안, 천막, 천만, 천문학자, 천박하다, 천사, 천생, 천식, 천연기념물, 천연
 덕스럽다, 천연두, 천연색, 천연스럽다, 천엽, 천왕성, 천자문, 천장, 천재, 천정, 천작, 천주
 교, 천주교, 천지, 천직, 천천하다, 천천히, 천하, 천황, 철, 철강, 철교, 철기, 철도, 철도원,
 철로, 철릭, 철마, 철면피, 철문, 철물, 철병, 철부지, 철사, 철사줄, 철선, 철수, 철수하다,
 철써기, 철옹성, 철원, 철자, 철자법, 철저하다, 철저히, 철조망, 철쭉, 철쭉꽃, 철책, 철철
 이, 철탑, 철판, 철필, 철하다, 철학, 철학, 철학자, 철학적, 철환, 철회, 침단, 침삭, 침예하
 다, 찻, 찻, 찻, 찻가을, 찻날, 찻닭, 찻돌, 찻머리, 찻배, 찻봄, 찻사랑, 찻소리, 찻여름, 찻
 인상, 찻잠, 찻조금, 찻째, 찻추위, 청, 청가되, 청강생, 청개구리, 청구, 청구서, 청구하다,
 청국장, 청년, 청년단, 청년회, 청대, 청동, 청동기, 청량음료, 청맹과니, 청문회, 청바지, 청
 사, 청사진, 청산, 청산하다, 청색, 청서, 청설모, 청소, 청소년, 청소하다, 청승, 청승맞다,
 청약, 청어, 청올치, 청요리, 청원, 청원서, 청자, 청주, 청중, 청지기, 청천벽력, 청첩, 청춘,
 청출어람, 청하다, 체, 체, 체격, 체결, 체결하다, 체계, 체계적, 체구, 체내, 체념, 체득, 체
 득하다, 체력, 체류, 체리, 체머리, 체면, 체세포, 체스, 체신, 체온, 체온계, 체육, 체육관,
 체육회, 체인, 체재, 체재비, 체전부, 체제, 체조, 체중, 체중, 체지, 체질, 체크하다, 체포,
 체포되다, 체포하다, 체하다, 체험, 체험하다, 첼로, 쳐다보다, 쳐들다, 쳐들어오다, 초, 초가
 집, 초가집, 초고리, 초고속, 초과, 초과하다, 초급, 초대, 초대하다, 초등, 초등학교, 초등학
 생, 초라하다, 초래하다, 초록색, 초롱, 초롱불, 초리, 초리, 초반, 초상화, 초소, 초승, 초승
 달, 초원, 초월하다, 초인종, 초저녁, 초점, 초조하다, 초주검, 초창기, 초청, 초청하다, 초
 침, 초콜릿, 초피나무, 초하루, 촉구하다, 촉새, 촉진, 촉진하다, 촉촉하다, 촉탁, 촌, 촌스럽
 다, 촌지, 촌촌하다, 촛대, 촛불, 총, 총각, 총갱기, 총격, 총기, 총냥이, 총독, 총리, 총림,
 총무, 총반이, 총살, 총상, 총생산, 총선, 총수, 총액, 총이말, 총장, 총재, 총채, 총체적, 총
 단, 총통, 총포, 총회, 촬영, 촬영하다, 최, 최고, 최근, 최다, 최대, 최대한, 최상, 최상급,
 최선, 최소, 최소한, 최소화하다, 최신, 최신식, 최악, 최저, 최적, 최종, 최종적, 최첨단, 최
 초, 최후, 추, 추가, 추가되다, 추가하다, 추구, 추구하다, 추궁하다, 추기다, 추녀, 추다, 추
 다, 추동, 추라치, 추락하다, 추레하다, 추렴, 추렴하다, 추리, 추리닝, 추상적, 추석, 추세,
 추스르다, 추억, 추월, 추위, 추이, 추임새, 추장, 추저분하다, 추적, 추적하다, 추정, 추정되

다, 추정하다, 추진, 추진되다, 추진력, 추진하다, 주장, 추천, 추천하다, 추출하다, 추측, 추측하다, 추켜들다, 추키다, 추키다, 추파, 추하다, 축, 축구, 축복, 축사, 축산, 축소, 축소되다, 축소하다, 축음기, 축적, 축적되다, 축적하다, 축제, 축축이, 축축하다, 축하, 축하하다, 춘부장, 출가, 출구, 출국, 출근, 출근하다, 출마, 출마하다, 출발, 출발하다, 출범, 출범하다, 출산, 출생, 출석, 출석부, 출세, 출신, 출연, 출연자, 출연하다, 출영, 출입, 출입구, 출입문, 출자, 출장, 출장소, 출장하다, 출전, 출전하다, 출정, 출처, 출판, 출판계, 출판되다, 출판사, 출판업, 출판하다, 출품, 출품하다, 출하, 출현, 출현하다, 춤, 춤추다, 춤다, 충격, 충격적, 충고, 충돌, 충돌하다, 충동, 충동거리다, 충동이다, 충동하다, 충만하다, 충분하다, 충분히, 충실하다, 충청도, 취, 취급, 취급소, 취급하다, 취라치, 취미, 취소, 취소하다, 취약하다, 취업, 취임, 취임식, 취임하다, 취재, 취재하다, 취조하다, 취지, 취지서, 취직, 취체, 취체하다, 취하다, 취학, 취향, 측, 측간, 측근, 측량하다, 측면, 측백, 측정, 측정하다, 층, 층층, 치, 치, 치고, 치니매기, 치다, 치다, 치다, 치다, 치다, 치다, 치다꺼리, 치달다, 치뜨다, 치레, 치료, 치료법, 치료소, 치료하다, 치르다, 치마, 치마끈, 치명상, 치명적, 치밀다, 치밀하다, 치받다, 치받이, 치받치다, 치부책, 치부하다, 치솟다, 치아, 치안, 치약, 치열하다, 치우다, 치우다, 치우치다, 치이다, 치이다, 치이다, 치이다, 치자, 치잡다, 치중하다, 치즈, 치지르다, 치치다, 치키다, 치타, 칙령, 칙칙하다, 친구, 친근하다, 친동생, 친목회, 친분, 친숙하다, 친위대, 친일, 친일파, 친절, 친절하다, 친정, 친족, 친척, 친친, 친하다, 칠, 칠뜨기, 칠석, 칠십, 칠월, 칠천, 칠칠찮다, 칠칠하다, 칠판, 칠하다, 침, 침딩굴, 침범, 침뿌리, 침, 침담그다, 침대, 침략, 침묵, 침묵하다, 침실, 침어낙안, 침입하다, 침착하다, 침체, 침투, 침팬지, 침해, 침해하다, 침흘리게, 칩, 칩떠보다, 칩뜨다, 칫솔, 칭제, 칭찬, 칭찬하다, 카나리아, 카네이션, 카누, 카니발, 카드, 카디건, 카라반, 카레, 카레라이스, 카리스마, 카메라, 카멜레온, 카바레, 카바이드, 카스텔라, 카우보이, 카운터, 카운트, 카지노, 카카오, 카키, 카키색, 카탈로그, 카투사, 카페, 카펫, 각테일, 칸, 칸나, 칸델라, 칸막이, 칼, 칼, 칼국수, 칼끝, 칼날, 칼등, 칼라, 칼로리, 칼부림, 칼새, 칼자, 칼자루, 칼자이, 칼질, 캄캄철야, 캄캄하다, 강강, 캐다, 캐러멜, 캐럴, 캐럿, 캐릭터, 캐비닛, 캐비어, 캐스터네츠, 캐시미어, 캔, 캔디, 캔버스, 캠페인, 캠프, 캠핑, 캡, 캡슐, 갱거루, 커닝, 커다랗다, 커버, 커브, 커지다, 커튼, 커틀릿, 커피, 컨소시엄, 컬러, 컴퍼스, 컵, 케이블, 케이블카, 케이오, 케이크, 케첩, 케케묵다, 켄트지, 켄기다, 커, 커다, 커다, 커커이, 켄레, 켄레, 켄속, 코, 코골다, 코끝, 코끼리, 코낙, 코너, 코뚜레, 코르셋, 코르크, 코머거리, 코미디, 코미디언, 코믹, 코브라, 코빼기, 코뿔소, 코스모스, 코안경, 코앞, 코주부, 코치, 코코넛, 코코아, 코털, 코트, 코푸렁이, 코허리, 콘돔, 콘센트, 콘크리트, 콜드크림, 콜라, 콜레라, 콜타르, 콤플렉스, 콧구멍, 콧노래, 콧대, 콧등, 콧마루, 콧물, 콧방울, 콧부리, 콧살, 콧소리, 콧소리, 콧수염, 콧숨, 콧잔등, 콩, 콩가루, 콩가루, 콩깍지, 콩꼬투리, 콩나물, 콩밥, 콩밭, 콩부리, 콩새, 콩잎, 콩짜개, 콩게팔게, 콩쿠르, 콩트, 콩팥, 황, 왜감, 왜락, 왜자, 왜적하다, 왜지나칭칭나네, 쿠데타, 쿠루메, 쿠션, 쿠폰, 퀴즈, 크기, 크낙새, 크다, 크래커, 크레딧카드, 크레용, 크레파스, 크리스마스, 크리스털, 크림, 큰곰자리, 큰길, 큰물, 큰소리, 큰손, 큰스님, 큰아들, 큰아버지, 큰어머니, 큰일, 큰집, 큰창자, 큰할머니, 클라리넷, 클라이언트, 클래식, 클랙슨, 클럽, 클로버, 클럽, 큼직하다, 키, 키, 키, 키니네, 키다리, 키보드, 키스, 키우다, 키우다, 키워, 키잡이, 킁, 킬로, 킬로그램, 킬로미터, 타, 타개, 타격, 타결, 타고나다, 타다, 타다, 타다, 타다, 타다, 타다, 타다, 타당성, 타당하다, 타락, 타락죽, 타래, 타령, 타르, 타박상, 타박하다, 타

성, 타오르다, 타올, 타원, 타월, 타올, 타이르다, 타이머, 타이츠, 타이틀, 타이프, 타인, 타
 일, 타입, 타자, 타자기, 타전, 타조, 타짜꾼, 타향, 타협, 탁, 탁구, 탁목조, 탁방내다, 탁아
 소, 탁월하다, 탁자, 탁주, 탁탁, 탁하다, 탄광, 탄산수, 탄생, 탄생하다, 탄소, 탄압, 탄약,
 탄자, 탄핵, 탄환, 탈, 탈놀음, 탈놀이, 탈선, 탈출, 탈출하다, 탈타리, 탈피하다, 탐구, 탐구
 하다, 탐내다, 탐사, 탐스럽다, 탐조등, 탐험, 탐험가, 탐, 탐골치, 탐새기주다, 탐승, 탐재,
 탓, 탓하다, 탕건, 탕면, 탕수육, 탕평채, 태공망, 태국, 태권도, 태극, 태극기, 태도, 태백중,
 태세, 태아, 태양, 태양신, 태어나다, 태엽, 태연하다, 태엽, 태우다, 태우다, 태우다, 태우
 다, 태조, 태질, 태질하다, 태평양, 태풍, 태배, 택시, 택지, 택하다, 탬버린, 탱고, 탱알, 탱
 자, 탱자나무, 탱크, 탱화, 터, 터거리, 터널, 터놓다, 터득하다, 터러기, 터럭, 터무니, 터무
 니없다, 터부, 터알, 터울, 터전, 터지다, 터짐, 터치, 터트리다, 턱, 턱, 턱걸이, 턱받이, 턱
 시도, 턱찌끼, 털, 털갈이, 털구멍, 털끝, 털다, 털다, 털리다, 털볼이, 털실, 털썩, 털어놓다,
 털옷, 털이개, 털총이, 털터리, 털털이, 텅, 테니스, 테두리, 테라스, 테러, 테메우다, 테밀
 이, 테스트, 테이블, 테이프, 테크놀로지, 텐트, 텔레비전, 텅쇠, 토, 토기, 토끼, 토끼날, 토
 끼다, 토끼풀, 토너먼트, 토대, 토란, 토렴, 토로하다, 토록, 토론, 토론하다, 토론회, 토마
 토, 토막, 토산불알, 토산불이, 토성, 토스터, 토스트, 토시, 토시, 토요일, 토지, 토치카, 토
 필, 토하다, 톡토기, 톡톡, 톡톡히, 톱, 톱질, 톱질하다, 톱칼, 톳, 통, 통가족, 통계, 통과,
 통과하다, 통나무, 통령, 통로, 통발, 통보, 통보하다, 통산, 통상, 통속, 통신, 통신망, 통용
 되다, 통일, 통일되다, 통일하다, 통장, 통제, 통제하다, 통조림, 통증, 통지, 통지서, 통짜,
 통째, 통찰, 통치, 통치자, 통통하다, 통틀어, 통폐합, 통하다, 통학, 통학하다, 통합, 통합되
 다, 통합하다, 통행, 통화하다, 퇴근, 퇴근하다, 퇴기다, 퇴김, 퇴박맞다, 퇴박하다, 퇴사, 퇴
 사하다, 퇴원, 퇴장하다, 퇴적물, 퇴직금, 퇴진, 퇴짓돌, 퇴짜, 퇴학, 퇴학하다, 투, 투고, 투
 구, 투구, 투구벌레, 투기, 투덜거리다, 투레질, 투매, 투명, 투명성, 투명하다, 투사, 투서,
 투성이, 투수, 투신사, 투약, 투우, 투우장, 투입, 투입되다, 투입하다, 투자, 투자가, 투자
 자, 투자하다, 투쟁, 투쟁하다, 투전, 투정하다, 투표, 투표장, 톡, 톡톡, 톱툰히, 톱, 톱노구,
 톱명스럽다, 톱바리맞다, 톱방울, 톱방울눈, 톱소, 톱통하다, 튀각, 튀기, 튀기다, 튀김, 튀
 다, 튀어나오다, 튜바, 튜브, 툴립, 트다, 트다, 트라이앵글, 트럭, 트럼펫, 트럼프, 트렁크,
 트레머리, 트레바리, 트레방석, 트렌치코트, 트로트, 트로피, 트롬본, 트림, 트림하다, 트릿
 하다, 트이다, 트집, 트집, 특권, 특급, 특기, 특별, 특별하다, 특별히, 특사, 특색, 특성, 특
 수, 특수성, 특수하다, 특약, 특위, 특유, 특이, 특이하다, 특정, 특정하다, 특종, 특질, 특집,
 특징, 특파, 특파원, 특허, 특허, 특히, 튼실하다, 튼튼하다, 툄, 툄개, 툄다, 툄리다, 툄림없
 다, 툄림없이, 툄어막다, 툄어지다, 툄, 툄, 툄나다, 툄새, 툄서리, 툄타다, 툄툄이, 티, 티,
 티끌, 티눈, 티브이, 티셔츠, 티엔티, 티오, 팀, 팀장, 팀제, 팀, 파, 파개, 파격적, 파견, 파
 견하다, 파경, 파고들다, 파괴, 파괴되다, 파괴하다, 파급, 파내다, 파노라마, 파다, 파도, 파
 드득나물, 파라다이스, 파라솔, 파란, 파란색, 파랑, 파랑새, 파랑다, 파래, 파래박, 파래지
 다, 파려, 파르게하다, 파르대대하다, 파르댕댕하다, 파르무레하다, 파르스름하다, 파르족족
 하다, 파리, 파리채, 파마, 파문, 파문다, 파문히다, 파발꾼, 파방, 파쇼, 파순, 파스텔, 파악,
 파악되다, 파악하다, 파업, 파우더, 파운드, 파운드케이크, 파이, 파이다, 파이프, 파인애플,
 파자마, 파장, 파출소, 파탄, 파투, 파티, 파파노인, 파파이, 파헤치다, 판, 판관사령, 판국,
 판권, 판다, 판단, 판단되다, 판단력, 판단하다, 판대기, 판매, 판매되다, 판매하다, 판명, 판
 사, 판설다, 판소리, 판수, 판정, 판탈롱, 판판하다, 팔, 팔걸이, 팔굽, 팔꿈치, 팔다, 팔다리,

팔뚝, 팔뚝, 팔랑개비, 팔리다, 팔림새, 팔마디, 팔매, 팔매질, 팔매질하다, 팔매하다, 팔목, 팔선녀, 팔쇠, 팔십, 팔월, 팔자, 팔짱, 팔찌, 팜플렛, 팜플릿, 팝, 팝콘, 팻종, 팡파르, 팡파
 짐하다, 팔, 팔가루, 팔꼬투리, 팔꽃, 팔꽃나무, 팔단자, 팔담, 팔비누, 팔소, 팔잎, 팔죽, 패, 패
 거리, 패널, 패다, 패다, 패다, 패랭이, 패랭이꽃, 패러다임, 패배, 패션, 패스포트, 패암, 패차다, 패치, 패하다, 팩스, 팬, 팬지, 팬츠, 팬케이크, 팬터마임, 팬티, 팡개치다, 팡나무,
 팡이, 팡창, 팡창하다, 팡패롭다, 팡패리, 팡팡이, 팡팡하다, 팡팡히, 퍼령, 퍼렇다, 퍼레이
 드, 퍼레지다, 퍼먹다, 퍼붓다, 퍼센트, 퍼즐, 퍼지다, 퍼트리다, 펍, 편더기, 편드, 편치, 펄
 프, 펄크, 페넌트, 페니실린, 페달, 페스트, 페이지, 페인트, 페퍼민트, 펜, 펜싱, 펜치, 펠리
 컨, 팡권, 펴내다, 펴다, 펴이다, 펴지다, 편, 편견, 편리, 편리하다, 편물, 편성, 편수, 편안,
 편안하다, 편안히, 편육, 편의, 편입, 편자, 편지, 편지질, 편집, 편집자, 편찮다, 편편이, 편
 편찮다, 편하다, 편향, 편히, 펼치다, 평, 평가, 평가되다, 평가하다, 평균, 평등, 평등하다,
 평론, 평론가, 평면, 평미래, 평미리치다, 평민, 평방, 평범하다, 평상시, 평생, 평소, 평안
 도, 평야, 평양냉면, 평온하다, 평원, 평지, 평하다, 평행, 평행선, 평화, 평화롭다, 평화스럽
 다, 폐, 폐간, 폐기, 폐기물, 폐단, 폐롭다, 폐물, 폐백, 폐쇄, 폐수, 폐시, 폐염, 폐점, 폐지,
 폐지되다, 폐지하다, 폐하, 폐해, 폐허, 폐회, 포, 포개다, 포개다, 포격, 포경선, 포괄적, 포
 괄하다, 포근하다, 포기, 포기하다, 포대기, 포도, 포도원, 포도주, 포로, 포르말린, 포목, 포
 병, 포수, 포스터, 포스트모더니즘, 포식, 포와, 포위, 포육, 포장, 포장마차, 포착하다, 포
 커, 포켓, 포크, 포크댄스, 포크송, 포크커틀릿, 포탄, 포털, 포플러, 포함, 포함되다, 포함하
 다, 포획물, 폭, 폭군, 폭넓다, 폭동, 폭력, 폭로, 폭로하다, 폭발, 폭발적, 폭발하다, 폭우,
 폭탄, 폭포, 폭풍, 폭풍우, 폭행, 폰트, 풀가, 품, 표, 표결, 표고, 표구, 표기, 표류, 표류민,
 표면, 표명하다, 표방, 표방하다, 표백, 표백제, 표범, 표변, 표본, 표본실, 표상, 표시, 표시
 하다, 표어, 표적, 표정, 표주박, 표준, 표준어, 표준화, 표지, 표징, 표출되다, 표하다, 표현,
 표현되다, 표현하다, 푸나무, 푸냄, 푸다, 푸닥거리, 푸대접, 푸드덕, 푸딩, 푸령, 푸르게하
 다, 푸르누렇다, 푸르다, 푸르다, 푸르데데하다, 푸르탱탱하다, 푸르락누르락, 푸르락볶으락,
 푸르르다, 푸르무레하다, 푸르스름하다, 푸르죽죽하다, 푸르통통하다, 푸른빛, 푸른색, 푸릇
 푸릇, 푸릇하다, 푸만하다, 푸만하다, 푸새, 푸서리, 푸성귀, 푸숨, 푸주, 푸주, 푸줏간, 푸지
 개, 푸지개, 푸지위, 폭, 푼, 푼더분하다, 푼돈, 푼수, 푼진, 푼주, 푼푼이, 푼소, 푼, 푼, 푼
 기, 푼다, 푼다, 푼려나다, 푼리다, 푼무, 푼무질하다, 푼보기, 푼뿌리, 푼숨, 푼숨할머니, 푼
 어지다, 푼이, 푼이되다, 푼이하다, 푼잎, 푼젓개, 품, 품다, 품목, 품셈, 품앗이, 품위, 품절,
 품종, 품질, 품팔이, 품행, 풋, 풋고추, 풋나무, 풋나물, 풋내, 풋내기, 풋바심, 풋잠, 풋풋하
 다, 풍경, 풍금, 풍기다, 풍년, 풍덩이, 풍력, 풍류, 풍물, 풍부하다, 풍선, 풍성하다, 풍속,
 풍습, 풍요, 풍요롭다, 풍자, 풍토, 풍토병, 퓨마, 퓨즈, 프라이버시, 프라이팬, 프락치, 프
 로, 프로그램, 프로모터, 프로펠러, 프론트, 프롤레타리아, 프리미엄, 플라밍고, 플라타너스,
 플란넬, 플래시, 플래카드, 플랫폼, 플러그, 플레이, 플루트, 피, 피, 피고인, 피곤, 피곤하
 다, 피그미, 피나무, 피난, 피날레, 피다, 피단, 피디, 피담, 피동, 피라미드, 피란살이, 피력
 하다, 피로, 피로연, 피로하다, 피뢰침, 피리, 피리, 피리새, 피복, 피부, 피상적, 피스톤, 피
 시, 피시에스, 피식, 피아노, 피어나다, 피어오르다, 피어로, 피오즘, 피우다, 피의자, 피자,
 피죽, 피죽바람, 피죽새, 피질, 피켓, 피크닉, 피클, 피하다, 피해, 피해자, 핀, 핀셋, 핀잔,
 핀잔주다, 핀치, 핀트, 필로폰, 필름, 필명, 필사적, 필수, 필수적, 필연, 필연적, 필요, 필요
 성, 필요하다, 필자, 필터, 필통, 필화, 핏살, 핏기, 핏대, 핏줄, 핑계, 핑크, 하, 하고 많다.

하구, 하기야, 하긴, 하나, 하나같이, 하나님, 하나하나, 하나둘, 하나둘씩, 하늘, 하늘따라, 하늘소, 하늘타리, 하늬, 하늬바람, 하늬, 하다, 하다, 하다못해, 하도롱지, 하도롱판, 하든, 하드, 하드웨어, 하락, 하락하다, 하루, 하루거리, 하루빨리, 하루살이, 하루살이, 하루아침, 하루아침, 하루하루, 하룻강아지, 하룻날, 하룻망아지, 하룻밤, 하룻밤, 하룻비둘기, 하류, 하릅, 하리, 하릴없다, 하마, 하마터면, 하마평, 하모니카, 하물며, 하반기, 하부, 하소, 하소연, 하소연하다, 하소하다, 하수, 하수도, 하숙, 하숙비, 하숙집, 하순, 하야말갈다, 하야말썽하다, 하양, 하얗다, 하얗다, 하얘지다, 하여금, 하여튼, 하염없다, 하염없이, 하염직하다, 하오, 하와이, 하우스, 하원, 하위, 하이에나, 하이칼라, 하이킹, 하이힐, 하인, 하자, 하잘것없다, 하지만, 하직, 하차, 하찮다, 하천, 하층, 하기, 하트, 하품, 하품하다, 하프, 하필, 하하, 하현, 하회, 학, 학계, 학과, 학교, 학급, 학기, 학년, 학력, 학령, 학무, 학문, 학문적, 학번, 학부모, 학부형, 학비, 학사, 학살, 학생, 학설, 학술, 학습, 학습하다, 학업, 학예회, 학원, 학위, 학자, 학자금, 학적부, 학점, 학파, 학향초, 학회, 한, 한, 한, 한가운데, 한가위, 한가지, 한가하다, 한갓, 한겨울, 한겨울, 한결, 한결같다, 한결같이, 한계, 한계선, 한곳, 한구석, 한국어, 한국적, 한글, 한글, 한꺼번에, 한껏, 한나절, 한낱, 한낱, 한눈, 한뼉, 한데, 한데, 한데, 한도, 한돌림, 한동안, 한두, 한때, 한단계, 한랭, 한량, 한련초, 한마디, 한문, 한물, 한바탕, 한바탕, 한발, 한밤중, 한밥, 한방, 한번, 한복, 한복판, 한사리, 한사코, 한삼, 한서표, 한순간, 한숨, 한숨짓다, 한시, 한식, 한심하다, 한약, 한약업사, 한약재, 한없이, 한의대생, 한의사, 한의학, 한자, 한자리, 한잔, 한잔하다, 한적하다, 한정되다, 한쪽, 한차례, 한참, 한창, 한천, 한층, 한탄하다, 한당, 한판, 한팔접이, 한편, 한평생, 한하다, 할근 할근, 할당, 할당하다, 할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멈, 할미, 할미꽃, 할미새, 할빠, 할쑥하다, 할아버님, 할아버님, 할아버지, 할아범, 할아비, 할애, 할인, 할짝할짝, 할퀴다, 할다, 할이다, 함경도, 함께, 함께하다, 함대, 함바, 함박, 함박꽃, 함박눈, 함박웃음, 함박조개, 함부로, 함석, 함실코, 함씨, 함지, 함진아비, 함함하다, 함함하다, 함흥차사, 합, 합격, 합격하다, 합금, 합당, 합당하다, 합동, 합류하다, 합리성, 합리적, 합리화, 합법적, 합병, 합석, 합의, 합의되다, 합의서, 합의하다, 합작, 합중국, 합창, 합치다, 합하다, 핫도그, 핫바지, 핫어미, 핫옷, 핫이불, 핫저고리, 항, 항가새, 항공, 항공기, 항공모함, 항구, 항로, 항만, 항명, 항목, 항변, 항상, 항아, 항아리, 항의, 항의하다, 항일, 항쟁, 항해, 해, 해, 해감, 해거름, 해거리, 해결, 해결되다, 해결책, 해결하다, 해고, 해관, 해구, 해군, 해금, 해내다, 해님이, 해님, 해달, 해답, 해당, 해당되다, 해당하다, 해독, 해독제, 해돋이, 해동, 해동갑, 해동청, 해뜨기, 해라, 해롭다, 해마, 해마다, 해머, 해먹, 해명, 해명하다, 해바라기, 해방, 해방되다, 해변, 해부, 해빙기, 해산, 해삼, 해석, 해석되다, 해석하다, 해설, 해설피, 해소되다, 해소하다, 해송, 해수, 해수, 해수욕, 해수욕장, 해안, 해양, 헤어지다, 해역, 해오라기, 해왕성, 해외, 해웃값, 해임, 해자, 해장, 해장국, 해장술, 해장주, 해저, 해적, 해적선, 해제, 해조, 해지다, 해지킴, 해제, 해제되다, 해충, 해치다, 해치우다, 해코지, 해태, 해파리, 해포, 해표, 해프닝, 해협, 핵, 핵심, 핵심적, 핸드백, 핸드볼, 핸드폰, 핸들, 햄, 햄버거, 햅쌀, 햅귀, 햅나물, 햅무리, 햅발, 햅밤, 햅별, 햅빛, 햅살, 햅솜, 햅길, 햅동, 햅동반경, 햅동하다, 햅랑불이, 햅랑살이, 햅렬, 햅방, 햅복, 햅복하다, 햅사, 햅사하다, 햅상인, 햅선지, 햅성, 햅여, 햅여, 햅여, 햅여, 햅어나, 햅운, 햅위, 햅위자, 햅인, 햅장, 햅적, 햅정부, 햅주, 햅주치마, 햅진, 햅태, 햅하다, 햅, 햅기, 햅기롭다, 햅나무, 햅내, 햅로, 햅료, 햅부자, 햅상, 햅상되다, 햅수, 햅하다, 햅후, 허가, 허겁지겁, 허공, 허구, 허깨비, 허니문, 허다, 허다하다, 허

덕이다, 허드레, 허들, 허락, 허락하다, 허름하다, 허리, 허리나무, 허망하다, 허맹이, 허무하
 다, 허물, 허물, 허물다, 허물어지다, 허물하다, 허방, 허벅지, 허비다, 허비다, 허수아비, 허
 수하다, 허술하다, 허아비, 허약하다, 허여멀겑다, 허여멀쑥하다, 허영심, 허영다, 허예지다,
 허용, 허용되다, 허용하다, 허우대, 허우룩하다, 허울, 허위, 허전하다, 허탈, 허탈하다, 허
 튼, 허파, 허풍, 허허, 현, 현금, 현대, 현병, 혈값, 혈겁다, 혈다, 혈다, 혈뜬다, 혈리다, 험
 약하다, 험하다, 헛, 헛간, 헛갈리다, 헛것, 헛것, 헛구역, 헛되다, 헛말, 헛아궁이, 헛웃음,
 헛웃음, 헛일, 헛헛증, 형값, 형값단추, 헤다, 헤대다, 헤드라이트, 헤매다, 헤아리다, 헤아리
 다, 헤어나다, 헤어지다, 헤어지다, 헤엄, 헤엄치다, 헤엄하다, 헤졌다, 헤집다, 헤치다, 헤
 피, 헤헤, 헬기, 헬리콥터, 헬멧, 행가래, 혀, 혀, 혀끝, 혀뿌리, 혀짤배기, 혀대, 혀명, 혀명
 적, 혀신, 현, 현관, 현관문, 현금, 현기증, 현대, 현대사, 현대인, 현대적, 현명하다, 현미,
 현미경, 현삼, 현상, 현상금, 현수교, 현실, 현실적, 현안, 현역, 현장, 현재, 현저하다, 현존
 하다, 현지, 현직, 현행, 현황, 혈기, 혈연, 혈족, 혈통, 혐의, 협동, 협동조합, 협력, 협력하
 다, 협박, 협상, 협약, 협의, 협의하다, 협의회, 협정, 협조, 협조하다, 협회, 헛소리, 형, 형
 광, 형광등, 형님, 형법, 형부, 형사, 형상, 형성, 형성되다, 형성하다, 형수, 형식, 형식적,
 형제, 형제, 형태, 형태소, 형편, 혜택, 호, 호각, 호감, 호구, 호기심, 호다, 호도에, 호두,
 호드기, 호떡, 호라지쫄, 호락질, 호락호락, 호랑이, 호래아들, 호래자식, 호루라기, 호른, 호
 리, 호리병, 호림, 호마, 호미, 호밀, 호박, 호복, 호소하다, 호수, 호스, 호스티스, 호실, 호
 열자, 호외, 호우, 호응, 호저, 호적, 호조, 호족, 호주, 호주, 호주머니, 호초, 호출, 호출하
 다, 호칭, 호공, 호크, 호텔, 호통, 호통하다, 호호, 호호파, 호화판, 호흡, 흑, 흑시, 흑시나,
 흑은, 혼, 혼나다, 혼돈, 혼란, 혼란스럽다, 혼례, 혼술, 혼인, 혼인하다, 혼자, 혼자, 혼잡,
 혼잣말, 혼합, 혼합하다, 홀, 홀, 홀가분하다, 홀랑이질, 홀랑이치다, 홀로, 홀리다, 홀몸, 홀
 아비, 홀아비쫄, 홀어미, 홀태, 홀태바지, 홀이다, 홈, 홈런, 홈스핀, 홈페이지, 흙, 흙, 흥당
 무, 흥두개, 흥두개, 흥보, 흥수, 흥엽, 흥차, 흥합, 흥해, 흥화, 흙, 흙몸, 흙바지, 흙웃, 흙
 이불, 흙지다, 화, 화가, 화교, 화기, 화나다, 화내다, 화냥, 화냥기, 화냥년, 화냥질, 화단,
 화두, 화란, 화려하다, 화력, 화류계, 화물, 화물차, 화병, 화부, 화분, 화사하다, 화산, 화살,
 화살, 화살나무, 화상, 화성, 화수분, 화술, 화승총, 화실, 화씨, 화약, 화염, 화요일, 화원,
 화이트칼라, 화자, 화장, 화장대, 화장실, 화장품, 화재, 화전놀이, 화전지, 화제, 화차, 화
 축, 화툇불, 화투, 화폐, 화풀이, 화학, 화학적, 화해, 학, 학, 학고하다, 학대, 학대되다, 학
 대하다, 학률, 학립, 학립되다, 학립하다, 학보, 학보되다, 학보하다, 학산, 학산되다, 학신,
 학신하다, 확실하다, 확실히, 확인, 확인되다, 확인하다, 확장, 확장되다, 확장하다, 확정, 확
 정되다, 확정하다, 확충, 환갑, 환경, 환등, 환란, 환삼덩굴, 환상, 환상적, 환영, 환영하다,
 환영회, 환을, 환자, 환장, 환하다, 환히, 활, 활, 활개, 활개, 활고자, 활극, 활기, 활동, 활
 동하다, 활량, 활력, 활로, 활발하다, 활발히, 활비비, 활성화, 활성화되다, 활시위, 활쏘기,
 활약, 활약하다, 활용, 활용되다, 활용하다, 활자, 활잡이, 활줌통, 활집, 활짝, 황그리다, 황
 금, 황금광, 황금산, 황급히, 황당하다, 황무지, 황벽나무, 황새, 황새풀, 황색, 황소, 황쏘가
 리, 황아, 황양목, 황제, 황철나무, 황태자, 황토, 황해, 황해도, 황홀하다, 해, 해, 해, 해나
 무, 햇대, 햇불, 회, 회개, 회견, 회관, 회교, 회기, 회깃, 회나무, 회담, 회답, 회돌다, 회돌
 이, 회동, 회두리, 회람, 회로, 회뢰, 회보, 회복, 회복되다, 회복하다, 회사, 회사원, 회사채,
 회삼물, 회상, 회색, 회선, 회수, 회술레, 회양목, 회오리바람, 회원, 회원국, 회의, 회전, 회
 전목마, 회전하다, 회중시계, 회초리, 회피하다, 회향, 회향, 회흔레, 회화, 회화나무, 획기

적, 획득, 획득하다, 횃수, 횃단, 횃든다, 횃령, 횃보다, 횃설수설, 횃수막이, 횃포, 횃행, 효
 과, 효과적, 효능, 효력, 효시, 효용, 효율, 효율성, 효율적, 후, 후계자, 후기, 후대, 후답다,
 후두들기다, 후래삼배, 후레아들, 후레자식, 후루룩, 후리다, 후리다, 후리질, 후리치다, 후
 림, 후물리, 후물리기, 후미지다, 후반, 후배, 후벼내기, 후보, 후보자, 후비다, 후살이, 후
 세, 후속, 후손, 후원, 후원자, 후원회, 후유증, 후자, 후작, 후지다, 후추, 후추, 후퇴, 후퇴
 하다, 후회, 후회하다, 훈련, 훈민정음, 훈장, 훌륭하다, 훌쩍, 훌훌, 훑다, 훑다, 훑어보다,
 훑쳐보다, 훑치개질, 훑치다, 훑날, 흰칠하다, 흰칠하다, 흰칠히, 흰칠히, 흰하다, 흰히, 흰
 씌, 흰방, 흰손, 휘, 휘감기다, 휘감기다, 휘갑, 휘다, 휘돌다, 휘돌다, 휘두르다, 휘두르다,
 휘뚜루, 휘뚜루마뚜루, 휘말리다, 휘모리, 휘모리장단, 휘발유, 휘슬, 휘양, 휘장, 휘젓다, 휘
 청거리다, 휘파람, 휘파람, 휘파람새, 획, 휩싸다, 휩싸이다, 휩쓸다, 휩쓸리다, 흰손, 휴가,
 휴대, 휴대품, 휴식, 휴양, 휴업, 휴일, 휴전, 휴전선, 휴지, 휴직, 휴학, 휴회, 흥, 흥, 흥기,
 흥내, 흥배, 흥보다, 흥업다, 흥터, 흥호흡, 흐느끼다, 흐늘흐늘하다, 흐르다, 흐름, 흐리다,
 흐리다, 흐리다, 흐리다, 흐리멍덩하다, 흐리멍덩하다, 흐리터분하다, 흐뭇하다, 흐뭇하다,
 흐벅지다, 흐지부지, 흐트러지다, 흑, 흑막, 흑백, 흑보기, 흑사병, 흑연, 흑인, 흑임자, 흑
 자, 흑판, 흑해, 흔들다, 흔들다, 흔들리다, 흔들흔들하다, 흔적, 흔하다, 흔히, 흘겨보다, 흘
 기다, 흘깃흘깃하다, 흘떼기, 흘러가다, 흘러나오다, 흘러내리다, 흘러들다, 흘러오다, 흘레,
 흘리다, 흘리다, 흙, 흙다리, 흙덩이, 흙메움, 흙무더기, 흙무지, 흙물, 흙반기, 흙비, 흙손,
 흙질, 흙집, 흙, 흙뻘, 흙찢, 흡사, 흡사하다, 흡수, 흡수되다, 흡수하다, 흡연, 흥, 흥겹다,
 흥덩흥덩, 흥미, 흥미롭다, 흥부, 흥분, 흥분하다, 흥성거리다, 흥신소, 흥이야향이아, 흥정,
 흥정바치, 흥정바치, 흥정하다, 흥정하다, 흥청거리다, 흥청대다, 흥청망청, 흥행, 흘날리다,
 흘다, 흘어지다, 희곡, 희극, 희나리, 희다, 희랍, 희망, 희망하다, 희미하다, 희박, 희생, 희
 생자, 희생하다, 희아리, 희열, 희한하다, 흰나비, 흰말, 흰머리, 흰모래, 흰바꽃, 흰밥, 흰
 색, 흰쌀, 흰쌀밥, 흰자위, 흰콩, 히스테리, 히아신스, 히터, 히트, 힌트, 힐끗, 힘, 힘겹다,
 힘껏, 힘껏, 힘내다, 힘들다, 힘들이다, 힘세다, 힘쓰다, 힘없다, 힘없이, 힘입다, 힘줄, 힘차
 다, 힝그력

[부록 3] 말뭉치팀 - 국어원에서 제공한 미정비 말뭉치 초기 목록 검토 결과

연번	문헌명	간행/필사 (추정) 시기		추정 가치	어절 수
		세기	연도*		
1	가집二	20C	1934	하	35,193
2	가집一	20C	1934	하	24,582
3	감사별곡한국불교가사전집	20C	18XX(作), 1931(筆寫)	하	512
4	강태공전(경판39장본)경인고소설판각본전집1	19C	18XX	하	17,217
5	계우사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1	19C	1890?(筆寫)	중	8,827
6	경세종	20C	1908	상	5,519
7	경허당가가가음석문의범	20C	20C 초(作), 1935(刊行)	상	375
8	계초심학인문명지어문학10호	16C	1577	제외	3,295
9	고대소설양산백전구활자본고소설전집26권	20C	19XX	상	12,510
10	고디초한전실기구활자본고소설전집15권	20C	1917	상	15,056
11	곽해룡전활자본고전소설전집1	20C	1917(刊行)	상	9,581
12	곽해룡전활자본고전소설전집1	20C	1917(刊行)	제외	9,669
13	관음경언해(관음경언해)	15C	1485	상	1,818
14	광제가한국불교가사전집	19C	18XX(作), 1887(筆寫)	하	933
15	구의산	20C	1912	상	24,632
16	국문정리서울대규장각소장본	19C	1897	상	1,229
17	국민소학독본(아세아문화사영인본)	19C	1895	상	9,580
18	국민소학독본학부간본아세아문화사영인본	19C	1895	제외	9,562
19	권불가한국불교가사전집	19C	18XX(作), 1887(筆寫)	하	491
20	권왕가석문의범	20C	19C 말(作), 1935(刊行)	상	3,396
21	권용선전활자본고전소설전집제일권	20C	1918(刊行)	중	21,113
22	권익중실기활자본고소설전집1권	20C	1936(刊行)	중	11,040
23	귀일가한국불교가사전집	20C	1912(作, 筆寫)	상	79
24	금강별곡명춘유고	20C?	1739(作), 1969?(刊行)	하	955
25	금강취류활자본고소설전집1권	20C	1915(刊行)	중	10,899
26	금방울전경판16장본고소설판각본전집4	20C	19XX	하	5,133
27	기념가한국불교가사전집	20C	1911(作), 1912(刊行)	상	146
28	김씨열행록활자본고전소설전집제이권	20C	19XX 전기(刊行)	중	4,401
29	김인향전활자본고전소설전집제이권	20C	1938(刊行)	중	8,083
30	김진옥전활자본고전소설전집제이권	20C	1918(刊行)	중	13,438
31	김학공전활자본고전소설전집제이권	20C	1923(刊行)	중	9,570
32	김희경전활자본고전소설전집제이권	20C	1922(刊行)	중	26,998
33	낙도가조선가요집성	20C	1934	하	185
34	남강월전활자본고전소설전집제이권	20C	1915(刊行)	중	10,563
35	녀장군전구활자본고소설전집26권	20C	19XX	상	16,541
36	녀중호걸구활자본고소설전집26권	20C	19XX	상	25,965
37	당태종전경판26장본고소설판각본전집1	19C	1858(刊行), 1921(印出)	하	6,719
38	대명성주현신개운년/大明聖主賢臣開運傳	19C?	18XX	제외	74,086
39	동각한매	20C	1911	상	4,574
40	두견성	20C	1912	상	39,206
41	두시언해초간본3권	15C	1481	제외	5,470
42	마상루	20C	1912	상	10,556

연번	문헌명	간행/필사 (추정) 시기		추정 가치	어절 수
		세기	연도*		
43	만인계	20C	1912	상	10,874
44	망월가한국불교가사전집	20C	20C 초(作), 1930(刊行)	상	39
45	명월정	20C	1912	상	14,951
46	명주보월빙(필사본)	20C	19XX	중	29,031
47	명주보월빙(필사본)	20C	19XX	중	29,419
48	명주보월빙(필사본)	20C	19XX	중	27,439
49	명주보월빙(필사본)	20C	19XX	중	26,154
50	명주보월빙(필사본)	20C	19XX	중	28,681
51	명주보월빙(필사본)	20C	19XX	중	26,429
52	명주보월빙(필사본)	20C	19XX	중	25,434
53	명주보월빙(필사본)	20C	19XX	중	25,869
54	명주보월빙(필사본)	20C	19XX	중	26,401
55	명주보월빙(필사본)	20C	19XX	중	26,306
56	명주보월빙(필사본)	20C	19XX	중	26,058
57	명주보월빙(필사본)	20C	19XX	중	26,294
58	명주보월빙(필사본)	20C	19XX	중	26,066
59	명주보월빙(필사본)	20C	19XX	중	27,214
60	명주보월빙(필사본)	20C	19XX	중	26,617
61	명주보월빙(필사본)	20C	19XX	중	10,981
62	명주보월빙(필사본)	20C	19XX	중	11,051
63	명주보월빙(필사본)	20C	19XX	중	28,218
64	명주보월빙(필사본)	20C	19XX	중	26,681
65	명주보월빙(필사본)	20C	19XX	중	30,841
66	명주보월빙(필사본)	20C	19XX	중	28,509
67	목단화	20C	1911	상	17,929
68	몽환가석문의범	20C	1935(刊行)	하	856
69	몽환가한국불교가사전집	19C	1829/1889(筆寫)	하	711
70	민속극	20C	채록: 1930(양주별산대 놀이), 1975~1980(송파산대놀이), 193 6(봉산탈춤), 1943(강령탈춤), 19XX 전기(은율탈춤), 19 56(서흥탈놀이), 19 XX전-중기(수영야 유), 19XX중기이후 (동래야유), 1958(통영오광대), 1960(고성오광대), 1975(가산오광대), 1928(진주오광대), 미상[1966이전](통천가 면극), 1959(하회별 신가면극), 1960년 대(꼭두각시놀음)	하	65,742
71	박씨부인전활자본고전소설전집제이권	20C	1925(刊行)	중	11,342
72	반씨전활자본고전소설전집제이권	20C	1918(刊行)	중	5,620
73	발원문한국불교가사전집	20C	XXXX(作), 19XX(筆寫 또는 刊行)	하	314
74	배비장전옹고집전	20C	19XX	하	7,919
75	백마강가17세기가사전집	20C?	1625(作), XXXX(筆寫). 입력 대본: 황용주의 《昌原黃氏家乘》(필사 시기 불명).	하	242

연번	문헌명	간행/필사 (추정) 시기		추정 가치	어절 수
		세기	연도*		
76	백발가안진호편석문의범	20C	XXXX(作), 1935(刊行)	하	839
77	백학전전(경판24장본)경인고소설판각본전집 일	19C	18XX	하	6,580
78	법문곡한국불교가사전집	20C	20C 초(作), 1943(刊行)	상	704
79	법화일승가한국불교가사전집	20C?	XXXX(作), XXXX(筆寫)	하	833
80	별회심곡석문의범	20C	XXXX(作), 1935(刊行)	하	928
81	비행선	20C	1912	상	17,320
82	사각전활자본고전소설전집제삼권	20C	1927(刊行)	중	8,633
83	사체가한국불교가사전집	20C	18XX(作), 1931(筆寫)	하	788
84	산양디전구활자본고소설전집오권	20C	1916	상	7,519
85	산천초목	20C	1912	상	10,674
86	삼생기연활자본고전소설전집제삼권	20C	1922(刊行)	중	19,194
87	삼선기활자본고전소설전집제삼권	20C	1918(刊行)	중	14,329
88	삼설기고소설판각본전집1	19C?	18XX	하	10,157
89	생륙신전활자본고소설전집5권	20C	1929	상	5,985
90	서정별곡17C가사전집	18C	1694(作), 1781(筆寫)	하	801
91	석존일대가한국불교가사전집	20C	20C 전후(作), 1927(刊行)	상	3,953
92	선심가한국불교가사전집	19C	18XX(作), 1887(筆寫)	하	796
93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국립중앙도서관소장	16C	1560	제외	1,257
94	성산명경	20C	1911	상	12,059
95	성탄경축가석문의범	20C	XXXX(作), 1935(刊行)	하	82
96	설명산실괴구활자본고소설전집7권	20C	1930	상	16,106
97	소대성전경판16장본고소설판각본전집1	20C	19XX	하	4,806
98	소상강구활자본고전소설전집26	20C	1912	상	6,194
99	소디성전구활자본고소설전집7권	20C	1925	상	6,678
100	소운면구활자본고소설전집7권	20C	1918	상	13,671
101	소학독본아세아문화사영인본	19C	1895	상	3,865
102	소현성록서울대도서관본	18C 이후	17C 중후반(作), 18C 이후(筆寫)	중	20,405
103	소현성록서울대도서관본	18C 이후	17C 중후반(作), 18C 이후(筆寫)	중	20,342
104	소현성록서울대도서관본	18C 이후	17C 중후반(作), 18C 이후(筆寫)	중	31,178
105	소현성록서울대도서관본	18C 이후	17C 중후반(作), 18C 이후(筆寫)	중	22,324
106	소현성록서울대도서관본	18C 이후	17C 중후반(作), 18C 이후(筆寫)	중	25,680
107	송뢰금	20C	1908	상	17,058
108	쇼학스전구활자본고소설전집7권	20C	1917	상	16,556
109	숙영낭조전구활자본고소설전집5권	20C	1915	상	5,618
110	숙영낭자전경판16장본고소설판각본전집2	20C	19XX	하	4,572
111	숙향전(경판64장본)경인고소설판각본전집4	19C	1858	하	15,846
112	신년가석문의범	20C	20C 초(作), 1935(刊行)	상	102
113	신숙주부인전구활자본고소설전집8권	20C	19XX	상	5,849
114	신약전서개화기국어자료집성10	20C	19XX	제외	67,110
115	신자전	20C	1915	상	15,201
116	신재효판소리사설집(전)	20C	19XX	중	32,411

연번	문헌명	간행/필사 (추정) 시기		추정 가치	어절 수
		세기	연도*		
117	신재효판소리사설집(전)	20C	19XX	중	30,808
118	신정심상소학학부간본아세아문화사영인본	19C	1896?	상	8,475
119	쌍옥적	20C	1911	상	15,753
120	아악부가집	20C	1934~1935(筆寫)	하	29,870
121	아악부가집	20C	1934~1935(筆寫)	하	33,723
122	악부上	20C	1930~1935(筆寫)	하	25,338
123	악부上	20C	1930~1935(筆寫)	하	37,807
124	악부下	20C	1930~1935(筆寫)	하	46,876
125	악부下	20C	1930~1935(筆寫)	하	36,947
126	악장가사한국고전총서(Ⅱ)	19C?	XXXX(刊行), 1801~1834(補寫)	하	2,410
127	애달은노래한국불교가사전집	19C?	18XX(作), 1887 또는 그 이후(筆寫)	하	408
128	약산동디구활자본고소설전집8권	20C	1913	상	12,587
129	양현문직절기필사본고전소설전집17	20C	1916(筆寫)	하	21,268
130	양현문직절기필사본고전소설전집17	20C	1916(筆寫)	하	22,781
131	양현문직절기필사본고전소설전집17	20C	1916(筆寫)	하	7,428
132	양현문직절기필사본고전소설전집17	20C	1916(筆寫)	하	23,297
133	양현문직절기필사본고전소설전집17	20C	1916(筆寫)	하	32,685
134	양현문직절기필사본고전소설전집17	20C	1916(筆寫)	하	24,715
135	양현문직절기필사본고전소설전집17	20C	1916(筆寫)	하	23,515
136	어제유대소신료급중외민인척사윤음전북대국 문과영인본	19C	18XX	제외	605
137	엄씨효문청행록한국고대소설대계(三)	20C	19XX	중	28,332
138	엄씨효문청행록한국고대소설대계(三)	20C	19XX	중	26,987
139	엄씨효문청행록한국고대소설대계(三)	20C	19XX	중	30,276
140	엄씨효문청행록한국고대소설대계(三)	20C	19XX	중	29,727
141	엄씨효문청행록한국고대소설대계(三)	20C	19XX	중	17,410
142	열반가석문의범	20C	20C 초(作), 1935(刊行)	상	85
143	옥루몽서울대도서관본	20C	1906~1909	하	16,830
144	옥루몽서울대도서관본	20C	1906~1909	하	16,274
145	옥루몽서울대도서관본	20C	1906~1909	하	25,088
146	옥루몽서울대도서관본	20C	1906~1909	하	31,747
147	옥호괴연	20C	1912	상	8,049
148	옹고집전배비장전.옹고집전	20C	19XX	하	2,889
149	완월루	20C	1912	상	10,457
150	왕생가석문의범	20C	20C 초(作), 1935(刊行)	상	96
151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	17C	1636	제외	680
152	원앙도	20C	1911	상	12,747
153	원적가석문의범	20C	20C 초(作), 1935(刊行)	상	289
154	월왕전(경판63장본)경인고소설판각본전집이	19C	1847~1885(刊行), 1921(印出)	하	13,074
155	월하가인	20C	1911	상	18,333
156	유충열전(완판86장본)경인고소설판각본전집이	20C	19XX	하	21,141
157	윤음	18~19C	17XX~18XX	제외	15,807
158	응진경언해한국정신문화연구원소장본	18C	17XX	제외	3,042
159	이봉빈전활자본고전소설전집7	20C	1925(刊行)	중	14,439
160	인목대비내인계축일기	?	16XX(作)	제외	16,699
161	인생탈춤한국불교가사전집	20C	1956(作), 1978(刊行)	상	382

연번	문헌명	간행/필사 (추정) 시기		추정 가치	어절 수
		세기	연도*		
162	임장군전27장본고소설판각본전집2	19C	186X(刊行), 1920(印出)	하	6,354
163	장안결식가한국불교가사전집	20C?	XXXX(作), XXXX(筆寫)	하	1,099
164	장자방전(경판58장본)전3권3책목판본(국지)	19C	18XX	제외	29,623
165	재봉춘	20C	1912	상	20,998
166	정을선전활자본고전소설전집10	20C	1917/1918(刊行)	중	8,914
167	정진사전활자본고전소설전집10	20C	1918(刊行)	중	14,467
168	주교요지	19C	18XX	제외	13,082
169	죽서루	20C	1911	상	8,103
170	참선곡한국불교가사전집	20C	20C 초(作), 1943(刊行)	상	483
171	참선곡한국불교가사전집	20C	20C 초(作), 1929(刊行)	상	163
172	채미가17C가사전집	20C	1675 이후(作), 1924(筆寫)	하	194
173	철세계	20C	1908	상	13,883
174	청구영언(진본)	18C	1728	상	12,249
175	청춘과부가한국불교가사전집	20C	XXXX(作), 1926(刊行)	하	1,109
176	초암가	19C	18XX	제외	377
177	초한전(완판88장본)경인고소설판각본전집삼	19C	18XX(刊行), 1908(印出)	하	18,253
178	추풍감수록	20C	1912	상	10,884
179	충의소설십생구사구활자본고소설전집8권	20C	1923	상	7,071
180	토굴가한국불교가사전집	20C	XXXX(作), 1964(筆寫)	하	1,120
181	통학경편(경북영천간행)	20C	1921	상	4,166
182	판소리수궁가사설과주석	20C	1970s(採錄)	하	16,757
183	판소리춘향가사설과주석	20C	1970s(採錄)	하	31,662
184	판소리춘향가사설과주석	20C	1970s(採錄)	하	19,356
185	판소리춘향가사설과주석	20C	1970s(採錄)	하	16,814
186	판소리흥보가사설과주석	20C	1970s(採錄)	하	21,417
187	한국고전문학전집3가사	20C	작품별로 간행/필사 시기가 제각각임.	하	17,681
188	한국구전설화:평안북도1	20C	1927, 1931~1940(採錄)	하	83,871
189	한국구전설화:평안북도2	20C	1927, 1931~1940(採錄)	하	79,544
190	해동가요(주씨본)	20C	1763(編纂), 1930(刊行)	하	11,518
191	해탈곡한국불교가사전집	20C	20C 초(作), 1929(刊行)	상	54
192	행락도	20C	1912	상	19,214
193	현미경	20C	1912	상	26,399
194	현수문전(경판75장본)경인고소설판각본전집오	19C	18XX	하	17,601
195	현씨양옹쌍린기활자본고전소설전집제십이권	20C	1920(刊行)	중	23,385
196	홍길동전24장본고소설판각본전집3	19C	18XX	하	5,364
197	홍도화	20C	1912	상	28,352
198	화중화	20C	1912	상	7,794
199	회심가보권념불문	18C	1776(해인사판) / 1787(선운사판)	상	691
200	회참곡한국불교가사전집	20C 전후	XXXX(作), 20C 전후(筆寫)	하	1,045

[부록 4] 말뭉치팀 - 2023년 국어 역사자료 말뭉치 정비 작업 지침

1. 기본 정보 입력

(1) 모든 자료의 앞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서지 정보와 작성 정보를 입력한다.

```
<doc>

<teiHeader>
<titleStmt>
<title lang="kor">제국신문</title>
<title lang="chi">帝國新聞</title>
<abbre>제국신문</abbre>
<volume n="제1권 제1호"/>
<author></author>
<date>1898-08-10-수</date>
</titleStmt>

<notesStmt>
<bibl>
<title>제국신문[帝國新聞]</title>
<pubPlace>한국학중앙연구원</pubPlace>
<publisher>한국학중앙연구원</publisher>
<date></date>
</bibl>
</notesStmt>

<revisionDesc>
<date>2023/03/21</date>
<respStmt>
<resp>입력자</resp><name>홍길동</name><!--연구보조원-->
</respStmt>
<respStmt>
<resp>교정자</resp>김철수<name></name>
</respStmt>
</revisionDesc>
</teiHeader>

<!--'page="01_곡가"'에서 앞의 숫자 '01'은 신문의 면 수, '곡가'는 기사 분류 유형을 가
리키며 이들 사이의 기호는 언더바(_)로 입력한다.-->
```

<titleStmt>: 문헌명, 권차, 저자(알 수 없는 경우 미상), 간행년(필사년, 정확하지 않을 경우

18세기, 19세기 중엽 등도 가능)

<notesStmt>: 영인본 서지사항(서명, 간행지, 간행기관/출판사, 간행연도)

<revisionDesc>: 작업 완료 일자, 입력자와 교정자를 기입함.

※ 웹사이트 이미지 파일을 참고하여 원문을 입력한 경우, 출판사 정보 대신에 웹사이트 정보와 해당 문헌의 원소장처도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입력하는 자료 중 일부가 판본이 다른 경우, 헤드의 영인본 출판사 등을 밝히는 곳의 제일 뒤에 ()로 묶고 해당 내용을 써 넣음.

(2) 항목 입력 방식

구절이 지닌 정보는 'type', 'lang', 'page', 'n'의 항목으로 나누어 입력한다. 모든 문헌에 이 방식을 적용하며, 잉여적인 정보라도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pre><sent type="main" lang="chi" page="1a" n="3">孟子 見梁惠王ᄒᆞᆫ신대</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1a" n="3">孟子 梁惠王을 보신대</sent></pre>

(3) sent type

기본적 분류 기호는 'title, main, anno, poem' 등이며, 필요에 따라 분류 표지를 추가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분석 항목 및 분류 표지' 부분에 담겨 있다.

(4) 제목, 편명, 주제 등의 분류 표지(tag set) 통일

- ① '제목, 편명, 주제' 등의 'sent type'은 'title'을 사용한다. 'theme, main_title, head'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문헌의 특성에 따라 '제목' 등을 'title, title2, title3'와 같이 위계를 나누어 구분할 수 있다.
- ② 표제지의 제목에 병기된 연도, 활판 정보 등: 제목과 함께 'title'로 처리한다.
- ③ 목차에 제시된 각 장절의 제목: 'main'으로 처리한다.

(5) 자서류, 운서류, 유해의 경우

기존 구분 기호(표제어, 음훈, 주석)를 활용하고, 다른 언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lang=해당 언어(kor/chi/eng/jap)"만 추가하여 입력한다.

(6) 인간류의 경우

- ① sender는 '발신자', writer는 '작성자', receiver는 '수신자', year는 '발신 연도', envelop은 '봉투 유형'을 입력한다.
- ② '발신 연도'는 연(年) 단위까지만 입력하되, 정확한 연도를 밝힐 수 없는 편지는 '19세기 중반', '1851~1857년' 등과 같이 그 추정 시기를 입력한다.
- ③ 봉투가 하나인 '단봉(單封)'은 다시 '별봉(別封, 별도로 만든 것)'과 '자봉(自封, 내지가 봉투를 겹친 것)'으로 나뉜다. '별봉'은 envelop1-1로, '자봉'은 envelop1-2로 입력한다. 단봉을 다시 짤 '중봉(重封)'은 envelop2로 입력한다.

(7) 문헌별 'sent type' 분류 표지(tag set)의 종류 입력

모든 정비 파일의 맨 마지막(</doc> 앞)에 해당 문헌에서 'sent type' 입력 등에 사용한 분류

(전략) 다 一乘 爲ᄃᆞᆫ샤물 브터</sent><!--爲ᄃᆞᆫ샤물 ^ 브터-->

(4) 협주 처리

① 협주의 위치가 문장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

앞 문장, 협주, 뒤 문장을 각각 별도의 문장으로 처리한다. 협주가 길면 협주를 분절할 수 있다.

```
<sent type="anno" lang="kor" page="12a" n="7">두려우샤미 鑿泥耶仙 鹿王ᄃᆞᆫ 허뵚비 곤  
ᄃᆞᆫ샤미 第八이시고</sent>  
<sent type="anno2" lang="kor" page="12a" n="8">鑿泥耶仙은 鹿王ᄃᆞᆫ 일후미라</sent>  
<sent type="anno" lang="kor" page="12a-12b" n="9">두 불히 길오 고ᄃᆞᆫ시고 골오 두려  
우샤미 象王ᄃᆞᆫ 고히 곤 ᄃᆞᆫ시며</sent><!--고ᄃᆞᆫ^시고-->
```

② 협주의 위치가 문장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 협주가 긴 경우

협주 앞 본문, 협주, 협주 뒤 본문을 각각 별도의 문장으로 처리한다. 협주가 길면 협주를 분절할 수 있다.

```
<sent type="main" lang="kor" page="11b" n="3">金色 三十二와</sent>  
<sent type="anno" lang="kor" page="11b-12a" n="4">三十二相은 발 아래 卽ᄃᆞᆫ샤 函 믿  
곤 ᄃᆞᆫ시며 짜히 비록 노ᄃᆞᆫ며 ᄃᆞᆫ가와도 다 ᄃᆞᆫ가지로 다ᄃᆞᆫ샤미 第一이시고</sent><!--비^록  
-->  
<sent type="anno" lang="kor" page="12a" n="1">발 아래 즘은 살 술위ᄃᆞᆫ 文 ᄃᆞᆫ샤미 第  
二이시고</sent>
```

나. 협주가 짧은 경우

협주 앞 본문, 협주, 협주 뒤 본문을 하나의 문장으로 처리할 수 있다. 협주 부분은 【 】으로 표시한다. (【’는 유니코드 3010, 【’는 유니코드 3011)

```
<sent type="main" lang="kor" page="9b" n="3">嗚呼ᄃᆞᆫ야 【嗚呼ᄃᆞᆫ 애와티ᄃᆞᆫ 마리라】 기  
피 내 責호ᄃᆞᆫ디 엇데 내 모ᄃᆞᆫ 소기거ᄃᆞᆫ ᄃᆞᆫ다니</sent>
```

(5) 난상 내용 처리

- 난상의 내용은 표시된 해당 문장 뒤에 제시하고, 그 성격에 따라서 달리 표시한다.

① 본문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경우

난상 내용을 별도의 문장으로 처리하고, 주석 태그를 통해 난상임을 밝힌다.

```
<sent type="main" lang="kor" page="02b" n="5">방옥지 동서에 맛당이 .... </sent>  
<sent type="anno" lang="kor" page="02b" n="5">방옥에 창호는 만을수록 더욱 묘현이라  
</sent><!--난상에 기입됨-->
```

- ② 그 외(교정 내지 교감, 발음 정보 따위)의 경우
주석 태그로만 처리한다.

<mark type="section_begin">主</mark><!--난상에 主가 적힌 권점-->

3. 내용 정비 방법

(1) 내용 정비 방법

- ① 연해문은 분석 표지 단위로 분절하여 정비한다.
- ② 한문 원문에 띄어쓰기, 구두점이 전혀 없을 때는 연해문을 참조하여 적절한 의미 단위로 띄어 쓴다.
- ③ 정비·입력할 때에 필요한 경우 주석을 달아준다. 주석의 형식은 <!--내용 기술-->이다.

<!--영인본상으로는 '繫珠외'처럼 보이거나 탈획된 것으로 판단됨-->

(2) 한문 원문 입력

- ① 원 문헌에 한글 구결문이 함께 실려 있는 경우: 한문을 모두 입력한다. ‘한문+구결’을 단위로 하여 띄어 쓴다. (예) 간경도감류 문헌, 불경언해
- ② 원 문헌에 한문 원문이 실려 있는데, 한글 구결은 안 달려 있는 경우: 한문 원문을 제시한다. (예) 두시언해
- ③ 원 문헌에 연해문만 실려 있고 한문 원문은 안 실려 있으나, 번역 문헌인 경우: 문헌의 특성으로 고려하여, 한문 원문이 필요한 경우 원문을 제시한다. (예) 석보상절, 월인석보
- ④ 원 문헌에 연해문과 차자구결문이 함께 실려 있는 경우: 한문에 차자구결이 달려 있는 대로 모두 입력한다. (예) 여씨향약언해
- ⑤ 가사류의 한자음, 한자 병기: 한자음이 입력된 것은 입력된 대로 처리하며, 한자가 병기된 것도 입력된 대로 처리한다.

(3) 부속문자 입력

행간의 여백을 이용하여 본문 글자의 위나 옆에 한자 또는 한글로 음이나 훈이 병기된 경우에는 ‘대괄호 []’를 추가하여 해당 문자 오른쪽에 그 내용을 입력한다.

위[魏]를 히[害]햏야 군심[軍心]을 산란[散亂]케 햏오니

(4) 중복 내용의 목차 입력

본문과 중복되는 내용의 목차는 추가로 입력하지 않는다. 다만 주석을 활용하여 동일 내용의 목차가 있다는 사실을 기술한다.

(5) 부호 및 특수 표현

① 권점(○): 내용 단락이 바뀔을 나타내는 권점은 앞 뒤 문장과 분리하여 따로 제시한다. 유사한 기능의 다른 기호(◎, ⊙, ● 등)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권점이 단순히 항목을 구분하는 기능을 지닐 경우(특히 운서류, 자서류)에는 입력하지 않는다.

```
<mark type="section_begin">○</mark>
<sent lang="chi" page="1b" n="3">有子 | 曰其爲人也 | 孝弟오</sent>
```

② 재점(ゝ): 재점을 해당 글자로 바꿔서 입력하고 주석을 통해 문헌에 재점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명ゝ백ゝ헛다’의 입력

```
<sent type="anno" lang="kor" page="85b" n="1">명명백백헛다</sent><!--뒤에 오는 '명'
'과 '백'은 재점으로 표기되어 있음-->
```

③ 쉼표(.)와 마침표(.), 소괄호(()), 중괄호({ }), 대괄호([]): 원문에 표기된 방식 그대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문에 ‘학교(學校)’와 같이 괄호가 기술된 경우에도 그대로 입력한다. 세로쓰기에서 쓰인 모점(。)과 고리점(.)은 각각 쉼표(.)와 마침표(.)로 바꾸어 입력한다.

④ 줄임표(...): 원문의 줄임표는 점의 개수에 상관없이 ‘…’(유니코드 2026)로 통일하여 ‘…’를 1회 입력한다.

⑤ 각종 부호: 삼각형이나 각종 기호는 이미 입력되어 있을 경우 그대로 두고, 절에 포함된 것으로 처리한다.

```
<sent type="title" lang="kor" page="32" n="4">▲ 론설</sent>
```

⑥ 연간 자료의 ‘—’: 연간 자료에서 일종의 단락 구분 기능을 하는 ‘—’ 부호는 입력하지 않는다. 화제를 구분하는 ‘—’ 부호가 쓰인 사실을 주석에 밝힌다.

⑦ ‘미완’, ‘연속’ 등의 표현: 해당 표현의 ‘sent type’은 ‘note’로 처리한다.

```
<sent type="main" lang="kor" page="01_기타" n="8">뢰를 속담에 골이라 헛느니
</sent>
<sent type="note" lang="kor" page="01_기타" n="9">(미완)</sent>
<sent type="title2" lang="kor" page="01_잡보" n="10">잡보</sent>
<sent type="main" lang="kor" page="01_잡보" n="11">농수란 것은</sent>
```

(6) 판독 불가 문자

① 글자 수가 분명할 때는 판독 불가한 부분은 글자 수만큼 □를 기입한다.

② 글자 수가 분명치 않을 때는 □…□과 같이 기입한다.

- 판독자(=입력자)가 자신이 추정한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추정한 글자를 본문에 직접 반영하되 주석(<!--000-->)에 그 내용을 밝힌다. 판독자가 그러한 추정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해당 글자는 본문에 □로 반영하고 주석에 그 □에 대하여 추정 가능한 글자를 밝힌다.

(7) 띄어쓰기의 문제

- ① 형태 및 기능의 측면에서 대응되는 현대어가 뚜렷한 경우, 해당 형태는 그에 대응되는 현대어의 정서법에 따라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띄어쓰기를 통일할 표현 (/ 앞의 것을 취하고 뒤의 것을 버림.)

- 훈가지 / 훈 가지(동일하다는 의미일 때)
- 그런고로 / 그런 고로
- -은디라 / -은 디라
- -올디니라 / -올 디니라
- -을씨라 / -을 씨라
- -은 둘 / -은둘(현대어의 ‘-ㄴ들’과 다른 의미를 나타낼 때)

사전 표제어 통합 DB 구축 지침

1. 작업 대상

어원사전 집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0종의 어원사전 수록 표제어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어원사전 목록
김무림(2020), 『한국어 어원사전(개정판)』, 지식과교양.
김민수 외(1997), 『우리말 어원사전』, 태학사.
김인호(2001), 『조선어어원편람』 상, 하, 박이정.
박갑수(2021), 『우리말의 어원과 그 문화: 우리말의 어원사전』, 역락.
백문식(2014), 『우리말 어원사전』, 박이정.
서정범 저 박재양 편(2018), 『새국어어원사전』, 보고사.
안옥규(1989), 『어원사전』,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한국문화사 영인본(1996).
염광호(2021), 『우리말 어원 산책』, 역락.
조항범(2022), 『우리말 어원사전』, 태학사.
홍윤표(2009), 『살아있는 우리말의 역사』, 태학사.

<표36> 대상 어원사전 목록

2. 입력 지침

1) 표제어

(1) 표제어 옆에는 사전 등재형 그대로 적는다. 비표준어형, 방언형, 고어형, 숫자 및 알파벳, 기호 표기 등을 그대로 넣는다.

표제어_안옥규
예수 크리스트
2만5천 리 장정
3.8 국제부녀절
《샤만》호

(2) ‘/’로 연결된 표제어는 별개의 행으로 구분하여 입력한다.

* 비고란에 표제어를 분리하였다는 기록을 남긴다.

할빠/할마	⇒	표제어_조항범	비고
		할빠	‘할빠/할마’ 분리
		할마	‘할빠/할마’ 분리

(3) 표제어에는 동형어 구분 번호를 넣지 않는다.

(4) 표제어를 다의 단위로 나누지 않는다. 물론 어원사전 편찬자가 동형어로 판단한 경우는 나눈다.

2) 검색형

(1) 표제어에

한글 외의 표기(알파벳, 숫자)가 있을 때 한글로,

비표준어형, 방언형, 고어형은 표준어형으로,

기타 기호는 모두 삭제

표제어_안옥규	검색형
예수 크리스트	예수그리스도
2만5천 리 장정	이만오천리장정
3.8 국제부녀절	삼팔국제부녀절
《샤만》호	서먼호

(2) 검색형은 빈칸이 없도록 채운다. 표기 수정 사항이 없다면 표제어형을 복사해서 넣는다.

(3) 띄어 쓰지 않는다.

(4) 비표준어의 경우 표준어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가장 널리 쓰이는 형태를 제시한다.

예) 포춘쿠키: 포춘쿠키

(5) 동형어에는 동형어 구분 번호를 넣는다.

* 작업의 통일성을 위해 동형어 구분 번호는 <우리말샘>의 번호를 넣는다.

주의! 어원사전의 동형어 번호를 넣으면 안 된다.

* <우리말샘>의 다의 번호에 따라 세 자릿수로 넣는다. 예 001, 002, ..., 011

단, 표제어가 다의어인 경우 가장 앞선 다의 번호를 입력한다.

예) 아래와 같은 경우 각각 가래002, 가래004를 입력한다.

가래 [가래 ㄱᄇᆞ]

- **가래** 「002」 「명사」 떡이나 엿 따위를 둥글고 길게 늘여 만든 토막.
- **가래** 「003」 「명사」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토막 낸 떡이나 엿 따위를 세는 단위.

가래 [가래 ㄱᄇᆞ]

- **가래** 「004」 「명사」 「농업」 흙을 파헤치거나 떼서 던지는 기구.
- **가래** 「005」 「명사」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흙을 떼서 세는 단위.

* <우리말샘> 미등재어에는 저자명을 넣는다. 한 저자의 사전에 동형의 미등재어가 여럿일 경우 번호를 넣어 구분한다.

표제어_서정범	검색형
가래	가래-서정범1
가래	가래-서정범2
가마	가마001
가마	가마005
가위	가위001
가위	가위002
가위	가위003

3) 원어

해당 표제어에 해당하는 원어 정보를 넣는다.

판단이 어려울 경우 <우리말샘>의 원어 정보를 따른다.

4) 내용

우리말샘 미등재어의 경우 동형어 구분이 가능한 수준의 설명을 넣는다.

어원사전에 제시된 내용을 그대로 옮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5어절까지만 인용할 수 있고 그 이상은 표현을 달리해야 하므로 반드시 윤문해서 쓴다.

표제어_서정범	동형어구분	설명
가래	가래-서정범1	고름(膿)의 어근 ‘골’과 동원어인 ‘갈’에 접미사 ‘애’가 붙은 형.
가래	가래-서정범2	‘삿대’를 말함. 예로는 배 젓는 가리.

5) 관련어

(1) 저자가 관련어로 명시한 표현을 적는다. 작업자가 관련성을 판단할 필요 없다.

가는 말에 채찍질 (구) 부지런히 하느라고 하는데 자꾸 더 빨리 하 라고 독촉한다는 말. 馬 주마가편 (走馬可鞭).	⇒	표제어_김민수	관련어
		가는 말에 채찍질	주마가편

(2) 기호로 연결되어 제시된 표제어를 나누었을 때에도 관련어 정보를 준다.

할빠/할마	⇒	표제어_조항범	관련어	비고
		할빠	할마	‘할빠/할마’ 분리
		할마	할빠	‘할빠/할마’ 분리

꺼풀, 껍질	⇒	표제어_백문식	관련어	비고
		꺼풀	껍질	‘꺼풀, 껍질’ 분리
		껍질	꺼풀	‘꺼풀, 껍질’ 분리
깨(서)	⇒			
		깨	깨서	‘깨(서)’ 분리
		깨서	깨	‘깨(서)’ 분리

(3) 표제어 목록에는 없으나, 색인에 제시되어 있는 표현도 관련어에 넣는다. 단, 한글 표기형으로 제시한 것만 넣는다.

표제어_홍윤표	관련어
구라파	미주(O), America(X)

(4) 관련어에는 동형어 번호를 넣지 않는다.

어원 관련 논저 DB 작업 지침

1. 표제어

- 1) 저자가 논저의 주요 어휘로 표시하거나 처리한 표현형을 표제어 자리에 넣는다. 제목, 초록, 키워드, 서론, 결론에 등장하거나, 표로 처리하거나 목록화해 둔 것을 말한다.
- 2) 논저 제시형을 그대로 적는다. 비표준어형, 방언형, 차자 표기를 포함한 고어형, 숫자 및 알파벳, 기호 표기 등을 그대로 넣는다. 단, 단순 한자 병기는 제외한다.
- 3) ‘/’로 연결되거나 괄호로 제시된 표제어는 별개의 행으로 구분하여 입력한다.
- 4) 표제어에는 동형어 구분 번호를 넣지 않는다.

<예시①> 제목에 어휘가 등장하는 경우

‘뒤안길’, ‘오솔길’, ‘외딴길’의 어원

조 항 범*

<예시②> 장·절 제목에 어휘가 등장하는 경우

3. 수반(물밥, 무레밥, 무랍), 속수, 내진, 거리밥

아래의 내용은 『표준』의 수반, 물만밥, 물말이, 물밥, 무랍에 대한 기술 내용이다. 이를 보면 수반, 물만밥, 물말이는 일반명사, 물밥과 무랍은 민속어휘 명사이다.

IV. 민속어휘와 의미

1. 화주, 유사, 판주

마을곳을 지내는 모든 마을은 재물을 준비하여 모시게 된다. 제사에 필요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화주, 헌관, 축관, 집사 등이다. 이들을 역할별로 나누며, 제수를 준비하는 화주, 절을 하는 헌관, 독축을 하는 축관, 집례를 하는 집사 등이 있으며, 뒷심부름을 맡은 사람을 뽑기도 한다.¹⁰⁾

14) 수반(水飯) 「명사」=물만밥.

15) 물만밥 「명사」물에 말아서 풀어 놓은 밥. ≒ 물말이 「1」·수반03(水飯)·수요반·수화반.

16) 물말이 「명사」 「1」=물만밥. 「2」 물에 흠뻑 젖은 옷이나 물건 따위를 이르는 말.

17) 물밥 「명사」 「민속」

무당이나 판수가 굿을 하거나 물릴 때에, 귀신에게 준다고 물에 말아 던지는 밥. ≒ 무랍02.

18) 무랍 「명사」 「민속」=물밥.

전남지역의 민속어휘에 대한 국어학적 고찰*

A Korean Linguistic Study on the Traditional Lexicon
in Jeonnam Province

황금연**
Hwang, Geum-Yeon

목 차

I. 머리말	IV. 민속어휘와 의미
II. 마을곳 관련 어휘	V. 마무리
III. 신격 어휘의 구조	

✓ 단, 위의 ‘마을곳 관련 어휘’, ‘신격 어휘의 구조’의 ‘마을곳, 신격’처럼 상위어(어휘장 명칭)는 표제어로 처리하지 않는다.

<예시③> 본문 내용에 어휘가 <표>로 정리되어 등장하는 경우

【표 4】천문과 지리 관련 부류 어휘 예

분류항목	제부 분류	어휘 예
天文	우주, 별	昆侖天界, 赫戲光明, 玉衡北斗
	시령, 시간	順月正月 又曰 孟陽端上春, 天中節端午, 昏時晝夜, 冥昭晝夜, 頭更初更
	자연현상(바람, 구름, 비 등)	深然雨細雨, 開風風下已, (雲)開風(공)득에 바람이 치다
地理	땅, 길	地離야 측측하다, 地野야 흐르다, 野離야 두럭두럭하다, 野動地두렁두렁하다 사, 嶺路에 올길
	흙, 돌	粘泥진흙, 代絲石도흔 유토 又曰 血膠, 石離돌들, 虎皮石어 돌들
	물	絲水시워나다, 野離水에 여흔, 水離水綿물의 잇기, 絲水의 비진물, 乳涎子르즈의약하다, 跳過橋장점드리, 打橋드리 놓다, 折橋드리 허다, 流水고인물 又曰 流水

<예시③-ㄱ> 표로 정리되었지만 관련어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 ✓ 본문에 표로 제시된 어휘라 하더라도, 논문 저자가 관련어로 처리하였다면 이는 <관련어>로 입력한다. 빨간 네모는 표제어로 처리하고, 파란 네모의 <비고>는 관련어로 처리한다.

<표 2> 『학봉종가 한글편지』의 질병 명과 고유어 비교

	『학봉종가 한글편지』의 질병 명		[비고] 고유어 질병 명
	한자어	고유어	
마마/천연두	두덜(痘疾), 역질(疫疾), 시두(時痘)		*손님 ⁸⁾
학질/말라리아	학증(虐症), 양일학(兩日瘧) ⁹⁾	초점(방언형-5회)	고곰
감기	감괴(感氣), 감환(感患)		긋불
복통	복통(腹痛)	빅아리(1회)	빅알히, 빅아리
해소/기침 가래	헉소(咳嗽), 헉소증, 헉천(咳嗽) 담증(痰症), 격담(膈痰)		기춤 꺾래춤
종기/부스럼	종괴(腫氣), 종환(腫患) 옹질(癰疾), 창질(瘡疾)	퀴브르음(1회)	브으름/브스름
기타	흉통(胸痛) 한속증(寒衆症)		가슴알히 소오름>소름

<예시④> 본문 내용에 어휘가 목록으로 정리되어 등장하는 경우

6) 당산, 당산신

7) 소나무당산, 미륵할머니, 할아버지장승 / 할머니장승

8) 할아버지당산 / 할머니당산 / 아들당산 / 딸당산

// 아들미륵 딸미륵(또는 손자미륵)

9) 당산할아버지(또는 당산하네) / 당산할머니 / 당산할매

10) 천룡할아버지(또는천룡하나씨) / 천룡할아버지(천룡하나씨), 천룡신

11) 선독할머니 / 비석할매 / 할머니독(또는 할매독)

12) 샘할머니

13) 옷당산(윗당산, 상당산) / 아랫당산(하당산), 윗뜸칠룻 / 아랫뜸칠룻

- ✓ 빨간 네모 안의 어휘를 모두 표제어로 처리. 이때 서로는 관련어로 처리한다.

예 <표제어> 소나무당산 <관련어> 미륵할머니, 할아버지장승, 할머니장승
<표제어> 할아버지장승 <비고> ‘할머니장승’과 분리.

2. 원어

1) 해당 표제어에 해당하는 원어 정보를 넣는다.

2) 판단이 어려울 경우 <우리말샘>의 원어 정보를 따른다.

3. 검색형

- 1) 표제어에 한글 외의 표기(알파벳, 숫자)가 있을 때 한글로, 비표준어형, 방언형, 고어형은 표준어형으로, 기타 기호는 모두 삭제한다.

* 사어가 된(대응되는 현대 표기형을 찾을 수 없는) 고어형과 독법이 통일되지 않은 차자 표기 등은 검색형에 그대로 복사해서 넣는다.

표제어	검색형
뻥-	뻥-000(2007)
슬꾸지	슬꾸지-000(2007)

- 2) 검색형은 빈칸이 없도록 채운다. 표기 수정 사항이 없다면 표제어형을 복사해서 넣는다.

- 3) 띄어 쓰지 않는다.

- 4) 비표준어의 경우 표준어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가장 널리 쓰이는 형태를 제시한다.

- 5) 동형어에는 동형어 구분 번호를 넣는다.

* 작업의 통일성을 위해 동형어 구분 번호는 <우리말샘>의 번호를 넣는다.

* <우리말샘>의 다의 번호에 따라 세 자릿수로 넣는다. 예 001, 002, ..., 011

단, 표제어가 다의어인 경우 가장 앞선 다의 번호를 입력한다.

* <우리말샘> 미등재어에는 '저자명(발표 연도)'을 넣는다. 한 저자의 사전에 동형의 미등재어가 여럿일 경우 번호를 넣어 구분한다.

4. 내용

연구 논저의 설명을 짧게 요약하여 제시한다.

5. 관련어

- 1) 저자가 관련어로 명시한 표현을 적는다. 작업자가 관련성을 판단할 필요 없다.

✓ 단, 해당 논의에서 다루는 문헌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어로 볼 수 없다.

‘딸기’의 표제어도 문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역어유해』에는 ‘地樞’로, 『방언유석』에는 ‘覆盆子’, 동어유해보에는 ‘草荔枝’로 나온다. 물명어휘집인 『죽림물명고』에는 ‘草荔枝’에 해당하는 것이 ‘싸올기’로 뜻풀이하였으며 ‘覆盆子’는 ‘거문명덕 싸올’로 뜻풀이 하였다. 『과정일록』에서는 ‘딸기’에 해당하는 표제어가 ‘地樞’로 『역어유해』와 동일하다. 동일한 표제어에 상이한 주석이 달린 것으로 보아 품종이 달라도 모두 ‘딸기’로 인식하여 풀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

⇒ ‘地樞’과 ‘딸기’는 표제어와 관련어 관계로 맺어질 수 있으나 해당 논의에서 살피는 문헌이 아닌 것에서 출현한 어휘와는 관련어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참고)

[표 9] 『과정일록』과 다른 분류어휘집의 표제어 차이

부류	과정일록	표제어 및 주석 다른 분류 어휘집
地理	水漫出 시위나다	水滿漚 시위나다
地理	札孟子 무즈미악하다	余水 무즈미악하다<역어>, <동문>, <방언>
人倫人事	癡軟 늙은하다	倦軟<동문>
人倫人事	賭賽 우렐드토다	爭短長 우렐 드토다<역어>, <동문> 賭賽<방언>

⇒ 빨간 네모 속 어휘는 각각 표제어로도, 관련어로도 입력될 수 있으나 파란 네모 속 어휘는 입력하지 않음.

6. 키워드

- ✓ 저자가 제시한 논문 키워드를 넣는다.

7. 논저

- ✓ 서지사항은 다음 순서로 제시하며, 글 제목은 작은따옴표, 책 제목은 큰따옴표로 표시한다.
이름(연도), ‘논문 제목’, “학술지명” 0권 0호, 발행기관, 쪽수
예 이승희(2018), '19세기 "학봉종가 한글편지"에 나타난 질병 관련 어휘에 관한 고찰', "한국 문화" 82,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13-140.

8. 비고

- ✓ 작업상 발생하는 문의 사항이나 처리 결과를 적는다.

[부록 6] 자료구축팀 - 자료 검색기 사용법

○ 프로그램 설치

1.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설치를 위해서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아래 URL에 접속한다.

- <http://ssang.aks.ac.kr/SynKDP>

※ 위 주소는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를 위해 임시로 개설한 것으로 향후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된 후 논의를 진행하여 프로그램 배로를 위한 접속 주소를 확정할 계획이다.

깜짝새(SynKDP)

이름: 깜짝새(SynKDP)

버전: 1.0.0.9

게시자:

다음 필수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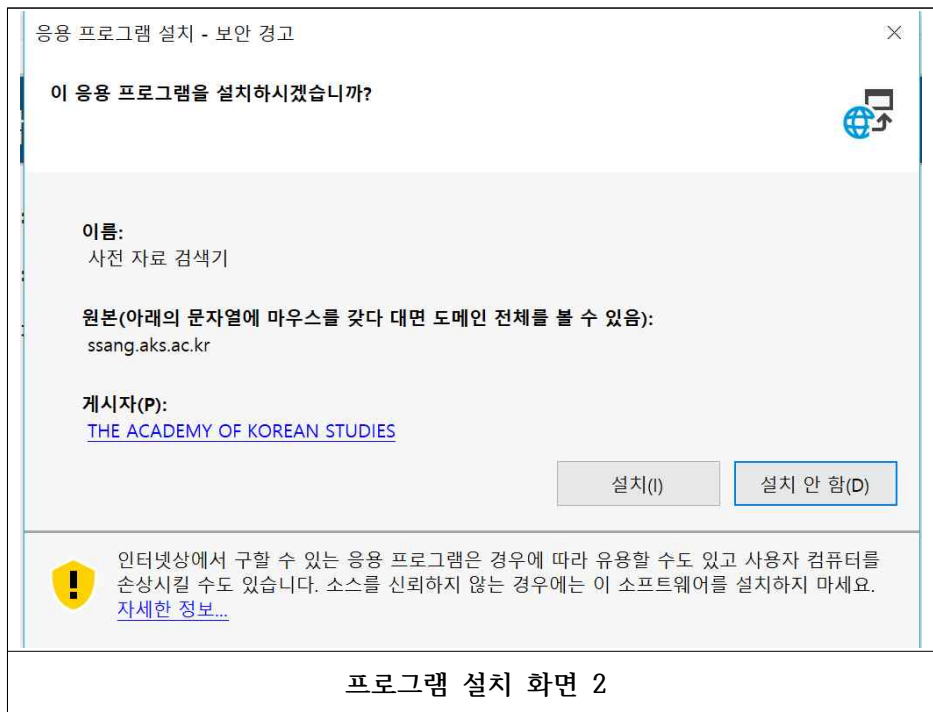
- Edge WebView runtime
- .NET 런타임 7.0.7 (x64)
- .NET 런타임 7.0.7 (x86)
- .NET 데스크톱 런타임 7.0.7 (x64)
- .NET 데스크톱 런타임 7.0.7 (x86)

이미 이 구성 요소가 설치되어 있으면 지금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아래에 있는 단추를 클릭하여 필수 구성 요소를 설치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십시오.

설치

프로그램 설치 화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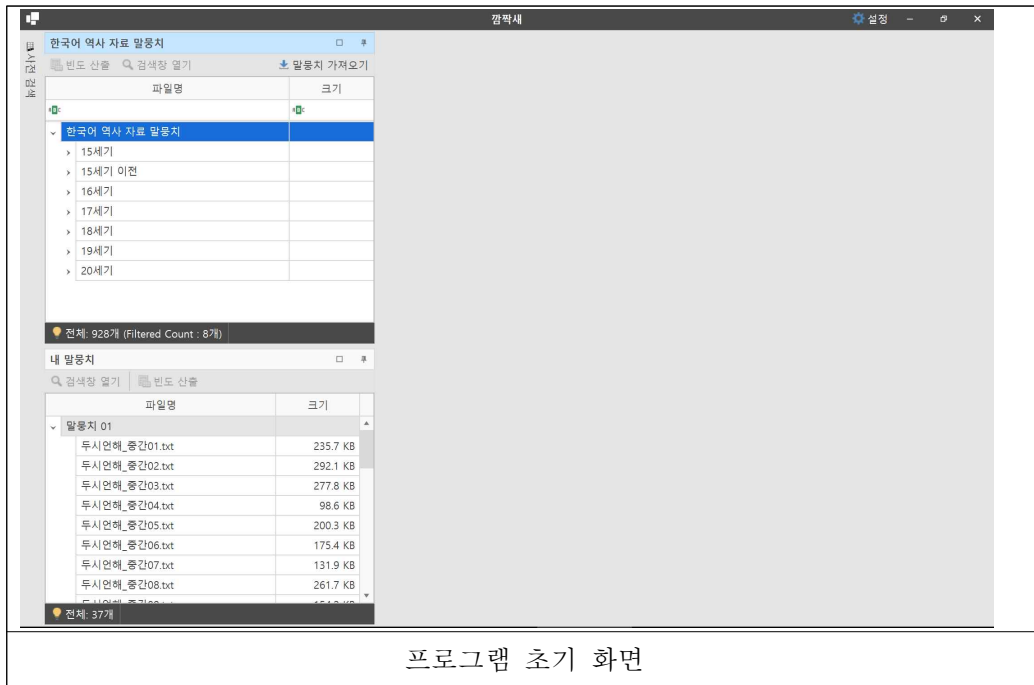
2. “설치” 버튼을 클릭하여 “setup.exe”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실행한다.
3. 다음 화면에서 “설치”를 클릭하면 설치 관리자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를 진행한다.



4. 설치가 완료되면 바탕화면에 생성된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으며, 새로운 버전이 있는지 확인하여 자동적으로 설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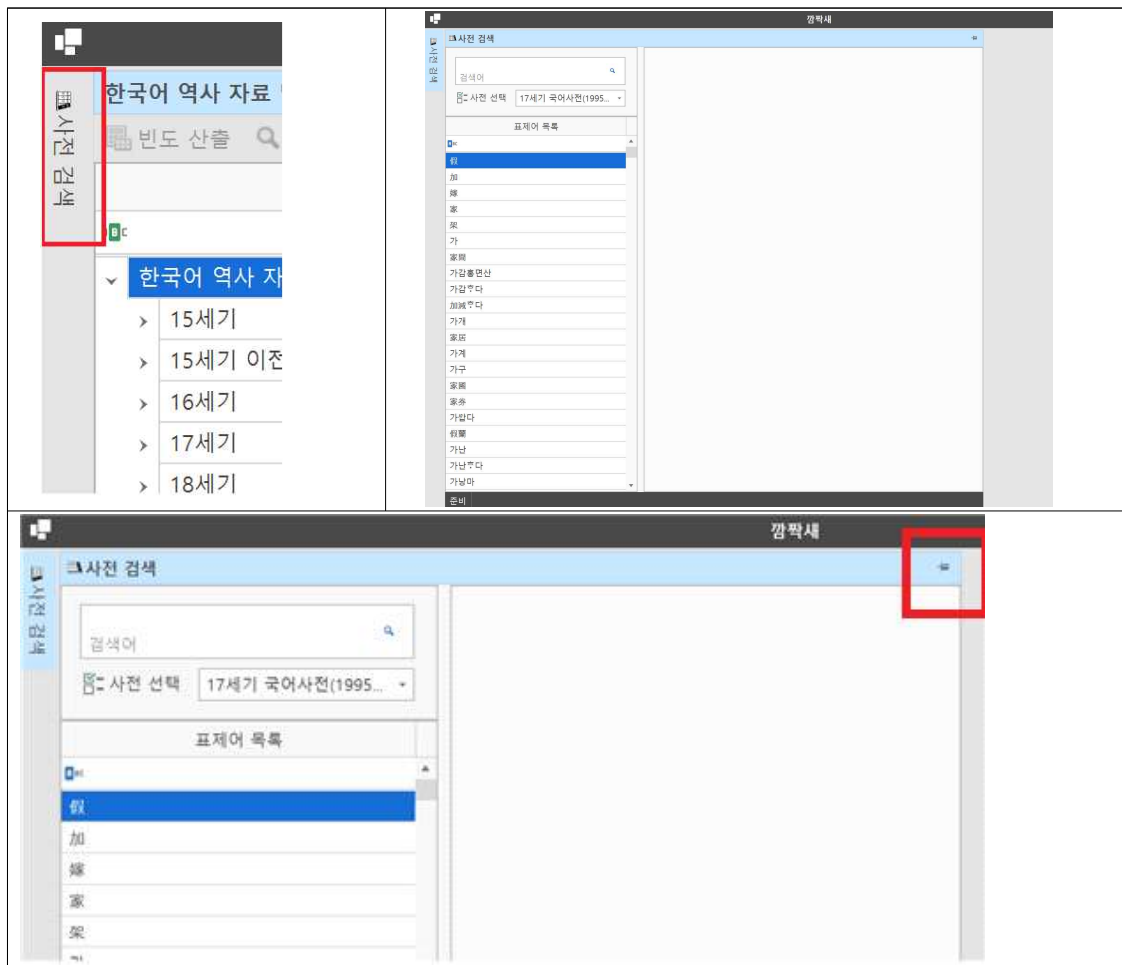
○ 프로그램 실행 초기 화면

-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처럼 초기 화면이 구성된다. 화면은 좌측과 우측으로 구성되는데, 좌측에서 대상 자료를 선택하면 우측 화면에서 검색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화면이 열리게 된다.



○ 사전 자료 검색

1.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사전검색”을 클릭하면 사전 검색 창이 활성화된다. 이 화면은 마우스 포인터가 사전 검색 창 외부로 이동하는 경우 자동으로 좌측으로 접히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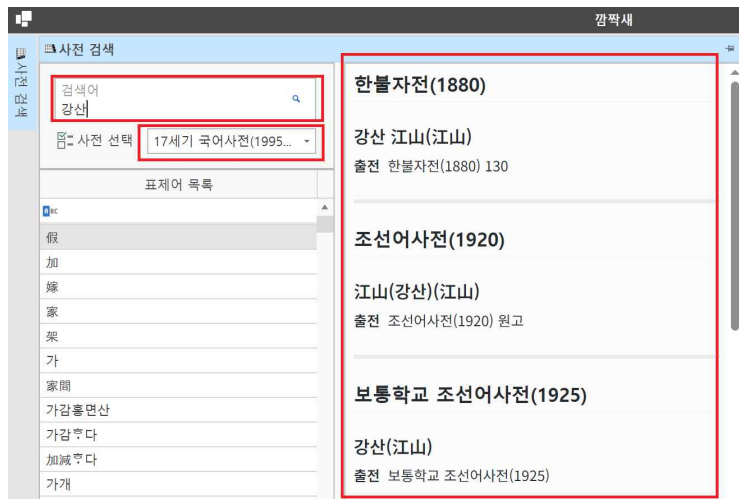
2. 사전 검색 창 우측 상단에 있는 “Dock” 버튼을 클릭하면 사전 검색 창이 화면이 자동으로 접히지 않고 열린 상태로 고정된다.

3. 검색 가능 사전 자료 목록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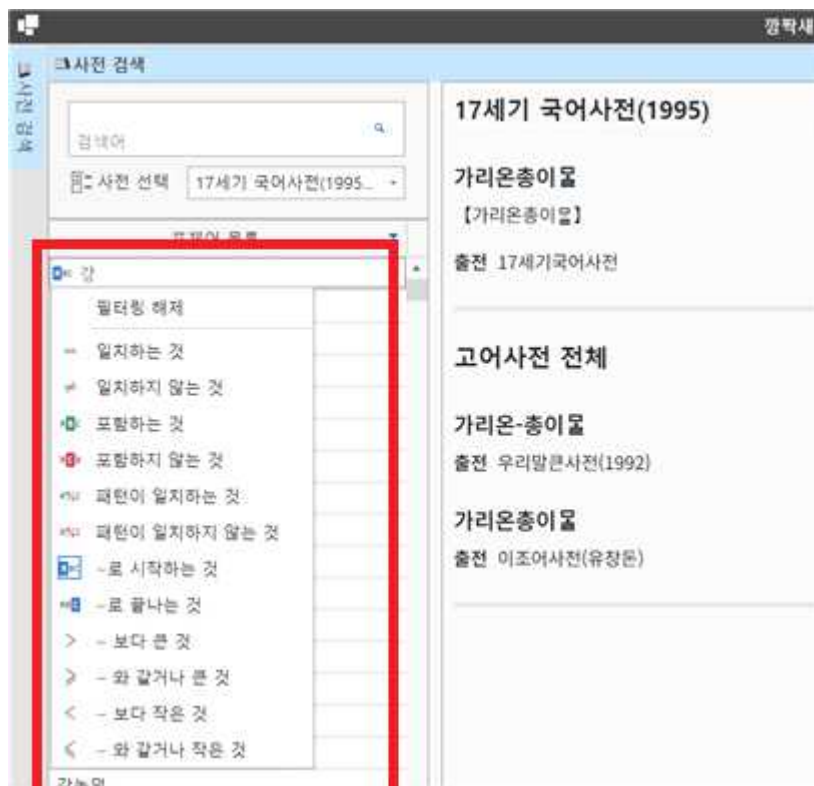
- 17세기 국어사전(1995), 각종 고어사전, 한불사전(1880), 조선어사전(1920), 보통학교 조선어사전(1925), 수정증보 조선어사전(1944), 표준조선말사전(1947), 큰사전(1957), 어원사전(1997), 6개 사전 모음, 논저DB

4. 사전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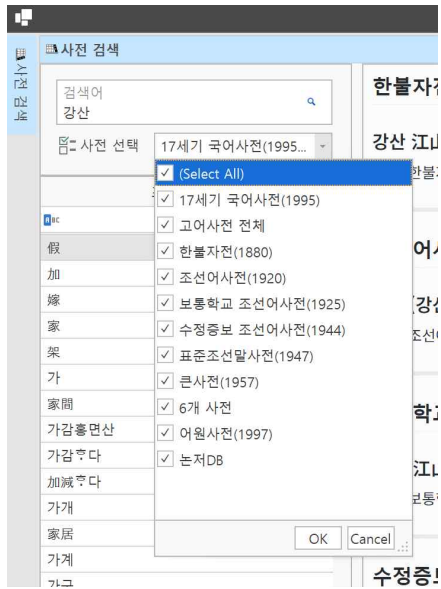
- 사전 검색 화면에서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해당 검색어가 수록된 사전이 검색되어 우측에 표시된다.



- 아래 화면과 같이 사전을 검색할 때 검색 조건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검색어가 표제어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 검색어로 시작하는 표제어, 검색어로 끝나는 표제어, 검색어가 포함된 표제어 등을 검색하여 볼 수 있다.



5. 표시 대상 사전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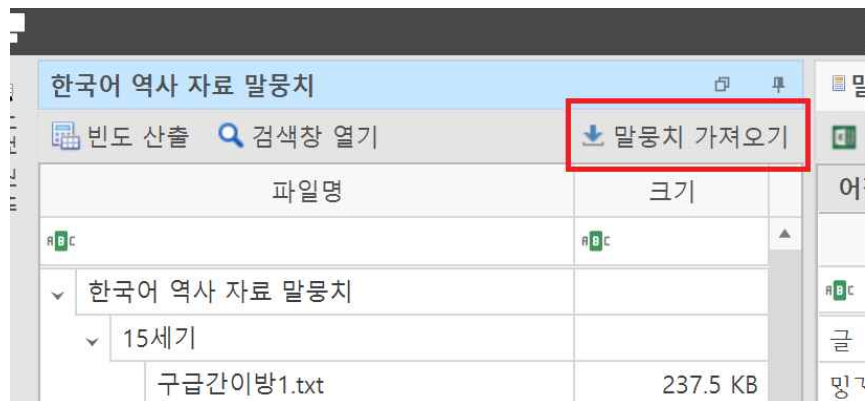


- 사전 선택 콤보 상자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사전 목록에서 체크하거나 체크 해제하여 표시 대상 사전을 선택할 수 있다.

[부록 7] 자료구축팀 - 한국어 역사 자료 말뭉치 검색기 사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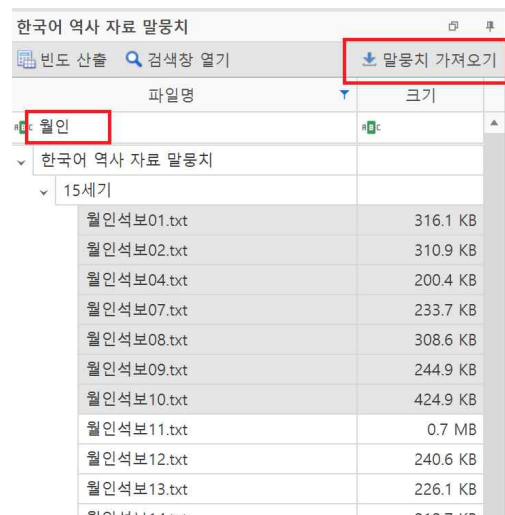
1. 말뭉치 가져오기

- 한국어 역사 자료 말뭉치는 Kohico(KOreaan HIstorical COrpus) 사이트를 통해 관리된다. 프로그램에서는 “말뭉치 가져오기”버튼을 클릭하여 Kohico에서 말뭉치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전체 자료를 다운로드하는데는 약 4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2. 대상 파일 선택

- 목록 화면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어 역사 자료 말뭉치 전체가 표시되는데 이 중에서 하나 이상의 파일을 검색 대상으로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 파일명 하단에 있는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며 해당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을 필터링되며 이 중에서 하나 이상의 파일을 검색 대상으로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3. 빈도 산출 기능

- 위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대상 파일을 선택한 후 “빈도 산출”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파일을 대상으로 어절, 음절, 자소 빈도를 산출할 수 있다.
- 빈도를 산출한 후 엑셀 아이콘을 클릭하면 빈도 산출 결과를 엑셀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어절	빈도	백분율
글	3	0.12500%
밍ᄃ론	3	0.12500%
ᄃ들	30	1.24900%
子細히	10	0.41600%
씨	3	0.12500%
後 ^ㅅ	9	0.37500%
사ᄃᄃ	22	0.91600%
말의	1	0.04200%
ᄃᄃ	10	0.41600%
거시라佛이	1	0.04200%
爲三界之尊 ^ㅅ 사부테	1	0.04200%
三界엿	1	0.04200%

4. 문자 정보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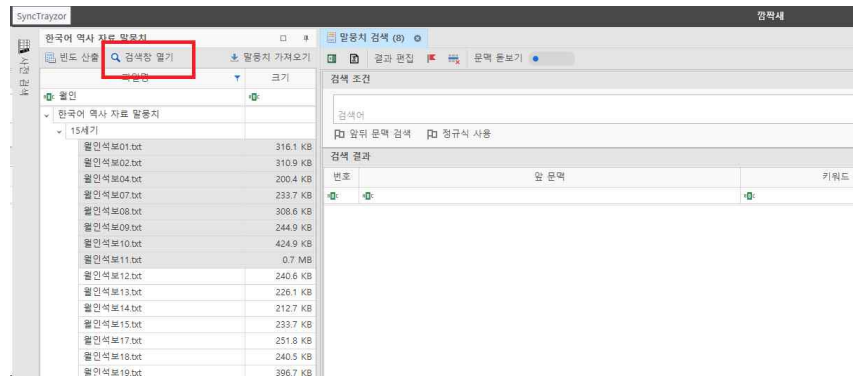
- “문자 정보” 기능이 활성화 된 경우, 음절, 자소 빈도 화면에서 각각의 문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음절	빈도	백분율
釋	203	9.88400%
誰	25	1.21700%
群	22	1.07100%
節	81	3.94400%
序	5	0.24300%
없	1,887	91.88000%
음	1,888	91.92900%
는	123	5.98900%
국	67	3.26200%
n	1,050	51.56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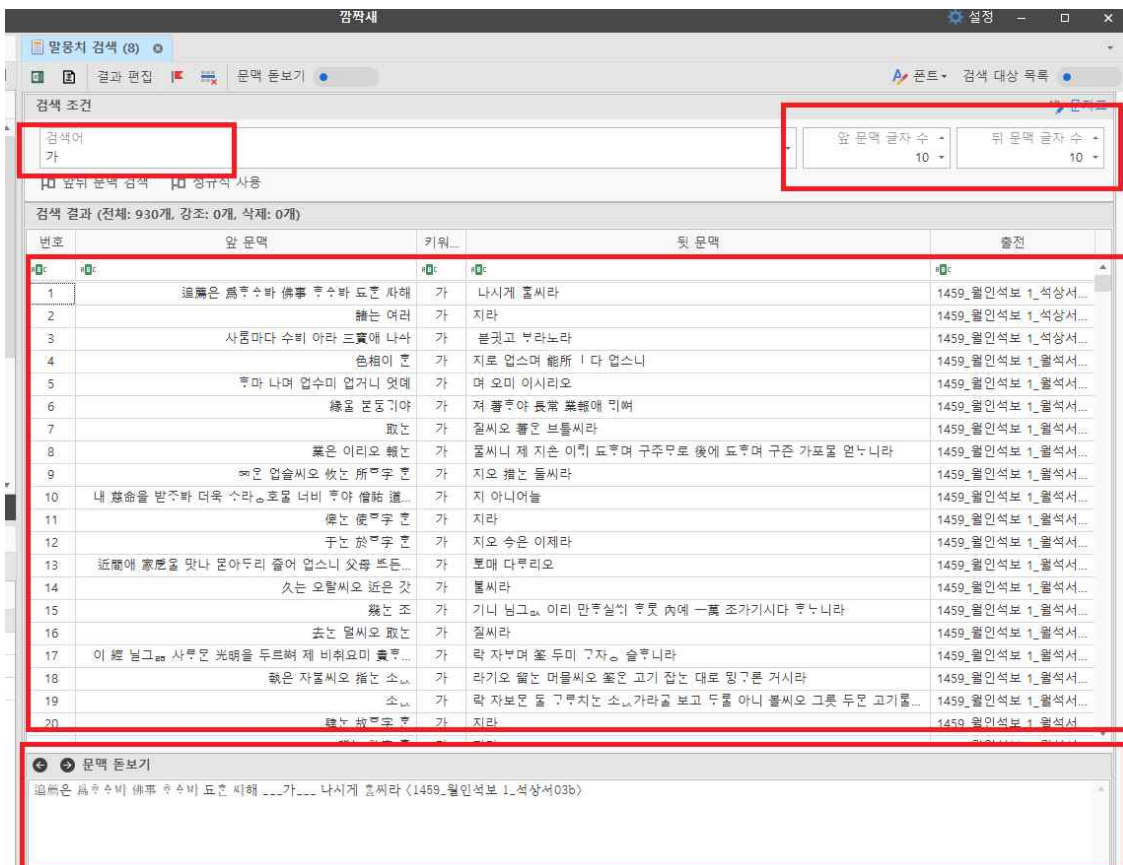
Unicode Character “序” (U+5E8F)	
Enter a search term...	
< Unicode Character “序” > (U+5E8F)	

5. 말뭉치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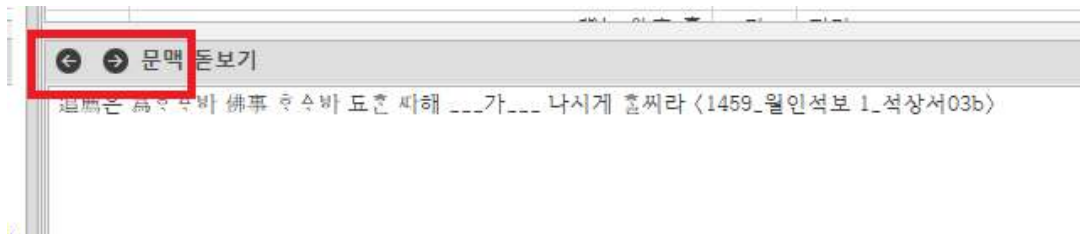
- 대상 파일을 선택한 후 “검색창 열기”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말뭉치를 대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이 열린다.
- 검색창에 있는 검색어 입력창에 검색어와 검색 조건, 좌우 문맥 너비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말뭉치를 검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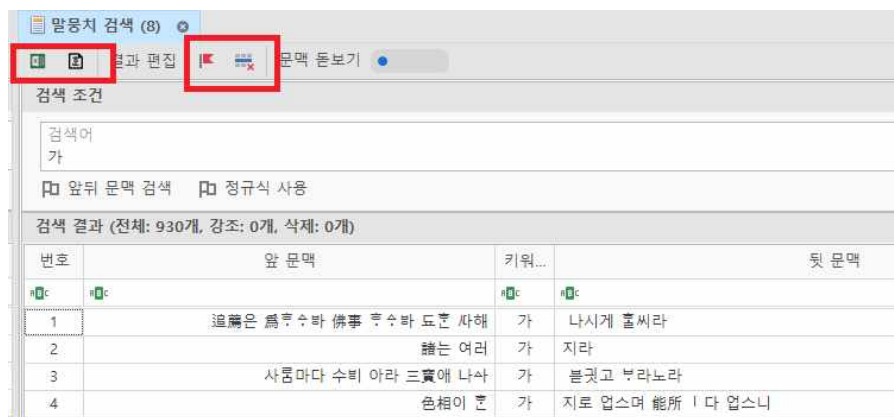
- 아래 그림은 좌,우 문맥의 너비를 10으로 설정한 후 검색어 입력창에 “가”를 입력하여 검색한 결과이다.



- 말뚱치 검색창의 도구바에 있는 “문맥 돋보기”가 활성화 되어 있는 경우 검색창 하단에 상세한 문맥을 볼 수 있도록 창이 열린다.
- 좌, 우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하면 문맥의 좌우 길이를 조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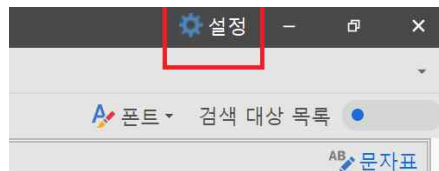


-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을 수행한 후 검색 결과를 저장할 수 있는데 “엑셀” 아이콘을 클릭하여 엑셀 파일로 저장하거나, “한글” 버튼을 클릭하여 한글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 검색 결과에서 하나의 용례를 선택한 후 도구바에 있는 “깃발”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용례의 번호가 “*”로 바뀌어 해당 용례를 식별할 수 있게 된다.
- 검색 결과에서 하나의 용례를 선택한 후 도구바에 있는 “삭제”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용례를 삭제된다. 이는 불필요한 용례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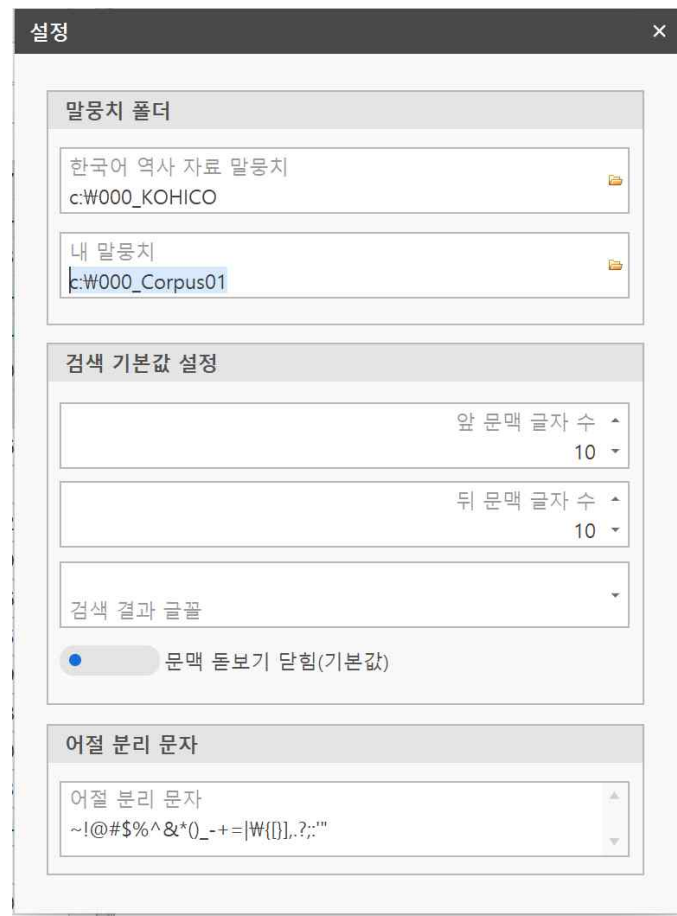


6. 프로그램 기본값 설정

- 타이틀바 우측에 있는 “설정”버튼을 클릭하면 프로그램의 기본 환경을 설정할 수 있다.



- 환경 설정 창에서는 Kohico 말뭉치와 내 말뭉치가 저장되는 폴더를 설정할 수 있다.
- 검색 기능을 활용할 때 필요한 앞, 뒤 문맥 길이,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폰트, 문맥 돋보기의 활성화 여부 등을 설정하는 기본값을 정할 수 있다.



<기획·연구>

국립국어원 이대성 학예연구관

국립국어원 남미정 학예연구사

국립국어원 안기경 연구원

<연구 참여자>

연구책임자 장경준(고려대학교)

공동연구원 황선엽, 조남호, 도원영, 김숙정, 김한별, 김현주,
정은영, 정한데로, 허인영

(보조)연구원 최준호, 신현규, 오민석, 강서현, 진윤정, 성우철, 정은진,
곽영영, 이영매, 배은혜, 김예니, 이혜영, 박시온, 정성희,
강은진, 강현주, 박성희, 김준수, 정윤희, 이찬식, 김형진,
이광숙, 신용남, 이강혁, 배진솔, 박도리, 하정훈, 이홍구,
장린, 장정민, 강선지, 오피애, 남향림, 이송월, 남유진,
최선지, 한다영, 장준희

발행인: 국립국어원장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27

인쇄일: 2023년 11월 30일

발행일: 2023년 11월 30일

인 쇄: 도서출판 안복스

※ 이 보고서는 국립국어원의 용역비로 수행한 ‘2023 국어 어원사전
편찬’ 사업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

